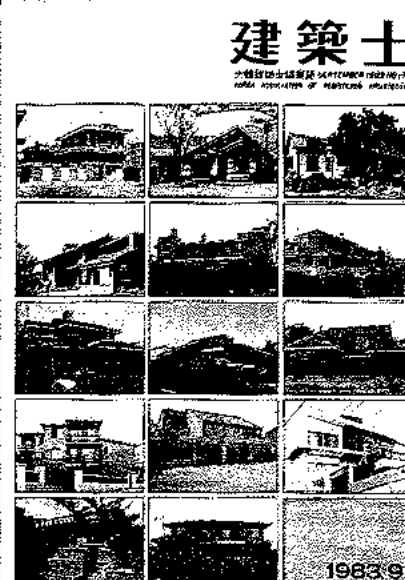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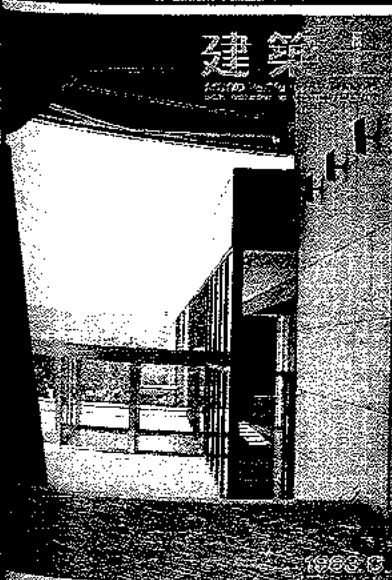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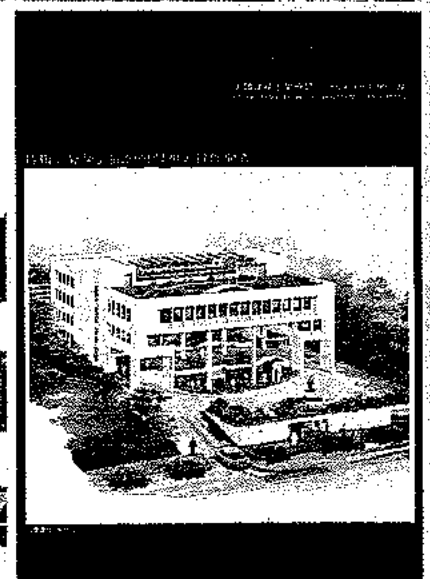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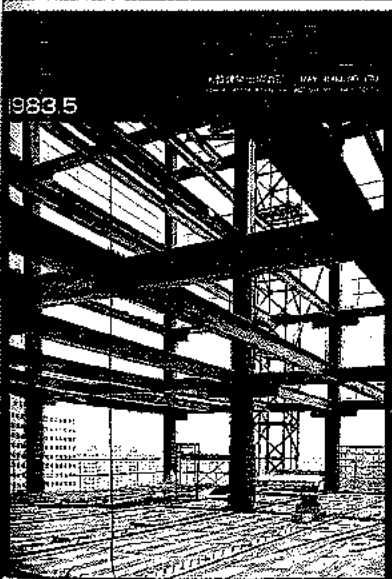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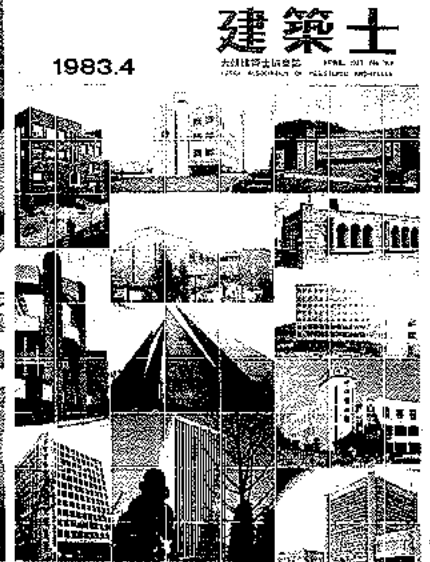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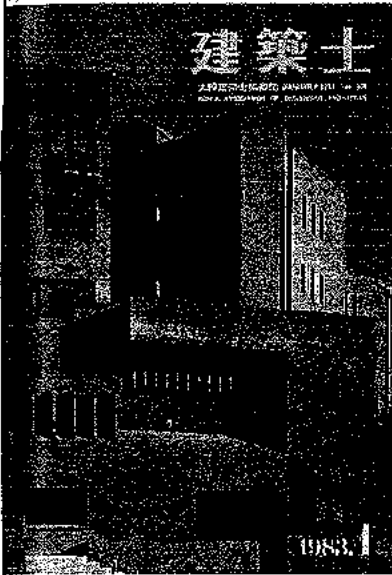


建築士

1983.12

大韓建築士協會誌 DECEMBER 1983 NO.177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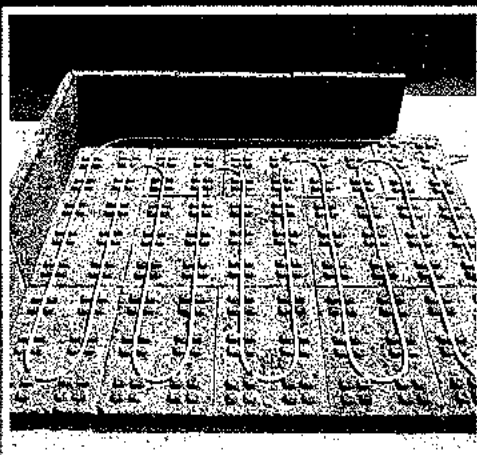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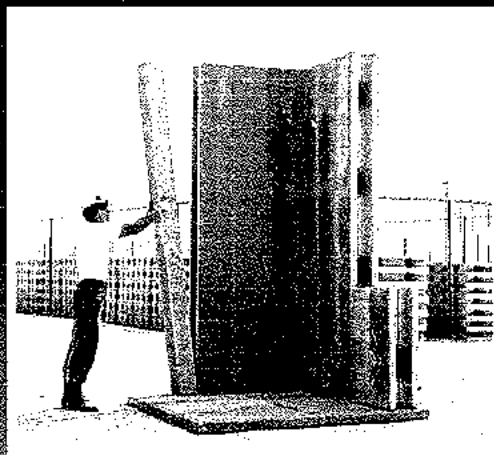


단열, 방음, 경량콘크리트
라스트라

LASTRA
CONCRETE



아직도 벽돌을 한장 한장 쌓고 계십니까?
아직도 바닥단열을 현장타설 하십니까?



라스트라는

-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 구조자재를 절약합니다
- 공기를 단축합니다
- 단열, 방음이 좋습니다
- 일체구조 공법입니다

■ 생산품목

벽체, 배관관, 단열보드, 블럭

■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딩, 학교
호텔, 여관, 병원, 작업장, 막사
기숙사, 보온냉동창고 등.



技術提攜先

POWER INDUSTRIENLAGEN
PLANUNGSGES.M.B.H.
W.R. NEUSTADT/AUSTRIA
INDUSTRIEGELÄNDE NORD

韓國 日本 東南亞總括

正裕實業株式會社

本社：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225-4
産学빌딩202号

TEL : 556-6846, 6896, 6710

工場：忠南 天原郡 聖居面 五色堂里

TFI : 002 202



月刊 建築士

DECEMBER 1983. NO. 177

U.D.C. 69 / 72 (054-2) : 0612 (519)

発行所：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江南區 瑞草洞 61-3 / 郵便番号：135 光化門郵遞局 私書函 第796番 / 電話 584-0348, 4248, 1098, 9498, 9448, 6198, 0338 發行人 兼 編輯人：金 枝 泰 / 登録番号：第21-1251 / 登録：1967. 3. 23 発行：1983. 12. 15 / 非売品 / 印刷人：申鍾泰(洸文精版社 / 712-2329)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目次

1983.12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177호
구입년월일	1983.12
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지부)	

編纂委員會

委員長	朴商浩
委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基哲
"	姜哲求
"	朴炳善
"	金琪碩

論 壇	“韓國的인 建築具現을 위한 哲學에 基本根幹을 뒤야 할 시기”	朴商浩	2
特 輯	’83년을 회고하며……		8
	“作品속에 스며드는 어떤 變化를 느끼며……”	宋政求	8
	“建築의 關心事 많았던 한 해 새로운 轉機가 되었으면……”	金熙春	9
	“人間性회복을 위한 都市設計가 우리의 할 일……”	金正澈	10
	“建築은 곧 未來를 設計하는 것”	尹承重	11
	“現實的인 보다 새로운 길 摸索할 때”	黃一仁	12
	“밝은 未來를 맞기 위해 反省하는 겸허한 자세필요”	方義在	13
	“별다른 고뇌도 갈등도 없이……”	金錫澈	14
	“生活環境의 質的向上이 要求되었던 時期……”	李珏杓	15
	“새 마음으로 새 달력을 바라보며”	俞元在	16
	都市再開發事業의 合理的인 施行方案：連載 / 完	盧椿熙	17
	會員建築設計作品		27
	●영동 백화점 (주·천일건축기술단) 姜永浩		28
	●박달빌딩 (아름건축연구소) 金琪碩		30
	●서울여자대학 정문 (주·엠&이건축연구소) 李珏杓·金仁喆·鄭德薰		32
	●오박사택 (건축설계사무소 하나그름) 朴性圭		34
	●동작동 유교수택 (삼우종합건축연구소) 閔庚辰		36
	●방배동 S씨택 (보령건축연구소) 朴喜元		38
傳統 建築	韓國建築研究의 足跡	金東賢	24
	빛의 匠人들：連載 / 完	金起煥	78
	建築의 컴퓨터應用 / 컴퓨터에 의한 透視圖作圖：連載Ⅲ	曹鐵鎬	66
	▽室內空氣汚染에 關한 調查研究	潘好銘·池成漫	39
	▽精神薄弱兒를 위한 施設의 計劃과 設計	朴勇煥	50
	인테리어 디자인의 요소(1)：連載Ⅲ	趙聖烈	46
	서울有感	閔賢植	57
	□ 협회소식		3
	□ 건축계 뉴스		64
	□ 건축행정상담		74
	□ 자료 / 目次索引(1978년~1983년)		89



“韓國的인 建築具現을 위한 哲學에 基本根幹을 뒤야 할 시기”

朴 商 浩 / 석림건축

누구나 연말이라는 문턱에 서면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

특히 올해는 建築界에 많은 행사가 있었고, 건축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일과 시련들이 겹쳐진 한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불황에서 허덕이는데 우리의 경제는 건축과 건축으로 계속 성장하여 이제 GNP가 1인당 1,700달러 선에까지 올랐으며 세계 속의 한국으로 빛을 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속의 한국은 더욱 중요한 地政學의 위치에 처해 있게 된 것이다.

〈必要가 發明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노력 해야 하고, 위험한 경제에 와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다.

바다와 강물이 닿는 곳에 고기와 조개류가 많은 것처럼 民主와 共産이 닿는 곳에 빛이 照射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초점이 오는 것이며 우리의 땅에 스포트 라이트가 돌려질 때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인지 불행인지 이렇듯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수조건에 대한 적응능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행사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계속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斷層面에서 볼 때, 이러한 시기가 우리의 의식개혁·지식발전·경제성장 등 多次的인 관점에서의 同時發展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닥칠 때는 虛와 實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제 한해의 마지막 문턱에서 반성과 분석의 자세로서 再吟味하여 본다.

지난 한해의 건축관계 중요 행사로서는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된 올림픽을 대비한 건축시설물의 각종 공모와 아시

안게임 준비를 위한 선수촌·경기장의 공모,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독립기념관의 아이디어 현상공모, 목동지구의 도시설계 공모 등이 있었으며 건축사회로서는 협회회관의 공모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일들에 대한 立志와 發意의 의식을 새로운 창조적 조형의식으로 탈바꿈하여, 자손만대에 안녕과 번영이 있도록 건전한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책임감을 의무적으로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들의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 천원군 목천면에 민족의 정신적 基柱인 독립기념관의 기틀을 박게 된 것이다.

더우기 근년에 와서는 工業化 사회에서 脫工業化社會, 즉 정보사회·전자기술의 고도화로 과거의 발전속도보다 가속도로 발전하는 현상은 곧 오늘의 나의 눈앞에, 나의 피부와 우리 사회·정치·경제에 까지 밀어 닥치고 있다. 그럼으로써 하루빨리 배워야 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낙후되고 말 것이다.

과거의 배운 생각만 가지고 혹은 그때의 경험만으로는 처리될 수 없는 많은 新技術 제제, 운영방식 등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가열된 속도로 밀어 닥치고 있다. 건축물의 고층화·복합성, 설비의 고도화, 省에너지化 건축 등이 우리의 두뇌 의식과 설계수법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한다. 이제 건축 각계의 단합과 건축인 각 세대간의 장벽을 없애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땅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후회없는 유산을 남겨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종지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상처를 남겼던 한 해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KAL機 사건·아웅산사건, 국내 건축경기와 관련된 명성사건·영동개발사건·대구 광명

사건 등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해외건설관계의 자금회전 부진 등으로 좋지 않은 소문 등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련들을 딛고 일어서 계속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년이 십년 같았던 슬한 시련들은 값진 경험, 밀도있는 산 지식의 축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우리 건축인들은 이러한 경험과 비극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각성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建築士協會發足도 성년이 다 된 18년이 지났으며, 1980년도 후반과 2,000년대를 향하여 자라나고 있는 이 몸나무에 영양분을 주어 土質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본의 아니게 일부 주거 시설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의 설계·감리 분리 실시에 따른 지역간·지방간 또는 도시간의 회원 상호간에 지역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노파심이 생기며 建築士로서의 일관된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정상화를 기대하여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심는 일에 注力해야 하며, 한국적인 것,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 건축구현을 위한 철학에 基本根幹을 두고 반성과 자각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自己力量的 배양과 부단한 신기술의 습득, 정보의 입수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쳐 새로운 세대,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建築文化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오늘 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그러한 발전을 새해에 기대해 본다. (*)

市道支部 定期總會 개최

本會 任員陣 各各 참석



□ 본협회 산하 13개 시도지부 정기총회가 지난달 18일부터 각각 개최되었다.

본협회 제18회 정기총회 이후 산하 13개 시도지부의 정기총회가 지난달 18일 경기지부부터 시작되어 지난 11월30일까지 13개지부의 총회가 막을 내렸다.

한편 각 시도지부 총회개회에 따라 金枝泰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임원진 등은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지부총회에 참석했다. 지부별 총회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부(지부장 吳雄錫)는 지난달 23일 시내 종근당사옥 대강당에서 회원 3백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와 83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부의안전처리에 들어갔다. 부의안전에서는 설계업무(보수) 정상화에 관한 것과 설계감리업무 잠정분리시행에 관한 규칙 결정건 등이 논의되었다.

이어서 임기만료된 간사 5명과 감사 1명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부산지부(지부장 黃在澤)는 지난달 25일 조선비치호텔에서 2백1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

최했다.

황재호지부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원자율정화실천결의문 채택과 金枝泰회장의 격려사 등이 있었다. 이어서 장기수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그밖에 감사보고와 주요업무 보고 및 84년도 세출예산 보고가 차례로 진행된 데 이어 부의안전으로 임원 및 대의원개선이 있었다.

11월29일 회관 5층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부(지부장 金在佑) 정기총회는 전회 회의록 승인과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안전처리에 들어갔다.

84년도 사업계획승인을 비롯 해서 임원개선 등이 있었다. 임기만료된 지부장과 간사, 그리고 감사 및 대의원에 대한 개선에서는 지부장 대리에 황용주회원을 선출했다.

지난달 28일 인천선원호텔에서 열린 인천지부(지부장 金晶洙) 정기총회는 3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개회사에 이어 관계공무원(인천 시청=윤기환)에 대한 공로패 증정과 모범직원(이승진, 이영미) 표창이 있었다. 그밖에 84년도 사업계획이 원

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임원개선에서는 신임지부장에 고창영회원을 선출한 데 이어 간사와 감사, 대의원 등을 선임했다.

한편 경기지부(지부장 林龍洙)는 1백1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부라운호텔에서 성대하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주요업무를 비롯 83년도 세입세출 현황과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안전처리로 임기만료된 임원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에서는 간사를 비롯해서 감사와 분소장 등이 각각 개선되었다.

강원지부(지부장 李國男)는 강원도 건축사회관 3층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84년도 수지예산 보고와 사업계획안, 감리단 구성 등 안전을 처리했다.

소속회원 31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그밖에 간사2명과 감사2명 그리고 대의원 1명 및 분소장 5명에 대한 임원개선이 있었다.

충북지부(지부장 吳世炯)는 남창주 로타리회관에서 11월30일 막을 올렸

다. 33명의 소속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사항에 이어 안전처리에 들어가서 협회운영에 관한 의견교환과 임원 개선이 있었다.

충남지부(지부장 柳根洸)의 총회는 11월24일 대전시 중앙관광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소속회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격려사에 이어 충남도지사의 치사가 있었으며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감사패 증정에서는 지부관내 모범 건축직공무원 5 명을 선발, 이날 감사패를 증정했다. (△충남도건설국 주택과=송원희 △대전동구건축과=이상조 △천안시도시과=정연찬 △부여군건설과=김용환 △홍성군건설과=강성구)

그밖에 주요업무 보고와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 임원개선이 있었다. 한편 동지부는 총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의료보험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지부(지부장 全炯直)는 11월30일 군산관광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과 임원개선 등이 있었다. 4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및 지부장 1 명씩이 새로 선임되었다.

전남지부(지부장 林佐植)도 지난달 24일 9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84년도 사업계획승인과 임원 및 대의원 개선 등이 있었다.

경북지부(지부장 孫在守)의 총회는 지난달 24일 안동시 문화회관에서 49 명의 소속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업무보고 및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임기만료된 임원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전임 임원에 대한 감사패수여와 협회발전에 공이 큰 김성종회원(함동건축)에게 본협회회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한편 경남지부(지부장 李鍾泰)도 지난 11월25일 마산 크리스탈호텔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을 비롯 주요업무보고와 기타사항 등을 처리했다.

그밖에 임원개선에서는 감사와 감사 각 1 명씩이 개선되었으며 일부 본소장에 대한 개선도 있었다.

제주지부(지부장 高英重)의 제18회 정기총회가 지난달18일 제주로얄호텔에서 20명의 소속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확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에서는 정확결의문 채택과 회장 격려사 및 축사에 이어 공로패와 표창패수여가 있었다.

그밖에 부의안건으로 84년도 사업계획승인과, 건축사보 및 보조원관리 규약승인, 업무보수에처에 관한 기본 규약승인, 복지회 회칙안 승인 및 임원개선이 있었다. 임원개선에서는 감사 및 감사 각각 1 명씩이 선임되었다.

定期理事会 개최 신임任員 등 첫 참석

제13회 이사회가 지난달 16일 본협회회의실에서 金枝泰회장 주재로 신임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회회의록에 대한 승인에 이어 그동안의 주요업무보고와 6 개의 부의안건 등이 차례로 논의되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건설부 국·과장초청간담회 개최내용을 비롯해서 회장단의 건설부장관예방, 18회 정기총회개최결과, 사무실 이전 및 서울지부 강북별관설치, 국회예방과 국회건설분과위원회 간담회에서의 협회업무보고내용 등을 보고했다.

이어서 부의안건 처리에 들어가서 먼저 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보선이 있었다.

전임임원의 임기만료로 신임 위원장을 맡게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편찬위원회를 비롯 건축연구위원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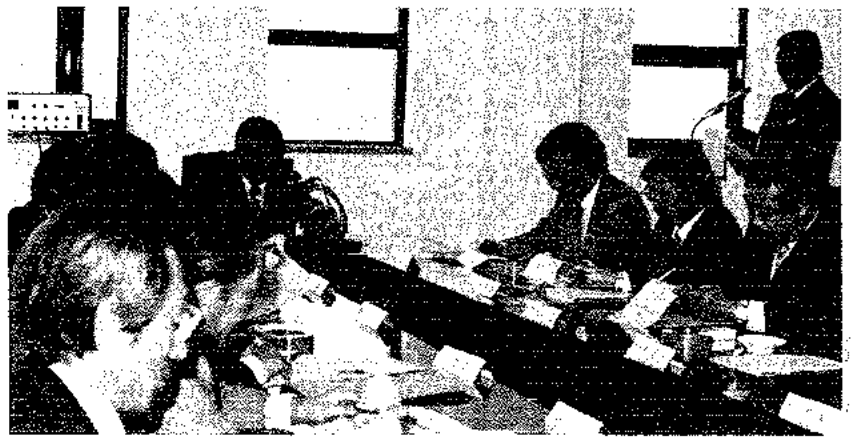
산하시공재료연구분과, 설계도서연구분과, 건축물에너지연구분과 등이다. (신임위원장 명단 참조)

그밖에 의안으로는 직원승진 및 승급전을 비롯해서 예비비사용과 목간 전용승인, 본부지도사업비 예산 사용승인건 등이 차례로 처리되었으며 이어서 건축분야부조리 척결에 따른 공로회원 표창대상자 선정이 논의되었다. 표창대상자선정에서는 각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대상자의 공적내용을 검토, 재작성해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표창을 상신키로 했다.

한편 제14회 이사회가 지난9일 열렸다. 금년도 마지막 이사회가 될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11개의 의안이 상정처리 되었다.

주요의안으로는 지부임원(지부장, 감사, 감사, 분소장) 취임 승인과 각 위원회 및 정화중앙협의회, 회관전립위원회 위원개신, 그리고 신축회관 공사발주에 따른 제반사항 등이 의결되었다.

또 그동안 법분과위원회가 마련하고 건설부관계관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건축사법(령, 시행규칙) 중 개



정안을 상정해서 설명을 겸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 법안은 오는 84년 3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부별 정기총회개최내용과 신축회관 건축허가, 건축조례집발간배포내용 등이 차례로 보고되었다.

《신임 위원장 명단》

- 편 찬 위 원 회 / 이영희이사
- 건축연구위원회 / 유영철이사
- 시공재료연구분과 / 김형인이사
- 설계도서연구분과 / 한종언이사
- 건축물에너지연구분과 / 성훈섭이사

淨化관련 書翰 발송

부정외래품근절 등 촉구

본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의식 개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생활주변 정화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소속회원 모두에게 전달했다.

지난 초순 金枝泰회장은 최근 일부 층이 선호하고 있는 부정외래품 구매

행위를 막아 국민경제 기틀을 다지는 내용과 이를 지도층에 있는 회원들이 솔선해서 일반국민들에게 계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벌이는 건축계부조리척결에도 자진해서 참여하여 건전한 건축풍토조성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본협회는 부정외래품 근절로 국민경제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포어 및 포스터를 산하 시도지부에 전달하고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널리 홍보토록 했다.

前任 任員에 공로패 新旧임원 간담회도



□ 金枝泰회장은 前任임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지난 18회정기총회에서 임기만료된 전임 임원에 대한 공로패전달식이 지난달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金枝泰회장을 비롯, 신구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신구 임원 간담회를 겸한 이날 공로패전달식에서는 재임기간중 협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로패와 기념품이 朴商浩, 金一榮, 宋鶴祚, 金漢根 등 전임이사와 李康植 전임감사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전달식에 이어 신구임원 간담회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주로 재임기간 중 느낀 전임임원들의 회고담과 신임임원으로서의 의견 등이 개진되

었다.

송학조전임이사는 그동안 업무수행에 협조해 준 협회관계자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협회 발전을 위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박상호전임이사는 편찬관계 업무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축정보가 범람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수용태세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한근전임이사는 협회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다고 강조하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계속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또 김일영전임이사는 그동안 협회분위기가 쇠

신된것 같다고 진단하고 유능한 임원이 구성되서 협회발전이 지속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식전임감사도 계속 협회발전에 기여할것을 약속하고 특히 감사채직으로 지부 실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유임된 成勲燮이사는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협조기회가 부족했으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화목 단결된 분위기였으며 시간이 갈 수록 협회운영이 잘될것이라고 내다 봤다.

한편 신임위원을 대표해서 韓鍾彦이사는 신임임원으로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하고 전임임원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했다.

會館建立 소위원회 工事발주 · 일정 확정

제 7 회 회관건립 소위원회가 지난 7 일 金枝泰회장 주재로 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관신축공사 발주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공사 감리감독자선정, 건축자재지원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먼저 공사발주는 11회 이사회결의에 따라 도급순위 20위 이내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를 입찰대상업체로 하고 시공업체로 선정될 경우 적정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발주일정은 입찰지명통보(12. 10일) 입찰참가등록마감(12. 17일) 입찰(12. 19일) 계약(12. 20일) 기공(12. 22일) 순으로 진행되며 준공예정일은 오는 84년 7 월말이다.

① 정화결의 대회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 및 건축업무 풍토 쇄신을 위한 건축사 자율 정화결의대회를 지난 7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본회 주최로 개최, 회원 850여명이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지부별 자율정화결의 대회 및 복귀만행규탄 대회 등에 연인원 4,6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47회를 개최하였다.

定期總會 및 自律淨化決意大會 大韓建築士協會



② 거리질서 캠페인

거리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솔선키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제도와 휴지줍기 등을 지난 9월중 범 국민운동 선도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7회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51회 565명이 참석했다.



83년도 淨化관련 사업실적

다음은 본협회가 금년 한해동안에 실시한 정화관련사업을 집계한 실적내용이다. 본협회 본부뿐 비롯 13개 산하 시도 지부별로 실시해온 각종 정화관련사업은 오는 84년도에도 주요사업으로 계속 추진된다.

- ① 정화결의대회 / 47회 - 연 4,610명 참가
- ② 거리질서제도 / 51회 - 연 964명 참가
- ③ 자연보호운동 / 17회 - 연 565명 참가
- ④ 농촌일손돕기 / 4회 - 연 231명 참가 (6,257평)
- ⑤ 불우이웃돕기 / 성금 4,778,000원 · 서적 62권 초청견학 32명
- ⑥ 간담회 / 26회 - 연 551명 참석
- ⑦ 회원작품전시회 / 6개도시 순회 전시
- ⑧ 회원교육 / 8회 - 연 1,889명 참석
- ⑨ 건축상담 / 시도지부별 상담실 운영
- ⑩ 기타 / 정화관련 회장공한 발송 2회



③ 자연보호운동

오염된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고 행락질서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식 개혁에 솔선키 위한 사업으로 오물 제거 및 등산로 표식판정비 등에 연 인원 565명이 17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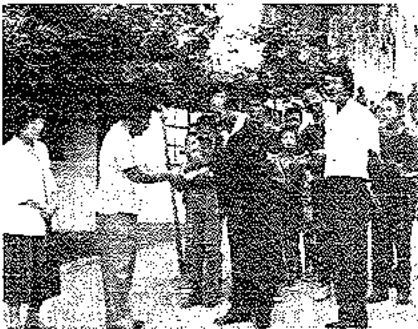
④ 농촌일손돕기

직장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한 모내기와 벼베기 지원 활동에 연 인원 230여명이 참석하여 6,000여평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⑤ 불우이웃돕기 운동

직장 새마을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일선장병 위문품 전달과 불우이웃에 대한 성금, 자매마을에 대한 도서기증 및 자매결연과 초청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남지부(지부장 임재식)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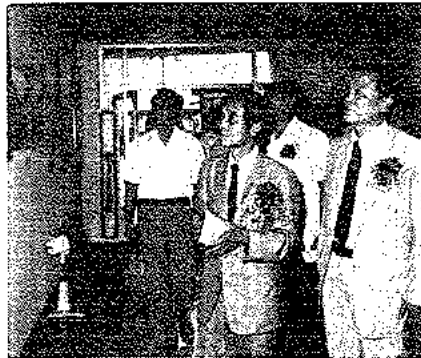
⑥ 간담회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과 건축업무 풍토쇄신 및 회원 권익옹호를 위하여 회원과 건축행정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와 의식개혁을 위한 자율정화 간담회 개최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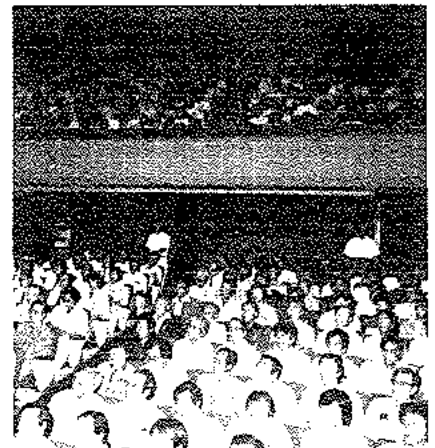
⑦ 회원작품 순회 전시회

83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가 지난 8월8일부터 54일간 전국 6개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에서 차례로 개최되었다. 건축에 대한 일반의 인식제고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도모를 위해 열린 순회전시회에는 모두 64점의 회원작품이 출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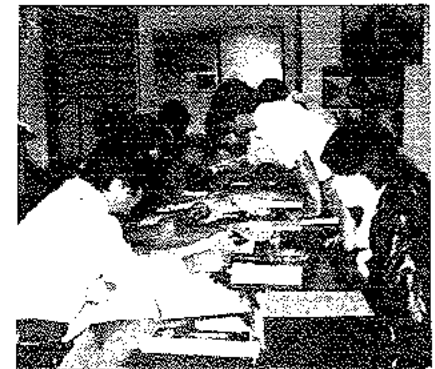
⑧ 회원교육 실시

회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업무 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모두 8회에 걸쳐 총 1,889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특히 지난 4월25일부터 10월 6일까지 2박3일간 건설교육원에 입소, 보수교육이 실시되었다.



⑨ 건축행정인원 상담실 운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협회 대외 홍보활동에 기여하고 있음.



83년을 회고하며...

“作品 속에
스며있는
어떤
變化를 느끼며...”



宋 旼 求 / 송민구건축연구소

탓할 일은 아니나 큰 기업체에는 대개 방제회사로서 건설회사와 더불어 건축설계업무의 엔지니어링을 창설하여 경영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수년내 갑자기 증가하였다.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 편대로 역사불 지닌 건설회사가 기업의 확장으로 인하여 엔지니어링을 병설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기업의 주종과는 동떨어진 경우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아도 “미쓰비시”나 “히다찌”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주종을 이루는 영업종목에서 파생된 연관있는 영업종목의 자회사는 많이 창설하였으나 건설회사를 함께 경영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는 알 길이 없으나 우리들 건축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Project를 완성시키는데는 그리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나 큰 조직체를 앞세우면 우리들 건축사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

물론 현대는 한사람의 천재의 작품을 요구하지를 않고 ‘군(群)’ 속에서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나를 요구하는 생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구미 각국의 대학교육 방향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큰 조직체만이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특기하여야 할 일은 예년에 없는 큰 Project의 현상설계가 많이 공모되었다. 왜 현상설계를 공모하여야 하는가의 취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으나 그 취지와는 달리 공모에 따르는 뒷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전해진다.

그러한 속에서도 지난 1년간의 회원들의 작품을 살펴 보면 확실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조류에 예민한 우리들 건축사도 재빨리 적응하여 소위 후기 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색이 트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작품들을 금년 1년 동안에는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유념하여야 할 것은 젠크스(Jencks)가 강조하듯이 합리주의를 받아 들이면서도 그 지역의 방언(方言, Vernacular)에 차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분석철학적 미학(分析哲學的 美學)에서 또는 건축기호론(建築記號論, Semiotics of Architecture)에서 건축이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필연적인 길은 우선은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논리전개는 지면관계상 또 논리의 난해함으로써 약하겠으나 단적으로 표현하

여 전통의 제승을 뜻하는 것이다.

전통의 제승이라고 하여 곧 우리의 고건축을 그대로 읊기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타임지(Time誌)에 소개된 것에 의하면 아이·엠·페이(I. M. Pei)가 40년만에 중국으로 되돌아가 북경(北京) 근교에 호텔을 하나 건축하였다.

그의 낙인은 작품과는 180도 다른 그야말로 Vernacular에 찬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

소위 기능주의를 옹호하고 나섰던 그가 왜 그러한 일종의 절충주의 건축을 고국으로 돌아가 남겨야만 하였던가 우리 역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또 얼마 전에 유명한 칸디리스(Candilis)가 도시계획학회의 초청으로 내한하였을 때의 뒷이야기도 우리들 건축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는 서울의 거리에 실망하고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려고 하지않았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옛것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고대사상, 조형의 의미는 실로 무궁무진하며, 또 그 미의 수사론적(修辭論的, Rhetorical) 조작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이 보고(寶庫)를 우리들은 왜 외면하여야만 하는가.

지나간 1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옥같은 좋은 작품들을 우리들 건축사들은 남겼다. 그러나 진일보하여 더욱 깊이 있는 작품 창작에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 줄 것을 83년을 보내며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회지가 모든 면에서 좋아짐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협회가 더욱 발전함을 기원하고, 회원들의 건투를 빈다. <*>

“建築的 関心事 많았던 한 해 새로운 転機가 되었으면...”



金 熙 春 / 주·김희춘건축연구소
서울대 명예교수

1983년도는 정말 多事多難한 해였다. 國際的으로도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國內的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큼직한 사건인 KAL機 사건, 버마 랑군事件 등이 발생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더우기 金融界의 不條理와 企業의 不正한 運營으로 인하여 야기된 여러 차례의 金融事故들은 不安不信의 風潮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다행히 美國 레이건大統領의 訪韓으로 安保의 불안감만은 다소 解消된 것 같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安定시키고 기쁨을 蘇生시켜 서로 和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快適한 環境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環境創造者로서의 建築士의 역할이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가을에는 ASTA總會와 IPU

總會가 열려 世界 여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이들은 우리 自然의 아름다움과 좋은 人心을 칭찬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文化程度를 가름하는 都市環境과 建築環境도 그들의 記憶 속에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 경기를 위한 大行事에 建築的 행사도 미리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과 그것을 담는 그릇, 즉 우리 建築의 眞價를 보여주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본다. 이때에 對備하여 建築行政機構를 拡張・整備하고 유능한 建築人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은 스스로 資質을 향상시키고 協會 등을 통한 紐帶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금년도 建築活動 몇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몇건의 懸賞設計公募가 있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올림픽競技를 위한 3件
獨立紀念館
乙支路再開發地區 등이다.

過去와 달라진 점은 1. 2차 段階로 구분하여 募集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겠다. 특히 獨立紀念館懸賞設計公募에는 이 建築의 特殊性에 비추어 韓國의 傳統性表現을 요구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 상당한 歧異를 겪어야 했다. 이 모든 審査에서 滿場一致에 의한 當選작이 없었다는 것은 傑作品의 出現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서울에는 여러개의 대규모 事務所 建築이 建立되고 있다.

汝矣島의 大韓生命 63빌딩, 럭키빌딩, 漢江路의 國際빌딩, 南大門 부근의 商工会議所, 東邦빌딩, 中央日報社, 太平路의 프레스 센터, 秘苑 열

의 現代建設빌딩(完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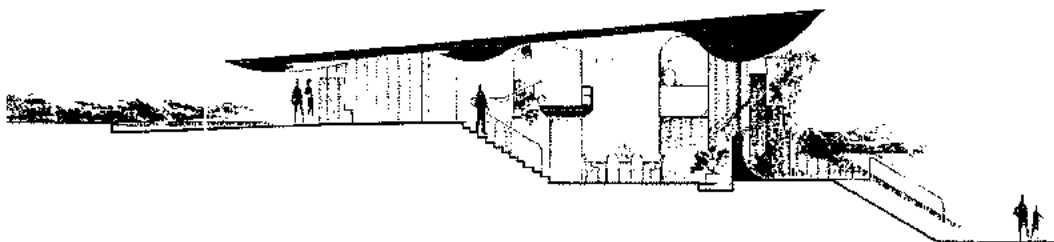
이 빌딩들은 각기 特性을 가지고 있어 그 위치한 周辺環境과 잘 조화되어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期待하게 한다. 특히 大韓生命 63층 규모의 빌딩은 東洋最高의 建物로서 汝矣島의 Land Mark가 됨은 물론 國力の 伸張과 경제적 發展相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이 建物에는 여러가지 文化, 教育, 流通施設이 마련되고 重要部門이 컴퓨터로 操作될 것이며 앞으로 서울의 새로운 名所로 登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工事に 導入된 새로운 施工裝備들은 앞으로 國內外的으로 활용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들 建築中 대부분이 外國人의 손에 의하여 基本設計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 大企業主들은 建築의 優劣이 自己企業의 優劣이라고 생각하고 競爭의으로 外國人에게 建築設計를 의뢰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또한 이 機會에 우리들의 外國人 建築士들의 建築主에 대한 서비스 態度도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들은 建築士의 입장에서 보다 建築主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점들이 建築主의 好感을 사는 動機가 된다고 본다.

●建築大展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작년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一般公募作品과 招待作品의 出品數가 모두 많았다. 이것은 우리 建築人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과 과거의 國展에 비하여 建築展覽會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데에 起因한다. 이 점 역시 建築의 發展에 좋은 契機가 될 것으로 보아 다행한 일이다.

이상 금년도의 建築界를 회고하면서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部門과 같이 우리의 建築界도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人間性 회복을 위한 都市設計가 우리의 할 일...”



金正澈 / 주·정림건축

多事多難했던 癸亥年도 저물어 가고 있다. 癸亥年의 夕陽에 서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며, 닥아오는 84년은 못다했던 일들을 성취하는 해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올해는 소련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KAL機 추락사고, 버마의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사건 등, 우리를 분격과 전율을 속으로 몰아 넣은 일들이 많았으며, 국내외적으로 도의와 양식을 벗어난 대형 금융사고 등이 행행하여 우리들을 경악케 한 한해였다.

사회 각계와 각종에서 스스로의 분수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런 시기에 우리 建築界는 어떠 하였는지? 사회불안과 경제침체의 늪속에서 고군분투했으나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한해였다고自省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活動은 어떠했나?

본래 建築士란 知的인 陶冶를 토대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 사회적 요구를 분석·종합하여 해답을 내리는 능력을 가진 專門家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회원들은 일신상의 이익이나 이기적 판단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에 가치관을 둔 활동이 기본을 이루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先導的이라기 보다는 被動的의 위

치에 있으며 事件을 따라 다니는 소방서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建築活動에 있어서도 空間이나 造形性은 고사하고 설계내용의 不実함이 속출하여 시공상·기술상의 문제점들마저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로 인하여 멀지 않는 장래에 슬럼化나 재개발을 요하게 하는 요인들이 예측되며 社會投資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를 自招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의 專門性에 대한 신뢰나 사회적 위치 운운은 語不成說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위법 건축물과 부조리 문제로 건축주·시공사·감독관청 그리고 건축사가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公明正大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創作活動을 할 酬價는 커녕 圖書作成料 조차도 제대로 못받아 設計費 현실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설계자가 감리라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하는 建築의 의도를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건축주의 횡포와 사회현상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설계와 감리를 회원 상호간 분리담당하는 방법 등으로 우리의 허약성을 커버하려 해서는 되겠는가?

현행 許可制度는 다른 先進國과 같이 확인제도로 전환하여 우리의 향상된 力量으로 창작에 관계된 분야는 建築士들이 행하고 法的인 문제나 행정관리 문제만 官이 확인·지원해서 보다 민주적 발전이 도모된 나라를 하루 속히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의 精進이 要求되는 때

20세기 말미의 우리 建築士의 목표는 先進文化諸國이 이룩해 놓은 현대적이며 인간성이 살아 있는 조화된 都市의 設計이다. 또한 행복한 삶과 활동이 확보된 공간을 창조해야 하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創造者로서 역할해야 하고 存立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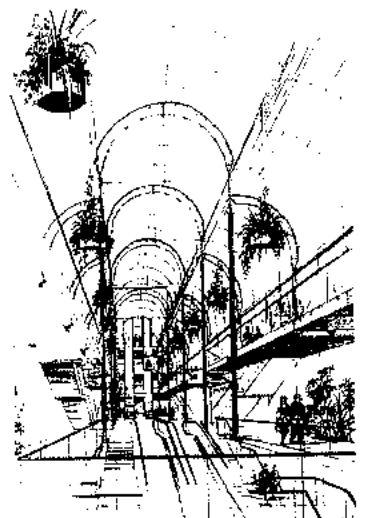
우리는 30년간의 國展이라는 官展體制를 벗어나 우리 建築界가 주관하는 제2회와 建築大展을 성황리에 마쳤다. 해마다 그 호응도가 증가되고 그 내용과 수준이 향상되어감을 볼 때 建築界의 장래가 밝아 옴을 볼 수

있으며, 이 大展을 통하여 일반사회와 關心도를 漸進시켜 건축과 사회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금년에는 大展 이외에도 다양한 公的인 일들이 시행되었던 한해였다. 울지로 입구의 대단위 재개발사업, 아시안 선수촌, 88올림픽 공원, 목동 신시가지개발 기본계획 등 끊임없이 현상설계 공모가 있었으며, 그 중 몇 事業은 여건이 미비하긴 하나 外國人의 참여가 허용된 국제현상설계였다. 따라서 내용의 평가에 앞서 외국인과 대등하게 경합할만한 시점에 우리의 建築界가 와 있다는 문제는 심각하기도 하면서도 그만큼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올림픽과 국제대회 등에 대비하여 文化施設의 不在에 따른 建築施設로서 현대미술관, 문화예술전당의 건립 계획 등을 들 수 있으며 독립기념관의 건립의지는 건축계 뿐만 아니라 온 겨레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念願의 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시설과 都市的인 大事業들이 우리들의 기량과 역할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力作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살찌게 하여 훌륭한 도시와 환경을 이뤄 아름다운 조국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知的 함양과 價値體系의 확립으로 建築界에 또하나의 새로운 章이 열리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建築은 곧 未來를 設計하는 것”



尹 承 重 / 원도시건축연구소

일천 구백 팔십삼년이 지나가려 한다.

물리적으로는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이 새삼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천체운행의 원리에 따라서 공전의 궤 위치로 되돌아 왔다는 것은 일년 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되돌아 왔기 때문에 새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없겠는데도 사람들은 동서고금없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지난 일을 반성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뜻을 생각해 보고 결의를 다시 해보는 것이다.

자기행위를 반성하고 이로부터 깨달으며 스스로 발전해 가는 것이 인간 특유의 본성이므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결심해 보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인듯 하다.

일천구백팔십삼년은 참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다. 마치 충격의 아픔을 새로운 충격으로 치유하는 속크 요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오늘의 세계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실감나게 하며, 새해를 맞으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결의를 해볼 것인지 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

앞으로 닥쳐올 시간들, 즉 우리의 미래는 세가지 영역이 있다고 한다.

첫번째 영역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확실한 미래’, 즉 금년에 태어난 아기는 5년 후에 5살이 되어 있을 것이라든지,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 같은 것들이 이 영역에 속하는 미래이다.

다음은 이제까지의 경험의 통계나 확률분포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 예컨대 우리나라의 인구가 5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배구팀이 중공팀을 이길 확률이 5대4 정도라는 것 등,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한다.

세번째로 예측이라든가 확률적 분포가 도무지가 무의미한, 그래서 ‘순수하게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 아무도 미리 예상하거나 바라지도 않던 KAL 기 사건, 아웅산 사건 등 돌발적인 비극이나, 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등 큰 불행을 겪는 것 등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전혀 미리 짐작할 수 없는 순수하게 ‘불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이다.

실제 우리사회에는 이런 돌발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불확실한 미래 영역이야말로 인간이 선택이 가능한 미래, 조작이 가능한 미래라고 보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고 생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해 진다.

즉 미래는 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와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좋게도, 나쁘게도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건축가는 직업상 누구보다도 미래에 관심을 가지며, 미래를 위하여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건축가의 구상은 어떤 경우 수년 동안 걸려서 구체적인 건축으로 실현되며,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미지의 사람들에게 삶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긴 미래를 통하여 수많은 이용자에게 가치있는 생활의 장소가 되며, 도시의 부분이 되어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강요당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금세기 초 몇몇 거장들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의 이상에 맞는 기능주의적 건축과 이상도시의 꿈을 제시하고 참으로 신념을 가지고 모더니즘 건축운동을 전개했다.

명쾌한 거장들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건축은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급격히 팽창하는 인구와 과학기술의 발달생산과 소비체제의 변화 등 모든 것들이 대청화·대량화되고 가속화 되는 전혀 새로운 생활과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었지만, 이들 이상주의자들의 확신은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려낸 유토피아는 도래하지 않았고 더 건전하고 더 인간적인 사회로 되지 않았으며, 다시 새로운 상황들에 의해서 도전받게 된 것이다.

오히려 건축가의 생각이 이상론에서 현실론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건축가 스스로가 건축능력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이 건축환경의 개선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주택 환경이 개선되어도 서민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들로 건축이 사회·경제·문화·전반의 문제들과 분리될 수 없으며, 총체적인 예술 내지는 인간생활의 문제로 이해하려는 태도로 변화하였다.

오늘의 건축은, 오늘의 사회가 그렇듯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쾌함 보다는 오히려 모호한 채로, 순수함 보다는 복합적이고 표용적인 쪽으로 건축가들은 신념을 보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래를 향한 자신들의 사고를 확신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불확실한 미래’를 인간의 지혜와 의욕과 노력으로 바람직한 미래로 꾸며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건축가들의 작업을 통하여 도시의 부분들을 이야기와 뜻이 있는 장소들로 채워 넣으며, 이미 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보존하고, 더 먼 미래를 위하여 자연환경, 자원과 에너지들을 아껴두는 지혜와 노력은 꾸준히 계속할만한 가치있는 일이며 미래의 생활환경에 ‘더하기’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 본다.〈*〉

“現實的인
보다 새로운 길
摸索할 때”



黄 一 仁 /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국가적으로는 거의 전란이라 할만한 큰 불행이 두 차례나 겪었고 사회·경제를 뒤흔들어 놓은 대형 부조리 금융 사고들로 온 국민이 실망과 좌절의 안타까움을 느껴야 했던 시련의 해였다.

이러한 혼돈 가운데서도 건축계가 적어도 <외형>으로는 꾸준히 활기를 찾아가는 여러 징조들을 보여 왔다.

우선 통계상의 수치로 보면 작년 부터 증가되기 시작한 건축허가 면적이 금년들어 현격히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이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진 건축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건축대전 공모부를 보면 국전 시절 응모작품 수가 기껏 이십여점이던 것이 82년도에는 45점, 금년에는 무려 83점이나 되는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이 두번째로 생각되는 건축계의 양적 팽창이다.

한편으로,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올림픽관계 설계 경기를 비롯하여 신시가지 개발·국립중앙도서관·도시재개발관계·독립기념관 등의 대형 설계경기가 잇따라 행하여짐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기도 한 반면 건축계를 활기있고 다채롭게 만든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계에는 설계담당 건축사와 감리담당 건축사를 분리하도록 하는 행정지시를 받아들여야 할 만큼 아직도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겠다.

비록 일부 건축물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국가자격에 의하여 주어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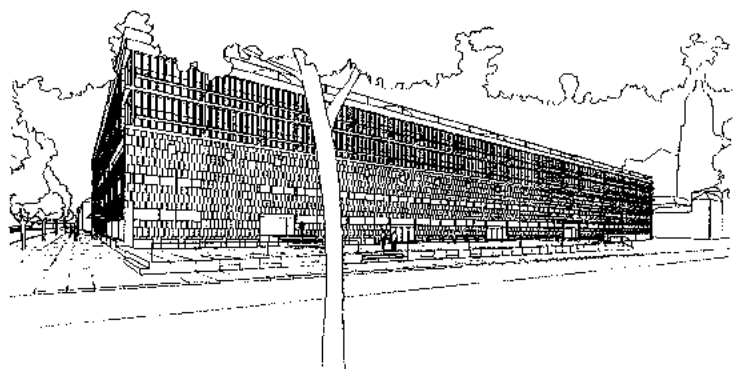
축사의 직능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가 뚜렷한 법적 뒷받침 없이 행하여진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어떤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관된 창작행위인 도면제작에서 현장보완까지를 분리해도 좋으나 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 하겠다.

이 조치의 주된 목적은 주택 등 소형 건축물들에 대한 허가사항의 위반행위를 막는데 있는 것 같다. 설계변경에 의하지 않은 약간의 면적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를 단속하는 것이 소관 당국의 큰 골치거리로 되어 왔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건축물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있는 것이고 건축관계의 모든 법이나 행정규제도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주택의 경우 결국 건축주는 선택한 설계자에게 집이 완성될 때까지 의논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자기의 위법을 감시하는 선택할 수 없는 감리자에게 적지않은 사례(?)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 조치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리라고 별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길이 자동차 통행을 막는데 있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사는 것이 방법이 아닌 이상 심각한 우리의 주거문제를 좀 더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길을 다같이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밝은 未来를
맞기 위해
反省하는
겸허한 자세 필요”



方 義 在 / 주·우일건축연구소

십수년 전, 사회에 첫 발을 디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 하루 해가 짧게만 느껴지던 어느 겨울, 만학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의 졸업식에 참석하였던 일이 생각난다. 이미 사회의 일원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부풀어 졸업식에 참석하였던 터라 단순히 친구의 늦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은 일념 뿐이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교훈이란 다름 아닌 졸업생들에게 격려사를 해 주시던 어느 원로 목사님의 정성어린 말씀이었다.

기억을 되살려 격려사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어려 젊은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면 사회인의 한 사람이 되며, 특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자가 될 것이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문명으로 오염된 가치관과 오랜 동안 쌓여 온 인습과 폐단으로 수 많은 좌절을 경험할 것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강렬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金慾과 女色이요, 물질과 정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평생을 그릇치는 사람은 만인의 목자가 될 수 없으니 부디 자신의 앞길을 위하여 노력

하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참된 지성과 정열이 온 누리에 빛이 되어 이 나라와 사회를 밝혀주길 하나님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날은 신학대학의 졸업식이었으며, 나의 친구도 목사가 되어 십수년 동안 벽촌의 보잘것 없는 교회당을 지켜 오다가 지금은 어느 지방 소도시의 번두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자신의 정열과 지성을 전도에 바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문명이나 정신문화 세제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다. 특히 그날 졸업식장의 격려사에서 들었던 두가지 사함을 일상 생활에서 배어버리고 살 수는 더욱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들 생활이 다변화하고 정신문화의 추구 보다는 물질의 축적만을 능사로 알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가의 개인 탓만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나 인류의 목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대중을 의식하고 자신의 밝은 마음을 향해 검은 눈가리개를 씌우는 행동과 생활은 하지말아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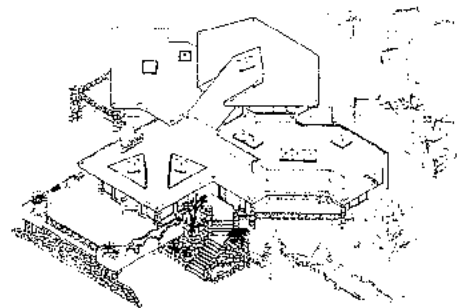
얼마 전, 건축사협회로부터 설계로서 검토위원으로 하루 위촉되어 출장 근무를 한 적이 있다. 마침 본인이 근무한 날에는 검토도서가 많지 않아 힘들지는 않았으나 근무하는 동안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으며 아직까지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우선 생각되는 것은 “왜 우리 建築士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율정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정화되어야 할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우리 건축사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自責이었다. 더군다나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建築設計는 창작행위이므로, 그러한 자부심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의 창작행위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심란함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목사님의 격려사를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나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황금에 얽매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창작의 연필 끝은 무뎌지고 명석한 두뇌는 녹이 슬어 회전의 마비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를 바라 보아야 할 두 눈은 심미안이 아닌 난시와 근시가 되어 두터운 안경을 걸쳐야 하는 꼴불견의 수전노로 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선 반성의 기회부터 가져보아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의 창작활동에 종합된 예술성이 강조되듯이, 우리들 마음 속의 정화를 강요 당하지 않아도 될 정신적 개선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協力關係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제 금년의 막바지 언덕 위에 서서 힘들여 올라 온 언덕 아래를 내려다 보며, 맞이할 새해에는 보다 밝은 태양이 우리들의 앞길을 밝혀 주었으며 하는 바람으로 가슴을 설레이 본다. (*)



“별다른 고민도 갈등도 없이…”



金 錫 澈 / 건축연구소 아키반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해외유행의 한해였다. 우리의 변화는 문화적 선진들의 변화의 파장이고 갈등이다. 수십년, 흥내만 내다보니 이제 그들 몸짓만 보아도 알게 되었다.

문화의 변경지대를 형성해 온 분야가 대체적으로 지적 온축이 없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인 디자인 분야, 특히 의상디자인과 실내장식이고 건축과 도시계획도 그 중의 하나인 것은 주위를 둘러보면 잘 알 것이다.

유학과 해외여행은 성공에의 필수적 도구이고 조금이라도 전문적 화제인 경우 해외의 예를 거론하는 것은 지성인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 일이 더 상식이 되어간 한해였다. 가만히 무엇을 우리가 이루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자기의 것을 찾으려는 혹은 가치의 동질성을 인식하는 노력은 대학원 논문정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만다.

좀더 외국의 최신 유행에 가까워지고자 한 노력을 당대의 대가로 부터 중견에 이르기까지 모두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반성할 때도 되었는데 갈수록 심해가니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올해 들어 성행한 현상설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다. 심사 결과는 물론 채점표까지 공개하고 있다. 아시아 선수촌, 독립기념관, 국립경기장 등 국가적 건조물은 물론 대부분 관주도하의 일이 현상설계의 형식으로 발주되고 있다.

그동안 독점적으로 일을 전담해 오던 몇몇 건축가의 퇴조와 강제로 다가온 연령적 세대교체의 물결속에 관주도의 일은 일종의 무사안일과 호기심 속에 현상설계 방식이 또한 유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좋으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안해 왔는지 오히려 물을 일이다. 이 현상설계의 특징은 그러나 심사의 여전한 수준때문인지 당선작이 현상 당선작답지 않은 “아이디어작”인 것도 없고 “정통적인 수준”도 아닌 역시 한국현상설계 특유의 유행적 안이 양산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으나 무엇이든 현상설계에 부친다거나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은 단세포적 결백증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복부

인을 연상케 하는 이 유행적 파도는 재벌들이 해외 건축가들에게 설계를 맡기기 시작하는 일로 또 번져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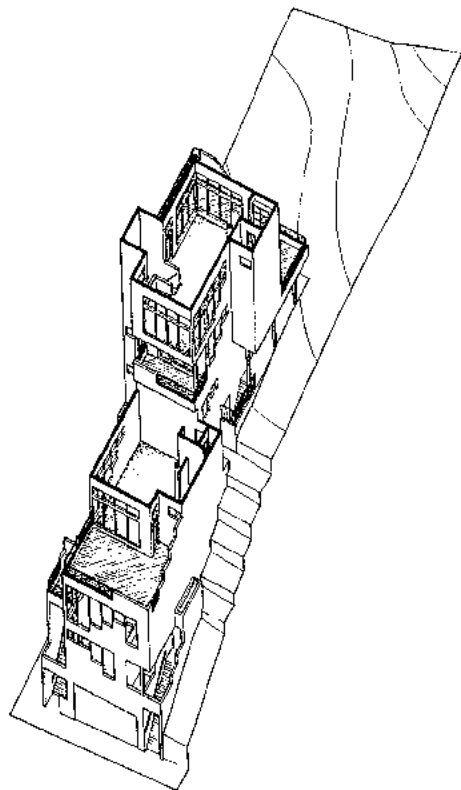
아무 것도 아닌 디자인에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는 내수시장에 몰두하는 그들다운 일기기는 하나 교보빌딩과 신라호텔의 예에서 본 것 처럼 맨하탄이나 동경번지의 한국화라는 것 외에는 문화사적으로 몇배의 후퇴를 자행한 자본의 근성에 속하는 바의 과시다.

해외 유행 작가의 틈입에 대해 일본이 좋아하는 해외지향에도 불구하고 불세출의 천재이며 일본 찬미자인 라이트와 르코르뷔제 두 사람에게만 그것도 국가적 호텔과 국립현대 미술관에 국한되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인이 모방한다고 웃고,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도방이 아니라 절도적 복사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조금씩 훔쳐오는 것이다.

그들은 기능공이 모방하고 우리는 지성인이 모방한다. 그들의 모방은 발전적 단계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방은 최선의 추구인 셈이다.

별 고민도 갈등도 없이 편하고 잘 살기 위했던 또 한해가 간다. <*>



“生活環境의
質的向上이
要求되었던 時期...”



李 珪 杓 / (주)엄이건축연구소

지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던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건축계로서도 무척 바빴던 해였기도 합니다.

86·88년 양대제전을 앞두고 독립기념관 전립, 복동·신정동 신시가지 계획, 도심재개발 계획 등, 수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건축문화 및 도시조형공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생활환경에 대한 질적인 요구를 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구가 천만을 바라보는 수도 서울은 거대도시로 변모해 버렸고 그 속에 뻥뻥이 들어차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에 우리 건축인의 손길이 일일이 미처 있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의 엇갈리는 감정이 생겨 납니다.

하나는 건축물들이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자취로서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서구문화의 기술적인 이식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랐으며 언젠가는 이것들을 고치고 보완하거나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생겨 날 것이며, 또 한가지는 근래에 들어 많은 건축물들이 환경과 도시 전체로서의 균형과 아름다움을 갖고 건립되는 것이 자주 눈에 띄이게 됨을 볼 때 전자에 대한 자성과 후자에 대한 자부심이 교차되는 묘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분야가 하루가 무섭게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분야에서도 건설기술의 향상, 신소재의 개발속도,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건축설비, 컴퓨터의 발달과 다각적인 활용, 생활수준 및 환경의 변화 등이 우리의 예측을 훨씬 앞질러 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작업은 어느 때라도 꼭 필요한 것이며 더우기 사회변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모든 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커지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천하는 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소의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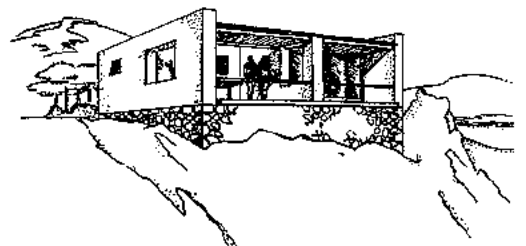
먼저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국제화 추세 속에서 기술인력의 확보와 양성, 종합 정보체제의 도입, 국제적인 협

력,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술직원의 합리적인 기구편성과 전문화, 파트너쉽에 의한 합동사무소 운영, 기술투자비의 증가, 컴퓨터의 활용 등이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수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보수기준으로는 이러한 것을 충족키 어려우며 이것은 협회와 우리들 개개인이 건축인으로서의 사회적인 대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의 시대적인 재반영과 재창조 작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에 의하여 전통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또 우리의 색깔있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건축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되겠으며 현재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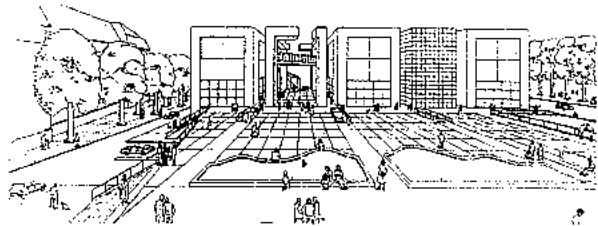
이밖에 건축행정상의 문제로서 자주 바뀌는 건축관계법, 시행령, 규칙, 조례 등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리 건축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대사회적인 활동과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며 협회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우리 회원들은 협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개개인의 의무와 열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새 마음으로
새 달력을
바라보며”



俞元在 / 건축



1983년은 아시아 선수촌 국제현상공모와 독립기념관 현상공모 등 뜻있고 큰 잔치들로 다채로왔던 한 해였다.

이런 소문난 잔치는 많은 애기거리를 낳는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온 국민이 다 건축주이므로 더욱 많은 비평들이 관심을 끌게 한다. 이런 관심들은 우리의 건축문화를 더욱 성숙키 위한 애씀이 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들을 하나의 成案으로 꾸미는 것은 정말 얼마만큼 가능할까?

이념과 관념들을 구체화·실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많은 인내와 진통은 우리 건축의 맥락을 찾는 값진 대가로 되어져야겠다. 좋은 평과 협력을 건강한 풍토에서 주고 받아 건축문화를 살찌우게 했으면...

1983년은 또한 건축사의 成年이 비로소 되는 해이다. (1963. 12. 16 건축사법 제정공포)

허나 가끔 매스 미디어를 통해 「설

계사」란 부정확한 용어를 대하며,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다. 그것도 신문기자나 어나운서같은 상식의 전달자들로 부터... 이것은 아직도 成年이 된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쉽다는 풀이가 되겠다.

예를 들면 벽돌 한장의 값은 누구나 쉽게 느끼는데, 그 전체를 총괄하는 전문가의 도움은 전자에 비해 그 가치를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일부 사회현상을 우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주 자신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늘 대하면서 건축주는 만족함이나 아쉬움을 뒤섞으며 전반적인 그 건축사에 대한 느낌을 정확히 지닐 것이다. 이런 느낌들 중 좋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 전문가는 더욱 자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또 1983년은 도시설계수법이 마련이 된 해이다. 앞으로 닥쳐올 국제행사들을 앞두고 너무 바빠 준비한 감

이 든다. 좌우간 최종적 표현은 건축사의 손으로 이루어 진다. 이런 책임감과 의욕이 도시의 표정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도시 설계에서 제시된 방법들이 마지막 단계를 연출하는 전문가를 소극적—수동형으로 유도할 우려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나의 1983년을 훑어 본다.

한번 나의 손을 떠나면 오랜 세월 웅크리고 서 있을 나의 作為.

다 되어지자 마자 나의 마음을 떠나버린 分身.

너무 딱딱한 생각과 결과로 부러지는 假定들.

門이 壁이 되고 壁이 門이 된 상황. 외면하고 싶은 현실.

투덜대며 만든 핑계.

느끼지 못한 自然現象(하물며 攝理는 물론).

이런 나의 愚에서 도망치고 싶은 새마음으로 한 장도 뜯지 않은 새 달력을 바라본다. <*>

수출위한 당신피땀 외래품에 낭비말자

都市再開發事業의 合理的인 施行方案(完)

(서울市 事例分析 中心으로)

盧 椿 熙

(서울市立大學 都市行政大學院教授)

다. 社会的 要因分析

社会的 要因 즉 職業의 分布, 教育水準 社會參與度와 環境의 要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職業이란 어떤 사람이 생계를 위해 종사하는 일을 말해주는 사회적 구실을 일컫는다.⁴⁶⁾ 그러므로 職業分布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함으로 再開發地區의 職業分布를 살펴보면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종사자가 23% 단순노무자가 31%로서 社會的 階層 分類로 볼 때 所得이 낮은 職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都心部再開發地區 住民의 職業分布圖는 알 수 없으나 住民들이 대부분이 단순노동의 職業을 가지고 있다고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都心部再開發地區 住民의 職業과 관련해서 볼 때 職業構造 불

안정성으로 인한 低所得性과 결부되어 教育水準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再開發地區 住民의 소득에 따른 서울市에 관한 문제의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貧富의 隔差, 住宅難, 交通難으로 集約되는데 所得이 낮을수록 環境汚染問題를 극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再開發地區環境이 不良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그들의 의식구조가 너무 經濟的 側面에 얽매어 범죄나 비행에 관한 의식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表 12)

再開發地區의 세대주 教育水準은 최중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國民學校 25%, 中學校 24%, 高等學校 31%, 大學校 13%, 大學院 10%, 기타 2%, 무학 4%, 一般地域과⁴⁷⁾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세대에 대한 教育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 다른 측면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再開發地域 住民의 社會에 대한 參與度는 住民의 88.3%가 社會組織에 대한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太平路 2 街 주민을 통한 설문조사⁴⁸⁾에서 나타난 결과로 “현거주지로 이주한 이유는 어떠하십니까”하는 질문에 상업상 82.8%, 조상부터 6.4%, 職業關係 6.4%로 대부분의 都心部再開發 住民의 이주관계는 상업상 또는 職場關係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經濟的인 욕구가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居住立地는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대로 居住한다가 31.8%, 같은 地區內로 31.8%로 나타나 住民의 居住 애착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經濟上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表 11〉

不良住宅地區 世代主(家長)의 職業分布

직업분류	%
전문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6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5
사무 및 관리직종사자	13
판매종사자	23
서비스직종사자	5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협업종종사자	0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 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31
무직	0
주부	9
분류불능자 및 기타	8
計	100%

* 신당 3동, 시흥 2동, 구로 3, 4, 6동, 반포, 상계 3, 4동을 조사한 것임

資料: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서울市 不良住宅地區의 住居實態 및 어린이 問題에 關한 研究, 1980, P. 47.

〈表 12〉

不良住宅地區住民의 所得에 따른 서울市에 관한 問題意識

문제의식 소득계층	에마른 인간관계	빈부의 격차	세대간의 갈등	주택난	교통난	자녀교육 문제	환경오염 문제	범죄와 비행
0~5만원이하	6 (6.8)	18 (20.4)	3 (3.4)	14 (15.9)	12 (13.6)	12 (13.6)	18 (20.4)	5 (5.6)
5~10 "	10 (10.0)	12 (12.0)	1 (1.0)	29 (29.0)	21 (21.0)	13 (13.0)	13 (13.0)	1 (1.0)
10~15 "	21 (17.3)	25 (20.6)	1 (0.8)	26 (21.4)	14 (11.5)	13 (10.7)	18 (14.8)	3 (2.4)
15~20 "	12 (12.0)	19 (19.0)	0 (0.0)	21 (21.0)	22 (22.0)	9 (9.0)	14 (14.0)	3 (3.0)
20~25 "	2 (9.5)	8 (38.0)	0 (0.0)	4 (19.0)	1 (4.7)	2 (9.5)	2 (9.5)	2 (9.5)
25~30 "	9 (18.0)	8 (16.0)	0 (0.0)	9 (18.0)	13 (26.0)	2 (4.0)	7 (14.0)	2 (4.0)
30~35 "	1 (10.0)	2 (20.0)	0 (0.0)	2 (20.0)	1 (10.0)	2 (20.0)	2 (20.0)	0 (0.0)
35~40 "	2 (22.2)	2 (22.2)	0 (0.0)	1 (11.1)	2 (22.2)	0 (0.0)	1 (11.1)	1 (11.1)
40만원이상	5 (21.7)	3 (13.0)	1 (4.3)	3 (13.0)	6 (26.0)	1 (4.3)	2 (8.6)	2 (8.6)

資料: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서울市 不良住宅地區의 住居實態 및 어린이 問題에 關한 研究, 1980, P. 91.

또한 住居의 環境에 영향을 주는 “地區內에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가 32.8%, 그저 그렇다 31.8%로 住民들이 공원에 대한 의식부족과 經濟性의 문제때문에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都心部再開發地區 住民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流入된 인구이며, 經濟的인 요인에 의해서 都心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經濟的 要因分析

서울市 都心部再開發地區의 經濟的 要因分析은 ①再開發地區 住民의 經濟的 分析 ②再開發地區의 물리적 經濟的 分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면 첫째, 再開發地區 住民의 經濟的 分析을 주민의 직업에 따른 所得階層으로 살펴보면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所得階層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을 細分하여 보면 5만원 이하가 4.3%, 6만원에서 10만원 이하가 21.2%, 11만원에서 15만원 이하 所得者가 27.5%로 전체조사 대상자중 53%가 低所得階層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再開發地區의 주민 53%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준영세민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都心部에 대한 정확한 所得階層의 자료가 없으므로 알 수 없으나 都心部再開發의 住民所得은 이 조사보다는 높으나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그러므로 都心部再開發地區의 住民所得 向상이 무엇보다도 해결되어야 活潑한 都心部再開發事業이 이루어질 것이다.

(2) 서울市都心部再開發의 改善方向

都心部 再開發事業은 都心機能을 회복하고 現代都市의 새로운 需要에 부응할 수 있도록 都市를 改造하는 再開發事業이다.

특히 都心部の 都心機能의인 측면에서나, 交通體系, 오픈 스페이스, 停車場 등이 서울市 都心部再開發에 있어서의 問題點이었다.

都心部 再開發事業은 地域地區制 및 都市設計 方法을 導入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方法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表 13> 不良住宅地區 住民의 職業에 따른 所得階層

職業 所得階層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 스 업	농· 임업	노동자	무직및 분류불능	계
1~5만원				2	1		11	5	19
6~10		7	10	19	5	1	40	12	94
11~15	5	9	16	23	3	1	56	9	122
16~20	6	4	15	35	7		24	1	94
21~25	3		5	5	1		4	3	21
26~30	6	3	8	20	3	1	9	1	51
31~35		1	4	1	1		3		10
36~40	3		2		2		2		9
41~	4		3	9	5		1		24
계			63	114	28	3	150	31	444
%			14.2	25.7	6.3	0.6	33.8	7.0	100.0

資料: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서울市 不良住宅地區의 住居實態 및 어린이 問題에 關한 研究, 1980, P. 80.

그중 특히 綠地體系, 오픈스페이스 확보, 停車場施設확보, 再開發地區事業計劃, 실시후 機能立地의 측면을 고려한 再開發事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종합적인 再開發事業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都心部再開發計劃에 있어서는 都心部現況分析이 먼저 선행되어 이를 기초로 都心部再開發地區가 선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都心部地區再開發計劃이 이루어지고 都心部再開發實施後의 諸問題를 最大한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都心部土地利用 극대화를 위하여 都心機能에 적합하지 못한 非都心機能을 배제함과 동시에 都心部の 미관을 위한 高度基準을 재정비하여 “도심스카이라인”의 형성이 필수불가결하다.

셋째, 建物の 대지면적과 容積率, 建蔽率을 상향조정하여 隣洞間隔의 충분한 확보를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의 容積率이 규모에 비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부족한 형편으로 上下水道, 広場, 公園, 停車場 등의 公共施設의 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네째, 都心部再開發事業이 사무실, 호텔, 업무시설 등의 人口集中度가 높은 施設에 편중하고 있어 都心交通 滯現現象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交通分析에 있어서 都心交通 現況을 通行總量과 通行形態, 通行路 및 駐車分析, 都心交通量에 미치는 交通施設計劃을 분석하는 總量分析計劃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供給處理施設計劃에 있어 最大汚水量을 측정할 때 汚水量의 증가를 감안하여 400~500ℓ 이상으로 最大給水量을 500ℓ 이상으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公園綠地施設計劃에 있어 都心小公園과 綠地空間을 설치하기 위하여 都心部再開發時 충분한 隣洞間隔의 확보가 土地公概念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적극참여로 충분한 생활권 형성에 필요한 小公園의 설치가計劃되어야 한다.

일곱째, 都心部の 사회적 요인분석에 있어서 인구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地域施設人口計劃 方法의 도입으로 유동인구와 施設人口의 측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의 적극유도와 함께 民間開發者가 시행하는 것보다는 官·民 混合方法이 적절하며 事業實施以後의 住民移住方法과 再開發環境影響評價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덟째, 經濟的 要因 분석에 있어 주민경제력의 향상을 위해 강력한 社會福祉對策의 형성과 再開發實施後의 物理的經濟評價의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울市 都心部再開發事業은 主體面에서 보면 첫째, 현재까지의 서울市 都心部再開發事業은 民間主導型으로 실시하였으나 官主導型으로 民間資本이 참여하는 複合적인 都心部再開發이 실시됨으로서 附帶施設의 확보 및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가 가능하여 진다. 그러므로 都心部再開發事業에는 종합적인 再開發事業을

위하여 民間主導의 再開發事業이 아닌 官主導型의 施行為主에 民間資本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再開發方法으로 再開發事業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再開發事業時 地區再開發方法으로 再開發을 地區內에 한정시켜 計劃할 것이 아니라 都心部를 전체로 한 綜合再開發計劃 즉 New Town in Town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綜合開發計劃에 의한 地區開發은 地區修復, 地區保存의 방법을 통한 再開發이 시행됨과 동시에 再開發地區의 物理的인 측면과 機能的인 측면을 고려함은 물론 再開發施行地區의 여건까지 포함한 방법으로 事業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를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適正隣接間隔을 확보하여 건물의 接近性을 향상시키며 이를 駐車場施設로서 이용하거나 綠地帶의 건설로 都市民의 작은 휴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서울市の 再開發事業 施行에 있어서 합리적인 補償基準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基準에 의하여 설치되어 劃一的인 補償基準과 법적체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再開發地區內의 駐車施設의 확보가 시급하며 都心 全体的으로 볼 때 駐車量이 가장 많은 明洞, 乙支路1街, 小公洞地域으로 土地의 高密利用과 더불어 都心の 交通滯症現象의 해소를 위해서도 駐車場專用建物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容積率·建蔽率의 정도에 따라서 住民·商業·綠地地域의 面積配分이 상이하게 됨으로 都心部 再開發施行時 容積率을 상향시킴으로써 넓은 면적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駐車場을 시설할 수 있으므로 再開發의 건물 건축시에 容積率의 상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土地公概念을 도입하여 容積率을 높이기 위한 資金支援이 필요하다.

일곱째, 都心部 再開發의 일반적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는 職住近接을 이행하기 위해서 都心部 周邊의 積善·都心部再開發地區 및 三清洞地區 周邊地域, 南山周邊地區는 綠地體系가 부족하나마 형성되어 있고 都心部機能과 밀접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

고 騒音度가 낮음으로 住居地로 적합하여 住居地로 再開發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住居地를 형성하고 있는 地區가 商業機能 및 취락시설기능으로 변천하는 것을 阻止하여 職住近接을 추진함으로서 交通滯症現象 緩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再開發地區內의 國民들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즉 再開發事業後에는 再開發 以前의 住民들이 都心部 외곽으로 이주하여 또다시 슬럼地區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再開發地區의 住民經濟力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都心部機能 再配置 側面에서 非都心機能을 그 기능에 적합한 地區로 이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그 기능의 圓滑化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으로 再開發時 非都心機能을 적극적으로 非都市機能에 적합한 地區로 이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열째, 서울市 都心部 再開發事業地區 지정에 있어서 物理的 요소인 분양지구 再開發事業側面의 地區指定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再開發地區指定 즉 오픈 스페이스, 綠地體系, 駐車施設 非都心機能 再配置側面을 종합하여 都市機能體系를 適正規模化한 巨視的 再開發事業計劃에 의한 부분적인 開發方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都市活動과 土地利用體系

(1) 都市活動의 定義

都市自体가 利潤(Profit)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都市活動의 주된 활동은 경제적인 동기가 主流인 것 같다. 都市의 求心力은 William Petty의 法則처럼 農業보다 製造業이 그리고 製造業보다 商業이 이윤이 훨씬 크기 때문에 都市活動이 커지는 것이다.⁴⁹⁾

都市의 土地利用은 활동주체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욕구와 필요의 動機賦與에 따른 가치와 목표 설정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에는 利益追求 價值, 公共利益 價值 및 根源的 社會價值로 大別된다.

(2) 接近方法

都市空間內에서의 活動體系는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活動主体者를 기준으로 大別하면 生産活動을 하는 기업과 일반복지를 제공하는 機關 및 消費와 住居活動을 하는 家計와 個人이 있으며 이는 그 下位의 活動群과 連繫되어 있다. 첫째 企業活動은 生産, 加工, 通信, 分配 등의 財貨 공급활동과 商業, 消費, 專門用役 등의 用役活動으로 兩分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단속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다른 활동들과 連繫性을 가지고 都市空間內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機關의 활동은 用役이나 財貨를 需給한다는 면에서는 기업활동과 類似性을 가지나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지니고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종류로 人間開發, 地域社會開發 및 團體福祉活動 등이며 이들은 보다 세분·확장되어진다. 셋째로 個人과 家計의 활동은 意外性, 變則性이 많아 豫測과 分析上에 어려움이 많지만 주요한 分類로는 所得產出, 育兒, 레크레이션과 慰樂, 쇼핑, 健康과 類似活動 등이 있다. 이렇게 活動主体者로 볼 때 기업이나 기관활동은 供給側面인데 반해 個人이나 家計활동은 消費側面을 보여준다.

(3) 都市活動과 土地利用

土地利用原理⁵⁰⁾는 集積誘引, 適合性, 密集性, 連結性, 多目的性, 効率性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土地利用計劃은 도시의 自然·人文的 現況을 정확히 파악하고 土地 위에 있는 立體空間의 機能的 連結性 및 活動調査를 하며 기타의 모든 資料들을 蒐集하고 분석해서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활동과 기능을 平面的으로 空間的으로 配分하고 配置하는 것이다.⁵¹⁾ 이러한 기능들의 適正配置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에 土地利用分類와 記號體系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분류로는 ①住居, ②小賣業, ③交通, 通信, 公共建物, ④工業과 類似用途 ⑤都賣業, ⑥公共建物, ⑦團體機關建物, ⑧空閑地 등으로 大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商務省에서 사용하는 標準土地利用 記號는 한자의 단

위(One-Digit Levels)에서는 ①住居, ②製造, ③製造, ④交通, 通信, 公共施設物, ⑤交換, ⑥서비스, ⑦文化, 慰樂, 레크레이션, ⑧資源生産과 抽出, ⑨未開發地와 水面 등 9개의 유형으로 大別하고 두자리 단위에서는 67個 세자리 단위에서는 294個 네자리 단위에서는 772個로 극히 전문화된 활동까지 포괄토록 하였다.⁵²⁾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韓國銀行의 産業關聯表 작성을 위해 部門別 15個 産業과 56個의 組合部門으로 大別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大韓統計協會에서는 한자리 단위에선 9個로 大分類를 하고 두자리 단위에서 中分類, 세자리 단위에서는 小分類, 네자리 단위에서는 細分類, 다섯자리 단위에서는 細細分類를 하고 있는 바이다.⁵³⁾

대부분의 都市는 複合機能化, 즉 特定都市에 各종의 社會文化經濟의 吸引구를 위해 機能의 混合化가 이루어지는 集中化現象이 나타나며 單核中心地에 各종의 管理, 産業, 金融, 慰樂, 宗教 등의 機能이 서로 상관성을 지니며 集約된 상태가 된다. 대체로 活動과 相互作用은 全都市民이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都市部에 凝集된다. 都市部는 접근성이 좋아서 全都市民이 그곳까지 가는 시간의 總計가 가장 좋은 곳이다. 물론 거리만이 아니라 交通手段과 施設物利用에 의한 時間要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Guttenberg는 接近度를 거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共同社會의 노력으로 정의하는데, 이렇게 볼 때 都市部는 接近性이 양호하므로 中心性이 높고 密度도 높으며 中心業務地域이 형성되게 된다.

요약컨대 都市部는 中心性이 높아 接近性이 양호하고 活動의 相互作用의 규모와 量이 많아 各機能間의 연관성에 의한 集積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求心力이 크게 작용하는 活動을 집중시키며 이에 따라 都市部의 土地利用과 空間構造가 결정된다.

서울의 都市部活動을 活動의 量과 活動의 週期, 活動費, 그리고 活動區域別로 분석하여 空間計劃이 이루어져야겠다.⁵⁴⁾

일반적으로 都市는 평평한 土地위에 건물들이 서로 격리되어 있고 또 都市의 公공적인 장소와도 격리되어

建築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餘分の 공간은 道路, 歩道 및 廣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그 制約性이 강하여 다양한 問題解決은 곤란하며, 우리가 都市計劃에서 道路建設을 통하여 경험해 왔던 여러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바와 같다. 폐쇄된 私的空間, 개방된 公的空間 및 流通네트워크는 모두가 密着된 三次元的 多層構造의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하며 이 三要素는 동시에 계획되어야 한다. 上記한 分類中 기본이 되는 兩側面에서 考慮할 때 機能의 側面에서는 現行建築法이 규정하고 있는 各々の 用途地域에서 建築 가능한 用途分類를 검토하여 名用途의 集積을 위한 조건을 모색하고 用途分類를 재조정함이 요구되며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建築率에 관한 규정, 容積率에 관한 규정, 建築物높이에 관한 규정, 地壇의 空地確保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가. 機能의 側面

立体的土地利用의 목표 중 經濟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적 측면에서 財源抽出이 가능한 建築物用途, 使用料徵收 方式의 建築物用途, 非生産的 建築物用途로서 구별하여 그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첫째, 財源抽出이 가능한 建築物用途는 開發業者가 일종의 財源으로서 賃貸 또는 買渡하게 되며 全面積을 賃貸 또는 買渡한 상태에서 投資費用에 대한 償却과 管理運營費 및 總收益을 抽出하는 收益性이 높은 용도를 말하며 둘째, 使用料徵收方式의 建築物用途는 全体建築 면적이 收入의 財源으로서 運用될 때 投資費用에 대한 償却 및 管理運營費의 지출을 위하여 收入이 반드시 충분하지는 못한 用途로서 駐車施設을 예로 보면 駐車料金에 의한 收入과 注油所賃貸契約에 의한 收入으로서 충당된다. 셋째, 非生産的用途는 收入을 조금도 創出하지 못하는 用途로서 步行者專用道路, 複道, 데라스, 中庭 등과 機械室 등 서비스 施設用途, 流通施設用途가 이에 속할 수 있다. 經濟的基準으로서 分類한 3가지의 用途区分은 우선적으로 用途의 純化, 環境의 보전 및 보존의 측면에서 組合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三次元的計劃方法에 따라 各々의 總收益의 最大化를 목표로 하여 該當地 및 기타조건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을 갖고 계획될 것이다.

나. 形態의 側面

建築法에서는 名地域地區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의 模樣과 空間 등을 확보하여 적합한 環境을 조성하도록 建築物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建築率制限, 容積率制限, 높이制限, 空地確保 등으로서 日照, 通風, 採光 및 都市景觀 등의 環境적 質을 향상시킴에 主目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立体的土地利用을 위하여 形態의 側面에서 必須의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空間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空中權乃至는 地中權 또는 開發權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근래 都市의 中心業務地區는 經濟的建康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都市計劃關係者들은 일반적인 수법으로서 中心地區에 高層住居나 高層事務所, 高層化함으로써 交通發生이나 駐車問題를 해결한다면 都市內 居住者들이 商業施設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提議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懷疑를 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超高層建築物이 들어선 어둡고 음울한 공간속으로 步行하게 될 都市를 바라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선은 일정한 生活環境基準의 확보가 先決問題로서 形態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空中權, 地上權 그리고 開發權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上記한 干先圖標 위에서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통하여 土地利用의 효율성은 충분히 증가할 것이다.

이에따라 空間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法的規制事項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建築設計上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採光, 通風, 日照, 展望, 防火, 適正密度, 必要水圧 등을 유지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權利移轉 등의 다양한 이용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都市土地利用과 都市産業

都市活動은 대부분이 都市의 三次

産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都市土地利用을 체계화하기 위하여서는 都市안에서 일어나는 3次産業의 土地需要를 판단하여야 한다. 都市内 3次産業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需要는 도시계획상 住居地域, 工業地域과 함께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서울市の 토지이용현황을 <表 14>에서 살펴보면 「서비스」 업종별 시설의 총敷地面積은 1979년 현재 40.1Km²로 제조업 시설면적 17.9Km²와 좋은 대조를 보인다. 後者를 제외하면 학교 및 교육시설이 42.1%, 영업 「서비스」 시설이 26.6%의 높은 수준이고 종업원 1인당 土地占用 원단위를 보면 社会間接資本(전기, 통신, 공급처리시설) 분야 종사자가 200m² 이상이며 일반사무소는 가장 낮은 6.8m²에 지나지 않는다. 向後 서울시에 있어서는 3차산업의 고도화, 업종의 다양화와 직업의 分化로 「화이트칼라」라 할 수 있는 전문·관리·기술직과 사무·판매직이 늘어남에 따라 事務所面積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며 '88 「올림픽」을 앞둔 都心地 再開闢은 이런 현상을 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事務所所要面積의 산정방법은 <圖 5>와 같이 1인당 原單位가 문제시되는데, 현재의 6.8m²는 일본의 14m²와 비교하여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事務所 이외의 3차산업 관련시설의 土地需要는 都市民 生活樣式의 變換이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未來需要에 대처하는 原單位를 책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는 대략 住民 1인당 10~14m²의 土地가 「서비스」 부문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⁵⁵⁾ 商店의 종업원 1인당 所要面積은 보통 20~25m²이지만, 장래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고, 都市高速道路와 地下鐵網이 완성됨에 따라 住居地가 郊外化됨에 따라 3차산업시설도 반드시 停車場을 갖춰야 장사가 유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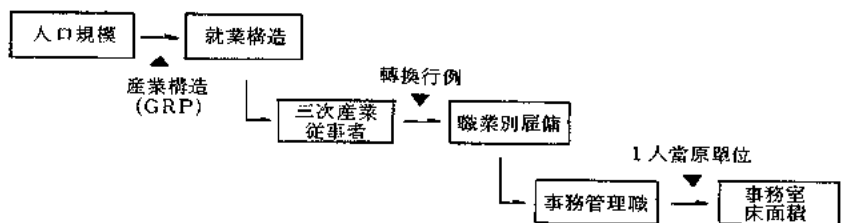
지금도 所得增大에 따라 세롭고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 江南地域에는 넓은 주차장과 「서비스」 면적을 가지는 고급유흥시설과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住居

<表 14> 서울市 「서비스」 업종별 종업원의 土地所要原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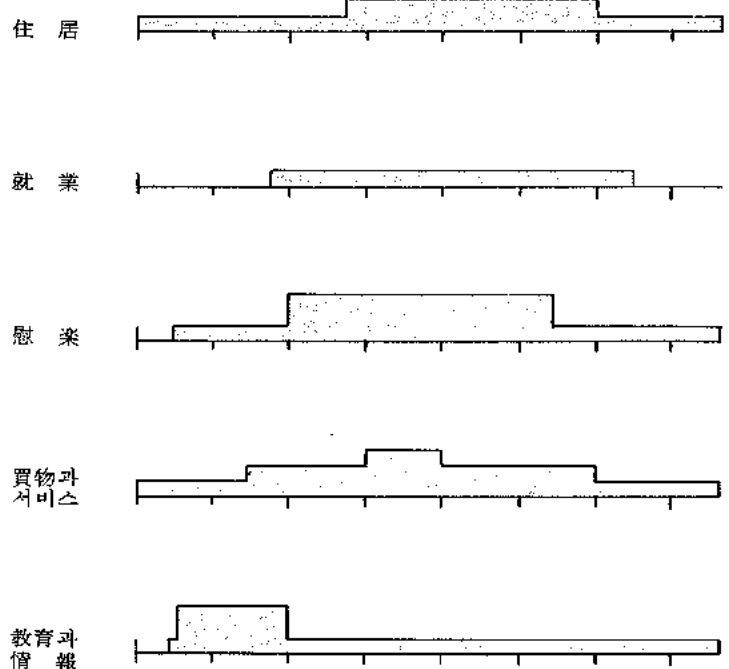
施設別	区分	敷地面積(m ²)	%	従業員(人)	%	m ² / 人
中 枢 管 理 施 設		3,306,854	5.7	63,174	4.0	52.3
一 般 事 務 所		1,515,972	2.6	224,361	14.3	6.8
学 校 및 教 育 施 設		16,884,511	29.1	114,353	7.3	147.7
宗 教 · 文 化 施 設		2,229,786	3.8	27,105	1.7	82.3
医 療 · 福 祉 施 設		2,557,042	4.5	59,986	3.8	42.6
營 業 「서비스」 施 設		10,652,736	18.4	586,252	37.3	18.2
電 氣 · 通 信 施 設		225,292	0.4	1,119	0.3	201.3
供 給 处 理 및 其 他 施 設		2,727,734	4.7	11,488	0.5	237.5
製 造 業 施 設		17,884,511	30.8	483,200	30.8	37.0
總 計		57,984,437	100.0	1,571,038	100.0	36.9

資料: 서울市 都市現況精密調査, 서울市, 1980.

<圖 5> 事務所 所要面積의 推計方法(例)



<圖 6> 年令別 市民 1人當 都市土地 需要變化(화이트칼라)



資料: J. Forbes(ed.) Studies in Social Science and Planning, Scottish Academic Press, 1974, P. 143.

地 발달과 은행이용의 보편화에 맞추어 近隣住区單位로 예금유치를 위한 店舖網이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都市計劃을 위한 土地需要推計에 덧붙여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생활양식에 외적변화를 일으키는 新種 3차산업의 예측이다. 「헬스클럽」 등 건강과 스포츠에 관한 깊은 관심, 전자오락과 같은 새로운 業所에 의한 생활양식의 内的變化도 무시할 수 없다. 같은 脈絡에서 個別市民의 生涯(Life Cycle)를 보아도 年齡別로 소득수준과 「서비스」 욕구수준이 變化됨으로 말미암아 그 活動圈이 달라지므로, 이에 所要되는 土地面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영국에서 조사된 바로는 慰樂活動은 20대에서 50대 後半까지, 「쇼핑」은 30대에 가장 活潑하며, 情報蒐集과 教育에 관련된 「서비스」는 20대前에 왕성하다.(圖 6)

가. 3차산업관련 土地利用의 規制
현행 都市計劃法 제17조에 의하면 商業과 기타 업무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商業地域」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8조에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켜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를 도모하거나 그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業務地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行爲制限은 建築法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상업활동용을 저해하는 공장, 고밀도화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및 위생상의 전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施設을 不許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업지역 내의 최소 건축면적은 150~200㎡ 이고 建蔽率과 容積率은 각각 1,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商業地域은 차라리 「混合地域」이라 부르는 것이 좋을 만큼 용도가 混在되어 있는 실정이다. 원래 목적이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단독주택으로 부터 近隣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군사시설 등 거의 모든 것이 許用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연구시설이 商業固有機能과 양립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都買商부터 소규모 雜貨商은 물론 書店, 카페, 의류상, 음식점, 기계공구상

이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하여 畫間人口의 밀집현상이 일어난다. 이와는 달리 소위 「路線商業地域」은 法定用途地域도 아니면서 다만 建築法 제52조 “堡地가 도로에 沿하여 떠모양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이라는 條項을 수용하여, 서울시에서는 해당구청에 임의지정 형식으로 서울역~삼각지 외 22個所(1981년 기준)를 지정하고 도로변에서 폭12m 까지 商業行爲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상업지역이 갖는 혼란을 住居地域까지 파급시키며, 도로변 12m 에 堡地의 일부가 걸칠 때에 後方堡地를 合筆하고 대형건물을 新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거환경을 파괴하며 교통 체증과 都市美觀을 손상시키는 일이 많다.⁵⁶⁾

주거지역의 건전한 生活圈을 형성하고 住民에 대한 日常用品의 공급뿐만 아니라 기타업무의 편리를 증진시키며, 주변의 住宅地帶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路線商業地域」보다는 차라리 일본에서 처럼 「近隣商業地域」을 지정하여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近隣상업지역에서는 都心性이 강한 상업시설(例: 극장, 영화관, 카페, 등)의 立地를 제한하고 상업지역에서 배제되는 용도의 건축물은 당연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서울江南地域에서 보는 것처럼 住居地域이나 學校에 隣接한 여관이나 「댄스홀」과 같은 유흥시설의 亂立과 요즈음 紙上에서 물의를 빚는 大型갈비집의 냄새 公害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이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진다.

(5) 改善方案

都市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公共의 安寧秩序와 公共福利의 증진을 목표로 한 都市計劃이 土地利用計劃 및 그 規制手段인 地域地區制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根本原因은 土地利用 패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제도가 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平面的 立体的 時間的인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地域地區制의 문제점 및 개선 補充方向은 다음과 같다.

地域細分化的 문제에서는 각 地域地區의 종류와 建築物의 用途区分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을

기록화(Coding)시킬 수 있도록 地域분류와 함께 用途분류가 상호관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住居地域에서는 戶數度概念의 도입과 住居形式에 따른 地域분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工業地域의 경우는 行爲基準(Performance Standard)에 근거를 둔 地域분류가 이상적이다.

또한 地域地區制法(Zoning Ordinance)을 제정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법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都市計劃法은 都市開發豫定區域의 규정을 강화하고 建築法은 單位規定단을 포함하고 새로 마련될 地域地區制法은 集團規定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地域地區制의 신축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混合利用開發地域制·過度의地域制(Interim Zoning)·伸縮地域制(Floating Zoning)·條件附地域制(Conditional Zoning) 등의 新地域制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特別用途地區를 두어 都市 및 地域特性에 맞는 地區制의 보완이 필요하며 立体的 토지이용에서는 토지의 고도이용과 空中權·개발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에 해당하는 細部規制를 地域地區制에 지정하는 법적장치와 容積率·建蔽率·높이제한 등이 재검토된 「複合地區」 지정과 함께 국가의 補助金 지급 및 地方自治團體에서 現物支給方式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적극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주거지역내에서 融通性和 混合性和 多樣性을 발휘하는 개발방식으로서 計劃單位 혹은 지역개발(PUD)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런 관점에서 地域地區制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地域地區制에서 地域細分類가 시급하며 새로운 地域制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PUD의 도입을 위해서는 特殊性이 내포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都心部는 중심성이 높고 集積으로 인한 도시화 經濟效果가 작용하고 집근성이 양호해서 활동의 規模와 量이 집중할 뿐만 아니라 密度는 높고 일정한 형태의 性狀이 만들어진다. 3

차산업이 집중적으로 立地하는 상업 지역은 도시경제활동의 중심지이므로 도시내 副都心 強化를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

첫째, 현행 用途地域상의 상업지역에 대한 細分化 작업이 필요하다. 상업지역에서의 용도규제는 도시활동과 발전에 제약을 주는 일은 피하되, 활발한 商業業務活動이 보장되도록 規模別 / 機能別 / 立地別 細分이 시급하다.

현재는 都心이나 近隣住区의 상업 지역이나 동일한 行為制限을 가하여 不合理한 점이 허다히 露呈되고 있다. 가능하다면 (表 15)와 같은 다섯가지 区分이 이상적이겠으나, 최소한도 일본에서와 같이 近隣商業地域의 別途指定은 바람직한 과제이다. 아울러 한국적 都市生態를 고려하여 기존 상업지역내에서도 가능한 한 塵芥 및 오물처리장과 같은 특수 도시施設은 存置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流通業務團地, 事務室業務團地(Office Park), 觀光慰樂團地, 研究學園團地 등 새로운 3, 4차 산업의 입지와 수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근한 예로 都買業機能의 향상과 도로교통의 圓滑化를 위하여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周辺部에 일정지역을 유통업무지역 (또는 지구)로 지정한다. 일종의 「陸地の港口」라 볼 수 있는 이 團地内에는 ①철도 화물역, ②트럭터미널, ③

(表 15) 商業地域의 細分化方案(例)

商業地域	近隣商業地域(商 1)	近隣住区中心의 商業地域
	地區中心商業地域(商 2)	地區中心地, 主要中間電鐵驛의 商業地域
	中心商業地域(商 3)	都心 및 副都心の 商業地域
	流通商業地域(商 4)	貨物·旅客터미널·港灣·市場等的 流通商業地域
	業務地域(商 5)	業務中心地(業務地區의 昇格)

資料：國土開發研究院, 地域地區制 合理化方案에 관한 研究(1981)

倉庫 및 野積場, ④도매점포, ⑤관리시설 등과 함께 비교적 無公害性 製造業種도 入住가 가능토록 조치한다.

끝으로 서울시에 있어서 人口集中을 유발하고 있는 大企業의 本社, 大規模 百貨店과 호텔, 都買市場, 「슈퍼마켓 체인」, 入試學院, 禮式場, 自動車관련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民間部門 까지도 계획적인 分散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도시기능과 환경의 정비 市街地의 주택건설과 재해방지시설 등 그 목적도 다양하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은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만을 위한 고립된 계획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

우선 국토개발과 인구재배치계획 등이 재개발계획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재개발은 나라의 기본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한가닥 줄기로서 추진되어야 옳다. 또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물론 地區計劃制의 테두리안에서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의 도심지구 재개발정책은 이렇다할 논의나 예고도 없이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변화의 첫째는 수도권 인구 재배치계획과 관련된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기위해 江北지역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억제해 왔다.

물론 도시의 토지이용도와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일지도 모른다.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도시재개발정책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의 물음이다. 정부는 재개발의 추진과 함께 인구분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제시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지구계획의 구상과 새로운 도시재개발정책은 따로 떼어 설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정책만으로는 집중적인 도시재개발과 지구계획제가운데 어느쪽이 우선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구계획제에 입각한 도시재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46)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서울시 不良住宅地區의 住居狀態 및 어린이 問題에 關한 研究, 1980, P. 44.

47) 上掲書, P. 49.

48) 서울特別市, 再開發事業計劃에 關한 研究(太平路二街地域), 1978, PP. 19-26에서 발췌

49) 盧椿熙, 都市學概論, 一潮閣, 1981, P. 10

50) Central Sheboygan, General Neighborhood Renewal Plan, Redevelopment

Authority of Sheboygan, City of Sheboygan, Wisconsin, U. S. A., 1975, P. 5.

51) George C. Hemmens, The Structure of Urban Activity Linkages, Center for Urban & Regional Studie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1966, P. 1-5.

52) Urban Renewal Administration Housing & Finance Agency and Bureau of Public Roads, Dept. of Commerce, Standard Land Use Zoning Manual, 1965.

53) 경제기획원편찬, 대한통계협회발행,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 1970.

54) 安泰煥, 서울都心部의 活動特性과 土地利用에 關한 研究, 國土計劃, 第15卷1號, 1980. 9, P. 35

55) H. Darin-Drabkin, Land Policy & Urban Growth, Pergamon Press: Oxford 1977, P. 38-9

56) 國土開發研究院, 地域地區制 合理化方案에 關한 研究, 1981, P. 141-3

韓國建築研究 의 足跡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 / 保存科學研究室長)

韓國建築史의 연구는 1902년 일본의 建築史學者 関野 貞씨가 대한, 경상남도 및 서울 開城等地를 조사하고 1904년 「韓國建築調査報告書」를 學界에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建造物이 學文的으로 注目을 받기 시작한契機가 되었다. 그後 日政期에 들어와 日人學者들의 古建築分野에 대한 조사와 建造物의 修理 및 補修, 그리고 建築史學者들의 論文과 著書들이 발표되므로써 우리나라 建築史는 서서히 體系를 잡기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모든分野가 그러 했듯이 建築史 分野 역시 割目할만한 事件은 別無하였다. 그후 1960년대에 들어서서 建築史는 각 分野別로 활발한 연구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여 약 20년간 至大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고 韓國建築史 연구는 점차 本軌道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02년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80년간의 建築史 연구활동을 10년간씩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旧韓末~1909년

1902년 일본 建築史學者 関野 貞씨가 대한하여 경상남도 및 서울·開城等地에 유적을 地表調査하고 1904년 「韓國建築調査報告書」를 발간하였다. 「韓國建築調査報告書」내용은 크게 4篇으로 나누어 線論, 新羅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別로 구분하여 時代別로 都城·寺院·陵墓·王宮·鄉

校·書院·住宅 등을 서술하고 결론으로 中國 및 日本建築과의 關係를 논하였다. 이 報告書 내용 중 중요한 것은 調査當時의 유적과 遺構의 사진이 290여편 실려있는 점이며 이들 사진재료는 일인들 손에 의해 補修되기 이전의 것이어서 더욱 가치를 갖고 있다.

○ 1910년대

1912년 강릉 客舍門, 영주 浮石寺 祖師堂을 보수하였으며 1913년 평양 普通門, 개성 南大門, 경주 石窟庵 등을 重修하고 1915년에는 익산 彌勒寺址 석당을 수리하였다. 1916년 佛國寺 一圓의 建造物과 石壇을 보수하고 같은 해 영주 浮石寺 無量壽殿을 解体修理하여 墨書銘을 발견하였으나 墨書銘에 나온 1377년의 建立年代 보다 100년 내지 150년 정도 앞서는 建築樣式으로 판단하고 이 說이 學界에 定說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20년대

1923년 日人學者 関野 貞씨가 「朝鮮과 建築」이란 건축지에 〈朝鮮 最古의 木造建築〉이란 題下에 논문을 발표 浮石寺 無量壽殿이 학계에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수공사로는 金山寺 彌勒殿 등이 대상이 되었으며 1920년대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활동이 많지 않았다.

□ 1930년대

1930년 日人學者 藤島玄治郎씨가

〈朝鮮建築史論〉의 題下로 「建築雜誌」(日本建築學會誌)에 한국의 사찰내의 단위건물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1934년에는 同氏의 논문 〈天灯山 鳳停寺〉가 「中央美術」에 발표되고 1937년에는 「東洋美術」에 강릉 客舍門을 소개하여 고려시대 건물들이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34년 史上 최초 우리나라 宝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日人들 손에 의거 공포되므로 해서 同年 서울 남대문을 비롯하여 9棟의 고려 및 조선초기 건물과 경주 石窟庵이 지정되고 1936년에는 修德寺 大雄殿을 비롯하여 14棟의 建造物이 추가 지정되었으며 이어서 1938년에 淨水寺 法堂, 雙峰寺 大雄殿 등 5棟, 1939년 法住寺 捌相殿 등 12棟이 지정되었으며 史蹟으로는 경주 포석정을 비롯하여 17건이 지정되었다.

또한 寺址의 발굴도 1930년대에 가장 많았는데 1935년, 1936년 2차에 걸친 부여 軍守里寺址가 발굴 조사되었고 1938년, 1939년에는 평양의 고구려寺址인 淸岩里寺址가 조사되어 최초로 고구려의 伽藍制度를 알게 되었으며 같은 해에 경주 千軍里寺址 및 大同軍 元五里寺址가 조사되고 부여의 東南里廐寺址와 佳塔里廐寺址 등도 발굴 조사되었다.

建造物의 대표적인 보수공사는 1931년의 成佛寺 極樂殿이 있으며 1935년의 華嚴寺 覺皇殿, 心源寺 普光殿, 1937년의 無為寺 極樂殿 등을 손꼽을 수 있다.

□ 1940년대

건축사 관계 논문으로는 한국인으로 慎武賊·張起仁 兩氏가 「朝鮮과 建築」에 〈畿湖 및 關北地方의 住宅에 대하여〉와 〈韓國住宅 裝飾小考〉 등을 1940년에 발표하였으며 建築史 關係著書로는 關野 貞씨의 논문들을 한글에 엮은 단행본 「朝鮮의 建築과 藝術」, 米田美代治씨의 「朝鮮上代建築의 研究」 등을 들 수 있다.

建造物の 지정은 金山寺 彌勒殿을 비롯하여 6棟이 1930년대에 이어 추가로 지정되었다. 遺蹟址의 발굴조사는 1934년 부여의 定林寺址 발굴조사를 들 수 있으며 보수공사로는 해방되던 해에 長安寺 四聖殿, 關心寺 大雄殿이 수리를 끝마쳤다.

또한 1944년 定州에 있는 深源寺 大雄殿이 소실된 사건이 있었다.

□ 1950년대

1955년 國立博物館에서 「美術·考古學用語集 建築編」이 발간되었으며 1958년에는 1956년에 解体修理하였던 강진 無爲寺 極樂殿의 수리공사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金仁鎬씨의 〈海印寺 造営計

하였다.

建造物の 지정은 1957년 장수 鄉校 大成殿과 남원 廣寒樓, 1958년 披香亭, 禪雲寺 大雄殿, 來蘇寺 大雄殿, 開岩寺 大雄殿, 洗兵館, 1959년에 華嚴寺 大雄殿, 松廣寺 藥師殿 등 7棟이 지정되어 1950년대에 14棟의 建物이 보물로 되었고 史蹟으로 牙山孟氏 杏壇이 지정되었다.

발굴조사로는 1959년 실시된 경북 월성군 양북면 용당리 소재 感恩寺址의 조사를 들 수 있으며 이 寺址 調査가 해방후 韓國人 학자들만으로서의 최초의 본격적인 발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수공사는 1956년 국립박물관 주관하에 강진 無爲寺 極樂殿이 完全解体 수리되었다.

□ 1960년대

1961년 국립박물관에서 1959년에 발굴조사한 感恩寺址의 発掘調査書가 출간되었으며 1962년에는 문교부가 주관하여 「國寶圖錄」(木造建物篇)이 출간되고 1963년에는 「石窟岩修理工事報告書」가 나왔다. 1964년에는 朱

(1964), 국립박물관의 金剛寺址(1964~1966), 문화재관리국의 益山彌勒寺址 부분발굴(1966), 서울대의 岩寺洞 先史遺蹟(1967), 東國大의 聖水寺址(1968), 梨大의 皇龍寺講堂址(1969) 등이 1960년대의 대표적인 발굴 조사이었다.

建造物の 지정은 1960년의 無量寺 極樂殿, 栗谷寺 大雄殿을 비롯하여 매년 2~3棟씩 보물로 24棟이 지정되었고 史蹟으로는 水原 華寧殿, 景福宮 등 16件이 지정되고 史蹟 및 名勝으로는 佛國寺·法住寺·海印寺가 지정되었다. 중요민속자료로는 1967년 강릉 船橋莊을 비롯하여 구례 雲鳥樓, 창녕 河丙洙씨 가옥 등이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建築史上 중요 보수내용은 1961년의 서울南大門 完全解体, 1963년으로 부터의 石窟岩補修, 1964년의 海印寺 經板庫 및 修德寺 大雄殿 수리, 1966년 華嚴寺 覺皇殿 수리, 1967년의 光化門 복원, 1968년의 法住寺 捌相殿 完全解体修理, 1969년 鳳停寺 極樂殿 完全解体修理 등이 대표적 수리공사라 할 수 있다.



圖 1: 익산 彌勒寺址 발굴



圖 2: 경주 皇龍寺址 발굴

劃에 대한 考察)이 靑丘大 논문집에 발표되고 李光魯씨의 〈動的均齊論과 자연상태의 건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가 「建築」誌에 발표되었다. 같은 해에 柳洪烈씨는 「郷土서울」에 〈서울과 최초의 洋屋建物〉이란 제목으로 우리나라 근대건축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또한 日政期 우리나라에 駐在하면서 목조건축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던 日人學者 杉山信三씨가 1959년 〈高麗末·朝鮮初의 木造 建築에 관한 연구〉란 油印物 단행본을 발표

南哲씨의 〈韓國住宅의 변천과 발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같은 해에 「韓國古建物上樑文集」(考古美術同人會·申榮勲編)이 간행되었으며 1966년 이후 1968년까지의 重要論著 및 보고서로는 「서울南大門修理工事報告書」 및 「金剛寺」 발굴조사보고서, 金正基씨의 〈韓國住宅史〉, 張起仁氏의 「韓國建築用語集」, 申榮勲·金東賢 兩氏의 〈韓國古建築斷章〉 등을 들 수 있다.

발굴조사로는 서울大의 春川校洞梁穴住居址(1962), 東國大의 臨江寺址

□ 1970년대 이후

1970년대에는 어느 年代보다 建築史研究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발표된 논문과 저서 등이 모두 120여편이었다. 이 편수는 1960년대의 180여편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나 많은 저서가 나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중상 가장 研究活動이 왕성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들 논문중 중요한 것을 보면 鄭寅國씨의 「韓國建築 樣式論」, 尹張燮



圖 3: 월성 感恩寺址 발굴

씨의 「韓國建築史」, 申榮勲씨의 「韓屋과 그 歷史」, 문화재관리국의 「韓國의 古建築」, 「雁鴨池」, 「佛國寺」, 朱南哲씨의 「韓國建築意匠」, 安瑛培씨의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金鴻植씨의 「實學建築思想研究」, 朴萬植씨의 「韓國古代伽藍의 配置 및 平面計劃에 관한 研究」, 金興坤씨의 「韓國古建築의 意匠에 관한 研究」 등을 들 수 있다.

遺蹟의 발굴조사는 문화재관리국의 佛國寺를 비롯하여 雁鴨池·皇龍寺址·興輪寺址 일부 및 서울대의 欣岩里岩寺洞의 先史遺蹟, 圓光大의 彌勒寺址 東塔址, 東國大의 芬皇寺 일부, 檀國大의 陳田寺址, 慶州史蹟管理事務所의 高仙寺址 등이다.

지정된 내용은 1971년의 淸風 寒碧樓를 비롯하여 8棟이 보물로 지정되

었고 史蹟으로는 郵政總局外에 15건이, 중요민속자료로는 月城 孫東滿씨가옥 외에 43건이 지정되어 중요민속자료의 指定豐年代를 맞이 하였다.

보수로는 수원성곽의 보수 및 복원, 無量寺 極樂殿 完全解体補修,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보수, 開心寺 圓通殿, 晉州城 보수, 開心寺 大雄殿, 松廣寺 國師殿, 鳳停寺 極樂殿 完全解体修理, 神勒寺 祖師堂 解体補修, 淸平寺 回轉門 解体補修, 江華山城의 門樓復元, 金山寺 彌勒殿 補修 등 1960년대에 이어 문화재의 보수와 복원 그리고 史蹟地 淨化工事が 가장 많았던年代라 할 수 있다.

이상 한국건축사 연구의 개략적인 80年史를 개괄적으로 간추려 보았다.

韓國建築研究 80年史를 좀더 구체적으로 一瞥하면 5期로 구분할 수 있

을 것 같다.

第1期를 1902년으로부터 1915년까지로 하면 이 기간은 연구성격상 地畵調査가 위주였던 시기로 볼 수 있으며 第2期는 1916년에서 1933년까지의 기간으로 성격은 個體研究가 주로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며 第3期는 1934년으로부터 解放의 1945년까지로 建造物이 어느 기간보다 많이 지정되고 또 보수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解放 이후 1965년까지의 第4期는 日人들이 세우는 學說을 그대로 반추하거나 發展期를 지향하기 위한 過渡期的 성격을 띄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되며 1966년 이후 현재는 建築史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한 發展期の 초기단계에 접어든 느낌을 주고 있다.

會員建築 設計作品

영동백화점

姜永浩
주·전일건축기술단

● YOUNG DONG DEPARTMENT STORE

Kang, Young Ho
Cheon Il Architect & Engineering Consultant

박달빌딩

金琪碩
아름건축연구소

● BAK DAL BUILDING

Kim, Ki Sok
Aram Architects' Atelier

서울여자대학정문

李珪杓·金仁喆·鄭德薰
주·엠&이건축연구소

● SEOUL WOMEN'S COLLEGE GATE

Lee, Kak Pyo · Kim, In Chul · Chung, Duk Hoon
AUM & LEE Architect Associates Co., Ltd.

오박사댁

朴性圭
건축설계사무소 하나그룹

● DR. OH'S RESIDENCE

Park, Sung Gyu
Hana Group Architects, Planners & Consulting Engineers

동작동유교수댁

閔庚辰
삼우종합건축연구소

● DONG JAK-DONG PROFESSOR YOU RESIDENCE

Min, Kyung Jin
Sam Woo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방배동 S씨댁

朴喜元
보령건축연구소

● MR. S'S RESIDENCE

Park, Hee Won
Bo Ryung Architects & Engineers

영동백화점

YOUNG DONG
DEPARTMENT STORE

- 대지위치 / 강남구 논현동
- 건축면적 / 1,443㎡
- 연면적 / 14,59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벽 / 유백색 타일붙임
- 규모 / 지하 3층 · 지상 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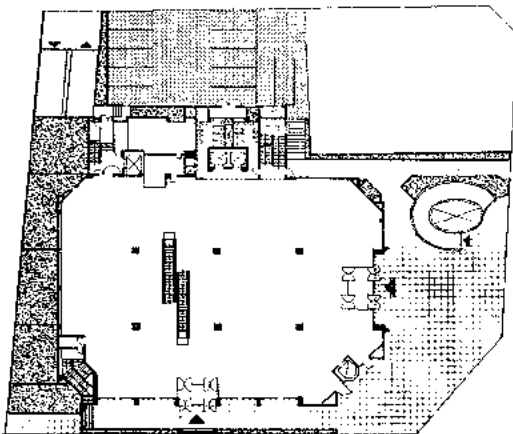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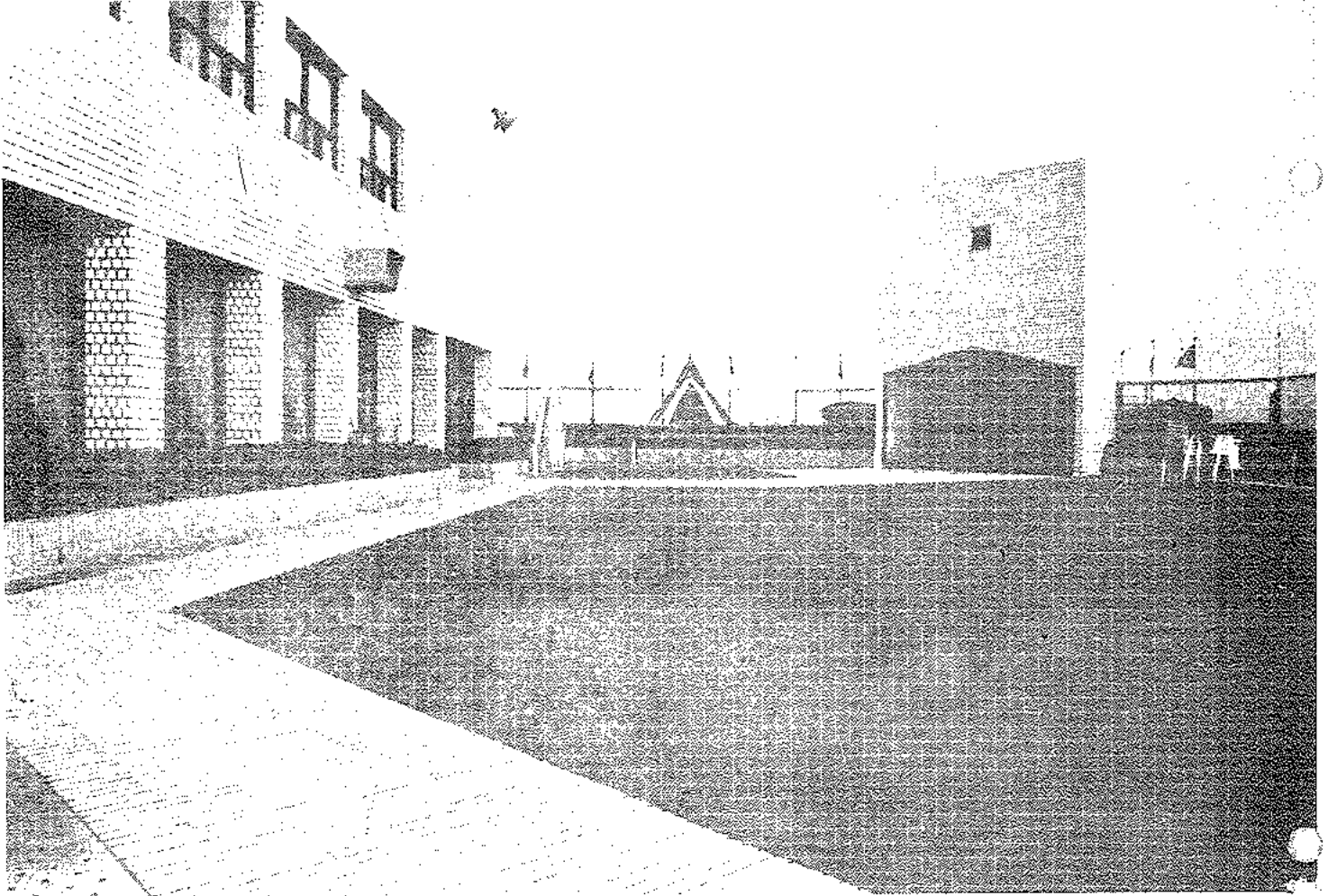


姜 永 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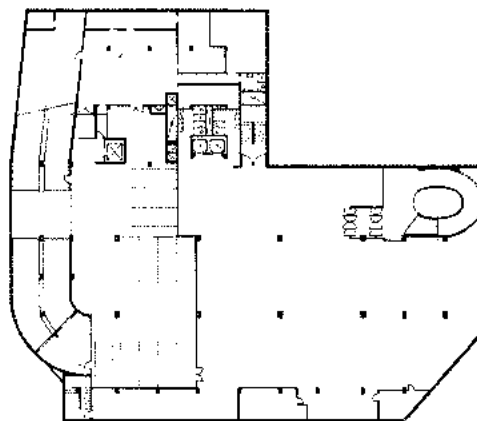
Kang, Young Ho

주 · 천일건축기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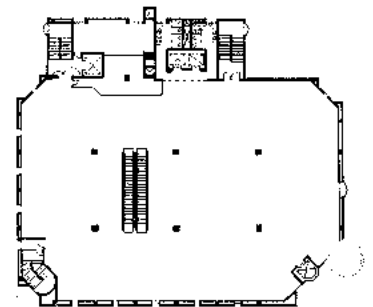
Cheon Il Architect & Engineering Consul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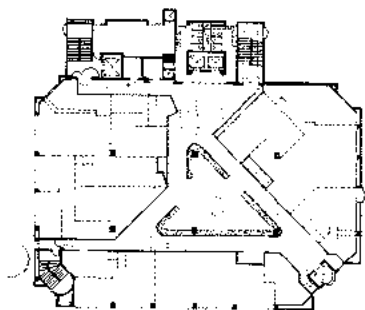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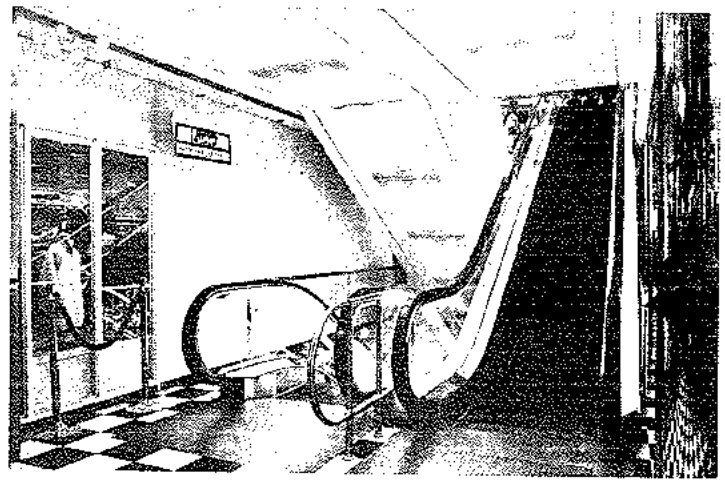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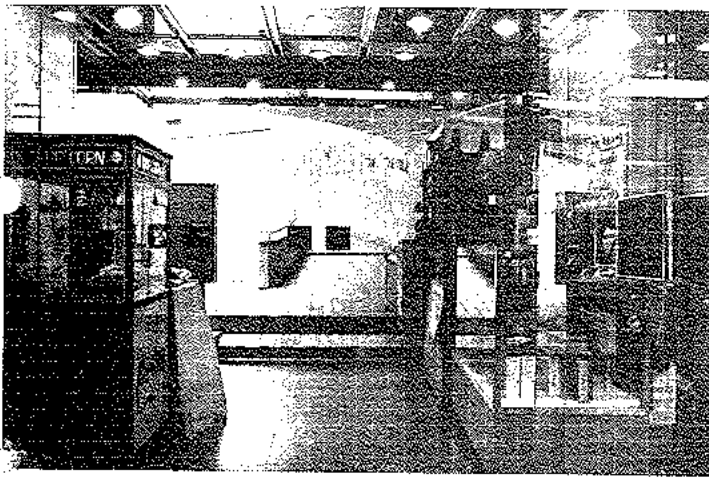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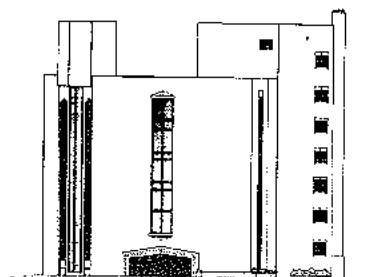
지하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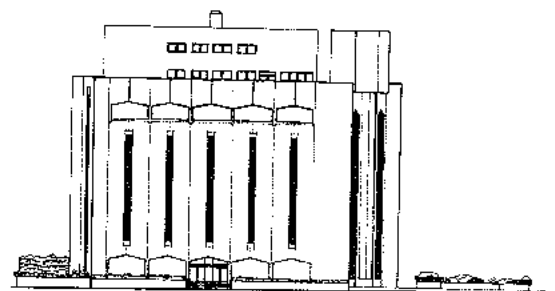
2·5층평면도



6층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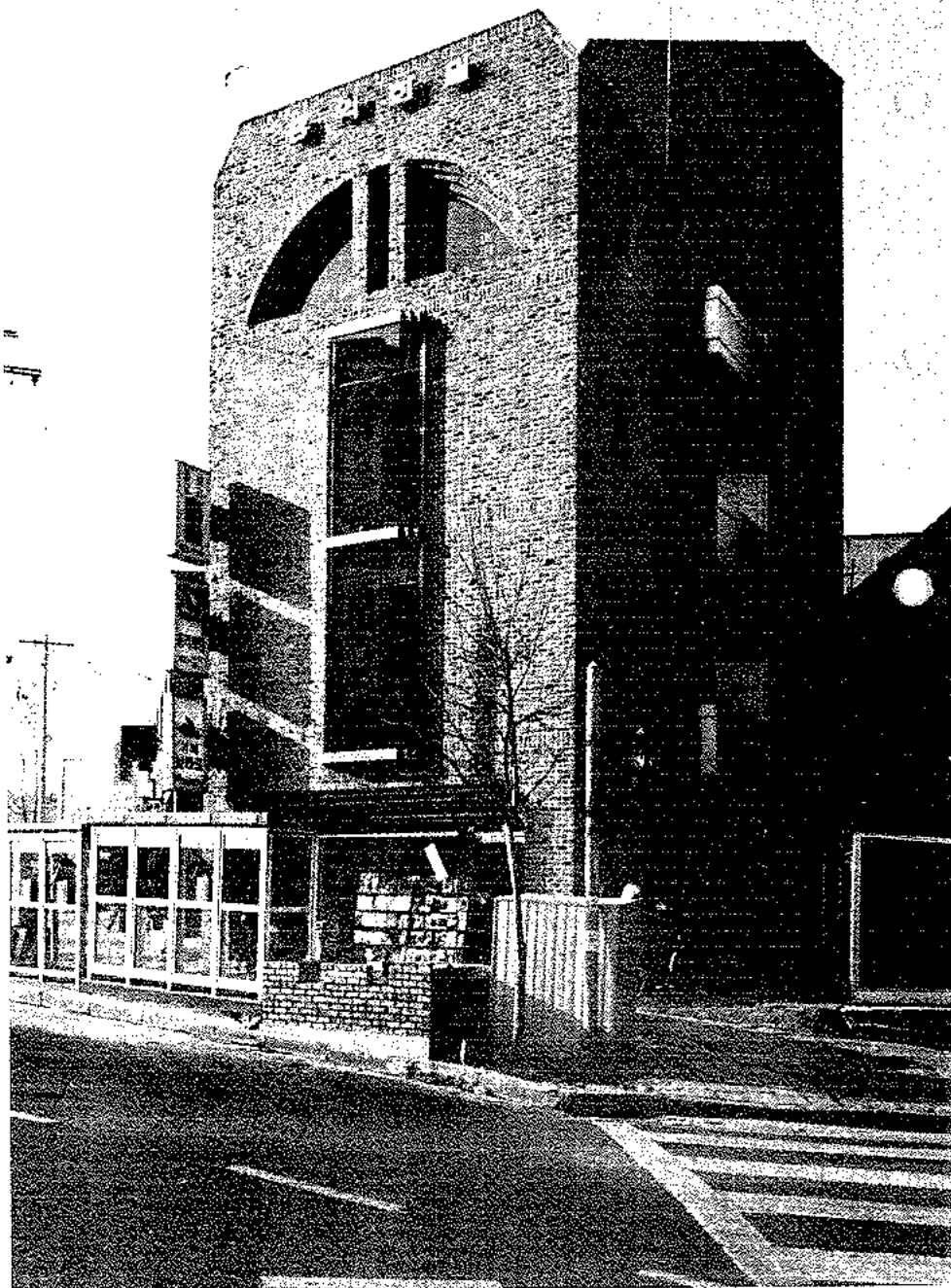
박달빌딩

BAK DAL BUILDING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서교동
- 건축면적 / 75.9㎡
- 연면적 / 414.3㎡
- 용도 /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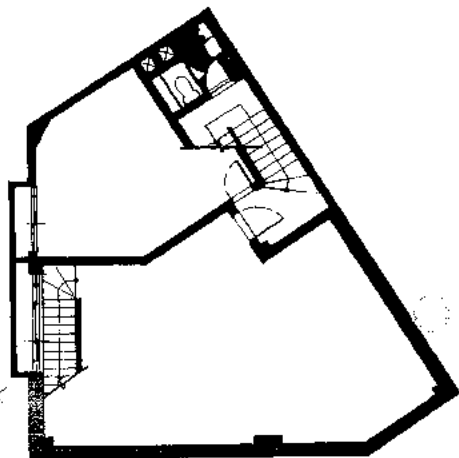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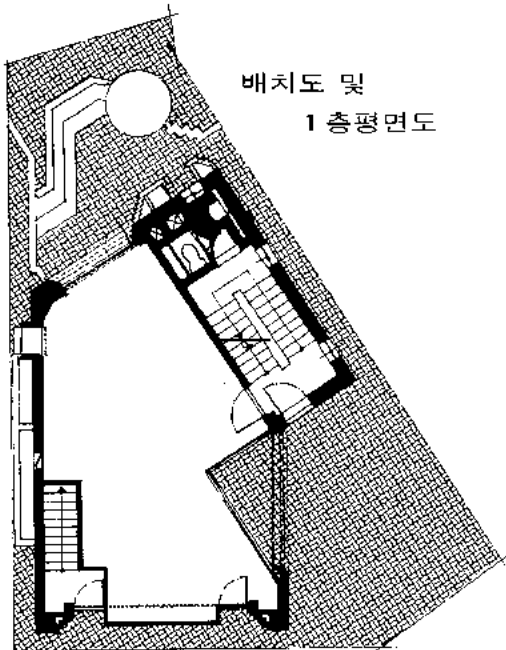
金 琪 碩
Kim, Ki Sok
아람건축연구소
Aram Architects' Atelier



배치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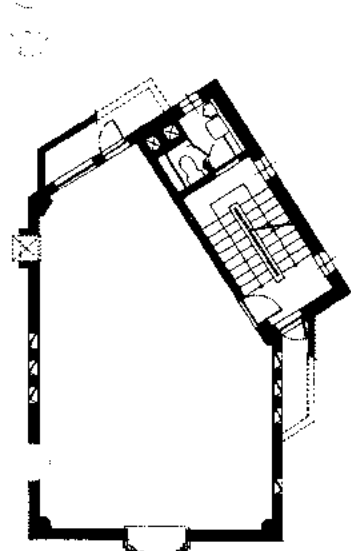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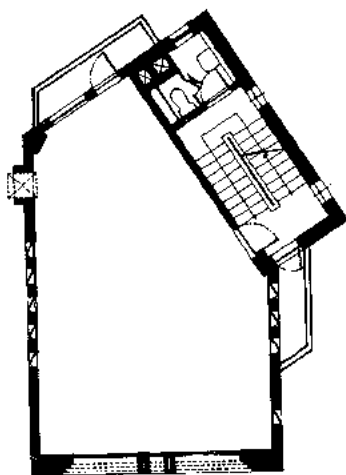


근린생활시설을 수용하는 작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대학가의 주요한 모퉁이를 형성하는 파사드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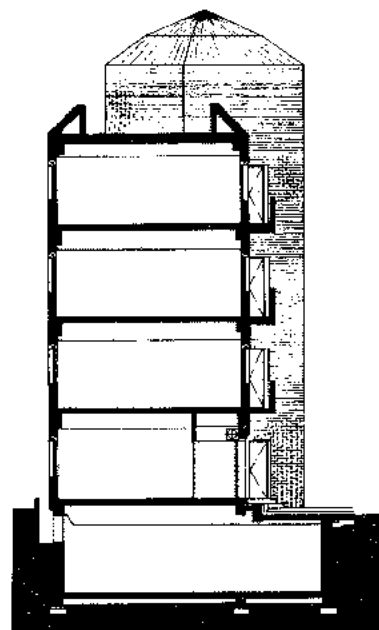
건물은 홀을 이루는 몸체와 세단탑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두개의 덩어리는 대지 형편에 따라 비스듬히 연결되어 있다. 작은 건물이긴 하지만 대학가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2·3층평면도



4층평면도



단면도

서울여자대학 정문

SEOUL WOMEN'S COLLEGE
GATE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공릉동 126
- 대지면적 / 148,904.42㎡
- 건축면적 / 62,84㎡



●Design Principle

① 여자대학으로서 정숙하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으며, "門"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대학의 모뉴먼트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② 정문 우측 옆으로 파고라를 두어 휴식 및 면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외부의 공간적 연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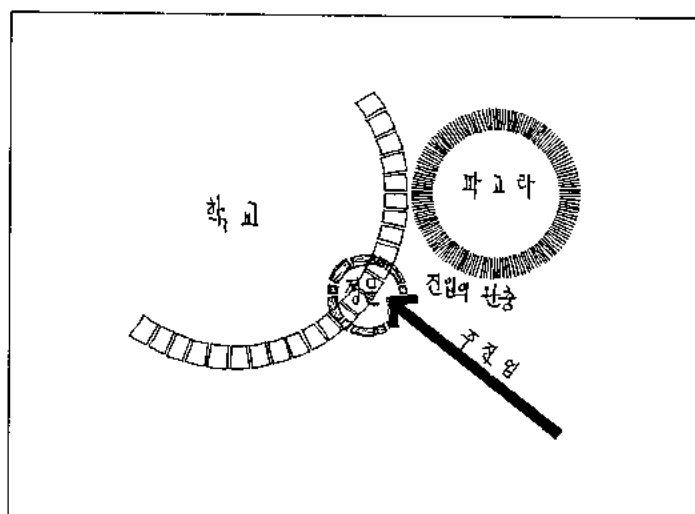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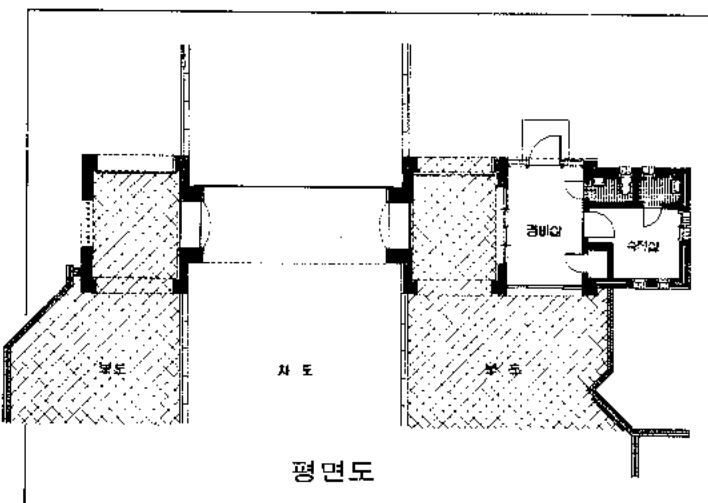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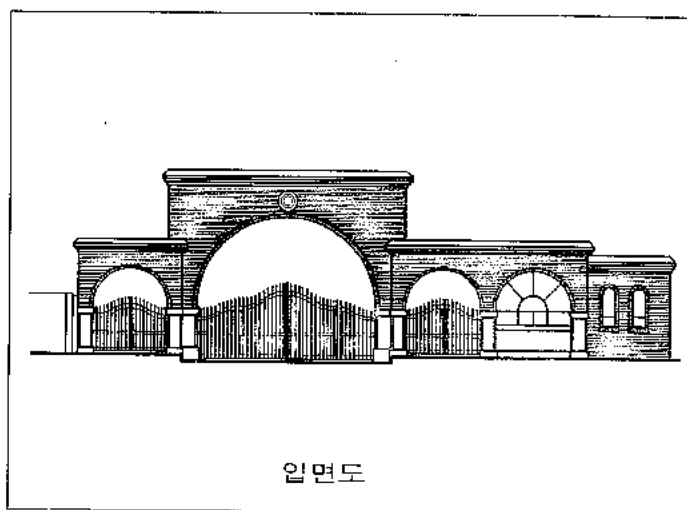
李 珪 杓 / Lee, Kak Pyo

金 仁 喆 / Kim, In Chul

鄭 德 薰 / Chung, Duk Hoon

주·엠톨이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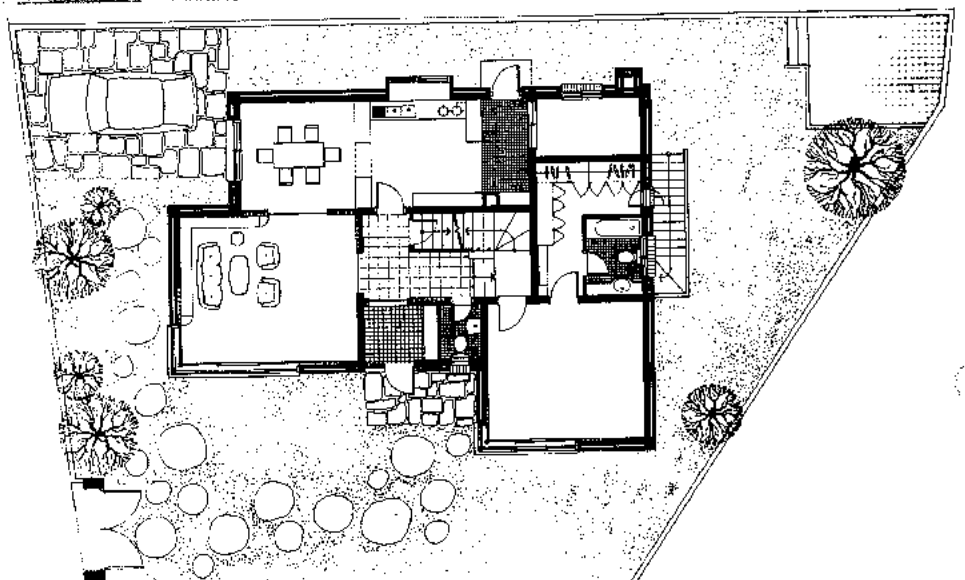
AUM & LEE Architect Associates Co., Ltd.



오박사댁

DR. OH'S RESIDENCE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참천동
- 대지면적 / 485㎡
- 건축면적 / 115.62㎡
- 연면적 / 210.69㎡
- 주요외장재 / 붉은벽돌 및 오지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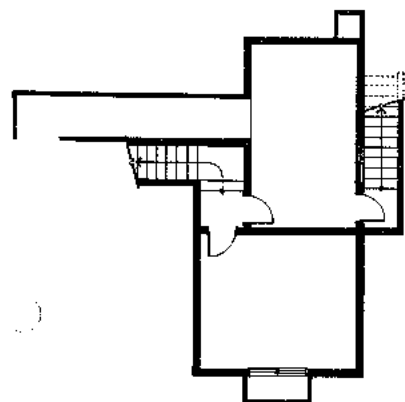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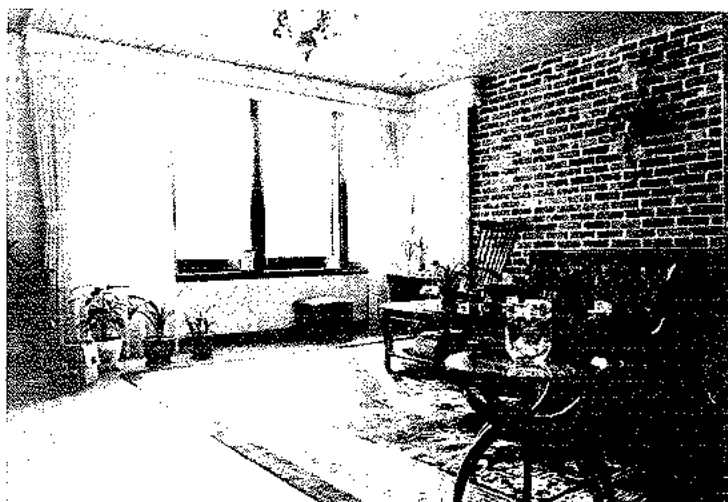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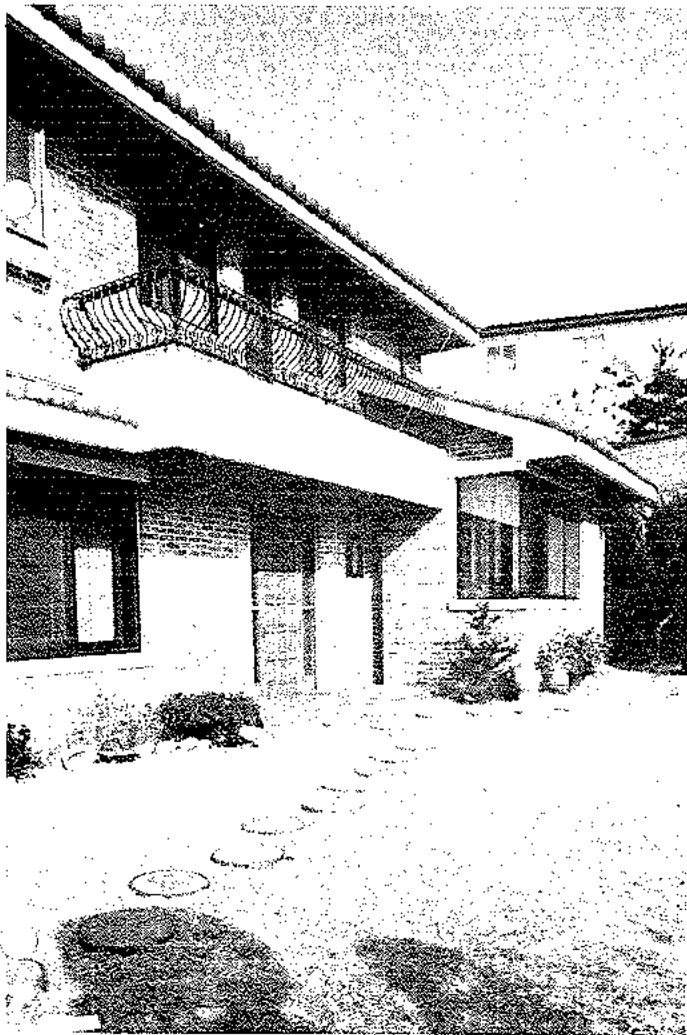


朴性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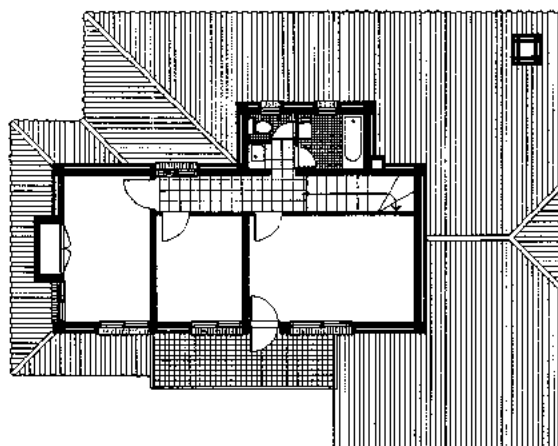
Park, Sung Gyu

건축설계사무소 하나그룹

Hana Group Architects, Planners & Consulting Engineers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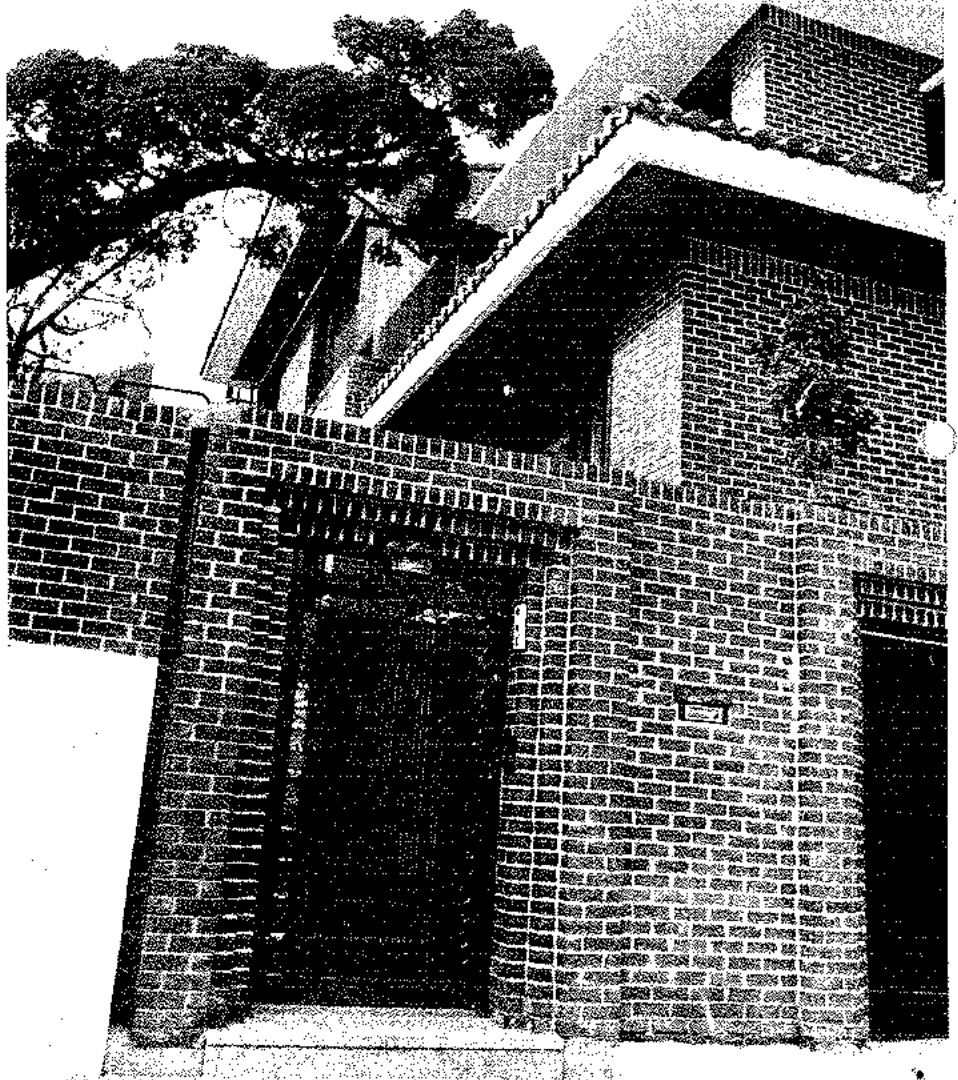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동작동 유교수택

DONG JAK - DONG
PROFESSOR YOU RESIDENCE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
- 대지면적 / 390㎡
- 건축면적 / 131.31㎡
- 연면적 / 301.05㎡
- 구조 / 조적조
- 외장재료 / 붉은벽돌
& 스페니쉬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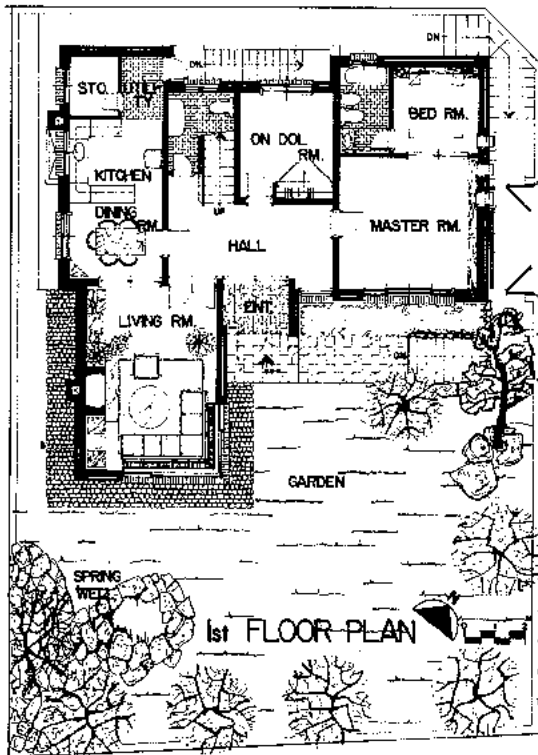
閔 庚 辰

Min, Kyung 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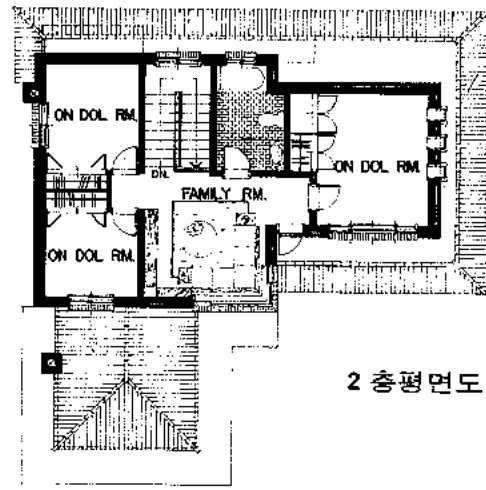
삼우종합건축연구소

Sam Woo Architects & Enginee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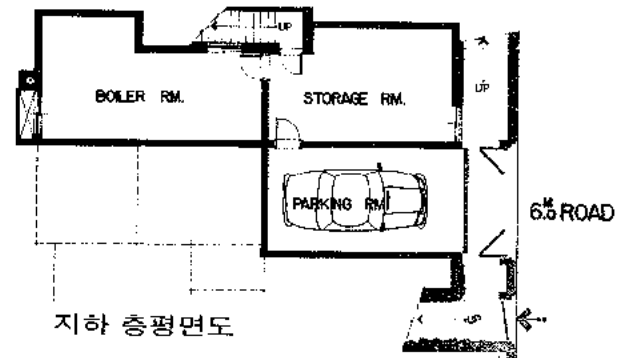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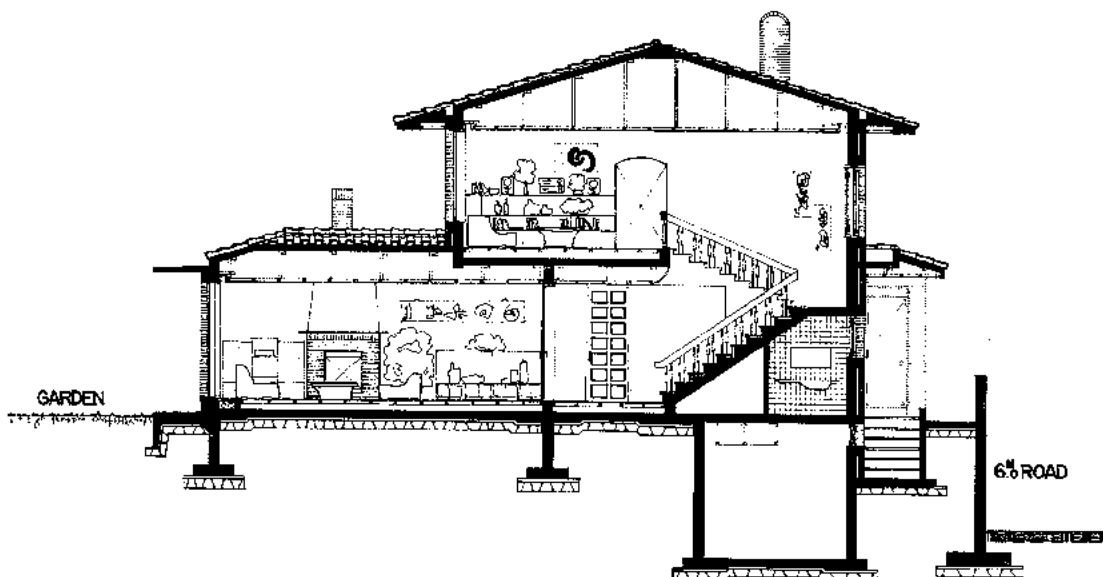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면도



2층면도



지하층면도



방배동 S씨댁

MR. S'S RESIDENCE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방배동
- 대지면적 / 402.84㎡
- 건축면적 / 132.51㎡
- 연면적 / 310.12㎡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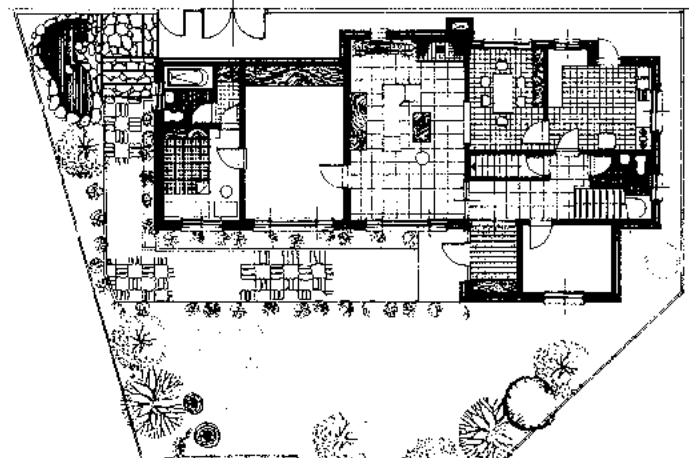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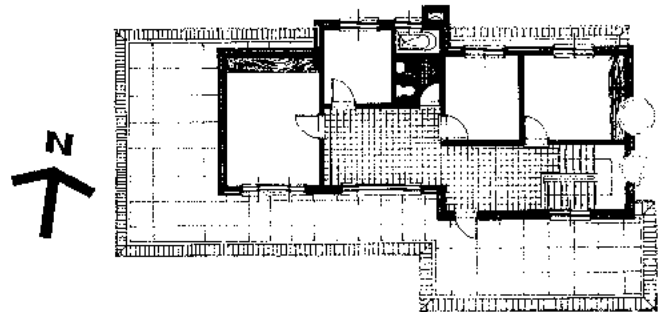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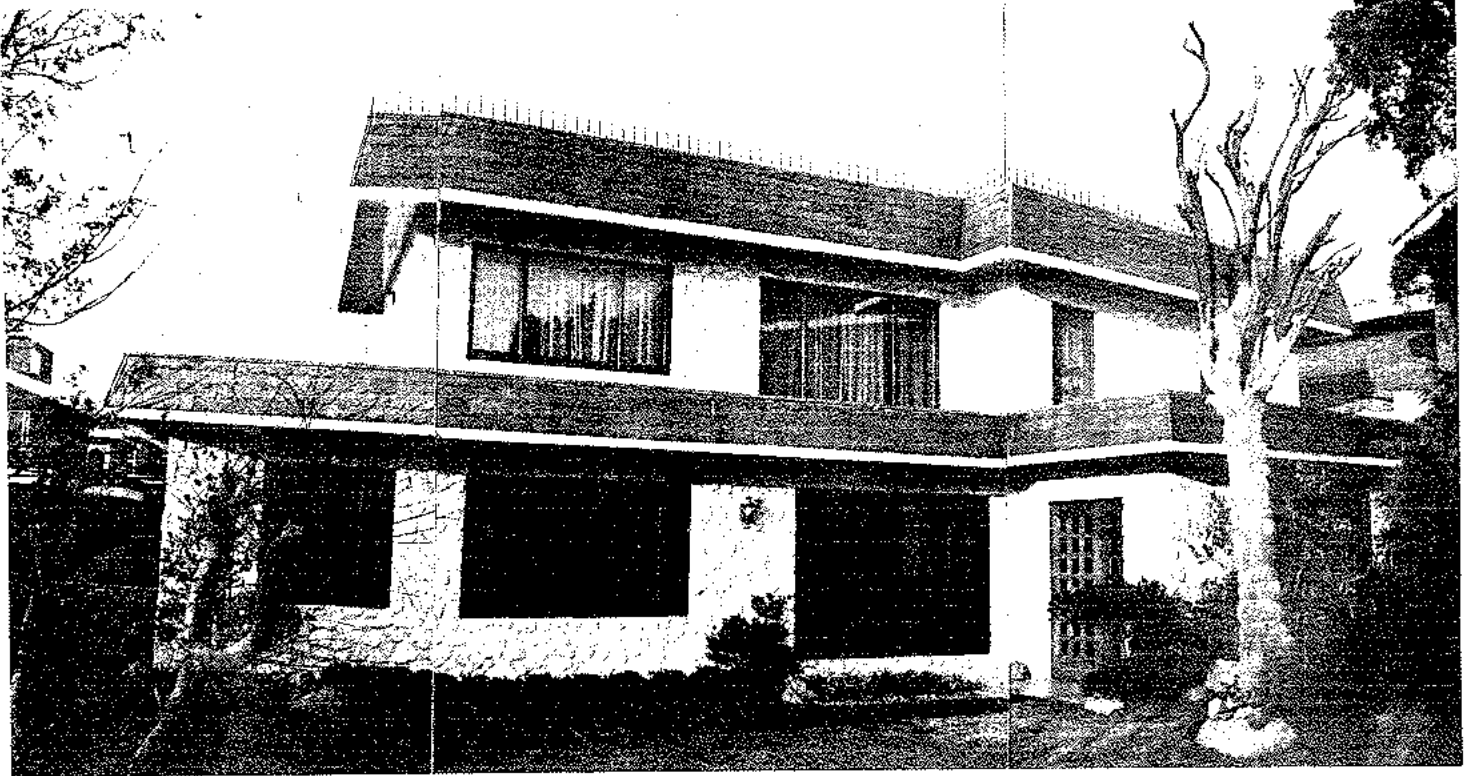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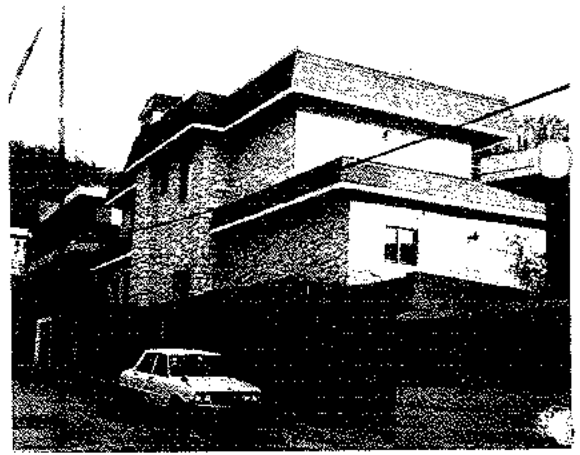


朴 喜 元

Park, Hee Won

보령건축연구소

Bo Ryung Architects & Engineers



북측도로에 면한 대지로서 도로면보다 높고 형태가 변형을 이루었으므로 계획상 어려움이 많았다.

대문과 현관의 동선처리를 길게함으로써 정원과 접할 기회를 많이 주었으며, 각 방을 남향배치로 하여 일조는 물론 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인 면을 살렸다.

외벽의 마감은 백색 자연색으로 처리, 주위환경에 잘 흡수되게 하였다.

室内 空氣汚染에 関한 調査研究

潘 好 鎔 — 淸州大副敎授
池 成 漫 — 工学碩士

I. 序 論

보다 쾌적한 室内 生活를 영위하기 위한 環境要素로는 溫度와 濕度, 氣流, 日照, 照度, 色彩의 調和와 함께 조용하며 淸淨한 공기 등이 複合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만이 쾌적한 室内環境을 기대할 수 있다.¹⁾

특히, 空氣汚染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大別하여 大氣汚染과 室内空氣汚染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室内空氣汚染 문제는 環境基準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作業場內에서 근로자들의 保護를 위한 産業勞動 環境衛生 管理基準이며 또 하나는 일반 住居生活 環境으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建築物 環境衛生 管理基準이다.²⁾

이러한 基準의 설정은 環境改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美國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져 왔고, 우리 나라에서는 經濟發展에 따른 工業化, 都市化로 70年代에 環境汚染과 自然破壞라는 심각한 현실에 부딪치게 되어 1977年 12月31日 環境保全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80年 1月에 環境庁을 발족시켜 環境汚染 문제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현재 大氣汚染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고,³⁾ 産業勞動 環境문제에 있어서도 勞動部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⁴⁾

그러나 일반 住居生活 環境問題에 있어서는 室内 空氣汚染은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本 研究은 소홀하기 쉬운 일반 住居生活에서의 室内 環境汚染

문제를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建築物을 중심으로 室内 空氣의 汚染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建築物內에서 室内 空氣를 汚染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는 사람의 呼吸에 의한 炭酸가스의 증가, 暖房 및 炊事燃料의 불완전 燃燒時 발생되는 有害가스의 증가, 吸煙에 의한 담배연기 이외에 여러가지 浮遊粉塵의 증가, 臭氣의 增加, 細菌의 增加, 酸素의 不足, 非正常의 空氣이온, 그리고 汚染된 外氣의 室内流入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⁵⁾

이와 같은 여러가지의 汚染 要因에 의한 汚染物質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으며 室内空氣 汚染度 測定에 주로 利用되고 있는 一酸化炭素(CO), 炭酸가스(CO₂), 浮遊粉塵을 対象으로 測定하였다.

이와같이 測定한 汚染 濃度는 日本의 建築 基準法과 빌딩 管理法에 規定되어 있는 許容 基準値를 例로 들어 이에 準한 測定 濃度를 比較 分析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室内 許容 基準値는 一酸化炭素가 10ppm 이하이고, 炭酸가스는 1,000ppm(0.1%) 이하, 그리고 浮遊粉塵은 0.15mg/m³ 이하로 規定되고 있으며 이는 室内 空氣 調和 設備의 基準으로도 利用되고 있다.⁶⁾

II. 空氣의 汚染

A. 空氣의 性質

空氣는 여러가지 氣體가 混合된 物質이다. 大氣를 構成하고 있는 空氣中 水蒸氣를 제외한 成分을 乾燥空氣

라고 하는데 溫度 0℃, 1 氣壓(760mm Hg)에서 乾燥空氣의 成分은 窒素(N₂) 78.084%, 酸素(O₂) 20.946%, 아르곤(Ar) 0.934%이며 이 세가지로서 거의 100%를 차지하고,¹⁾ 그 외에는 炭酸가스(CO₂)가 0.033% 정도이고 나머지 약 16가지의 微量가스를 모두 합해도 0.01% 정도에 불과하다.

B. 室内 空氣汚染과 人体影響

1. 一酸化炭素(CO)

室内에서 利用되고 있는 暖房 및 炊事用 燃料로는 대개 煉炭, 石油, LP 가스, 都市가스 등이 使用되고 있는데 室内에서의 炭素濃도가 19%로서²⁾ 酸素供給이 充分하지 못하게 되면 燃料의 燃燒過程에서 더욱 不完全 燃燒을 일으켜 一酸化炭素의 發生이 급격히 增大된다.³⁾ 또한 吸煙에 의한 一酸化炭素의 影響은 大氣汚染에 따르는 一酸化炭素의 影響보다 훨씬 더 크다. 가령 呼吸하는 空氣속의 一酸化炭素 量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3~7ppm인데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는 20~40ppm으로 環境基準의 10ppm을 크게 凌駕하고 있는 事實이라는 것이다.⁴⁾

이와 같이 一酸化炭素는 室内에서 暖房이나 炊事 그리고 吸煙에 의해 現實적으로 發生하기 쉬운 가스로 毒性이 대단히 強한 것이지만 無色無臭함으로 中毒作用이 일어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一般的으로 人体에 미치는 影響은 表2-1과 같으며,⁵⁾ 20ppm 濃度를 8時間 吸入하게 되면 体内에 一酸化炭素 헤모글로빈(Hb-CO)이 生成하게 되므로 맑은 空氣를 마시어 回復시켜야 한다.⁶⁾

이와같이 一酸化炭素가 体内에 吸入하게 되면 血色素와 結合(Co의 親和力은 O_2 의 210배)하여 酸素의 供給을 妨害함으로 酸素 缺乏症을 誘發시킨다.⁷⁾ 또 一酸化炭素 中毒症狀의 程度는 Hb-CO의 形成이 CO 와 O_2 의 各 分圧에 關係되는 까닭에 酸素 分圧이 낮은 高山이거나 高温 多湿의 環境, 密閉된 室内에서의 作業, 그리고 安靜時 보다 運動時에 CO 中毒이 빨리 일어나게 된다.⁸⁾ 또한 吸煙者와 같이 있는 非吸煙者는 平均 血中 Hb-CO濃度가 吸煙者의 76%에 달하고 있어 吸煙者가 4個피를 吸煙할 때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約 3個피 程度 吸煙하는 被害를 받는다고 한다.⁹⁾

2. 炭酸가스(CO_2)

炭酸가스는 大氣중에 300~400ppm (0.03~0.04%) 이 含有되어 있으며 呼吸중에도 多量含有되어 있어 CO_2 自体는 有害하지 않으나 炭酸 가스의 濃度 增加는 濕熱條件의 惡化나 他 汚染因子의 增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室内 環境의 綜合的 評價手段으로 CO_2 濃度가 測定된다.¹⁰⁾

呼吸에 의한 炭酸가스의 增加는 空氣가 일단 사람의 肺에 들어 갔다가 나올때 成分의 變化는 酸素의 減少(約 5%)와 炭酸가스의 增加(約 4%) 또는 水分의 增加를 가져 온다. 사람이 安靜을 하고 있을 때의 呼吸에 의한 炭酸가스 排出量은 人種, 年令, 性格, 性別에 따라 다르나 韓國人의 경우 다음과 같다고 報告되고 있다.

成人男子 12-15l/h 平均13l/h

成人女子 위의 값에 約90%¹¹⁾

兒 童 成人의 約40~70%¹²⁾

또한 사람이 作業하는 程度에 따라 人体 呼吸에 의해 排出되는 炭酸가스 量은 많은 差異를 나타낸다.

이와같이 室内에서의 炭酸가스 濃度가 在室者의 呼吸에 따라 1000ppm (0.1%) 以上이 되면 室内 空氣의 活性이 없어진 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燃燒器具가 있을 때에는 얼마간의 一酸化炭素가 發生하기 때문에 이것을 10ppm以下로 維持하기 위해서는 炭酸가스의 許容濃度는 1000ppm (0.1%) 以下로 維持해야 한다. 더우기 많은 사람이 계속 在室하는 경우에는 表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許

〈表2-1〉 一酸化炭素(CO)의 人体影響

濃度(ppm)	暴露時間	影 響
5	20min	高次神經系의 反射作用의 變化
30	8h 이상	視覺·精神 機能障害
200	2~4 h	前頭部頭重, 輕度の 頭痛
500	2~2 h	강렬한 頭痛惡心·脫力感·視力障害·虛脱感
1,000	2~3 h	맥박亢進, 痙攣을 수반하는 失神
2,000	1~2 h	死 亡

〈表2-2〉 炭酸가스(CO_2)의 許容濃度

濃度(Vol. %)	의 의	적 요
0.7	다수가 계속실하는 경우의 허용농도	CO_2 그 자체의 유해한도는 아니고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성상이 CO_2 증가에 비례하여 악화 된다고 가정 했을때의 오염의 지표로서의 허용 농도를 의미한다.
0.10	일반적인 경우의 허용농도	
0.15	환기계산에 사용되는 허용농도	
0.2~0.5	매우 불량으로 판단됨	
0.5 이상	가장 불량으로 판단됨	
4~5	호흡중추를 자극하여 호흡의 깊이, 회수를 늘린다. 호흡시간이 걸면 위험. O_2 의 결핍을 동반하면 장애는 빨리 일어나고 결정적으로 된다.	
~8~	10분간 호흡하면 심한 호흡곤란, 안면홍조, 두통을 일으킨다. O_2 의 결핍을 동반하면 장애는 더욱 현저하게 된다.	
18 이상	치명적	

容濃도를 700ppm(0.07%) 以下로 維持해야 한다고 Penttenkopfer는 提唱하고 있다.

3. 浮遊粉塵

공기중에 존재하는 정상성분 이외의 물질로는 유해가스 뿐만 아니라 미세한 크기의 입자물질이 여러가지의 생성과정에 의해 고체입자 또는 액체입자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자물질을 粉塵이라고 한다.¹⁴⁾ 이러한 粉塵은 비교적 무거워서 沈降하기 쉬운 降下粉塵(Dust Fall)과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沈降하기 어렵고 장기간 공중에 떠다니는 浮遊粉塵(Suspended Particles)이 있는데¹⁵⁾ 인체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해를 끼치는 것은 浮遊粉塵으로서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건축물내에서 분진 농도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외기중의 농도변화와 근사하지만 생활 활동에 수반한 발진, 즉 재실자의 보행이나 작업, 청소, 난방기구의 사용, 실내 공기의 건조, 흡연 등에 의해서 분진이 발생 함으로¹⁶⁾ 일시적으로 고농도가 된다.

특히 흡연에 의한 공기오염은 浮遊 분진의 발생이 심하여¹⁷⁾ 환기상태가 불량한 실내나 좁은 공간내에서는 각종 유기물질 등 30여종의 유독물질이

계속 축적되어 그 농도가 증가한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으로 인한 불쾌감뿐 아니라 직접적인 刺戟이나 Allergic Mechanism을 통한 上氣道炎 結膜炎 그리고 유해물질을 흡입함에 따른 전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¹⁸⁾ 이와같이 분진에 의한 인체의 영향은

- 가. 폐 내부에 침입하여 沈積하며 여러가지의 병, 즉 기폐, 진폐 등을 유발하게 된다.
- 나. 호흡기를 刺戟하여 만성기관염, 喘息을 일으킨다.
- 다. 피부염, 결막염을 일으키게 한다.
- 라. 먼지에 부착되어 여러가지의 세균을 퍼뜨린다.
- 마. 기타 폐암의 원인으로도 된다고 한다.

먼지의 크기는 인체에 끼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직경 0.01μ 으로 부터 150μ 정도의 범위로서¹⁹⁾ 큰 입자는 관성에 의하여 鼻毛나 상부기도의 점액면에 충돌하여 제거되고, 아주 작은 입자는 상부기도의 표면에서 가스와 마찬가지로 확산되어 부착해 버린다. 그러나 $0.5\sim 5\mu$ 정도의 입자는 도중에 捕集되지 않고 그대로 폐포에 도달하여 沈着하는 수가 있다.²⁰⁾

이러한 현상으로 10μ 이하 특히 5μ 이하의 것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한다.

III. 실태조사 및 분석

A. 조사지역과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역은 청주시 중심상가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며 차량통행을 금하고 있는 청주약국 앞 네거리에서 수아사 앞 네거리까지의 도로변 약 630m와 수아사에서 청주대교까지의 간선 도로변 약 370m의 거리에 입점해 있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이 지역내에 있는 茶房 32개소중 20개소와 시식코너 4개소를 그리고 이 지역내에 있는 백화점 중 1개소를 1층, 2층, 3층에서, 규모가 약간 큰 의류상점 다수중 3개소를 은행건물 9개소중 3개소와 우체국 1개소를 측정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이 지역을 벗어나 청주시내에 산재해 있는 영화관 5개소중 4개소를 그리고 유흥장을 중심으로 다수중 7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측정토록 계획하였다.

조사기간은 열손실을 막기 위해 생활공간을 밀폐하는 경우가 많은 동절기를 택하여 1982년 12월 1일부터 1983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茶房, 음악감상실, 시식코너, 영화관, 백화점 및 의류상점에서는 하루중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하오 6시부터 9시사이를 택하여 측정하였고, 유흥장의 경우는 하오 8시부터 12시사이를 택하였으며, 은행 및 우체국에서는 평일 2시부터 5시사이 근무시간을 택하여 측정하였다.

B. 측정방법

1. 측정기구

CO, CO₂의 측정기구는 진공법 가스 채취기로서 시료공기를 검지관내에 흡입하기 위한 내용적 100ml의 금속제 핸드펌프이다. 이러한 기구는 北川式 가스채취기(일본 光明理化学工業株式会社 제품, IA 8110)와 가스텍 가스채취기(Gastec Corporation Tokyo, Japan)가 있으며 두 기구를 병용 측정하였다.

부유분진의 측정은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에 빛을 照射하면 입자에 의하여 빛을 산란하게 되며, 이러한 산란광의 강도를 측정하여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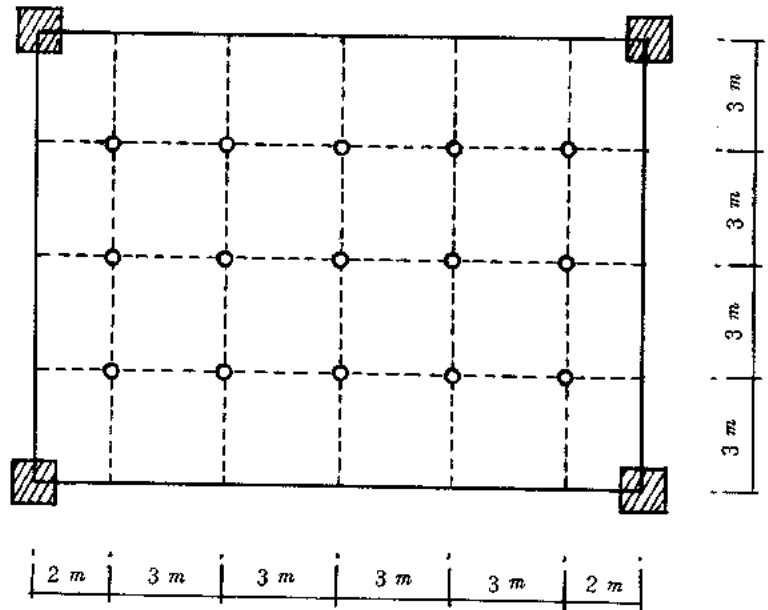


그림 3-1 測定点의 決定点

(○표는 測定点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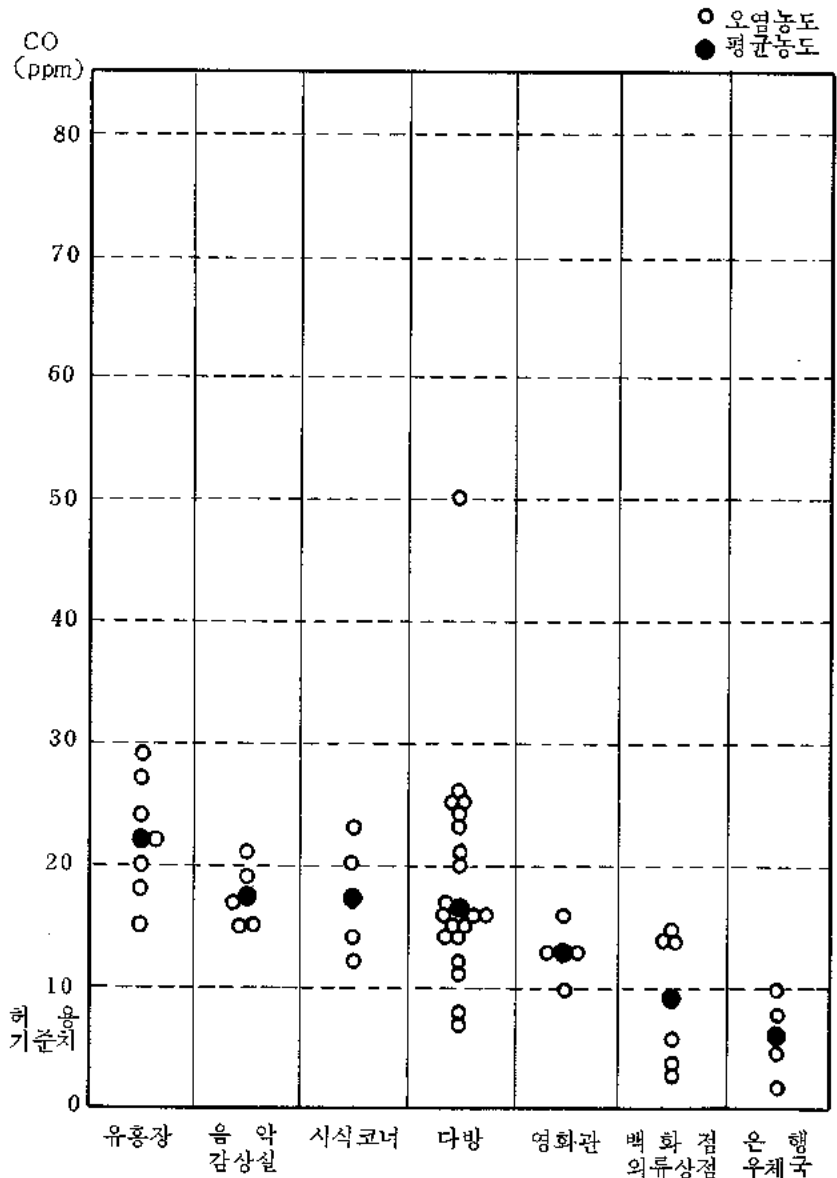


그림 3-2 CO濃度の 藥種別 比較

数値로부터 분진의 농도를 구하는 분진계로서 Digital Dust Indicator Type-P3(Sibata CO. NO. 0299803)을 사용하였다.

2. 측정위치

측정점의 설정방법은 그림 3-1과 같이 평면적으로는 실내 중앙을 원점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3m 이내 마다 같은 간격으로 평면도상에 선을 긋고 가로 세로의 교차점을 모두 측정점으로 하였다.

측정을 하는 높이는 바닥에서 50~150cm로 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에서의 공간 농도의 측정과 바닥에 쌓인 유해물이 농도계에 흡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⁹⁾

C. 결과분석 및 고찰

1.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 실태는 그림3-2와 표3-1에서 보는 바와같이 측정한 7개 업종 50개소중 84%나 되는 42개소가 실내 허용기준치 10ppm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중 41개소가 10~30ppm사이의 오염농도 분포를 이루고 있고, 이들 기준치를 초과하는 42개소중에는 10~20ppm사이의 농도가 26개소로서 52%가 되고, 20ppm 정도를 8시간 흡입 하게 되면 체내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Hb-CO)이 생성하게 되어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이 이상의 농도, 즉 20~30ppm 사이의 오염농도 분포를 이루고 있는 곳이 15개소로서 30%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종별 오염 비율은 유흥장이 기준치보다 평균 2.2배나 오염 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악감상실 및 시식코너가 1.7배, 다방이 1.6배, 영화관이 1.3배, 백화점 및 의류상점은 0.9배, 은행 및 우체국은 0.6배로 나타났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실내에서 심한 흡연과 함께 煉炭煖爐, 연통 없는 석유난로 그리고 취사기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점객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평균 1.6배 이상 CO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데 반해, 난방 및 취사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의류상점, 은행, 우체국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저농도를 나타내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表 3-1〉 CO濃度 分布의 比率

분 류	기준이하		1 배		2 배		3 배		4 배		5 배		계	
	10이하		10~19		20~29		30~39		40~49		50~59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유흥장			2	29	5	71							7	100
음악감상실			4	80	1	20							5	"
시식코너			2	50	2	50							4	"
다방	2	10	10	10	7	35					1	5	20	"
영화관			3	100									4	"
상점	3	50	3	50									6	"
은행·우체국	3	75	1	25									4	"
계	8	16	26	52	15	30					1	2	50	"
		16%			42개소	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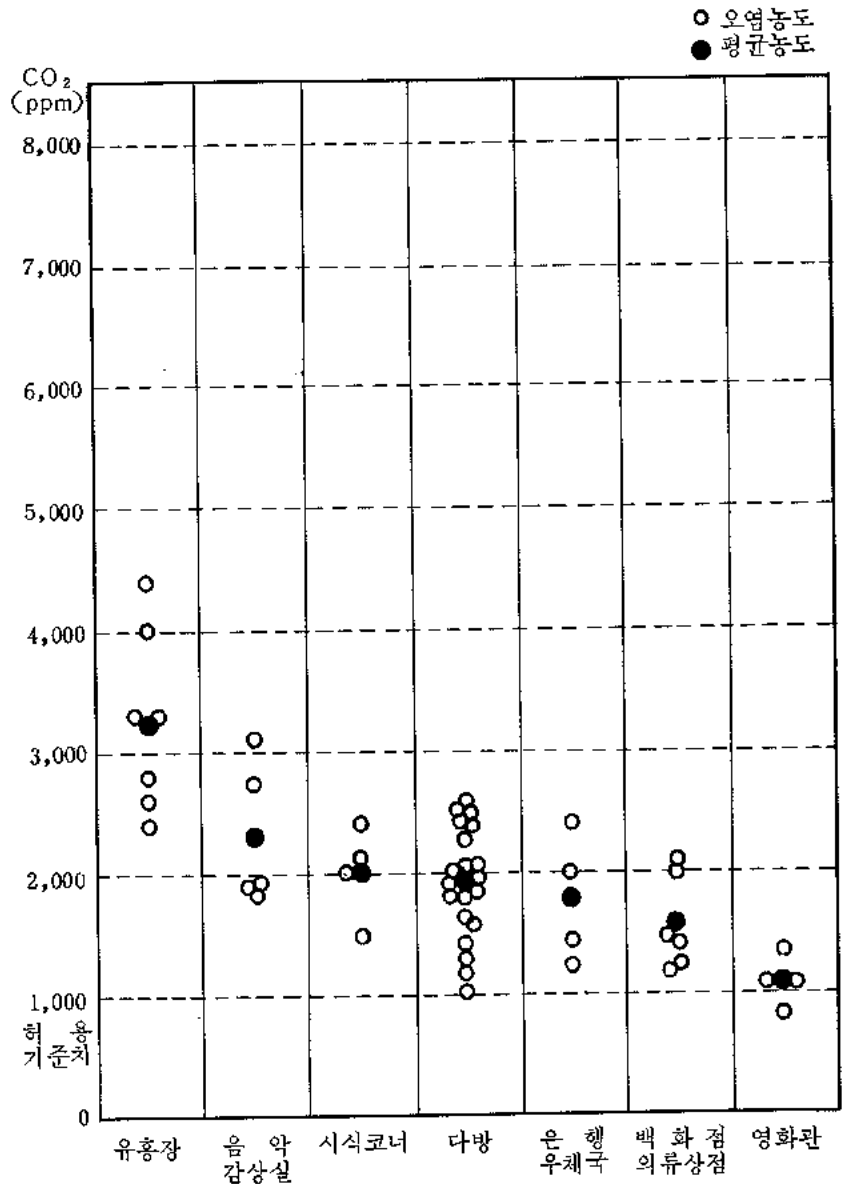


그림 3-3 CO₂濃度の業種別比較

2. 탄산가스(CO₂)

탄산가스에 의한 실내 공기오염 실태는 그림3-3과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한 7개 업종 50개소중 98%나 되는 49개소가 실내 허용기준치 1000ppm (0.1%)을 초과하고 있

며, 88%나 되는 44개소가 1000~3000 ppm 사이의 농도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2000~5000ppm 사이의 오염 농도는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불량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는데 이러한 오염농도 분포를 이루고 있는

곳이 25개소나 되어 전체의 50%가 탄산가스에 의한 실내 공기오염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업종별 오염 비율은 유흥장이 기준치보다 평균 3.3배나 오염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악감상실이 2.3배, 시식코너가 2.0배, 다방이 1.9배, 은행 및 우체국이 1.8배, 백화점 및 의류상점이 1.6배, 영화관이 1.1배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탄산가스에 의한 공기 오염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점액업소에서 대체적으로 고농도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환기설비의 부족과 환풍기의 위치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업주들의 공기오염에 대한 의식부족과 연료비 절약을 위해 환기설비를 제대로稼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3. 浮遊粉塵

부유분진에 의한 실내 공기오염 실태는 그림3-4와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한 7개 업종 50개소중 80%나 되는 40개소가 실내 허용기준치 $0.15\text{mg}/\text{m}^3$ 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농도의 분포는 기준치의 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이 10개소(20%)나 되고, 2배나 오염되어 있는 곳이 14개소(28%), 3배나 오염되어 있는 곳이 10개소(20%), 4배나 오염되어 있는 곳이 3개소(6%)로서 전체의 74%나 되는 37개소가 1~4배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오염 비율은 유흥장이 기준치보다 평균 4.3배나 오염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악감상실이 3.2배, 다방이 2.8배, 시식코너가 2.2배, 영화관이 1.2배, 은행 및 우체국이 0.97배, 백화점 및 의류상점이 0.5배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부유분진에 의한 실내 공기오염은 여러가지의 발진 요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흡연에 의한 담배 연기가 분진오염의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액업소인 유흥장, 음악감상실, 다방, 시식코너에서는 36개소 모두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고농도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

〈表 3-2〉 CO_2 濃度 分布의 比率

ppm	기준이하		1 배		2 배		3 배		4 배		계	
	1000이하		1000~1999		2000~2999		3000~3999		4000~4999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개소	(비율 (%))
유흥장					3	42	2	29	2	29	7	100
음악감상실			3	60	1	20	1	20			5	"
시식코너			1	25	3	75					4	"
다방			11	55	9	45					20	"
은행·우체국			2	50	2	50					4	"
상점			4	67	2	33					6	"
영화관	1	25	3	75							4	"
계	1	2	24	48	20	40	3	6	2	4	50	"
	2%		49개소, 9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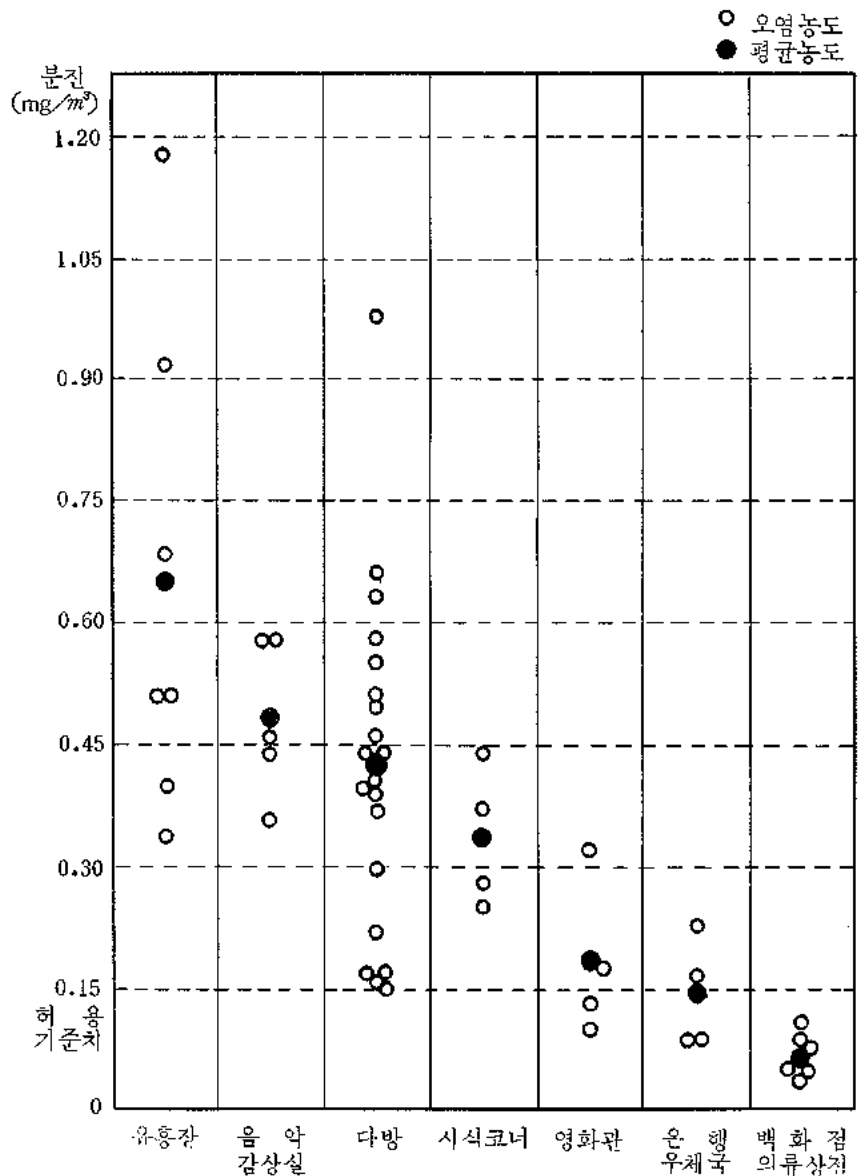


그림 3-4 粉塵濃度の業種別比較

IV. 결 과

동절기 실내 공기오염에 관한 본 조사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결과를 얻었다.

1.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실태는 측정한 7개 업종 50

해 화재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백화점 및 의류상점에서는 6개소 모두가 실내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1.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실태는 측정한 7개 업종 50

개소중 84%나 되는 42개소가 실내 허용기준치 10ppm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중 41개소나 되는 대부분이 10~30ppm 사이의 오염농도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50ppm이나 오염되어 있는 곳도 1개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산화탄소를 흡입함에 따라 체내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Hb-CO)이 생성하게 되는 농도 20ppm 이상 되는 곳이 16개소로서 32%나 되고 있다.

이와같은 농도는 인체에 그리 심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도 장시간 흡입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의 기능장애를 가져 온다.

2. 탄산가스(CO₂)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실태는 측정된 50개소중 98%나 되는 49개소가 실내 허용기준치 1,000ppm (0.1%)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농도의 분포는 1,000~2,000ppm 미만의 농도가 24개소로서 48%나 되고 있으며, 매우 불량으로 판단되어 저고 있는 2,000~5,000 사이의 농도분포를 이루고 있는 곳이 25개소로서 전체의 50%나 되고 있다.

3. 부유분진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실태는 50개소중 80%나 되는 40개소가 실내 허용기준치 0.15mg/m³를 초과하고 있다. 이들 분진농도의 분포는 기준치의 1~2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이 24개소로서 48%나 되고, 기준치의 3~4배나 오염되어 있는 곳이 13개소로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表 3-3〉 粉塵濃度 分布의 比率

mg/m ³ 분 류	기준 이하	1 배	2 배	3 배	4 배	5 배	6 배	7 배	계
	0.15 이하	0.15 ~0.29	0.30 ~0.44	0.45 ~0.59	0.60 ~0.74	0.75 ~0.89	0.90 ~1.04	1.05 ~1.19	
	개 소 비율 %	개 소 비율 %	개 소 비율 %	개 소 비율 %	개 소 비율 %	개 소 비율 %	개 소 비율 %	개 소 비율 %	
유 흥 장			2 29	2 29	1 14		1 14	1 14	7 100
음악감상실			2 40	3 60					5 "
다 방		5 25	7 35	5 25	2 10		1 5		20 "
시 식 코 너		2 50	2 50						4 "
영 화 관	2 50	1 25	1 25						4 "
은행·우체국	2 50	2 50							4 "
상 점	6 100								6 "
계	10 20	10 20	14 28	10 20	3 6		2 4	1 2	50 "
	20%			40개소, 80%					100%

기준치의 6~7배나 오염되어 있는 곳이 3개소로서 6%를 나타내고 있어 CO, CO₂보다 고농도 분포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4. 대체적으로 업종별 평균 공기오염 농도가 실내 허용기준치에 비례하여 가장 높게 오염되어 있는 곳은 유흥장으로 4.3배(분진)나 되고, 다음으로 음악감상실이 3.2배(분진), 다방이 2.8배(분진), 시식코너가 2.2배(분진), 은행 및 우체국이 1.8배(CO₂), 백화점 및 의류상점이 1.6배(CO₂), 영화관이 1.3배(CO) 순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接客업소(유흥장, 음악감상실, 다방, 시식코너)에서의 오염물질 중

기준치에 대한 평균 오염비율이 대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부유분진으로 2.2~4.3배나 오염되었고, 다음으로 탄산가스가 1.9~3.3배, 일산화탄소가 1.6~2.2배 순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내에서의 공기오염 실태는 거의 대부분이 실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1~4배 정도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업주들에게 실내 공기오염의 심각성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하겠고,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허용기준치 설정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Ⅰ : 1) 戸崎重弘・池本弘著, 編輯部訳: 空氣調和 設備技術百科, 機電研究社, 1979년 9월, P. 7

2) 瀬沼勲: 실내환경학, 三共출판주식회사, 昭和55년 7월, P. 9

3) 서울신문, 1983년 4월12일자

4) 중앙일보, 1982년 12월 8일자

5) 瀬沼勲: 실내환경학, 三共출판주식회사, 昭和55년 7월, P. 8~19

6) 吉村武・浅岡陸夫・二木良彦: 공기조화설비, 彰国社刊, 昭和57년 3월, P. 1

Ⅱ : 1) 盧在植외 7인: 대기오염, 산업공해연구소, 1981년 3월, P. 9~10

2) 瀬沼勲: 실내환경학, 三共출판주식회사, 昭和55년 7월, P. 15~16

3) 건축공학연구회 역, 李鍵 監修: 건축설계자료집성 I 환경, 建友社, 1981년 6월, P. 153

4) 李恒世・金義深・金東進: 체육과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년 2월, P. 240~241

5) 건축공학연구회 역, 李鍵 監修: 건축설계자료집성 I 환경, 建友社, 1981년 6월, P. 140

6) 瀬沼勲: 실내환경학, 三共출판주식회사, 昭和55년 7월, P. 13

7) 盧在植외 7인: 대기오염, 산업공해연구소, 1981년 3월, P. 26

8) 朴奉星・姜秉國・鄭士熙: 건축환경계획원론, 技文堂, 1979년 2월, P. 75~76

9) 金明旻: 실내미호흡자의 흡연피해에 대한 추정, 전남대 대학원 의학과, 1980년, P. 16~17

10) 瀬沼勲: 실내환경학, 三共출판주식회사, 昭和55년 7월, P. 13~14

11) 金光文・朴敬浩: 건축환경계획원론, 형제사, 1979년 2월, P. 88~89

12) 牧野彰一・今井与蔵・植村朝一: 공기조화·위생설비① 기초 I, 彰国社刊, 昭和53년, P. 44

13) 瀬沼勲: 실내환경학, 三共출판주식회사, 昭和55년 7월, P. 13~14

14) 瀬沼勲: 실내환경학, 三共출판주식회사, 昭和55년 7월, P. 14~15

15) 盧在植외 7인: 대기오염, 산업공해연구소, 1981년 3월, P. 24

16) 金光文・朴敬浩: 건축환경계획원론, 형제사, 1979년 2월, P. 8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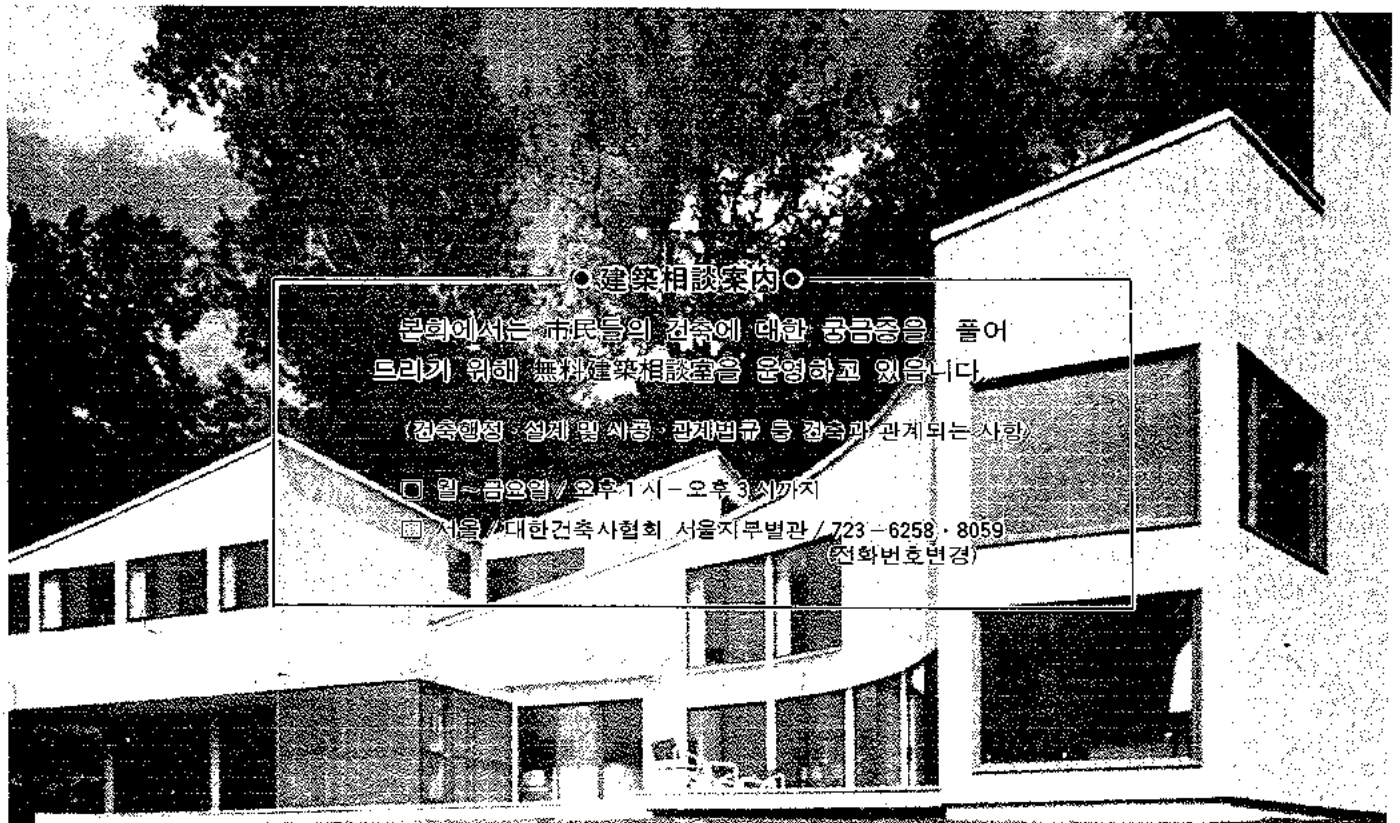
17) 건축공학연구회 역, 李鍵 監修: 건축설계자료집성 I 환경, 建友社, 1981년 6월,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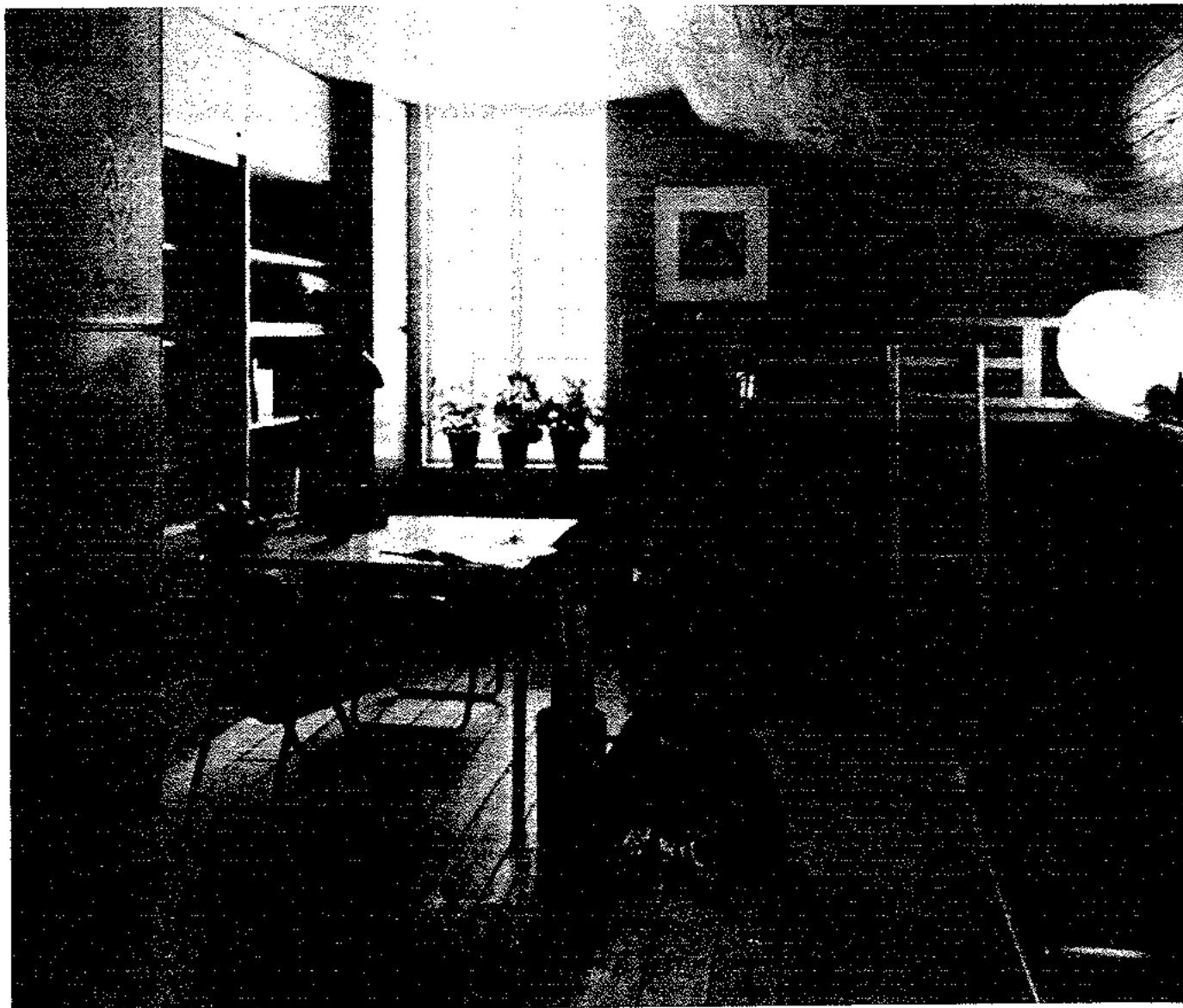
- 18) 金明璇: 실내 비흡연자의 흡연피해에 대한 추정, 전남대대학원의학과, 1980년, P. 2~3
 19) 金光文·朴敬浩: 건축환경계획원론, 형제사, 1979년 2월, P. 89~90
 20) 崔德一: 대기오염의 이론과 실제, 실용기술공학사, 1982년, P. 134

III: 1) 李東奎 編輯: 작업환경측정지도서, 한국문서자료출판사, 1982년 2월, P. 20~23

参 考 文 献

1. 建築工学会 譯, 李健 監修: 建築設計資料集成I 環境, 建友社, 1982. 2
2. 高文社 編著: 公害公定試驗法, 高文社, 1981. 5
3. 教材編纂委員会: 体育, 理工圖書出版社, 1983. 2
4. 具然昌: 環境保全法解説, 受験社, 1980. 6
5. 權肅杓外 2人: 環境工学, 普成文化社, 1982. 2
6. 金光文·朴敬浩: 建築環境計劃原論, 兄弟社, 1979. 2
7. 金享徹: 環境保全法, 産業公害研究所, 1981. 9
8. 労働部 国立労働科学研究所: 粉塵の有害性と測定方法, 1982. 5
9. 盧在植外 7人: 大氣汚染, 産業公害研究所, 1981. 3
10. 朴泰星外 2人: 建築環境計劃原論, 技文堂, 1979. 2
11. 朴仲鉉: 環境衛生工学, 東明社, 1978. 2
12. 趙光明: 大氣汚染, 清文閣, 1980. 1
13. 崔德一: 大氣汚染의 理論과 實際, 實用技術工学社, 1982
14. 吳元善: 公害防止必須, 大振出版社, 1975. 6
15. 李東奎 編著: 作業環境 測定指導書, 韓国分析資料出版社, 1982. 2
16. 李桓世外 2人: 体育科学概論,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2
17. 牧野彰一外 2人: 空氣調和·衛生設備の基礎, 昭和55. 2
18. 瀨沼勲: 室内環境学, 三共出版株式会社, 昭和55
19. 北澤産業株式会社 公害事業部 編集: 環境測定法テキスト, 大道印刷株式会社, 昭和56. 1
20. 二木良彦外 2人: 空氣調和設備, 彰国社刊, 昭和57. 3
21. 戸崎竜弘·池本弘著: 編輯部譯: 空氣調和設備技術百科, 機電研究社, 1979. 9
22. John E·Flynn and Arthur W·Segil: Architectural Interior Systems,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1970
23. W·Leithe: The Analysis of Air Pollutants, Ann Arbor Science Publishers, 1973
24. 金明璇: 室内 非吸煙者の 吸煙被害에 對한 추정,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1980
25. 朴炳洙: 간이 음식점내의 대기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안동초급대학논문집, 제1집, 1980
26. 潘好鎔: 都市의 住居環境整備에 관한 研究, 淸州大學 論文集, 제10집, 1977
27. 裴弘碩: 都市化와 公害: 淸州市를 中心으로, 淸州大學 行政論 叢三輯, 1979
28. 蘇憲鎬: 地下建築物의 換氣設計에 關한研究: 서울시 지하철 停車場의換氣를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産業大學院 建築專攻, 1980
29. 廉英鶴: 우리나라 大衆交通 手段의 客室環境에 關한 保健學的 調查研究, 醫學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大學院, 1982. 12
30. 경향신문, 1983년 1월18일자
31. 동아일보, 1982년 10월12일자
1982년 10월30일자
32. 서울신문, 1983년 2월13일자
1983년 3월11일자
1983년 4월12일자
33. 중앙일보, 1982년 10월30일자
1982년 12월 8일자
1982년 12월20일자





[連載]

인테리어 디자인의 요소(1)

趙 聖 烈

(建築家・큐빅디자인 연구소 대표)

디자인 행위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인성의 파악, 인간 동작의 연구가 기본이 되어 시작된다. 일상적 사고, 감각의 반응, 질서 등 내재된 정신을 형체화 하여 응용체계로 정돈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것은 일상용품으로부터 작은 실내, 넓은 도시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원리이다. 모든 디자인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바탕을 이루는 구성요소, 즉 공통된 기본요소가 있다.

공간·형태·선·질감·장식·빛·색채가 그것으로서, 디자인의 특성과 효과는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공간은 접촉할 수 없는 무엇이지만 그 공간은 불가피하게 우리와 접촉한다. 우리는 공간 안에 있고 공간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공간의 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나, 그 공간의 역학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아주 쉽게 다듬고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형태는 방이라든가 의자의 형태와 같은 접촉 가능한 기본요소로서 본질과 형태·모양을 갖고 있다.

선은 사물의 외형을 제공해 주며 사물을 둘러싼 공간과 분리시킨다.

또 선은 인상적이며 미묘하고도 강력한 디자인 표현을 제시하는 특성을 갖는다.

바탕과 장식은 사물의 표면적인 특성이다. 만물은 모두 표면이 있으며 그것은 매끈하는 거칠든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장식은 바탕의 연장으로 보다 큰 시각적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요소이다.

빛은 공간과 같이 접촉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와 닿고 있다. 빛이 없는 사물을 볼 수 없으며 빛이 다양



하게 변하는 강도는 작업능력 뿐만아
니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 빛의
합성은 색채를 만들어 낸다.

색채는 모든 기본요소들 중에서 가
장 강력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공간에 살며 형체 위에 앉
으며 눈과 손으로 선을 따르며 바탕
을 보고 느끼며 빛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식과 색채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테리어 디자인
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어느 한가지 요소를 다른 요
소와 분리하여 말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일이다. 다만 그 요소들을 분
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구분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공간(SPACE)
- 2) 형체(FORM)
- 3) 선(LINE)
- 4) 질감(TEXTURE)

5) 장식(ORNAMENT)

1) 공간(SPACE)

사방에 벽을 설치함으로써 건축가
나 시공자는 무한한 공간에서 유한하
고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
다. 공간은 세가지의 차원을 갖는다.
길이와 폭과 깊이(높이)가 그것이다.
실내 장식가의 역할은 그 공간에 의
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듬거나 조화
있게 꾸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방 안에 걸어 들어감으로써
그 공간에 변화를 일으킨다. 전에는
하나의 공허한 공간이었던 것이 인간
신체의 모양에 의해 분할되고 한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방안에 가구를
배치하는 것은 공간 관계를 더 한층
바꾸어 놓는 일이 된다.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재빨리 반응을 보인다. 때로
는 적극적이나 때로는 마음내키지 않

은 채 그 공간에 적응하는 것이다.

시선을 위로 끌어 올리는 높은 천
장이 있는 큰 방은 낮은 천장의 벽난
로가 있는 안락한 방과는 매우 다른
인상을 준다. 벽난로가의 아늑함은
어떤 사람들에게겐 담담함을 줄지 모르
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호감이나
안전감을 줄 것이다.

공간과 공간이 상호 막힘이 없는 개
방식설계(Open Plan)에서 거주자들
은 그들의 개성에 따라 즐거움을 느
끼기도 하고 위험한 노출을 느낄 수
도 있게 된다.

공간은 우리의 필요성과 호(好)·불
호(不好)에 맞게 적응시킬 수가 있다.

디자인의 다른 요소들, 즉 선·형
체·빛·색채·바탕을 활용하여 공간
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집들은 어떤 공간내에 설
치된 조절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비교적 작은 복도를 통과하여 상당히

큰 거실로 들어서게 되고 그 후에 보다 작은 특수 기능을 위한 구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것은 여러가지 상이한 반응을 나타낼 일련의 인상을 준다. 한 방의 여러 부분을 구분짓고 지나다닐 통로를 명백히 알려 주는 가구배치로써 이러한 변화의 형태를 강조할 수 있다. 어느 구역 위의 천장 높이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공간 변화의 느낌을 한층 증대 시

게 비추도록 함으로써 몇개의 공간구분으로 세분시키는 등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끝없는 방법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2) 형체(FORM)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형체는 세가지 차원, 즉 모양·부피·구조로서 정의될 수 있다. 부피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모양은 시선을 끌며

창조는 감각 반응을 즉각 일으키는 것이지만 발달된 기능을 부여하는 일은 형태를 따라오는 차선적 창조인 것이다.

형체와 모양(Form and Shape)의 두 낱말은 흔히 혼용되고 있으나 그들은 의미상 차이가 있다. 형체가 여러가지 것들을 망라하고 있음에 반하여 모양은 특정적인 면을 말한다. 모양은 어떤 사물의 측정할 수 있는 윤



킨다.

공간 변화의 개념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상적 공간을 갖고 있는 집이나 방들은 별로 없다.

지나치게 크고 넓은 공간은 스크린이나 한 세트의 가구·칸막이, 한 줄로 늘어놓은 화분 등의 여러가지 물체를 설치하여 작게 세분시킬 수 있으며, 좁고 답답한 공간은 혼잡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가구를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또 어떤 형태라 말할 수 없는 불규칙적인 무정형(無定形)의 방은 밝은 무늬의 직물이나 벽지를 바름으로써 특질을 살릴 수 있게 되고, 너무 길고 좁은 방은 막다른 쪽의 벽들을 진한 색채나 두드러진 무늬로써 보다 네모지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크고 넓은 방에 태양광선의 조절이나 인공광선을 민감하

구조는 시선을 집중시키게 함으로써 그 물건의 형태에 주의력을 불러 일으킨다.

사물의 형체는 그것이 의도하는 용도에서 생겨나야 하며 또 그 형체가 갖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능주의 디자인과 건축의 근본이 되고 있다. 「형체는 기능을 쫓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디자인은 보다 더 자유스러워지고 쫓아야 할 엄격한 패턴이 없어지고 있다. 어떤 형체든 보는 눈을 즐겁게 해 주고 그 목적에 적합하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디자인인 것이다.

현대에 와서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형체를 창조할 때에 처음부터 기능에 속박되기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형체가 먼저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창조는 형태가 앞서고 뒤에 기능이 충족되어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형태의

곽, 즉 외선을 의미한다.

이 우주에는 무한하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근본적으로 볼 때 직선과 곡선의 범주로 구분된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것들은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장방형·삼각형·원, 즉 입방체·각주·구형체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연 환경에서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일은 드물지만 그것들은 정확하게 기계 장치에 적합할 수 있으므로 조형 환경에는 아주 잘 어울린다.

장방형도 각을 이룬 모양의 한 종류로 들 수 있다. 대체로 가옥들은 장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의 전체 모양, 문이나 창문, 가구의 모양, 방의 위와 옆의 벽물들의 결합 등이 그 예이다.

직선과 직선이 정확하게 90°의 각도를 이룬다는 것은 안정된 느낌을 준다. 장방형은 선이 이루는 가느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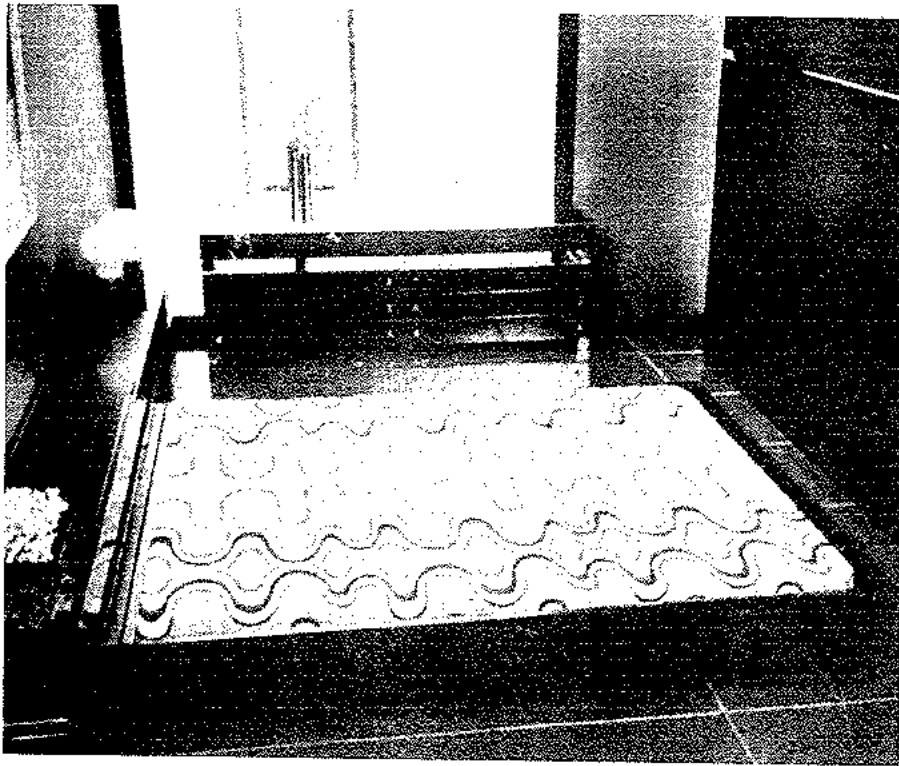
것에서부터 입방체적 품만함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거의 무한정 하며 그 용도나 방법 역시 무한하다. 예를 들어 입방체는 크기에 있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입방체는 한 면이 바닥에 놓여 있으면 안전한 상태를 이룬다. 그러나 두 면이 맞닿는 한 모퉁이로 놓여지면 위험감을 준다. 여러가지 설치방법은 우리 감정에도 여러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 반응을 일

사이의 긴 사선은 실제보다 더 큰 공간의 인상을 준다. 삼각형 무늬의 섬유는 방을 활기있게 해 주며 이는 마치 경사진 천장이 우리의 눈길을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 올리는 경우와 같다. 현대적인 건축선은 구조적으로 예각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내 공간에서도 그 구조미가 이어져서 사선 천장, 경사벽이 생긴다.

스피디한 사선 끝에 생기는 예각,

춧대 등의 원통형과 원추형은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떠받치고 있는 사물을 향해서 시선을 이동시켜 주므로 기분 좋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비 기하학적, 불규칙적 곡선은 아마도 가장 적응력이 커서 지속성과 끊임없는 변화를 초래시킨다.

대부분의 의자는 그 근본적인 네모진 성격을 완화시켜 줄 약간의 둥근 가장 자리를 갖고 있고 인간 체형에



으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방형은 안정감을 준다. 길고 수평인 장방형은 침대에 누울 때와 같은 포근한 느낌을 주며, 똑바로 서 있는 수직의 장방형은 안정감과 함께 활기를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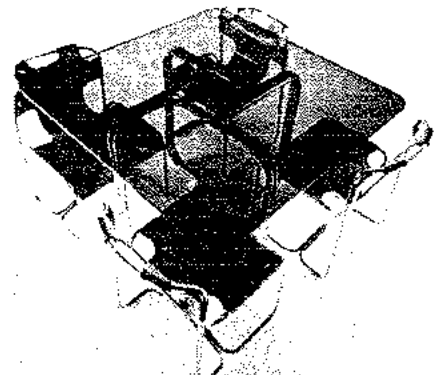
장방형이 갖는 안정된 90°의 각도와는 달리 삼각형은 아주 날카로운 각도에서 비교적 둔한 각도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에 상응되는 다양한 감정의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반복되는 예리한 각도와 사선들은 활기가 있고 정신적 자극을 준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각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불안감을 주고 지나치게 보면 피로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시적인 사선은 매우 유용하다. 예각으로 놓여진 의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편안한 대화를 낳게 하는 기본적인고 안락한 배열이며 두방

예각에 의해 형성되는 입체가 실내 공간에서 강한 특징으로 나타나 개성적 실내를 만들기도 한다.

원과 구형, 원추형과 원통형, 이러한 곡선의 형태는 굴곡진 우리의 몸과 기타 자연 사물을 우리에게 다소간 생각나게 해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사각으로 형성된 내부 환경에 흐뭇한 안도감을 준다. 원형으로 된 방은 흔치 않으나 원형의 물체는 많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원형의 물체가 우리들 손에 가장 공감을 주기 때문이다. 원형 테이블은 사람들을 다정하게 모여 앉게 하며 둥근 전등갓은 자연스럽게 불빛을 확산시켜 준다.

원형은 직물이나 벽지나 마루 깔개의 많은 무늬의 소재로 사용 되는데 그러한 확실한 형태의 반복은 그 원형 물체가 놓여질 평탄한 장방형 표면에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이다. 가구의 다리나 전기 스탠드, 꽃병이나



맞도록 되어 있다. 직물의 부드러움과 유연성은 곡선형 무늬와의 어떤 관련성을 부여한다. 오두막이나 목조 가옥의 둥근 모양은 구조상의 필수성에서 나온 것이며 도자기와 같은 것들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요구의 자취를 볼 수 있다. 컵이나 접시는 도공의 손에서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져 나오며 기계화된 요소임도 원형의 정당성이나 편리함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테이블 받침대를 만들 때도 원통형이나 원추형으로 만드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미학적인 결단에서 되어진다. 우리가 곡선과 굴곡형을 사용하는 것은 인체의 적응성, 시각적 매력, 역학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精神薄弱兒를 爲한 施設의 計劃과 設計

朴 勇 煥 / 한양대학교 건축과 교수

Ⅰ 序

장애자를 위한 시설공급 문제는 法·制度上的 구체적인 시책의 설정, 전개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줄로 안다. 그러나 건축계획이 인간과 공간과의 상호 대응관계를 규명하고 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상, 시설문제 — 시설의 규모, 배치, 공간구성 등 — 역시 건축적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종래 복지시설에 대한 공급은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복지에 대한 인식 公共의 복지예산, 구체적인 시책의 설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공급방식에 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장애자를 위한 시설문제(물적 조건으로써)가 거론되긴 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이며 정면에서의 장애자의 생활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설문제가 검토되지는 못한 것 같다.

특히 기존 시설 거의가 실제 이용자인 장애자의 신체적 특성, 의식, 요구사항은 물론, 관리·운영상의 제반 문제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장애자를 수용한다는 단순한 목적(그것조차도 충분한 환경이 아니지만)만을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장애자의 자립에 대한 이념과는 멀리, 사회와 격리된 채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양상을 지향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시설의 양적인 면 이외에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 또한 매우 요망되고 있다.

정신박약아를 위한 시설(精神施設) 역시 행정적 측면에서의 시설 설치기준, 요강, 혹은 지침의 미비로 말미암아 기존시설이 공간의 물적, 양적인 내용에 있어 시설마다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은 물론, 전반적 수준에 있어서 의료부문, 직업보

도부문 등 공간 기능별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공간기능이나 역할(Service)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신박약아의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부문을 위주로 하고 수용과 보호를 위한 공간을 부속기능으로 하여 복합화한 시설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박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점차 국내에 설립되기 시작한 이러한 시설은 수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전쟁고아를 위한 수용시설을 그대로 혹은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시설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아울러 시설의 노후화, 공간기능의 미비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20여년 동안 32개교(80년 10월 현재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포함)로 양적증가를 하였으나, 아직도 그 수요에 비해 시설 수가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타 복지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이 정박자들의 행동 특성, 공간이용문제, 일상생활의 요구사항, 주변 지역과의 의식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계획·설계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박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 전체가 안고 있는 것으로써, 점차 이들 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적인 면에서의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Ⅱ 수용시설의 공간구성

수용시설은 1980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27개의 시설(성인, 아동 각각 5개, 22개 시설)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2,635명(성인 494명, 아동 2,141명)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고아, 중증

혹은 복합장애자이다. 기존시설의 공간구성 가운데 특히 장애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실의 배치형태는 4가지 형태의 평면구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림-1참조) 그 각각의 평면형태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1) 中複道形은 자연통풍이 잘 되지 않아 악취와 제거가 어렵고 日照·日射가 불량하며 복합장애자 중 특히 지체장애자나 重症장애자의 경우 보행시 다른 사람에게 부딪쳐 넘어지거나 밟히는 일이 많아 거실 이용을 경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교적 장애 정도가 나은 경우라 할지라도 타공간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편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형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가정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획일성과 합리성만으로는 도저히 시설이용의 생활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중앙홀(hall)形은 놀이, 레크리에이션에 필요한 공간의 위치가 거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활동적이며 단체활동의 진행이 용이하며 특히 보모들이 아동들에 대한 감시, 지도가 대단히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게 되므로 환기에 유의해야 하며, 홀의 日照를 깊게 하고, 홀과 외부공간과의 통로는 현관을 따로 두어 홀의 입구가 항상 청결하도록 해야 한다.

(3) 分산형(home care type)은 앞의 두가지 형보다 가정적이고 치료적이며 일상생활이 편리하며 획일적인 그룹의 형성보다 다양하고 장애의 差나 특징에 따른 Grouping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장차 가정·사회로의 복귀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가장 이상적인 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 한 건물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될 경우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은방시설 유지 등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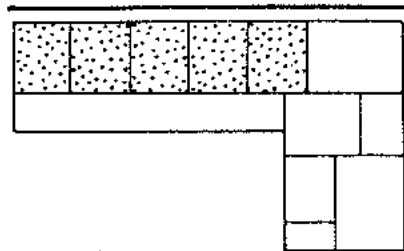
화장실은 上記 어느 型에서나 변기의 수가 정상인의 경우보다 많아야 하고 거실과 가깝고 악취제거가 용이하며 肢体障礙者나 重症障礙者의 이용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나 특히 안정성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방의 크기나 모양은 室單位의 구성인원 수와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계획시 자칫하면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소홀하게 취급하기 쉬운데 실제로 장애자들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공간의 이용이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시 되어야겠다.

각실의 인원구성은 건축계획상 크게 重視되는데 그 방법은 障礙程度가 類似한 者들끼리 편성하는 방법(예를 들어 國立寬心學院의 경우)과 정도가 상이한 者들끼리 混合收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특히 重症障礙者들에 대한 보호 1인당의 인원수는 극히 적게 편성되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보호 1인당 장애자 1~2명)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言語, 지체장애 등 重複障礙를 가지고 있으며 과성을 지르고 자해행위나 기물 파손 등 여러 가지의 증상을 보이며 자기의 신변처리, 식사행위에 대하여 보호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보호 1인당 장애자의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와 같은 구성일 경우 각 室의 통풍, 日射, 動線처리 등은 물론 動作不自由로 인한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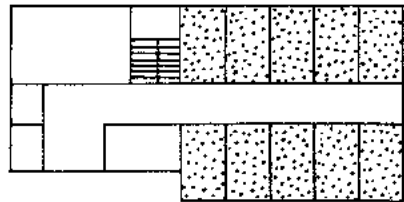
또한 후자와 같이 장애정도의 차가 심한 장애자를 혼합 편성하는 경우, 비교적 장애의 정도가 적은 자들이 그보다 못한 자들을 도와주고 행동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重症障礙兒의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즉 대개의 경우 놀이집단을 知能別, 障礙別에 따라 형성하게 되는데 중병의 경우는 고려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장시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증 장애자는 별도로 인원을 편성하여 基

礎生活 훈련과 신변처리 지도가 용이하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필요한 공간 역시 평면계획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실내의 놀이를 위한 공간이 전체시설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지체장애자나 중증 장애자들이 활동적인 놀이 집단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간상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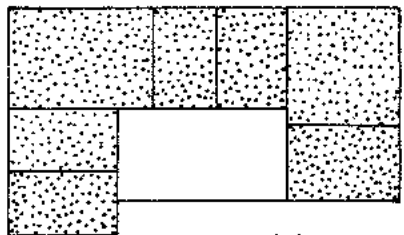
(그림 1) 거실의 배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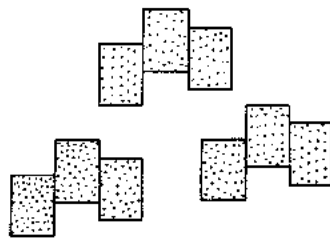
편복도형



중복도형



홀형



분산형

③ 特殊學校의 空間構成

精薄兒를 위한 교육시설로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다. 특수학급의 교과 과정을 보면, 저학년에서는 생활중심의 교육, 고학년에서는 교과중심의 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실계획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障礙兒童의 동작이나 歩行은 그 자체가 치료나 교육에 의한 방법이 되므로 일반 정상 아동보다 1인당 소유면적이 더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教師, 教材, 教具를 위한 空間은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한 면적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Recreation을 위한 室을 별도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면적을 좀 더 넓혀서 교실 뒷쪽은 앉거나 텀굴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저학년 교실은 곧 기초생활을 위한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외부공간, 화장실, 세면실 등과 인접시켜 교사의 지도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特殊學校교실이 단순히 일반 정상아동 교실의 축소판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내용이나 교과과정, 아동의 행동특성 등이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이내라는 점만으로 교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학급당 인원수도 현재 15~20명 이내로 하고 있으나 일선 교사들에 의하면 그 1/2 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0명 기준)

교실계획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반(class) 편성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여러가지 편성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IQ, 생활연령 위주의 능력에 따른 반편성 방법이 대부분들이다. 이 경우 교사의 학습지도에는 이점이 있으나 障礙程度나 重複障礙 종류에 따라 행동 특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놀이를 위한 그룹형성이나 생활훈련 등에 있어서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능력은 他兒童과 유사하지만 정서장애가 심하거나 지체부자유가 심한 경우 학습 전체의 학습효과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장애자 자신도 타아동과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학교마다 이런 학생들을 아예 별도로 취급하여 타 아동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수도 있지만 자칫 교육이 소홀해지기 쉽다. 이와는 달리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지체부자유반, 정서장애반, 기초생활반 등을 따로 두고 나머지는

능력별로 편성하는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지체부자유반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택할 때 반의 특성을 살펴 그들에 적합한 비품이나 공간을 추구하기가 용이하며 일상생활 지도나 교과편성에도 유리한 점이 생긴다. 예를 들면 빈번히 사용하는 특별교실과는 가깝게 배치한다든가 화장실 설비도 그들의 사용이 적합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주의가 극히 산만한 정서장애아의 경우 역시 공간계획시 그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기타 물리치료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고 1인당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室의 면적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 훈련실은 일단 中・高等学校 학생들을 대상으로 木工, 手芸 등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실제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④ 施設 利用者의 수요구조

시설 이용을 위한 수요의 발생과

시설 장애자들이 시설 이용을 하기까지의 出現過程을 파악하는 것은 시설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여하한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림 2>는 精薄児收容施設에 있어서 이용자 와 시설 간의 출현과정을 규명한 것인데(서울 소재 정박아 시설 8 개소, 아동시설 6 개소, 성인시설 2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부모의 유무, 연령, 장애의 정도, 신변 처리 가능여부 및 중복장애의 상태, 성별, 경제 부담 능력 등은 우선 시설에 출현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제 요인들에 의하여 이용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룹 A : 이 그룹은 부모의 유무, 성별 등의 요인에 관계없이 용변, 식사 등 최소한의 신변처리가 가능한 18세 미만의 아동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타 그룹과 다른 것은 유일하게 5세미만의 영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 인원의 12.

3%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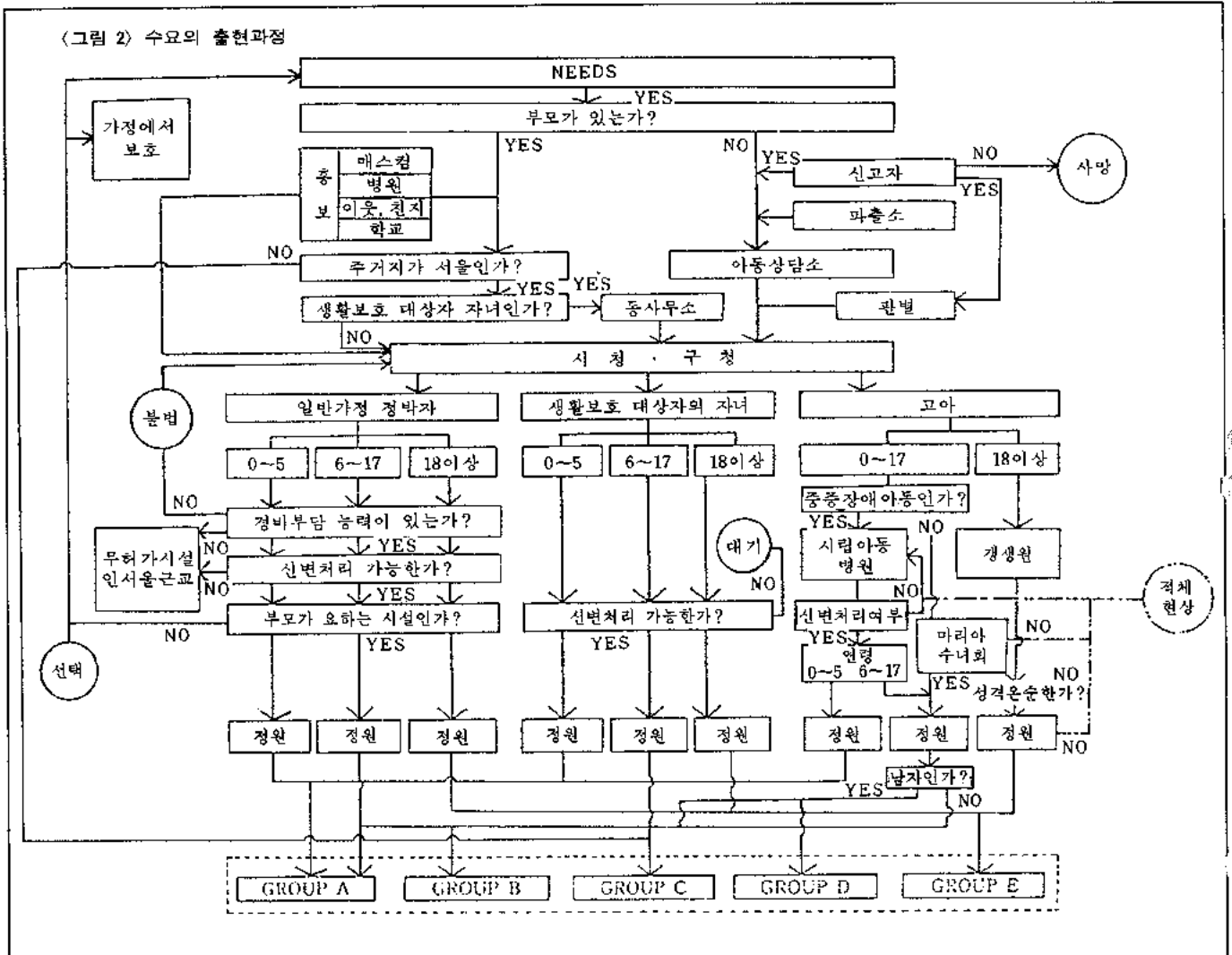
그룹 B : 5~18세 사이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아동들로서 그룹 A와는 달리 신변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지체부자유 정도가 양호한 아동들로 구성된 그룹이며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룹 C : 연령, 성별, 신변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그룹 B와 비슷하나 지체부자유가 심한 重症児童이나 지역적인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서울시의 거주자가 상당수(54%) 내포되어 있는 그룹이다.

그룹 D : 18세 미만의 고아로서 특히 타그룹과 다른 점은 구성원 전원이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전체인원 수의 19.7%에 달하고 있다.

그룹 E : 이 그룹은 연령분포 구조에서 타그룹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부모의 유무에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成人 精薄施設을 이용하는 이

<그림 2> 수요의 출현과정



정박차시설 이용자의 수요구조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정의 하나로써 수요가 시설에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필터에 의해 수요발생이 표면화하지 못하는 경우, 도중에 탈락, 잠재화 되는데 <그림 2>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자의 시설이용에 대한 출현
과정 도중 처음으로 누적현상이 일어
나는 곳은 일시보호소의 성격을 지닌
시립아동병원과 Maria 수녀회, 갱생
원의 세 곳을 들 수 있겠다. 이상의
세 시설은 정박아를 위한 전문시설은
아니지만 시립아동병원의 경우 重症,
重複의 정박아들 280여명이 시설내
에 누적되어 있으며(1981년 8월 초
현재) 이들 모두가 고아이다. 실제로
시립아동병원의 기능자체가 수용을
위한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립
아동 상담소로부터 입소된 重症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라는 시설본래의 기
능이 점차적으로 수용이라는 기능으
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
한 대책이 全無한 실정이라 할 수 있
겠다.

시설내의 이용자 누적현상을 재촉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정신박약자의 병리학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이곳 시립아동병원에 在院中인 정박아동의 대부분이 임상병리학적인 뚜렷한 질병을 지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치료 등의 장기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요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누적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 외에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수용 시설측의 수용대상 아동들에 대한 선별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수용시설측에서는 의학적인 치료는 거의 필요없으나 간호도가 매우 높은 **重症**아동들 보다는 **지체부자유**정도나 **신변처리** 등의 정도가 양호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회복도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이들 **重症장애**아동들은 **시립아동병원**에 계속 남게되어 그 **누적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Maria 수녀회나 갱생원의 경우 전자는 18세 미만의 고아를, 후자는 18세 이상인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며 두 시설 역시 시립 아동병원과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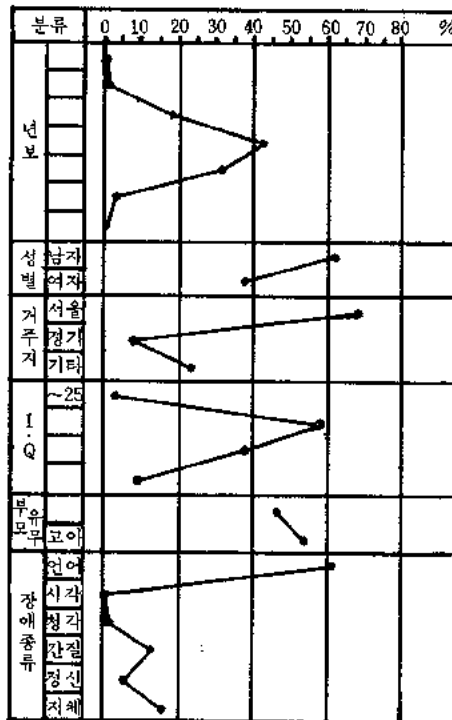
지로 일시 보호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문적인 수용시설의 수용 정원 및 선별기준에 의하여 이용자들의 누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Maria 수녀회의 경우 수용아동들이 대부분 지적부자유 등의 중복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동들로서 장기수용시설에 결원이 생길 시 곧바로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 장기수용 시설의 수용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누적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나름대로 시설자체내 장기수용시설을 갖추고 수용아동들을 보호, 교육시키고 있다.

경생원의 경우 시설의 성격은 부랑자보호시설로서 장애자로부터 무위무탁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 중북정박자의 경우 정박아시아 시설 몇 성인정박시설에서 뛰쳐나오거나 가출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격 및 품행 등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성인정박시설에서의 의식적인 수용기피 및 정박자시설의 절대적인 수용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누적현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 서울시내 정박아 시설 이용자의 속성



(2) 정박시설의 수용아동들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으며 가

점으로 귀가하거나 고아의 경우는 성
인정박시설로 전원해야 하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경우 정박아시
설의 수용아동에 대해 약 23%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아
이들의 누적현상은 당연한 것일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17세의 연령층이 전체 연령층의 4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멀지 않아 정박아시설의 누적현상은 심각해지리라 생각한다. 이들 중 비교적 생활연령이 높고 장애상태가 양호한 자는 시설 내에서 현재 매우 부족상태인 부모의 역할을 대신 충당하고 있으며 고아가 아닌 일반 가정의 정박아의 경우는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한 고아와 마찬가지로 시설에 누적, 또는 通院을 해야 하며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3) 앞에서의 그림 -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인정박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적현상으로써 일단 성인정박시설에 입소된 자들은 특별한 이유(귀가, 가출, 사망)가 생기지 않는 한 거의 종신토록 시설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성인정박시설에서의 누적현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성인정박시설은 자체내에서 독자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재활기능을 원할히 함으로써 수용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고는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이들을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현재로서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들 정박자의 누적현상이 점차 가중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5 수용시설아동의 공간이용특성

본 항은 정박아동의 공간이용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서 1982. 10. 11에서 1982. 11. 15까지 서울시내 소재 4개수용시설(온평복지원(E시설), 인강원(I시설), 다니엘(D시설), 우성원(U시설))의 총 272명의 정박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공간 내에서의 생활행위를 기본적인 생활행위, 교우관계, 자유놀이 시간중의 행위의 3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1) 기본적인 생활 행위

식사: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전체의 86.8%(238명), 도와주어야 하는 자가 5.5%(15명), 먹여줘야

하는 자가 6.6%(18명), 불명이 1.1%이다.

여기에서 전체의 13.2%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문제시 된다 하겠다. 실제로 각 시설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모나 조수가 식사를 도와주고 있으며 이들 때문에 식사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하고 또한 他兒童들의 식사지도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마련이다.

용변: 용변처리 능력에서는 전체의 74.6%(203명)는 혼자 용변처리가 가능하다. 그 외 25.4%(69명)은 도와주거나 전혀 못가리는 경우로서 이들 대부분은 화장실의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보조시설이 전혀 없이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着脱衣: 着脱衣 능력도 식사나 용변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이상 기본적인 생활행위를 통해 볼 때 전체의 약80%정도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나, 나머지는 보모가 일일이 도와줘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장애자들을 如何히 각실에 편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심화원의 경우처럼 要保護級아동들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과, 나머지 전시설의 경우처럼 각실에 균등히 분담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 이들 때문에 보모의 부담이 倍增될 뿐만 아니라, 아동자신들도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행위의 지도면에서 볼 때는 식사, 용변, 着脱衣가 가능한 자들을 별도로 편성하여 이들을 돌보기에 가장 편리한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이 생각된다.

2) 교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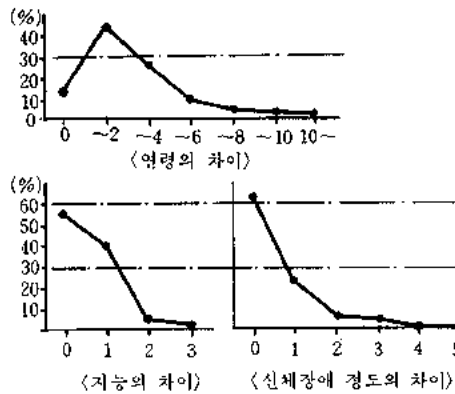
본 항은 아동생활의 내면적 구조, 상호교류상황을 교우관계라는 측면을 통해 살펴보고 그에 미치는 인간적, 공간적 因子들을 찾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적 因子: 그림-4는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주된 요인들을 나타낸 것으로서, 우선 상호간의 연령차이를 살펴보면 1~2세 정도가 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4세이다. 또한 지능차이를 보면 2단계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교우관계의 형성이 극히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체장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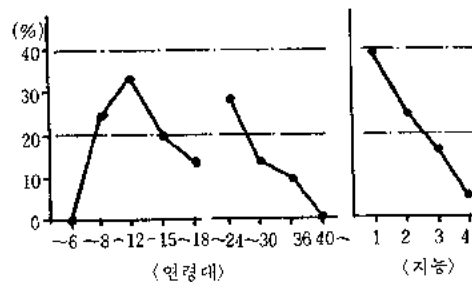
경우는 장애가 없는 아동끼리나 상호 동일정도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63%로 가장 많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24%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교우관계는 일단 연령, 지능, 장애자 동류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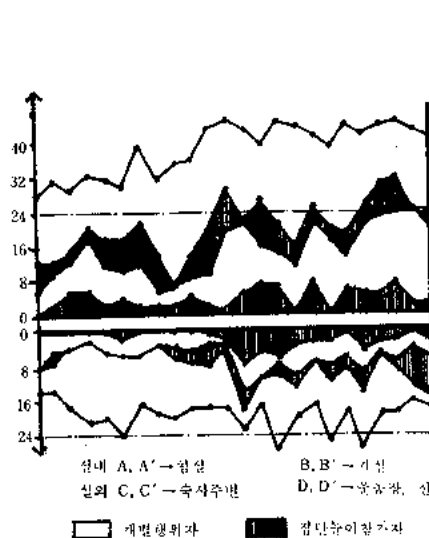
(그림 4) 교우 형성요인



(그림 5) 타실아동과 교우관계가 있는 아동의 비율



(그림 6) 각 공간별 집단놀이와 개별행위자의 분포



공간적 因子: 교우관계를 同室, 그리고 他室의 아동과 이루는 성우로 구분해 볼 때 他室아동과의 교류는

중앙Hall 형인 D시설(68%)에서 복도 연결형인 E시설(37.5%) U시설(50%) 그리고 2층으로 분리된 I시설(50%)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공간적 요인과 인간적 요인의 상관관계에서(그림-5) 정박아시설에서는 他室아동과의 교우관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10~12세를 최고점으로 이후 다시 감소하며, 정박자시설에서는 19~24세를 최고점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차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능은 그 수준이 떨어질수록 他室과의 교우관계도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교우가 없는 경우: 전혀 교우관계가 없이 고립되어 있는 아동은 86명으로서 전체의 31.4%나 된다. 이들의 속성을 살펴보면 지능이 타 아동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경우가 17.4%(15%), 극히 낮은 경우가 27.9%(24명), 신체장애가 심한 경우 6.9%(6명), 정신질환이나 자폐증 등으로 성격이 난폭하거나 내성적인 경우가 37.2%(32명), 기타가 10.4%로 나타나 있다.

3)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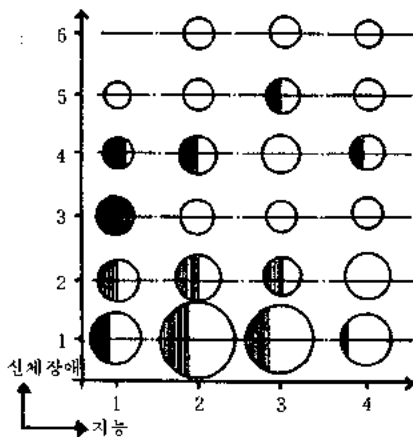
본 항은 자유놀이 시간중에 10분간격으로 놀이내용 및 위치를 Plotting하여 분석한 것이다. 놀이는 2인 이상의 집단놀이와 개별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집단은 행위의 同伴性, 공간상의 위치, 상호교류빈도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그림-6은 실내, 실외 공간에서 각 시간대별로 집단놀이 참가자와 개별행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인데(D시설의 예) 이 중 개별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無爲상태나 배회하는 경우이고 집단놀이에서 정적인 것으로는 애기, 기구놀이, 모래장난같이 앉아있기, 동적인 것으로는 치기장난, 자전거타기, 구기와 그 중간적인 것에는 배회, 춤, 병정놀이, 제기차기 등이 주로 일어난다. 또한 놀이집단은 2~3명이 80% 이상으로써 비교적 소규모이다.

그림-7은 대상자 272명을 집단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능과 장애정도의 구성비로 나타낸 것이며, 흑색부분은 집단을 형성하는 아동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서 지능이 높고 장애가 적은 경우에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놀이집단에서 소외되는 자들은 지능이 극히 낮고 지체장애가 심한 자, 즉 중복장애자들로써 이들은 생활의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 이용자들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별도의 Group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의 아동에게는 교우관계나 놀이집단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타 실과 쉽게 교류할 수 있고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7〉 집단성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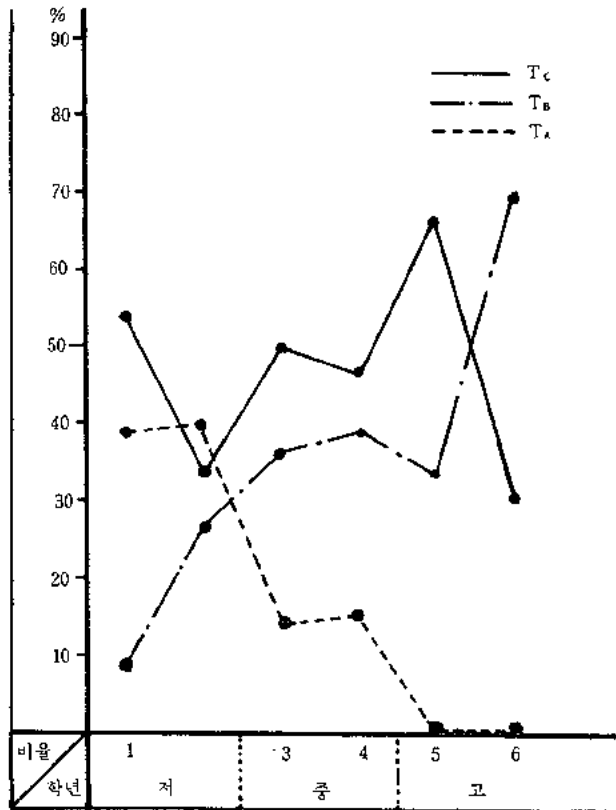
⑥ 특수학교시설아동들의 학습행위

본 항에서는 아동의 학습실태를 좌석배치형태, 단위학습집단편성 및 지도방식이라는 측면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학습공간구성의 Factor를 모색하려 하였으며 조사는 서울시 내소재 8개 특수학교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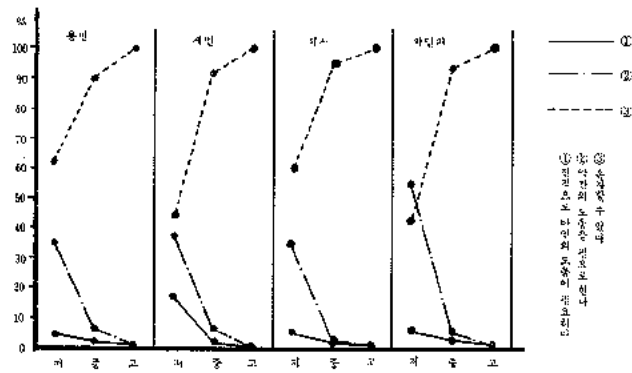
좌석배치형태: 8개 학교 72개 학급의 좌석배치형태를 나타낸 것이 表-1이다. 이것을 학년별로 나타낸 것은 그림-8로써 T_A형은 좌남·토의 수업에 유리한 형으로써 일제식, 그룹식, 개별식 수업에 용이하며 T_B형은 일제식 수업에는 유리하나 그 외는 다소 불리하다고 여겨진다. T_A는 저학년, T_B는 전체, T_C는 고학년에 많이 나타나며 이것은 학년이 높을수록 교과수업 중심이 됨을 나타낸다.

신변처리능력: 학생들의 신변처리능력 정도는 학급편성이나 교사의 지도, 아동의 학습형태에 큰 영향을 미

〈그림 8〉 좌석배치형태 (학년별)



〈그림 9〉 아동의 신변처리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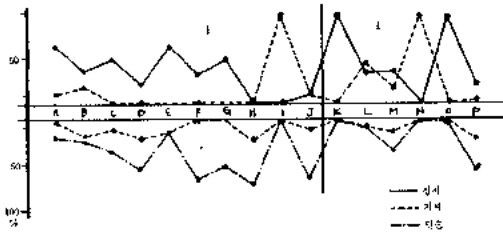


치는 요인이다. 그림-9는 저, 중, 고 학년별로 용변, 세면, 식사, 학업의 능력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저학년의 경우 상당수의 학생들이 신변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의 경우 특히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교실에 인접되어져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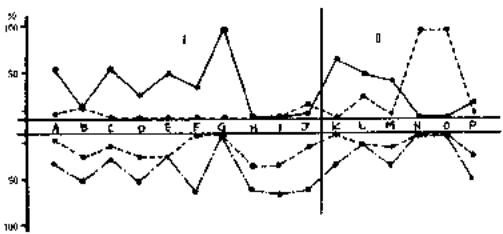
소단위학습 집단편성: 정박아동들의 대부분이 정도가 다양하고 학습능력, 연령 등 개인차가 심하므로 실제로 소규모의 동질집단 수업이 진행되

고 있으며 교실내의 좌석배치도 그에 적합함을 알았다. 1일 단면조사결과 Total 22개 Group (5개 학교 13개 학급)으로써 이들의 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지적능력: 54.5% (12 Group), 중복장애: 31.8% (7 Group) 기타: 13.6% (3 Group)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교사는 아동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2~3개의 동질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복장애 Group의 경우 타 Group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0〉 학습이외의 행위횟수



〈그림 11〉 학습이외의 행위자 수



수업시간중 학습이외의 행위: 수업 시간중에 나타나는 학습 이외의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의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I 행위는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방해는 되지 않지만 수업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 II행위는 직접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진다. 그림-10은 행위횟수의 비율이며 그림-11은 행위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타 장애아동에 비해 정서장애아동이 상당히 문제시됨을 알 수 있다.

7. 結

이상으로 정신박약아의 수용시설 및 그들을 위한 특수학교의 이용자의 出現過 및 각각의 공간구성, 공간이용특성, 학습행위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위와 같은 바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결론 및 제안이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먼저 수용시설의 공간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각 실에 있어서 아동들을 편성 할 때 要保護級의 중증 장애아는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부모의 지도면에서나 교우관계, 놀이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정도가 나은 타 아동들과 동질 Group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교우관계나 놀이 측면에서는 Hall 형 평면이 複道型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要保護級을 제외한 전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놀이공간은 아동들의 공간이용형태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적인 놀이와 동적인 놀이가 상충되지 않는 소 Corner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들을 위한 학습공간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개별지도 및 소단위학습집단 지도가 용이한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업형태가 이러

표-1 좌석배치형태

구분	학교명	학 중 일(학년/반)	형식	TYPE
T ₁	F	1/1, 1/2, 2/1, 2/2, 3/1, 4/1		
	E	1/1, 2/2		
	C	2/2, 3/1		
	I	1/1, 1/2, 2/1, 2/2		
	G	2/1		
T ₂	D	1/1, 1/2, 1/3, 2/1, 2/2, 2/3, 3/2, 4/1, 5/1, 5/2, 6/1, 6/2		
	F	3/2, 4/2, 5/1, 5/2, 6/1		
	E	1/2, 2/1, 3/1, 3/2		
	C	1/1, 1/2, 2/1, 3/2, 4/1, 4/2, 5/1, 5/2		
	I	3/2, 4/1		
T ₃	M	1/2, 3/2, 4/1, 5/1, 5/2		
	D	3/1, 3/3, 4/2, 4/3, 5/3		
	M	1/2, 2/2, 3/1, 4/2, 6/1, 6/2		
	I	3/1, 4/2, 5/1, 5/2, 6/1, 6/2		
	G	4/1, 4/2, 4/3		
	K	2/1, 3/1, 4/1, 5/1, 6/1		

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차가 심하다는 정박의 속성 면에서나 금명간 실시될 개정 Cumiculm을 통하여 볼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변처리를 포함해서 생활훈련이 가능한 공간구성이 요구된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신변처리 지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러한 훈련이 용이한 공간이 요구된다.

셋째: 단위학습편성시 정서장애나 지체부자유가 심한 아동일 경우 별도의 반편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수업 시간중 이들의 행위로 인해 타 아동의 수업에 지장이 크기 때문이다.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타 아동과 격리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의 배려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정신박약아(者)들을 위한 수용시설 및 특수학교의 계획시 기본적인 지침이 되리라 사료 된다.

서울有感

閔 賢 植

원도시건축연구소

申庚林의 「寵場」이다. 정작 장터에 나온 목적은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마리 일테지만 장터란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케 하고, 친구를 사귀게 하고, 소식과 얘기를 듣게도 하며, 흥에 겨워 장단도 치면서 막연한 꿈과 그리움에 젖게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뒤 엉키고 설친 그러한 인간들의 장소인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모여살기 시작하면 서부터 「교환경제」가 「생산」 다음 가는 중요한 생존의 형식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교환의 행위를 벌이던 장소는 단순한 물물의 교환이라는 1차적 목적을 넘어선 부가적 목적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어 왔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우리의 사회가 이렇듯 복합·다양해짐에 따라 장터의 기능도 따라서 복합·다양하게 변개되어 물물의 교환기능 외에 문화적·사회적 교환기능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도시에서 더욱 심화·확대·다양·복합

Victor Gruen은 도시를 우선 직접적인 인간교류의 기회 그리고 아이디어나 물품(Goods)을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선택의 다양함이 거의 무전장으로 열려있어 바로 인간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다움의 관점에서 우리의 서울은 이씨조선 500여년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모든 인간생활사 전반에 걸친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어 돈·힘·기회·정보·문화들이 모여 있는 오늘의 서울은 이 나라 거의 모든 것을 뜻하게끔 되었다. 물론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대함은 우리나라 도시발달 구조상 가장 큰 문제로 자주 지적되어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서울이고 보니 당연히 서울은 경제활동의 중추로 전국의 돈과 물자가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① 서울의 장터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말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깔고
목모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물 얘기 조합 빗 얘기
악장사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싶더라도 벌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이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찜다.
어느새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마리 들고
달이 환한 마룻길을 걸썩이는 파장

적으로 발달하게 마련이다.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란 하나의 커다란 교환의 장소인 장터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도시 또는 도시다움(Urbanity)」을 얘기할 때 처음 얼핏 떠올리는 것은 「기회(Chance 또는 Opportunity)」라는 말이다. 즉 도시는 시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예술 등 모든 人間事에 대한 접촉의 기회, 수혜의 기회, 향유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물건은 거의 우선 서울을 거친다. 좋은 것은 産地에서 보다 서울에서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인천 월미도 횃집의 생산도 서울 수산시장에서 가져온다는 부머가 있고 고양이뿔도 동대문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농지거리가 나울만큼 싱싱한 생선, 갖 물오른 과일, 진기한 약재, 질 좋은 화문석, 희귀한 진품같은 것도 서울의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 더 좋은 것으로 골라가며 싸게 살 수 있다.

심지어 쌀이나 연탄파동이 나도 서울이 농촌이나 광산촌보다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게끔까지 된다.

경제로 볼 때 서울은 전국의 평균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다. 우선 서울시민의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40%쯤이 많다. 1980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1,500달러일 때 서울시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2,060달러에 달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평균적이어서 서울사람이 그만큼 더 잘산다고 말하기 보다는 서울에는 다른 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굴러다니며 또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는 빈부의 극심한 차이를 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민의 소득이 높은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기회가 많다는 뜻이 된다. 워니워니해도 먹고 지내기가 편리하며 애들 공부시키기 쉬운 것이다.

아무 것도 손에 쏙 없이 살기는 무척 힘들지만 이왕 같은 고생이라면 서울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돈과 물자가 풍부하니 막노동물 해도 여기가 낫고 일년내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1,000원짜리 한장 손에 쥐기 어려우나 서울 웬만한 길목에서 포장집이라도 벌이면 피곤이사 덜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막불어 제키는 단속반의 호각소리에 가슴 졸이기가 어찌 그리 쉬울까만은 그래도 하루밤씩 지내다보면 애들 학교라도 수월히 보낼 수 있겠다는 막연키만한 계산이 그렇게 주먹구구는 아니다. 이렇듯 서울 자체가 가진 거대한 소비력과 또 서울이 중계지로서 갖는 소비력이 함께 겹쳐 깊고 넓은 상권을 형성하며, 이러니 물자와 돈을 따라 서울로 사람이 와글거리며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소비력은 더 커지고 그래서 또 서울로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악순환이 가속화되어 이러한 가속화는 유통구조의 개선이니 새로운 유통체계의 변화 등은 그것의 시도 또는 형성 이전에 이미 붕괴되버리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600여년의 건 뿌리로 깊이도 박혀버린 듯 하다.

본래 서울(한양)의 전통적인 상권의 틀은 서울의 종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성부의 시전과 시장의 건설은 도시의 내부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궁궐·사직·종묘·조정 청사의 건설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해 태종 12년인 1412년부터 1414년까지 두해 만에 걸쳐서 시전 행랑이 건설되었다. 종로 네거리에서 남쪽으로 남대문 부근까지, 동쪽으로 종로 4가까지, 서쪽으로 혜정교, 곧 청진동 입구까지 그리고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뛰고 경희궁까지 종로 3가에서 돈화문까지에 이른다. 이로써 서울의 상업활동 지역은 도시전설 때부터 「T字」 꼴의 구조를 이루어 지금까지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행랑을 따라 발달한 상가 중에 혜정교에서 종루에 이르는 운중가는 그 때에 가장 변화한 곳이었었고 이 부근에 발달한 육의전은 왕실과 국가의식에 쓰이는 물품을 맡아 대중으로써 상품을 독점하고 전매권을 행사하던 상점으로, 시전의 공주인(貢主人)은 거상으로 조정과 원문 세가에 무상출입하여 양반도 감히 그 앞에서 어찌지 못하는 권세가 있었다.

「육의전 중에서 선전(線廩：立廩)은 전의감 동구(洞口)인 종루의 북쪽에 있었는데 42방(房)이나 되는 장방(長房)이었고, 단(緞：겨울비단)·초(綃：여름비단)·견(絹：춘추비단)을 파는 곳이었다. 면포전(綿布廩)은 종루의 서쪽에 있었는데 백목(白木)과 은불이도 팔았으므로 은목전(銀木廩)이라고도 하였다. 면주전(綿紬廩)은 면포전 뒷회랑을 사이하고 여염집들과 어울려 있었는데 대개 명주를 팔았다. 포전은 면포전과 한길울 마주하고 있었는데 대개 명주를 팔았다. 저포전(苧布廩)은 금부(禁府)를 마주한 진사전(眞絲廩) 동쪽에 연이어 있었는데 모시와 황모시를 팔았다. 지전(紙廩)은 종루 서쪽 면포전 끝쪽에 연하여 자리잡았다. 내어물전(內魚物廩)은 이문(卑門)의 동서에 있었는데 마른고기를 팔았고 외어물전(外魚物廩)은 서소문(照義門) 밖에 있었다. 청포전은 청루의 동쪽 동상전(東床廩)과 회랑을 사이하면서 되방의 삼승포(三升布)와 양털을 팔았다. 육의전 외에도 연초전(煙草廩：切草廩)은 수표교 동쪽 하릿교 다리 남쪽에 있었으며 상전(床廩：상자리전)은 여러 곳인데 외금부의 망문(望門), 안국동의 신상전(新床廩)과

묘상전(廟床廩)이 있었고 청포전 뒤에 동상전이 있었으며 수진상전(壽進床廩), 포전 앞, 철물다리 앞, 필동과 승래문 이전(履廩：산전) 동쪽의 염상전(鹽床廩), 정동상전(貞洞床廩) 구리개상전, 지상전(紙床廩)이 있었는데 주로 피물과 말총, 초(燭), 향사(鄉絲), 서책과 휴지를, 동상전에 서만 바늘(針子)을 팔았다. 시갯전(米廩)은 다섯이었는데 도가(都家)는 수각다리계였고 의금부 서쪽의 상미전(上米廩)과 배고개의 하미전(下米廩) 그리고 문밖으로는 서소문과 서강과 삼가에 있었다. 잡곡전은 철물다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벌었고, 바리전(鑪器廩)은 내어물전 행랑 뒤에 벌렸는데 각종 기명을 팔았다. 생선전(生鮮廩)은 종루의 서쪽이며 외전(衣廩)은 잡곡전의 서편이었고 면자전(綿子廩)은 광통교 초입이며 이전(履廩)은 청포전 동쪽에 있었는데 종루전에서 서만 유정혜(油釘鞋)를 팔았다.

은면전(銀麵廩)은 광통교 옆이고 화피전(樺皮廩)은 동상전과 연하였는데 여러가지 채색과 되땅에서 건너온 과일과 팔되 물건을 벗어나 굽질로 썼다. 진사전은 의금부 맞은편 동쪽이고 당사(唐絲)·갓끈·띠·실로 엮은 끈을 팔았다. 자릿전은 수진방에 있고 용수석(龍鬚席)과 서안(書案)을 팔았다. 다리전(襪襪廩)은, 내전은 광통교에 외전은 서소문 밖이었다. 청밀전은 배고개에 있었고 꿀을 팔았다. 경염전(京鹽廩)은 승래문 밖과 배고개에도 있다. 내장목전(內長木廩)은 여러 곳이고 재목을 팔았다.

연죽전(煙竹廩)은 도가가 돌인데 군기사(軍器寺)와 약고개에 있으며 물들인 담뱃대와 담배통을 팔았다.

시저전(匙簞廩)은 내전은 종루 외전은 서소문에 있었는데 숟가락·젓가락을 팔았다. 우전(牛廩)과 마전(馬廩)은 명철방(明哲坊) 마전다리(太平橋) 남쪽 냇물가에 있었는데 준총마는 없었다 한다.

그리고 서울에 이러한 물화(物貨)를 수송하기 위한 교통로는 주로 두 가지 통로를 가졌었다. 그 하나는 수로(水路)인 한강(漢江)이었다. 한강은 그 지류가 셋이었다. 하나는 강원도 오대산(五臺山) 우통(于筒)이고

다른 하나는 회양(淮陽) 금강산의 만폭동(萬瀑洞)이며 또 다른 하나는 충청도 보은(報恩) 속리산 문장대이다.

그러나 원류는 오대산이라 할 수 있으니 충주(忠州) 서북쪽에 이르러서는 달천(遶川)과 합하고 원주(原州) 서쪽에 이르러서는 안창수(安倉水)와 합하여 양근군(陽根郡) 서쪽에 이르러 용진(龍津)과 합한다. 광주(廣州) 지경에 이르면 도미진(渡迷津)을 만나면서 서(西)로 고개를 치켜든다.

여기서 광나루(廣津)와 송파진(松坡津), 그리고 삼전도(三田渡)와 만나다가 뚝섬과 마주치면서 두 줄기로 흩어져 두뚝개(豆毛浦)에서 다시 합한다. 강은 서울을 남으로 10리에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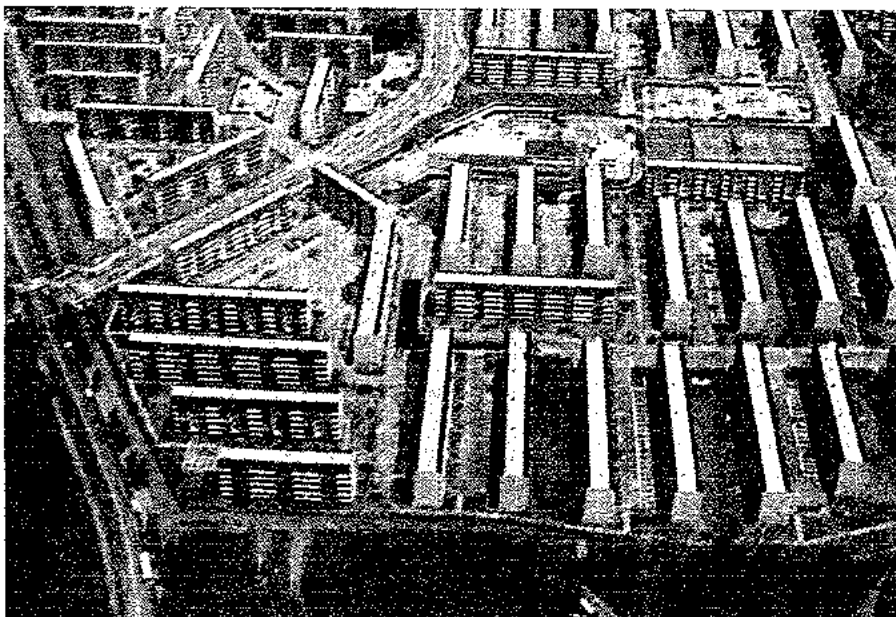
(德積山)과 여러산(如利山)을 적시고 흐르는 동강(東江)을 받으면서 통진부(通津府) 북쪽에 이르러 조강(祖江)이 되고 강화(江華)의 달곶이(月串)와 맞 부딪히면서 바다로 흐드러진다.

뚝섬과 두뚝개에는 한강의 상류에서 나오는 전곡(田穀)과 목재(木材) 그리고 시탄(柴炭)이 집산되었는데, 특히 뚝섬에는 백여 명의 시탄상(柴炭商)들이 들끓었다. 서빙고는 건너편의 등작진과 통하는 나루였고 수원(水原)으로 나가는 길목이었다.

민간의 빙고(氷庫)가 여럿이었고 자연 채빙(採氷)과 장빙(藏氷)으로 장사치들의 내왕이 빈번하였다. 용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번창하던 장시(場市)가 강주변의 송파(松坡)와 말죽거리(馬粥巨里) 그리고 과천(果川)이었다. 도에서 30리에 상거한 송파는 용산이나 서강과는 달리 육로(陸路)의 물자들이 합쳐져서 큰 장시물 이루던 곳이었다. 일찌기 두뚝개나 뚝섬 같은 동교(東郊)의 다른 강촌들보다 장시가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廣州) 지경에 속해 있어 금난전(禁亂廛)의 권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도성에서 충청·경상도로 빠지는 주로는 두길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흥인문(興仁門)에서 한강진과 말죽거리를 거쳐 관교와 용인으로 통하는 길과 흥인문에서 살곶이다리(箭串橋)를 지나 삼전도(三田渡: 松坡)를 거쳐 관교와 용인을 거치는 길이었다. 특히 송파를 거치는 길은 용인을 거치지 않고 광주와 이천(利川)을 거쳐 충주로 통할 수도 있었고 이천에서 여주(麗州)와 원주(原州)를 거쳐 강릉(江陵)으로도 갈 수 있어 인마(人馬)의 통행이 말죽거리보다는 밤낮으로 들쭉하였다.

송파에는 행상선의 주상(舟商)들과 보부상(樛負商)들에 의하여 서울로 올라오는 강원·충청·경상도의 곡물과 목재 그리고 석제품(石材品)·과실류·약재·도자기·무명·삼베·우피(牛皮)·절초(折草)와 잡화와 소들이 모여 들었고 서울에서 향시(鄉市)로 내려갈 어염과 비단과 잡화가 모여들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성안을 거치지 않고 함경·평안·황해 동지의 향시로 빠져나갈 물자도 거래가 활발했었다. 이른바 강주인(江主人)·선주인(船主人), 여객·객주 등의 강상(江商)들과 성내의 배고개(梨峴)·칠패(七牌)의 좌고상인(坐賈商人)과 가가상인(假家商人)들과 중도아(中都兒)들이 모여 북새판물 이루었던 것은 광주땅이라 평시서(平市署)의 관할 박인데다 도성과의 거리는 겨우 30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로 하여 송파의 장시는 송상(松商: 개성)들은 물론이요 만상(灣商: 義州)·유상(柳商: 평양)·내상(漿商: 동래와 밀양)·북상(北商: 함흥, 길주 북청과 원산) 그리고 지방의 감영 소재지에서 관부의 물품을 조달하는 경주인(京主人)들까지 모여 들었고 강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서울중심가의 상판도는 서서히 새롭게 변개되면서 외곽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유통센터가…….”

거하면서 한강도(漢江渡)가 된다. 거기서부터는 서로 흘러 서빙고(西氷庫)·등작진(銅雀津)·노들(露梁)을 만난다. 다시 여의도(汝矣島)와 밤섬(栗島)을 왼쪽으로 비끼면서 용산강(龍山江)이 된다.

서울도성을 서쪽 10리로 비껴나가서 삼개(麻浦)와 만나서는 서강(西江)이 되고 시흥현(始興縣) 북쪽에 이르러 양화도(楊花渡)와 만나며 양천현(陽川縣) 북쪽에서 공암진(孔巖津)과 마주친다. 양천의 개화산(開花山)을 왼편으로 바라보며 북으로 치닫던 강은 교하군(交河郡) 서쪽에 이르러 임진강(臨津江)을 받아 맑은 물을 합하고 개성(開城)의 덕적산

산은 또한 목재의 집산지였는데 궁전·관아·성문·누각의 축조에는 물론 조선(造船)에도 종사하는 자가 있었고 삼개(麻浦)에는 생선·견어물·젓갈·소금이 집산되었다. 삼남(三南)은 물론이요 평안·황해도의 곡물·시목(柴木)·어염(魚鹽)·수공품은 대부분 한강에 들어와서 용산·마포·서강에다 하역을 하였다.

경상·강원·충청의 세곡은 용산에, 황해·충청·전라의 세곡은 서강에 하역케 하였고, 용산에는 군자창(軍資倉)·만리창(萬里倉)·별영창(別營倉)·별고(別庫)와 같은 창고가 즐비하였으니 이들이 모두 경강상인(京江商人)들의 본거지가 되었다.

경(江景)·원산·박천진두(博川津頭)·창원(昌原) 등지의 여객객주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길게 인용(金周榮의 客主에서 발췌·취사·인용)해 두는 것은 당시의 풍경과 지금과를 비교해 보려는 재미와 지금의 장시를 만지는 우리들에게 몇가지 源流를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의 상권이라 해서 크게 변형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서울의 남대문·동대문 양대시장을 중심으로 재래의 시장이 엄청난 규모와 세력으로 늘름히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들간을 잇는 동서의 종로·청계천·을지로의 세 가로가 서울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번창한 상업지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쪽상권의 육이오는 한강하류를 휴전선으로 가로막아 서해바다와 서울을 잇는 수로를 잘라 버린 이후 서울의 유통로는 크게 변질되어 철로와 고속도로가 대행케 되었고 서울은 성외로 엄청난 확장을 거듭하여 영등포·청량리·신촌·영동·잠실·반포 등으로 부도심들이 개발되고 그 부도심단위로 새로운 시장이 이름을 드높이며 번창일로를 걷는다.

또한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 및 소비성향의 변개 등으로 현대적 의미의 쇼핑센터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서울 중심가의 상판도는 서서히 새롭게 변개되면서 서울의 외곽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유통센터인 물화의 집산지가 개발되고 있다.

●야누스의 얼굴—서울의 양대시장

서울의 시장이라 할 때, 누구나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을 먼저 손 꼽는다.

이 나라의 으뜸가는 보물인 남대문 언저리의 남창동에 있는 남대문시장은 흥정만 잘 하면 처음 부른값의 절반값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큰 시장이다. 얼마 전까지 — 고속도로가 놓인 60년대까지 — 만 해도 서울의 가장 중심적 유통센터였던 서울역과 가까운 덕으로 시장기능이 매우 다양한 종합시장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로의 육의전은 남대문시장의 동쪽 모서리에 붙은 신세계 백화점 앞길에서 시작되어 종로와 안국동에

이르렀었다. 남대문시장은 면적이 12,000여평이고 가게 수요가 거의 오천개쯤에 이른다. 하루에 십이만 명쯤이 시장의 손님으로 드나드는데 옷을 비롯하여 어물·공예품·꽃들이 상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서울 시민의 살림의 젖줄이자 한국 서민 경제의 척도이기도 한 동대문시장은 그 규모와 넓이와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많은 대중시장이며 역사도 가장 깊다. 동대문시장은 광장시장·평화시장·중부시장·방산시장·세운상가·동대문종합시장을 통틀어 일컫는 시장이다.

모복·양복지·화학·섬유 상품이 거래액수의 2/3쯤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내 시장점포의 1/4쯤이 몰려 있다.

새벽 미명이 트기도 전쯤, 아직 서울이 곤히 잠들고 있는 시간에 이시장들을 어슬렁거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엄청난 활기에 아연해진다.

통금이 없어진 이후「시작!」하는 맛은 좀 덜 해졌으나 물건을 잔뜩 실은 트럭이 담지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상인들이 얼얼한 부스스하게 덜 갠듯한 외양이 새벽 한기와 함께 을씨년스런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으나 누구보다도 먼저 좋은 것을 한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욕심에 반짝거리는 눈망울들과 흥정하는 굵은 목소리들에서 번득이는 상흔과 그들의 끈질긴 생활에의 외유에 사는 맛이 절로 난다.

이렇게 한번 크게 요동친 장바닥은 해가 뜨고 좀 뜨악한 오전을 보낸 후 저녁햇살을 받으며 또 한번 크게 술렁인다. 그것은 장바구니를 든 아줌마들과 판을 벌이고 호객하는 상인들이 벌이는 또다른 흥청거림이다.

이런 상거래의 권좌를 누리는 양대시장도 그 엄청난 물자와 거래량과 조히 데조라도 되는 듯 그러한 거래사이를 비집고 사기·쓰리꾼·네다바이·도깨비·가짜·불량·밀수·바가지·에누리·퇴폐 등 상거래의 질서와 윤리를 바닥에서부터 뒤엎는 반감 많은 말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채 형성되어 온 환경은 으레 예상되는 무질서와 불결한, 엄청난 밀도, 그리고 화제·붕괴 등의

재해에 대한 위험을 속성처럼 가지고 있음 등으로 급방이라도 질식케 하는 상상 이상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구조적 불안을 더 부채질하는 것은 서서히 등장한 새로운 유통체계의 대두, 소비성향의 변개, 서울의 부도심의 확장 등으로 점점 그 지위를 잃어가는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러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공정거래, 가격표시제의 실시, 에누리의 추방 등의 운동들과 시장재개발사업의 추진 등 다방면으로 다각적인 시도가 또한 줄기차게 거론되고 시행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성상을 거듭하는 동안 고식되버린 뿌리깊은 이런 병폐는 그리 쉽사리 없어져 주질 않는다.

그러한 사업과 시도 등은 엄청난 지가(地価), 서로 물리고 설킨 권리금, 단위의 영세성, 개발의 시기와 단계, 궁극의 목표의 합의, 잔재된 미련과 불전전한 향수 등이 서로 복합되어 적재된 그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생각대로 척척 맞아 주질 않는다. 어떤 관점에서 그것은 지금까지의 제안이나 시도 등이 우선 관주도형의 정책우선의 논리나 엘리트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영웅적 개발 정책과 시도에 기인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장바닥을 우매하고 더러운 곳으로만 간주하고 획일적·전체적으로 취급하려는 잘못을 염려해 보려는 뜻이다. 그렇다 해서 걸핏하면 지성(知性)을 조소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타매하는 건전치 못한 비판을 옹호해서도 안된다. 이 두가지 상황 모두가 어느 의미에서는 지성의 부재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영영 고식시켜 버릴지도 모르는 더 큰 위험에 빠져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의 가치관의 정립이다. 그 가치관이란 그 장소의 주인으로부터 연유되어야 하며 우리의 고민은 그 주인이 목적과 이익이 뚜렷한 개체(個體)가 아닌 복수(複數)라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항상 그곳의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고와 인식은 그들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우리의 시도와 추구는 그들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으로 귀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이 가지고 있는 복잡과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금세기 초 근대주의를 표방한 거장들이 그들의 모든 지혜와 공론을 모아 창출해 냈던 3M (Modern Mythic Man) 을 또다시 지금의 대중들로 치환시킬 우려가 깊다.

윤리적으로 고압적이며 성실한 등의 건강하고 이상적인 면만을 채택하고 그들이 살게 될 유토피아적 결정론을 담보하게 되어 악순환은 더 깊

현대 도시생활의 부랑자들에게도 적어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다.

장바닥을 얘기하면서 너무 거창한 사실을 늘어놓은 것 같으나 〈속물〉·〈일상〉으로 일컬어 비하시켜버린 그러한 곳에 오히려 더 큰 생명력과 흥분이 있음을 얘기하고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을 최대한의 생명을 수용하는 장소로 우리 자신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쇼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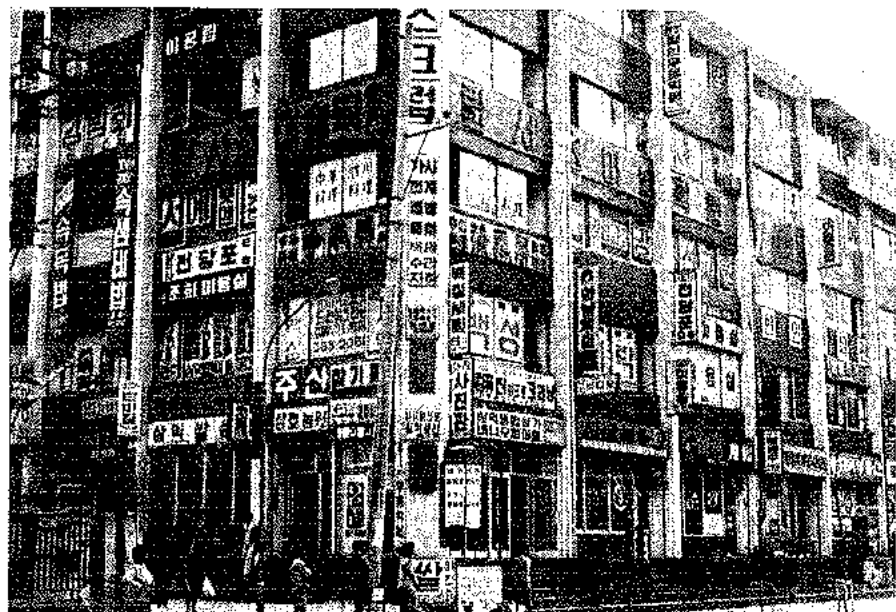
60년대 이후 새로운 산업화시대를 구가해 오면서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을 따라가

내용물을 갈아 끼워가며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1 회용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틈에 우리 주위에도 한번 쓰고 버리는 1 회용 라이터나 인스턴트 식품·장통제품이 넘람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출현과 더불어 쇼핑센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상품구매의 1 차적 목적보다 쇼핑을 일종의 즐거움으로 즐기려는 성향이 엄청 커지게 된 것이다.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얻을 기뻐거리면서 다른 점착과 문화적 향유, 정보의 교환을 즐기려 든다. 박 길룡교수의 「근대쇼핑센터의 발전과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대의 쇼핑센터의 개념 역시 단순한 상업과 유통의 기능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공의 장소로서 본질을 갖추어 왔다. 이는 일반적으로 쇼핑센터가 갖추게 되는 퍼블릭시설로서 멀(Mall)·아케이드·테라스·정원을 갖추게 되며 좀더 적극적인 시설로서는 식물원·야외음악당·놀이 시설 등을 갖게 마련이었다. 이 장소에서의 행위 역시 위락쇼·미술전시·花展, 나아가서는 피크닉가든 마저도 포함된다. 오는 단순한 상업센터 이상으로서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과 가능한 긴 시간을 여기에서 보낼 수 있도록 강한 매력을 가진 시민센터이며 문화센터로서 계획되어질 필요가 충분조건인 것이다(월간 건축문화 '83. 11).

이러한 성향으로 우선·장터·시장·가게·점포·상점·○○전 등의 낱말에서 백화점이란 새로운 개념이 성립 우리 구매욕을 돈구고 있으며 60년대 이후에 서서히 등장한 아케이드·슈퍼마켓·쇼핑센터·쇼핑 멀·체인스토아 등이 이제와서는 별 생소하게 들리지 않으며 이러한 외래어들과 함께 상가·종합상가·지하상가·○○1번지·○○연쇄가 등의 말들과 함께 상당히 현대적 개념이 정착된 듯하다.

이런 현대적 의미의 구매시설은 종로네거리의 화신·신신백화점과 명동과 충무로 상권을 대표하는 듯한 미도파·신세계백화점을 선두주자로 꼽는다. 이 양대거점은 전통적 서울의 상권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울의 구조가 점차 큰 변



“... 그래서 우리의 시장을 최대한의 생명을 수용하는 장소로, 우리 자신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때 로마에서 뿐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R. Veuturi 의 말에 많은 시사를 받게 된다. R. Veuturi 는 현대건축가들은 현대적 기능의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그 기능의 복합성을 무시했다고 전제하고 현대의 혼돈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문제가 현대건축이 생각해 오던 바와 같이 것처럼 유해하고 것처럼 절망적으로 구제불능이며 사실 것처럼 〈혼돈적〉이기 보다 오히려 이 복합과 모순들이 더 자극적으로 더 심오하게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즉 일상적인 물체에도 진리가 있고

게 된 이후 우리의 소비성향은 많이도 변개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성향의 변개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A. 토플러는 그의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에서 〈물자를 써버리는 사회〉라 표현하고 있다. 어느 시기까지는 우리의 주부들은 쓰고 버리는 제품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낡은 것이라도 버리기 보다는 보존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들어서서 쓰고 버린다는 사회가 되버린 것이다. 한동안까지 우리는 상품의 용기(容器)를 집에만 보관하여 다른 물품의 용기로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화를 겪어오는 동안 화신·신신 백화점은 이상하게 퇴색하고 미도파·신세계백화점은 소위 재벌급 기업이 참여하면서 적영제 등 새로운 경영체제의 도입과 자체내 기획상품의 개발, 부도심에 거점형식의 분점개설 등 혁신을 단행하여 소위 「백화점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특히 반도특정가구에 초메머드급 호텔과 백화점 및 롯데 1번가로 지칭되는 대단위 컴플렉스가 출현에 크게 자극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무엇이든 여기에서」라는 백화점과는 조금 양상을 달리하지만 갑자기 늘어난 지하도와 대형건물의 지하층에 현대적 의미의 쇼핑센터·쇼핑아케이드가 출현했다.

서울에 지하상가가 등장한 것은 지난 67년 시청 앞에 지하보도를 건설하면서 조성된 것이 처음이다. 그후 지하상가는 소공·인현·회현상가 등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 웬만한 지하도는 상점을 갖게 되었으며 대우빌딩·동방생명빌딩·교보빌딩의 지하층에 새로운 형식의 쇼핑센터가 등장하여 성공을 보이자 서울 고층대형빌딩의 지하층은 너도나도 지하 쇼핑센터를 유행처럼 두고 있다. 현재 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곳만도 도로 밑에 25개소, 빌딩지하에 6개소 등 모두 34개소나 되며 이곳의 점포수는 3,800개에 달해 전체 유통시장의 8%를 차지한다.

이러한 도심부의 상구조의 발전과 약간 위계를 달리하겠지만 서울의 외곽부로 부도심의 새로운 거점들이 출현하면서 대단위 주거단지가 개발되고 그에 따른 쇼핑센터가 개발되면서 거의 도심의 백화점·쇼핑센터에 버금가는 쇼핑센터가 출현하여 성공적 이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포의 뉴코아와 압구정동의 한양쇼핑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들어 더 치열해진다. 특히 최근 재벌 기업들이 지하로 눈을 돌리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서울 태평로에 신축 중인 동방생명빌딩 신관 지하층에 매장크기가 신세계백화점만한 매머드급 지하아케이드를 건설 중이고 신동아그룹도 국내 최대 규모의 여의도 「대한생명63」빌딩 지하에 대형쇼

핑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 삼미그룹과 코오롱그룹도 그룹사옥 지하층에 미니백화점 등을 신설 지하유통업계에 본격 참여했으며 대우그룹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 지하에 강남 지하상가를 직접 건설 지하상권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외에 롯데그룹·국제그룹도 지하상권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기존 유통업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쇼핑센터의 근저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금세기초 소위 현대건축(Modernism)이 세 지위를 확고히 하므로써 건축에서의 기술(Technology)은 어느 누구의 상상력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이것은 현대의 상업주의에 지대한 자극을 주었다.

또한 반유물론자(反唯物論者)는 물(物: 물건·물질)의 중요성을 비웃기 쉽다. 그러나 물(物)은 기능적 효용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음으로 극히 중요한 것이다. 물은 우리들의 연속 혹은 불연속의 감각에 영향을 주며 물(物)은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성 중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물과 우리들의 관계를 단축함으로써 생활의 페이스를 빠르게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물에 대한 태도는 그대로 기초적 가치판단에 즉각적으로 내려온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영원성에 따르는 사회에서 일시성에 따라 모두가 새로이 만들어져 가는 사회로 전이되고 있다(A. 토플러, 미래의 충격).

이러한 현대물질주의는 현대건축의 기술과 어울려 다양한 개발을 상호 유도·촉진했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물질상업주의는 인간의 감성적·파괴적·소비적·말초적인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게도 했다. 이러한 성향들이 한데 어울려 유통 구조와 소비성향을 조장하여 상거래는 전쟁을 연상하는 듯한 치열한 경쟁 속에 극도로 발전하게 되며 현대의 건축술은 그것을 충분히 수행할 틀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또한 상기한 현대상업주의를 배경으로 발달한 서울의 상업구조의 현대적 형태로의 전이(轉移)는 서울의 도

시구조 개선과 크게 관련된다.

그러한 연유의 사발은 서울교통체제의 변화로부터이다. 70년대 이후부터 정착되어 온 고속도로시대의 정착과 지하철 시대의 출발이 그것이다.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큰 주안점은 보차분리의 입체적 해결과 버스에서 탈피하여 지하철로 지향하려는 대중교통 수단의 근원적 해결에 두고 부단한 노력해 온 결과 초기에 어슬픈 교가도로와 교육에서 지금은 지하도의 적극개발과 연속 및 보행자 데크의 시도 등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지하철의 개통으로 서울의 도시구조는 평면적 계획수준에서 3차원적 입체구조(3-Dimensional Planning)의 시대를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개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표면의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표면의 확대란 도시의 주기능을 1층 레벨에 한정시키지 말고 지하 2개층과 지상 3개층에 이르는 5개 레벨로 그 수용의 범위를 확대해 보자는 시도인 것이다. 이것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수직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공환경의 기술적 뒷받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또한 고식적으로 채택되어 오던 도시개발의 지역지구제를 지양하여 개별적·국부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 도시설계(Urban Design)의 계획수법의 도입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러한 출발은 이미 여기에 합당한 새로운 복합적 건축형식의 개발도 병행해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단일기능(Unifunction)의 건물위주의 도시에서 복합기능(Multifunction)의 건물위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시민의 접촉이 수월하고 많은 저층부, 그리고 중층부 및 고층부의 기능이 각각 다룰 수 있는 건물형식의 유치이다. 예를 들어 저층부에 쇼핑, 중층부에 사무실 그리고 고층부에 아파트 또는 호텔 등 주거기능을 두는 복합건물이다.

이러한 개발의 실현은 도시의 코어에 활기를 주어 밤에는 죽어버리는 그런 도시에서 탈피하게 되며 토지이용의 효율화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3차원적 도시개발은

지금까지 자동차의 흐름에 의해 분리된 도로 양측의 기능을 이어주어 도시기능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인 제제나 행정적 지원도 뒤

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이다.

즉 지역의 문화·사회적 기능을 수용함으로 해서 접촉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증대시켜 인간교환(人間交換)의 장으로 유도하고 교육적 기



“단순한 상업센터 이상으로서 많은 사람과 가능한 긴 시간을 여기서 보낼 수 있도록 강한 매력을 가진 시민센터이며 문화센터로서...”

따라야 할 것이나 가장 큰 요소는 상호 공유하려는 정신이 성숙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구조의 개편을 기반으로 우리의 상업구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업건축은 시민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직적인 개발에 의해 합리적인 타당성 연구의 소산에 의한 양(量)의 통제 및 적절한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무작정 늘어나는 상가가 주민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조직적 개발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건축가뿐 아니라 경제학자·사회학자·법조인·교통전문가·유통전문가 등 다각적인 협력자(Consultants)들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의 장소로서 기능을 수용하기 위

능을 적극 수용함으로 해서 성인교육·평생교육의 장으로뿐 아니라 특히 전강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 새로운 형식의 시설 및 기구의 개발이 뒤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찌되었던 최종 상업건축의 기능에 적합한 질(質)의 향상이 최후의 목표이다. 질의 향상은 우선 그곳이 시민에게 매력있는 장소가 되어야 사람들이 구태여라도 모여들 것이며 그런 연후에야 장사도 교류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토탈 디자인(Total Design)이라는 개념이 특히 상업 건축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리라 본다.

토탈 디자인이란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모든 분

야—도시디자인·환경디자인·건축의 설계와 시공, 실내디자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화 및 조각·공예 등 조형미술 분야까지 경영적인 측면과 함께 적재적소에서 결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취급하려 한다는 것, 즉 프로그래밍·디자인·엔지니어링·설계·실내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미세한 부분의 디테일까지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어떤 디자인 기법이 동원되든지 간에 우리는 좋은 장소, 좋은 공간, 좋은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우선 1차적으로 실내환경은 완전히 조절된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태양·바람·나무를 접할 수 있는 자연의 실내도입·옥내조경수법의 개발 등이 될 것이다. 요즈음의 추세로 보아 아트리움·생큰가든·그린 룸 등의 기법이 동원되어 실내환경의 질적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좋은 디자인을 위하여는 첨단 기술과 새로운 재료의 도입으로 디스 플레이, 장식 그리고 CIP 등에 이르는 일관된 세련화의 추구나 빛의 연출 등 적극적이고 극적인 공간의 예술, 특히 옥외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장치—물·나무·가로장치물(Street Furniture) 등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열을 보여야 한다.

어쨌거나 서울의 장터는 지상에서 지하로 도심에서 부도심으로 끊임없이 확장 발전해 갈 것은 틀림없다.

자유경제 체제하의 서울상업 구조는 돈을 벌기 위한 1차적 목적을 도외시하여 시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곳을 시민의 장소라는 적극적인 생각은 상호보완, 호혜(互惠)의 관제로 차원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서울이, 우리의 거리가 매력있고 친근한 곳으로 하나 하나 다듬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



公共휴식시설 갖춰야 都心재개발 新築건물에

앞으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휴식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옛 新新백화점 자리에 짓는 22층짜리 제일은행건물(清進제1지구재개발사업)의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주차장 면적의 85%를 지하로 돌리는 대신 법정조경면적 3백11평외에 9백2평의 휴식 공간과 4백47평의 소공원을 추가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이 사업지구는 2천8백70평의 대지 가운데 1천6백60평이 조경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이 공간에는 벤치와 파고라분수대 등을 갖춘 소공원으로 만들어져 종로1가 일대를 지나는 행인들의 휴식처로 활용된다.

사관계자는 앞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고층빌딩의 건축 심의에서 외관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함께 시민편익시설의 수준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建築許可면적 증가 住宅 8만채로 31%증가

공장 상가 사무실빌딩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건축 규모 또한 대형화돼가고 있다.

건설부가 10월말 현재로 집계한 전국 건축허가 건수는 건물 11만3천5백49棟에 연면적 3천3백37만7백64㎡(약 1천11만2천3백52평)로 전년 동기와의 8만7천6백35棟 2천4백37만1천3백50㎡(7백38만5천2백57평)

에 비해 각각 29.6%와 36.9%가 증가돼 전설되고 있다.

(용도별 건축허가) (단위: ㎡)

		1~10월	
		82	83
주거용	동 수	62,106	81,357
	가구수	153,606	186,219
상업용	연면적	13,711,534	18,058,544
	동 수	15,430	19,999
공업용	연면적	5,598,924	8,807,045
	동 수	2,368	3,097
문교사회용	연면적	1,840,306	2,802,347
	동 수	3,127	3,145
기타	연면적	2,414,566	2,476,286
	동 수	4,064	5,951
		806,020	1,226,542

이 증가율은 81년동기 대비 31.3%와 36.8%가 증가됐던 82년10월 말현재에 비해 棟수는 줄었으나 연면적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건물단위당 건축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증가되는 건축활동은 棟址地로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증과돼 그대로 팔기보다는 건축물을 지어 팔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데다 건축투자가 새로운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아파트 및 토지투기억제 등으로 막힌 부동산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용도별 건축허가 棟수는 ▲주택등 주거용이 작년동기보다 31%(올해 8만1천3백57棟) ▲공장등 공업용 30.8%(3천97동) ▲상가오피스빌딩등 상업용 29.6%(1만9천9백99동) ▲기타 29.3%(5천9백51동) ▲학교등 문교사회용 0.6%(3천1백45동)가 각각 늘어났다.

또 연면적으로는 상업용이 57.3%(8백80만7천45㎡), 공업용52.3%(2백80만2천3백47㎡), 기타 52.2%(1백22만6천5백42㎡), 주거용 41.7%(1천8백5만8천5백44㎡), 문교사회용2.6%(2백47만6천2백86㎡)가 증가했다.

1개동의 평균 건축연면적이 작년 2백78㎡(84평)에서 2백94㎡(89평)로 늘어난 것이다.

시·도별로는 연면적기준으로 京畿道の 건축활동이 가장 활발해 5백67만4천8백5㎡에 달했고 다음이 釜山의 2백71만5천7백89㎡, 慶南 2백48만2천5백94㎡, 全南 1백89만4천1백

87만, 仁川 1백73만6백23㎡, 忠南 1백60만8천7백86㎡등 순이다.

특히 건축비수요기를 앞둔 10월한 달동안의 건축허가 연면적은 3백36만9천9백41㎡로 성수기인 9월의 3백61만8천4백81㎡를 약간 화회하는 등 동절기의 건축활동도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住宅·宅地 개발사업 도시외곽으로 치중

건설부는 현재 기존도시에 치중하고 있는 住公과 土開公의 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을 도시외곽지역으로 확대, 근교위성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과밀도시 인구의 분산을 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2천억원인 住公의 자본금을 5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른 住宅公社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냈다.

지금까지 住公의 신규주택 건설은 기존도시에 치중, 수도권지역의 경우 住公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되는가 하면 인구 분산을 저해, 오히려 도시과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住公은 앞으로 서울 高德 開浦등과 같이 대규모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을 果川경우처럼 기존 도시가 아닌 도시외곽지역에 치중, 중소 규모의 근교위성도시를 많이 건설할 방침이다.

住公사업단지는 학교와 상업지구등 업무시설 지구를 포함,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민간업체에 공급, 중산층주택을 건설토록 하여 균형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住公은 이 계획에 따라 수도권근교지역을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익금을 격렬한 것이 1천억원을 기록, 이것만 자본금으로 전입해도 사업추세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土開公도 그동안 廉開公에서 맡아오던 工團 등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인수, 用地開發사업을 확대할 방침인데 택지는 住公의 위성도시건설과 맞추어 도시외곽의 대규모 집단택지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土開公개발 주택지

추첨제로 분양 실시

내년부터 韓國土地開發公社가 개발·분양하는 택지는 추첨제와 일반경쟁 입찰제를 병행하며 상업지는 경쟁입찰에 붙여진다.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土開公이 조성한 토지를 일률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해 분양함으로써 땅값 상승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개발되는 택지의 경우는 추첨제에 의해 분양키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土開公은 이에 따라 일반 개인에게 취득한 땅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택지 또는 상업지로 개발·분양할 때는 중전과 같이 일반경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땅은 추첨제로 一元化해서 분양케 된다.

土開公은 내년에 택지9백25만6천㎡, 공업용지 1백21만5천㎡를 개발하고자 2백64만7천㎡의 일반토지를 매입해서 이중 6백61만2천㎡를 공급키로 했는데 이에앞서 올해 일반매입에 의해 개발된 택지 2백28건의 5백58만3천63㎡ (1백68만8천8백76평)는 연내 일반경쟁입찰로 분양키로 했다.

이달중 분양될 택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서울 2만7천8백97 ▲釜山 125만2천64 ▲京畿 56만8천3백59 ▲仁川 18만3천8백38 ▲江原 1백59만2천1백70 ▲忠北 1만7천8백85 ▲忠南 31만9천8백52 ▲全北 16만2천3백50 ▲全南 33만4천5백33 ▲慶北 39만5천5백40 ▲慶南 16만7천1백80 ▲濟州 1백56만1천3백95

단독주택 많이 짓고

아파트 신축 부진

올해 서울에서는 단독주택과 비주거용건물의 건축활동이 활발한 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신축은 지난해에 비해 부진했으며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비주거용건물 모두 지난해 보다 규모가 커진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년들어 지난10월말까지 건물용도별 건축 허가 실적은 단독주택이 1만8천6백90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천3백2채에 비해 65.4% 늘었고 반면 연립주택은 가구수가 올해 1만8백23가구로 지난해 동기의 1만3천4백45가구에 비해 19.5%, 아파트는 올해 1만1천2백42가구로 지난해 1만5천5백35가구에 비해 27.6%씩 각각 줄어들었다.

또 비주거용건물의 경우는 올해 같은 기간에 4천9백98채가 허가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9백19채 보다 27.5%가 늘어났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1년 5천6백75채가 허가 난데 비해 82년한 해동안 1만2천4백3채, 올해는 10월말 현재까지만으로도 이미 1만8천6백90가구나 돼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비해 연립주택은 81년에 비해 82년에는 가구수가 66.7%, 아파트는 81년에 비해 82년 허가가구수가 24.5%씩 늘어났다가 올들어 크게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다.

또 비주거용건물은 81년의 5천1백90채에서 82년에는 4천4백87채로 13.6%가 줄었다가 올들어 10월말 현재로 82년 실적을 크게 웃돌아 81년 실적까지 육박한 것이다.

한편 주택의 경우 가구당 평균면적이 단독주택은 올해 10월현재 1백79.5평방m로 81년의 80.8평방m, 82년의 1백75평방m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아파트도 81년 85.8평방m, 83년10월 현재 1백23.7평방m로 큰 폭으로 커지고 있다.

연립주택도 81년의 80.8평방m에 비해 82년엔 79.4평방m로 약간 규모가 작아졌으나 올해10월말 현재로 91.1평방m가 돼 크게 커진것으로 나타났다.

住宅규모 차츰 커져

新築평균 29.5평

주택의 건축규모가 해마다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주택자들도 15평미만의 소형주택은 원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70년대 이후 1주택당 평균 면적은 해마다 넓어지는 추세를 보여 지난 70년 13.8평이던 주택평균 면적은 75년엔 17.5평, 80년엔 20.7평으로 늘어났다. 최근 건축된 주택규모를 봐도 82년엔 공동주택 15.6평, 민간주택 32.2평으로 평균 26.3평이었으나 83년(1~6월)엔 공동주택 16.9평, 민간주택 37평으로 평균 29.6평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말 현재 국민주택선매청약예금가입자 22만명중 15평 이하의 집을 원하는 가입자는 2만명에 불과했으며 가입자의 91%인 20만명이 15평이상의 주택을 청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82년에 실시한 도시영세가구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95.6%가 81년에 실시한 도시무주택가구조사 대상자의 83.7%가 15평 이하의 주택은 「싫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주택건축면적확대추세나 무주택자들이 한결같이 15평이상의 집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내년중 13평형의 소형공공주택 11만채를 신축키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내년도 예산동결조치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관계당국자는 주택공사가 82년 이전에 지은 13평 이하의 주택이 입주희망자가 없어 아직도 상당량 미분양상태에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주택정책은 1년의 예산문제에 집착해서는 안되며, 장기적 안목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컴퓨터에 의한 透視圖 作圖

曹 鐵 鎬 - 건축사 · 建國大교수

PERSPECTIVE BY CAD SYSTEM

CHUL-HO CHO / KONKUK UNIV.

어떤 간단한 建物을 컴퓨터에 의해 透視圖를 作圖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나타낸 기본개념도가『그림-32』이다.

14. 任意의 觀測點에 대한 隱線除去 이 방법은 Roy E. Myers에 의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두 隱線除去 방법들은 觀측점을 설정하는 데 제약점이 있었다. 보다 일반적인 隱線除去方法은 面의 방향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33』에서 (a)와 같은 觀측각도에서 보면 피라미드의 일부는 가리워지면서 정육면체가 보다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33(b)』에서는 피라미드가 정육면체의 일부를 가리우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들 각각에 우선 순위(Priority)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두 건물이 圖像으로 나타날 경우 다른 건물에 의해 가리워지지 않는 건물에 높은 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가리워진 건물은 두번째 순위를 갖게 된다. 우선 순위는 觀측점으로부터 각 건물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서로 비교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로부터 높은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두번째 방법으로는 두 물체를 분리시키는 分離平面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높은 순위는 分離平面에 대하여 觀측점과 같은 쪽에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건물들을 분리할 수 있는 平面은 어떤 것이든지 분리平面에 대하여 觀측점과 같은 쪽에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건물들을 분리할 수 있는 平面은 어떤 것이든지 분리 평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분리평면은 건물의 한 점이나 한 辺, 또는 한 面을 포함할 수도

있다.

만약 분리 평면을 바꾸면 건물들의 우선 순위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일단 우선 순위가 결정되면 먼저 높은 순위를 갖는 건물을 그린다. 여기서는 觀측자에게 보여지는 面들만을 그리기 위해 面의 방향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面의 방향을 이용하는 방법은 2번째 순위의 건물에 대하여서도 觀측자 쪽을 향하는 面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面의 각 辺들은 첫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 물체에 의해 양 끝점들 중의 어떤 것이 가리워지지 않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양 끝점이 모두 가리워지지 않는다면 그 변은 그려진다. 만약 양 끝점이 모두 가리워졌다면 그 변은 무시된다. 만약 어느 한 쪽만 가리워졌다면, 높은 순위 건물에 대한 화상의 경계선과 이 변과의 교점을 계산해야 한다. 다음에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그리면 된다.

이러한 것을『그림-33』과 같이 정육면체와 피라미드의 변들에 대해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34(a)』에서는 피라미드의 안 보이는 변은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들의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끝점으로부터 정육면체 화상의 외곽 경계선들과의 교점까지이므로, 정육면체의 내부 경계선들을 무시하여『그림-34(b)』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다.

面 배열에 들어갈 값들의 순서를 정의할 때, 정해진 정육면체의 외곽 변들의 방향은『그림-34(c)』와 같다.

여기에서 정육면체의 외곽 경계선

들 안쪽에 놓여 정육면체에 의해 가리워지는 피라미드의 꼭지점 H는 이 외곽경계선 각각에 대해 좌측반평면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가리워지지 않는 꼭지점 V는 어떤 일부 경계선들에 대해서는 좌측 반평면에 놓이게 되고, 나머지 다른 경계선들에 대해서는 우측 반평면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선 VH 중의 보이는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점 H로부터 점 V로의線上을 따라 움직이며 각 점에 대하여 可視度檢査를 한다. 점 T를 적어도 정육면체의 한 외곽 경계선에 대하여 우측반평면에 놓이게 되는 첫번째 점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점 V로부터 점 T까지의 선은 그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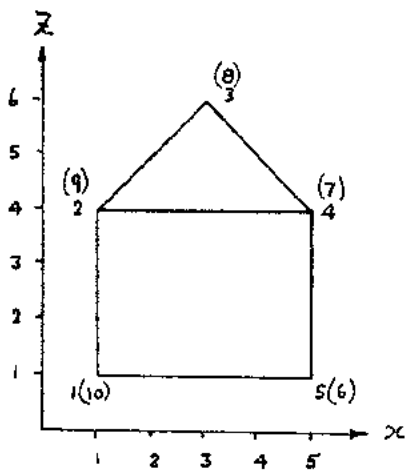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그림-35』와 같은 건물에『그림-36』과 같은 굴뚝을 첨가하는 경우로 선정한다.

『그림-35』에서 건물의 좌표는 대개 정하고『그림-36』의 굴뚝도 마찬가지로 좌표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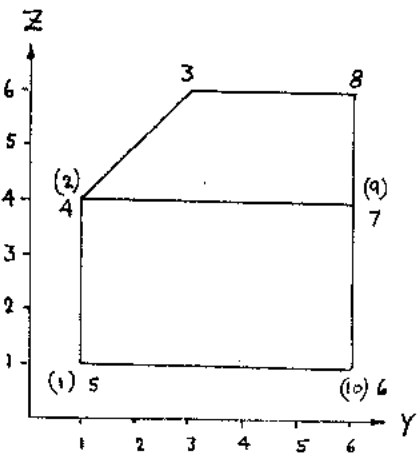
굴뚝은 여섯개의 면들(윗면, 아랫면, 4개의 옆면)로 구성되는데, 각 면은 4개의 변들로 구성되고 이 변들은 양끝점으로 나타내진다.

배열 V(I, J)와 SV(I, J)로서 18개의 점들에 대한 Data를 처리할 수 있도록 D/M V(18, 3), SV(18, 3)로 정할 수 있다. 꼭지점 배열 V(I, J)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1~18까지 V(I, 1), V(I, 2), V(I, 3)는 각각 I번 꼭지점의 X, Y, Z좌표값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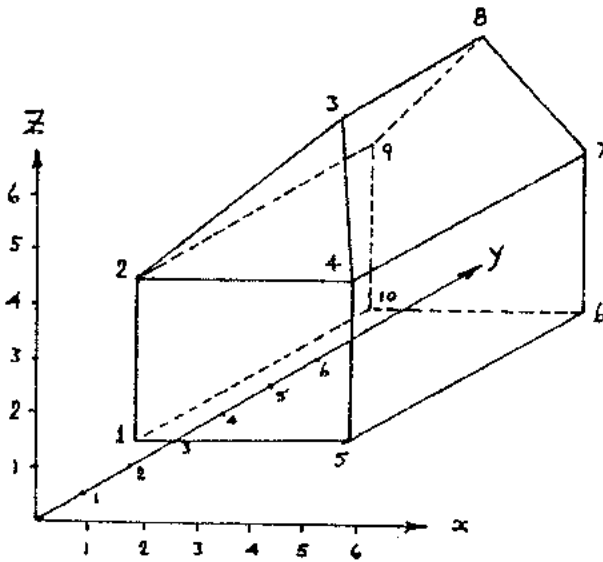
SV(I, 1)과 SV(I, 2)의 값은 V(I, 1), V(I, 2), V(I, 3)이 구해질 때 함께 계산되어 구해진다. 각각의 I에 대하여 SV(I, 1)과 SV(I, 2)는 그 점(X, Y, Z)의 화면 좌표값(Screen Coordinates)을 나타낸다. 세번째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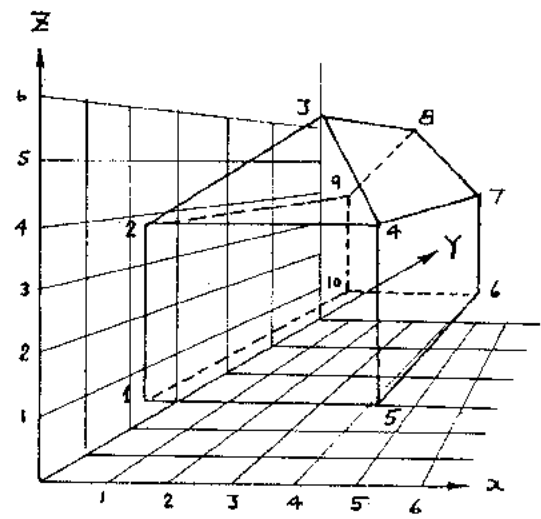
(a)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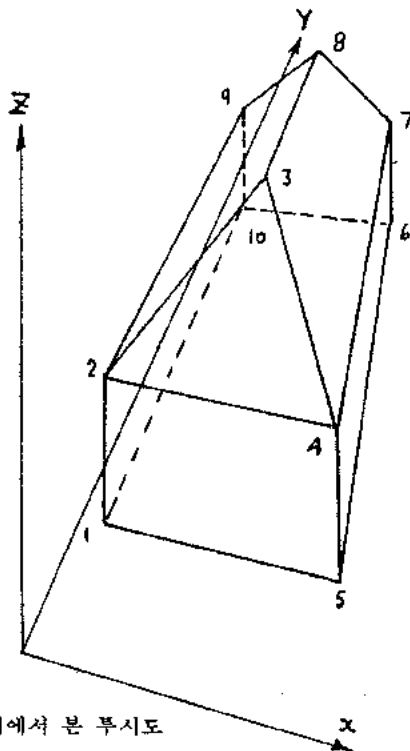
(b) 측면도



(c) Isometric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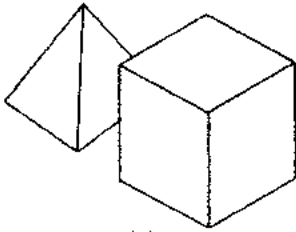
(d) 정면에서 본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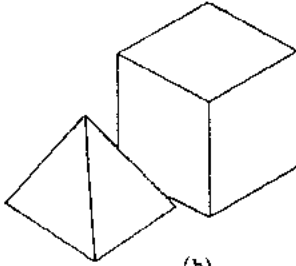
(e) 위에서 본 투시도

Point	Co-ordinates		
	X	Y	Z
1	1	1	1
2	1	1	4
3	3	3	6
4	5	1	4
5	5	1	1
6	5	6	1
7	5	6	4
8	3	6	6
9	1	6	4
10	1	6	1

(f) 좌표



(a)



(b)

「그림-33」 관측 각도에 따른 화상의 변화

SV(I, 3)는 초기에는 0으로 되어 있으나, 나중에 어떤 꼭지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可視상태를 明示하기 위해 수정하게 되는 것이다.

[面配列(Surface Array)]

각 좌표값에 대하여 꼭지점 번호로 면배열을 구성해야 한다.

다음 표에서와 같은 건물은 面1에서 7까지 결정할 수 있고, 굴뚝에 대해서는 面8에서 13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 표는 물체의 밖에서 보았을 때 꼭지점들을 반시계 방향 순서로 연결한 것이다. 面8은 굴뚝의 윗면, 面9는 아랫면에 해당하고, 面10, 11, 12, 13은 굴뚝의 옆면들이다.

[法線 配列(Normal 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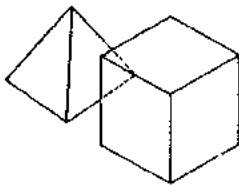
法線 배열은 앞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여기에서 N(I, 1), N(I, 2), N(I, 3)로 I번째 면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法線 벡터의 3개의 좌표값을 나타낼 수 있다.

表-1 面の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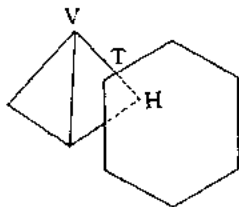
S(I, J)	1	2	3	4	5	6
1	1	2	3	4	1	0
2	1	5	8	9	2	1
3	5	6	7	8	5	0
4	4	3	10	7	6	4
5	3	2	9	10	3	0
6	7	10	9	8	7	0
7	1	4	6	5	1	0
8	11	12	13	14	11	0
9	15	18	17	16	15	0
10	11	14	18	15	11	0
11	12	16	17	13	12	0
12	11	15	16	12	11	0
13	14	13	17	18	14	0

[辺 配列(Edge 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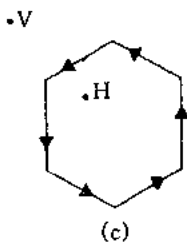
辺 배열은 건물이 보이는 12개의 辺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굴뚝의 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12개의 공간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실제로는 어떤 각도에서 굴뚝을 보더라도 9개 이상의 辺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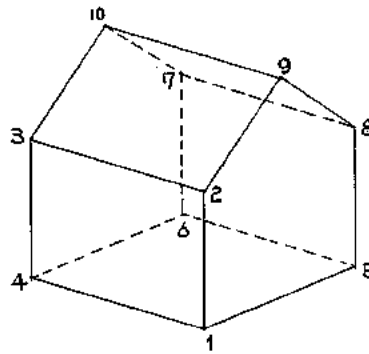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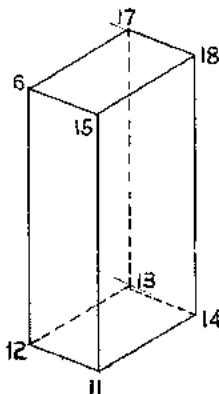
(c)

「그림-34」 보이지 않는 꼭지점의 결정과정



「그림-35」 건물의 꼭지점과 그 좌표

꼭지점	좌	표	
1	7.5	10.5	-7.5
2	7.5	10.5	7.5
3	7.5	-10.5	7.5
4	7.5	-10.5	-7.5
5	-7.5	10.5	-7.5
6	-7.5	-10.5	-7.5
7	-7.5	-10.5	7.5
8	-7.5	10.5	7.5
9	0	10.5	12.0
10	0	-10.5	12.0



「그림-36」 굴뚝의 꼭지점과 그 좌표

꼭지점	좌	표	
11	-3.0	-10.5	-7.5
12	-3.0	-13.5	-7.5
13	-7.5	-13.5	-7.5
14	-7.5	-10.5	-7.5
15	-3.0	-10.5	13.5
16	-3.0	-13.5	13.5
17	-7.5	-13.5	13.5
18	-7.5	-10.5	13.5

멀리 있는 건물의 어떤 변들은 가까운 곳의 물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리워 질 수 있으므로, 각 辺들은 일단 건물의 번호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辺 배열은 $E(2, 12, 3)$ 으로 정의해야 한다. 辺 배열에서의 어떤 한 변에 대한 데이터를 찾는 데 있어서 $E(I, J, k)$ 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I 는 1이나 2의 값을 갖는데, 이들은 각각 1번은 건물, 2번은 굴뚝을 지칭하는데 쓰인다. 다음에 J 는 1에서 1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I 에 의해 지정된 물체의 변들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건물에 대해서는 J 가 12까지의 값을 가질 수도 있으나, 굴뚝에 대해서는 많아야 9의 값을 가진다. I 번 물체의 J 번 변에 대하여, $E(I, J, 1)$ 과 $E(I, J, 2)$ 는 그 변의 양 끝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E(I, J, 3)$ 는 그 辺를 경계로 갖는 면들 중에 눈에 보이는 면의 수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이다.

『그림-37』은 辺 배열에서의 辺의 구성상태를 나타낸다. 이 변 배열의 내용은 선택되는 관측점에 따라 바뀌어진다. 관측점을 바꿈에 따라서 변의 갯수와 배열에서의 변들의 나열순서, 그리고 상태 변수의 값이 변경될 것이다.

이 물체의 각 면들은 가시도 검사를 받아 관측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향하는 면들은 제거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한 면의 변들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일단 상태변수 $E(0, N, 3)$ 은 1로 지정해 두었다가, 만일 어떤 변이 두번 나오면, 그 변이 눈에 보이는 두개의 면들의 경계선이 되면 상태변수 $E(0, N, 3)$ 는 2가 되게 한다.

1번 물체(건물)의 모든 면에 대하여 가시도 검사가 끝났으면 다음에는 2번 물체(굴뚝)의 면에 대하여 같은 과정을 계속한다.

건물과 굴뚝의 상태 변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表-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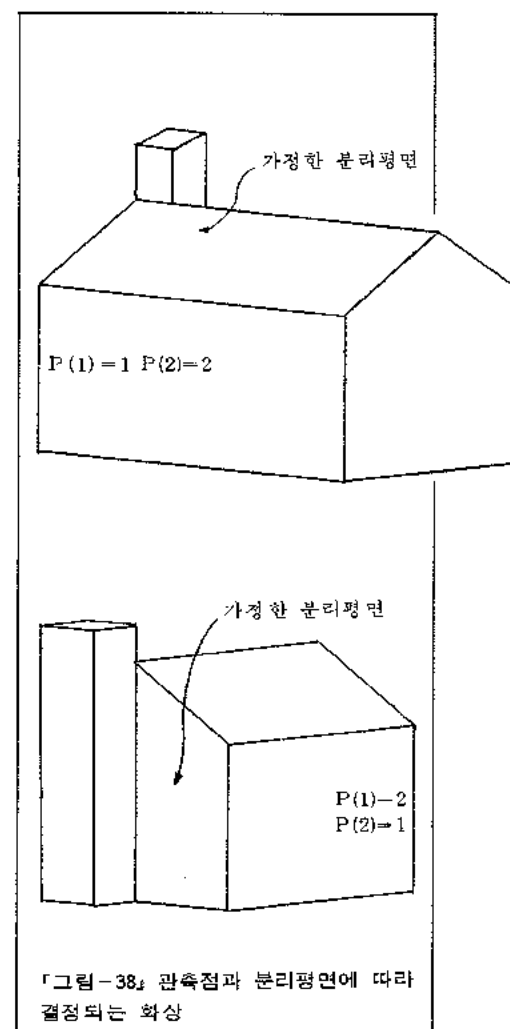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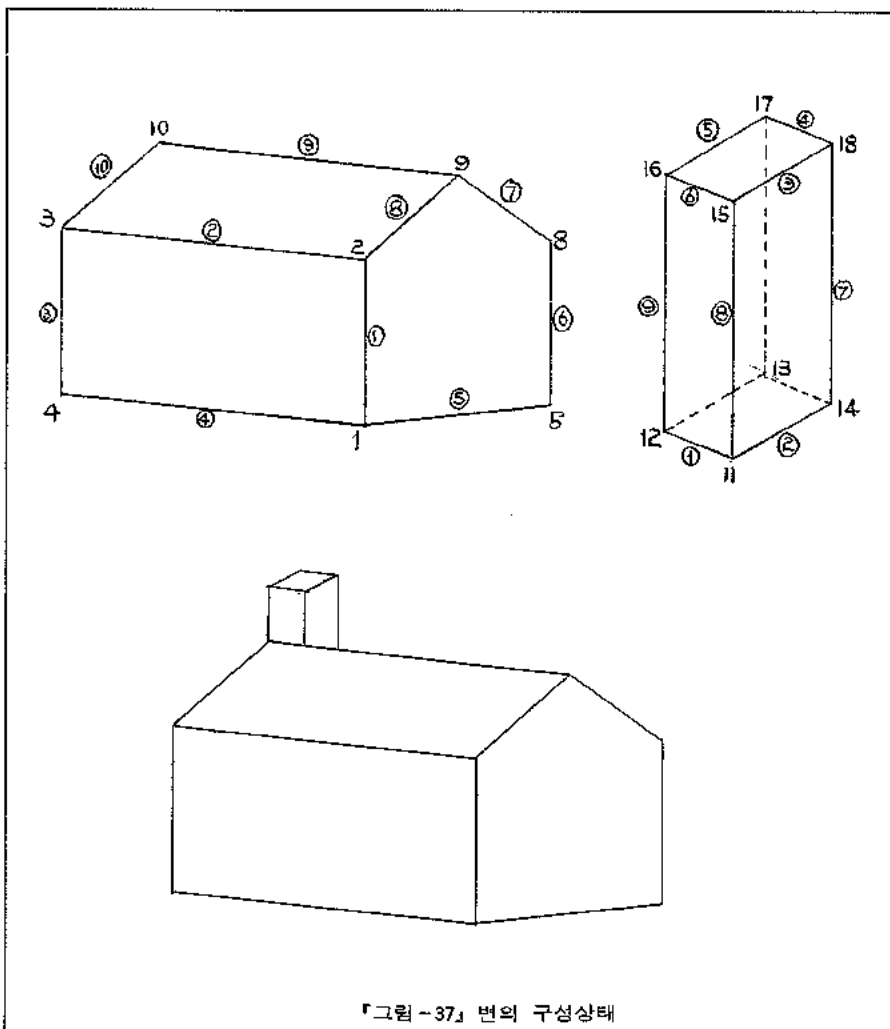
表-2

$I=1$: 物体1(建物) $I=2$: 物体2(굴뚝)

辺	辺의 끝점	상태변수	辺	辺의 끝점	상태변수
1	1 2	2	1	11 12	1
2	2 3	2	2	14 11	1
3	3 4	1	3	15 18	2
4	4 1	1	4	18 17	1
5	1 5	1	5	17 16	1
6	5 8	1	6	16 15	2
7	8 9	1	7	14 18	1
8	9 2	2	8	15 11	2
9	9 10	1	9	16 12	1
10	10 3	1	10	0 0	0
11	0 0	0	11	0 0	0
12	0 0	0	12	0 0	0

[物体의 優先順位(Priority)]

먼 곳의 물체는 가까운 곳의 물체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가리워질 수 있으므로, 물체들을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두 물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分離平面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번 물체



의 꼭지점들은 분리 평면상에 있거나 또는 2번 물체의 꼭지점들과는 반대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분리평면으로 $Y = -10.5$ 인 평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관측점(Xe, Ye, Xe)이分離平面에 대하여 건물과 같은 쪽에 있다면, 집의 변들은 굴뚝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도 가리워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집은 첫번째 우선 순위를 갖게 되고, 집에 의해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가리워질 수 있는 굴뚝은 두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다. 만일 관측점이 굴뚝쪽에 있다면, 굴뚝이 첫번째 우선 순위를 갖고, 건물이 두번째 우선 순위를 가질 것이다.

[첫번째 우선 순위의 변들]

첫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 물체의 보이는 변들은 이제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변들의 각각은 눈에 보이는 면들을 이루는 경계선들이다.

이 변들은 첫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 물체의 변들이기 때문에 다른 물

체에 의해 전혀 가리워지지 않게 된다.

[두번째 우선 순위의 변들]

두번째 물체에 관련된 변들은 보다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어떤 변들은 첫번째 우선 순위의 물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9』에서 건물과 굴뚝에 대하여 살펴 보면 1번과 2번 변은 굴뚝의 옆면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 면들의 가시도 검사에서 통과되어 눈에 보이는 변들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건물에 의해 완전히 가리워진다.

따라서 이들은 그려져서는 안된다. 3, 4, 5, 6번 변들은 완전히 보이는 변들이므로 화면에 그려져야 한다. 반면에 7, 8, 9번 변들은 단지 일부분만이 보이는 변들로서, 이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지를 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만을 그릴 수 있다.

따라서, 두번째 우선 순위를 갖는

② 어떤 변들은 단지 일부분이 보이며

③ 어떤 변들은 완전히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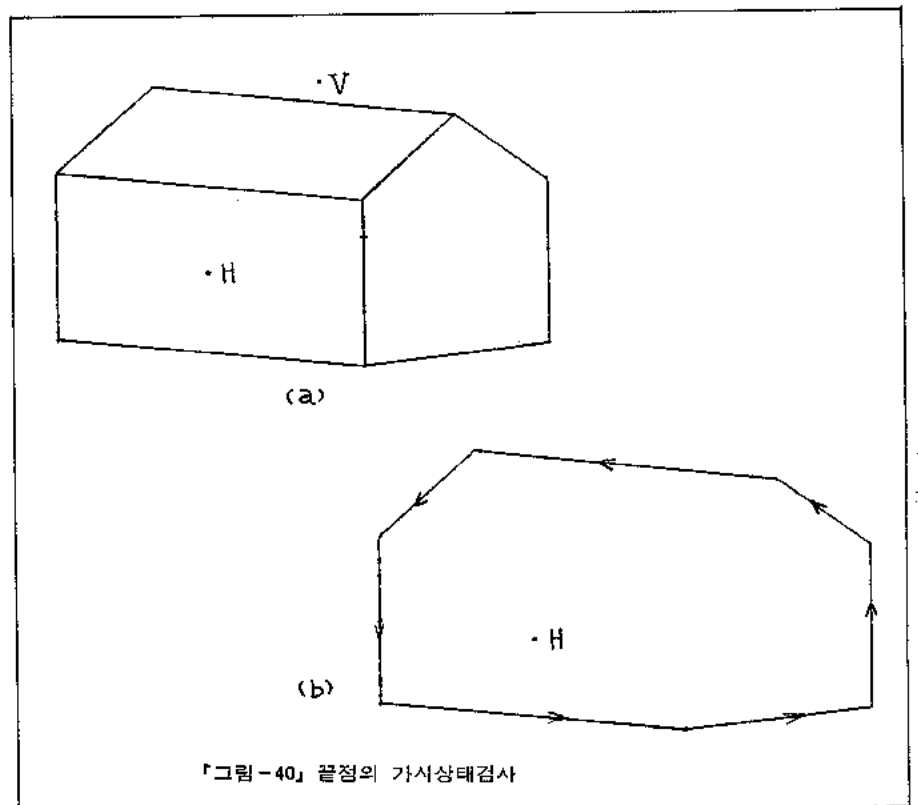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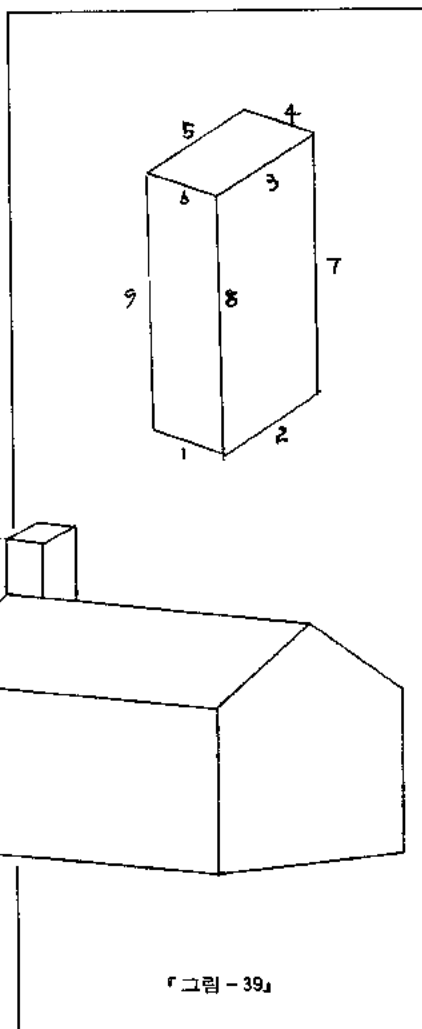
[변의 끝점들의 可視상태]

『그림-40(a)』에는 건물의 보이는 변들이 그려져 있고, 또 굴뚝의 한변의 양 끝점이 나타나 있다.

『그림-40(b)』에서 보면, 건물에 의해 가리워진 끝점 H는 건물의 외곽 경계선의 안쪽에 위치하고, 다른 한 끝점 V는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집의 외곽 경계선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정의되어 있으므로, 안쪽의 끝점 H는 각각의 경계선을 이루는 변들에 대하여 좌측 반평면에 놓이게 되며, 바깥쪽의 끝점 V는 적어도 한변에 대해서는 우측 반평면에 있게 된다.

구분 서브루틴(Subroutine)에서는 可視변수 VI를 보이는 끝점 (건물의 외곽 경계선의 바깥쪽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1을 지정하고 안보이는 끝점 (경계선의 안쪽 점)에 대해서는



굴뚝의 보이는 면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의 변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① 어떤 변들은 가까운 곳의 건물에 의해 완전히 가리워지고

-1을 지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만일 건물의 외곽 경계선들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우측 반평면에 있게 되는 끝점은 보이게 되므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끝점(Xt, Yt)를

전물의 외곽 경계선들과 일일이 비교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변들의 Clipping]

만일 어떤 변의 한 끝점은 보이고 다른 한 끝점은 안 보일 경우, 보이는 부분만을 디스플레이하려면 그 변을 Clipping해야 한다.

여기에서 보이는 점은 (X_v, Y_v) 로 나타내지고 안보이는 점은 (X_h, Y_h) 로 나타내진다. 2진 검색(Binary Search)을 이용하여 주어진 변을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점 (X_t, Y_t) 를 구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점 (X_v, Y_v) 에서 점 (X_t, Y_t) 까지는 보이는 부분이 되고 점 (X_t, Y_t) 에서 점 (X_h, Y_h) 까지는 안보이는 부분이 된다.

2진 검색과정은 처음에는 매우 느리고 불규칙한 시도를 하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 있어서는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점 (X_v, Y_v) 에서 점 (X_h, Y_h) 로 향하는 크기가 두 점간의 거리의 반에 해당하는 벡터 (V_1, V_2) 를 결정해야 한다.

2. 벡터 (X_v, Y_v) 에 벡터 (V_1, V_2) 를 더하여 두 점 (X_v, Y_v) 와 (X_h, Y_h) 의 중점 (X_t, Y_t) 를 구한다.

3. 점 (X_t, Y_t) 에 대해 가시도 검사를 한다.

4. $(V_1, V_2) = (V_1, V_2)/2$ 로 다시 (V_1, V_2) 를 정의한다.

5. 만약 점 (X_t, Y_t) 가 보이면, 그 점을 점 (X_h, Y_h) 쪽으로 이동시킨다. $(X_t, Y_t) = (X_t, Y_t) + (V_1, V_2)$

만약 점 (X_t, Y_t) 가 보이지 않으면, 그 점을 점 (X_v, Y_v) 쪽으로 이동시킨다.

6. 앞의 3 과정으로 돌아간다.

점 (X_t, Y_t) 에 대한 가시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브루틴을 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루틴은 만약 점 (X_t, Y_t) 가 보이면 $VI=+1$ 을 되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VI=-1$ 을 되돌려 준다. 이 VI 값에 의하여 다음의 점 (X_t, Y_t) 를 결정하는데, 만약 $VI=+1$ 이면 점 (X_h, Y_h) 쪽으로 이동시키고, $VI=-1$ 이면 점 (X_v, Y_v) 쪽으로 이동시킨다.

위의 3 과정에서 5 과정까지의 루우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점 (X_t, Y_t)

의 7 번째의 값이 계산되었을 때 일어난다. 그러면 벡터 (V_1, V_2) 의 길이는 점 (X_v, Y_v) 와 점 (X_h, Y_h) 간의 거리의 $1/128$ 이 된다. 좀 더 정교하게 할 경우 오차를 줄히면 되겠지만 Desk-Top 컴퓨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의 대부분의 화상을 나타내는 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루우프에서의 반복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루우프에서 빠져나올 때 점 (X_t, Y_t) 에서 점 (X_h, Y_h) 까지의 선이 그려진다.

15. 컴퓨터에 의한 透視圖 프로그램 을 위한 기본개념

지금까지 컴퓨터에 의한 透視圖의 實例를 들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시스템분석(System Analysis)을 설명하였다. 실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하여 Computer Graphics에 관한 기본개념을 참고로 설명하고자 한다.

15.1 좌표축(Coordinate Axes)

해석 기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좌표축시스템(Coordinate Axis System)에 많이 의존하여 해석되므로 좌표기하학(Coordinate Geometry)이라고도 한다. 보통 중앙에서 서로 수직 교차하는 두개의 직선을 긋는다. 이 경우 이 직선들은 방향성을 갖게 된다.

Desk-Top 컴퓨터에서 이러한 좌표축을 제공받아 좌표축의 원점을 중앙에 두고 X축은 오른쪽 방향을 증가 방향으로 하고, Y축은 위쪽 방향을 증가방향으로 하도록 구성해 줄 수 있다.

좌표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좌표축 선형 이동 및 대칭이동(Reflection) 등의 조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PLOT 140, 0 TO 140, 191

PLOT 0, 96 TO 279, 96

라고 해 둔 뒤에 좌표축의 원점을 정의한다.

CX=140

CY=96

그리고 다음에 사용될 PLOT X, Y 들은 모두 PLOT X+CX, CY-Y로 치환해 준다. 이때 PLOT 명령이

받아들이는 X, Y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0 ≤ X ≤ 139

-96 ≤ Y ≤ 95

여기에서 PLOT X, Y 명령을 PLOT X+CX, CY-Y로 치환함으로써 X축에 대한 대칭이동 변환과 (C_x, C_y) 만큼의 선형 이동변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변환 행렬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1 & 0 & 0 \\ 0 & -1 & 0 \\ 0 & 0 & 1 \end{bmatrix} \begin{bmatrix} 1 & 0 & 0 \\ 0 & 1 & 0 \\ C_x & C_y & 1 \end{bmatrix}$$

또 이들의 곱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1 & 0 & 0 \\ 0 & -1 & 0 \\ C_x & C_y & 1 \end{bmatrix}$$

그러므로 이들의 변환관계는 다음과 같다.

$$(X, Y, 1) \begin{bmatrix} 1 & 0 & 0 \\ 0 & -1 & 0 \\ C_x & C_y & 1 \end{bmatrix} = (X+C_x, C_y-Y, 1)$$

지정된 X, Y 값에 대하여 $S_x=X+C_x$ 와 $S_y=C_y-Y$ 에 의해 화면 좌표 값 (S_x, S_y) 를 얻거나 또는 크기조절자 (S_c) 를 사용한 $S_x=S_c * X + C_x$, $S_y=S_c * Y + C_y$ 로써 (S_x, S_y) 를 구할 것이다.

15.2 선(線)

기하학에서 점 이외의 가장 간단한 대상물은 선으로서, $Y=MX+B$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M은 선의 기울기이고 B는 이 선과 Y축이 교차하는 점의 Y값, 즉 Y의 절편이 된다. (X_1, Y_1) 에서 (X_2, Y_2) 까지 직선을 그으려면 X는 $DX=X_2-X_1$ 만큼 Y는 $DY=Y_2-Y_1$ 만큼 이동하여야 한다.

15.3 원(圓, Circles)

원은 中心(H, K)로부터 같은 距離(R)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X, Y)들의 집합이다. 이것을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X-H)^2 + (Y-K)^2 = R^2$ 이 되는데 원점을 중심을 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X^2 + Y^2 = R^2$$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몇가지 방법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1) 직각 좌표법에 의한 원(圓)

방정식 $X^2 + Y^2 = R^2$ 을 Y 에 대하여 정리하면 두개의 방정식

$$YP = \sqrt{R^2 - X^2} \text{ 과}$$

$$YN = -\sqrt{R^2 - X^2} \text{ 이 구해진다.}$$

이 방정식에 의하여 원을 그릴 수 있다.

2) 등각도 증가법에 의한 圓

원($X^2 + Y^2 = R^2$) 상의 한점(X, Y)는 각도 θ 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X = R \cdot \cos \theta$$

$$Y = R \cdot \sin \theta$$

이렇게 등간격의 점들을 이용하여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3) 순환식(Recursive Generation)을 이용한 반복법에 의한 圓

위의 방법에서는 매번 $\cos \theta$ 값과 $\sin \theta$ 값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어질 방법에는 단지 한 각도에 대해서만 $\sin$ 값과 $\cos$ 값을 구하면 된다.

먼저 원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점들에 번호를 붙여보면 다음과 같다.

$$(X_1, Y_1), (X_2, Y_2), (X_3, Y_3), \dots, (X_{22}, Y_{22})$$

두개의 연속된 점(X_n, Y_n)과 (X_{n+1}, Y_{n+1})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X_n = R \cos \theta$$

$$Y_n = R \sin \theta$$

$$X_{n+1} = R \cos (\theta + d\theta)$$

$$Y_{n+1} = R \sin (\theta + d\theta)$$

여기서 $d\theta$ 는 점을 구하는 루우프에서의 증가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들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X_{n+1} = R \cos (\theta + d\theta) = R \cos (\theta) \cos (d\theta) - R \sin (\theta) \sin (d\theta)$$

$$= X_n \cos (d\theta) - Y_n \sin (d\theta)$$

$$Y_{n+1} = R \sin (\theta + d\theta)$$

$$= R \sin (\theta) \cos (d\theta) + R \cos (\theta) \sin (d\theta)$$

$$= Y_n \cos (d\theta) + X_n \sin (d\theta)$$

그러므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단지 일정한 값 $\cos(d\theta)$ 와 $\sin(d\theta)$ 를 한번만 계산하여 구해놓고 초기 값 X_n 과 Y_n 이 주어지면 다음에 그려질 점(X_{n+1}, Y_{n+1})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용하여 圓을 그릴 수 있다.

원들의 중심이 원점(0, 0)에 있는

것을 어떤 점(H, K)로 중심을 옮기려면 계산에 의해 구해지는 각 점들을 선형 이동시켜 주면 된다. 각 점(X, Y)는 다음의 행렬 곱에 의하여 ($X+H, Y+H$)로 이동된다.

$$(X, Y, 1) \begin{bmatrix} 1 & 0 & 0 \\ 0 & 1 & 0 \\ H & K & 1 \end{bmatrix} = (H+X, Y+K, 1)$$

15.4 타원(Ellipse)

타원은 두개의 고정된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개의 고정점들을 각각 그 타원의 초점(Focus)이라고 한다.

타원에서는 중점을 $C(H, K)$ 에 잡고, 길이 PC 또는 QC 를 A 로 나타내고 길이 TC 또는 SC 를 B 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41』참조)

그러면 타원의 초점은 중점으로부터 PQ 선상에서 좌우로 각각 $\sqrt{A^2 - B^2}$ 만큼씩 떨어진 곳에 있게된다. 그리고 끈의 길이는 $2A$ 가 된다. 이러한 표기법에 의하여 타원을 대수적으로 표현하면 다음식과 같다.

$$\frac{(X-H)^2}{A^2} + \frac{(Y-K)^2}{B^2} = 1$$

이 식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써 타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식이지만 좀 간단한 형태의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원점(0, 0)에 중심을 갖는 타원

타원의 중심을 원점에 위치시킴으로써 대수식과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선형

이동시켜 원하는 위치에 중심을 갖는 타원을 얻을 수도 있다.

위의 식에서 H 와 K 값을 0으로 하면 원점에 중심을 갖는 타원의 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rac{X^2}{A^2} + \frac{Y^2}{B^2} = 1$$

이 식을 이용하여 타원을 그리려면 사용될 점들을 상당히 많이 계산하지 않으면 타원은 모가 나게 그려질 것이다. 다음 식은 위의 식과 동일하다.

$$X = A \cos(\theta)$$

$$Y = B \sin(\theta) \quad 0 \leq \theta < 2\pi$$

2) 線型移動과 回轉

선형이동과 회전 변환을 이용하여 보다 자유스러운 타원을 얻을 수 있다.

회전 변환 행렬은

$$\begin{bmatrix} \cos(\theta) & \sin(\theta) & 0 \\ -\sin(\theta) & \cos(\theta) & 0 \\ 0 & 0 & 1 \end{bmatrix}$$

이고 (H, K)만큼씩의 선형 이동 변환행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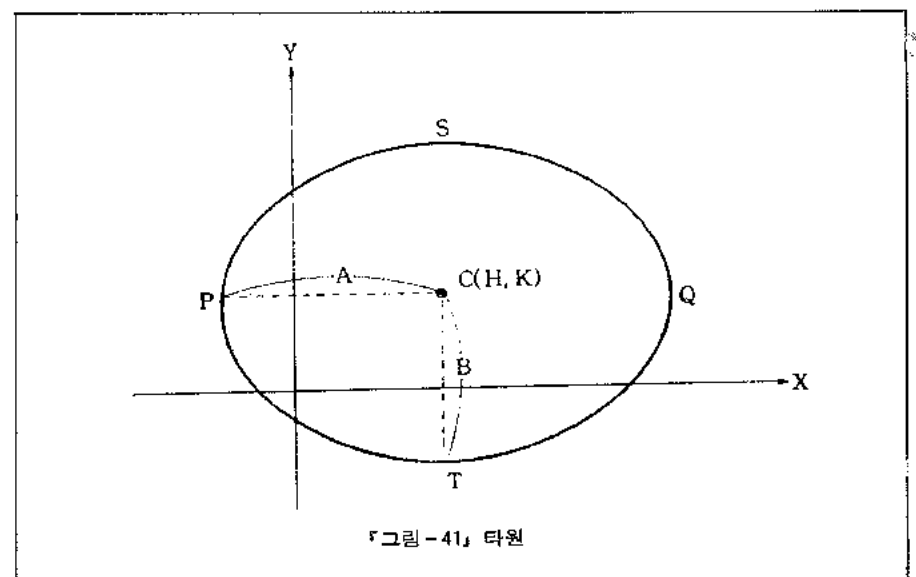
$$\begin{bmatrix} 1 & 0 & 0 \\ 0 & 1 & 0 \\ H & K & 1 \end{bmatrix}$$

이며 임의의 어떤 화상을 θ 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후 다시 (H, K)만큼 선형 이동시키기 위한 변환행렬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cos(\theta) & \sin(\theta) & 0 \\ -\sin(\theta) & \cos(\theta) & 0 \\ 0 & 0 & 1 \end{bmatrix} \begin{bmatrix} 1 & 0 & 0 \\ 0 & 1 & 0 \\ H & K & 1 \end{bmatrix}$$

$$= \begin{bmatrix} \cos(\theta) & \sin(\theta) & 0 \\ -\sin(\theta) & \cos(\theta) & 0 \\ H & K & 1 \end{bmatrix}$$

임의의 어떤 점(X, Y)는 다음과 같



『그림-41』 타원

이 변환된다.

$$(X, Y, 1) \begin{bmatrix} \cos(\theta) & \sin(\theta) & 0 \\ -\sin(\theta) & \cos(\theta) & 0 \\ H & K & 1 \end{bmatrix} \\ = (X \cos(\theta) - Y \sin(\theta) + H, X \sin(\theta) + Y \cos(\theta) + K, 1)$$

이것을 반영시켜 타원을 그릴 수 있다.

3) 원으로부터 변형되어진 타원

타원은 원이 변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을 X 방향이나 Y 방향으로 확대 또는 축소시킴으로써 타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반지름이 1 인 원($X^2 + Y^2 = 1$)의 X 좌표 값을 A 배로 크기 조절해 주고, Y 좌표 값을 B 배로 해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타원을 얻을 수 있다.

$$\frac{X^2}{A^2} + \frac{Y^2}{B^2} = 1$$

이러한 크기조절 행렬은 다음과 같다.

$$\begin{bmatrix} A & 0 & 0 \\ 0 & B & 0 \\ 0 & 0 & 1 \end{bmatrix}$$

이것을 이용하여 타원을 그릴 수 있다.

15.5 媒介函数(Parametric Equations)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매개함수라고 한다.

$$X = T^2 + 10 \\ Y = T^2 - 10T$$

이들은 X, Y 값을 계산하기 위해 매개변수 T 를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서 원을 그리기 위해 $R=50$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매개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X = R \cos(T) \\ Y = R \sin(T)$$

또 이러한 것은 타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X, Y 의 매개함수 관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곡선을 짧은 연산시간내에 구할 수 있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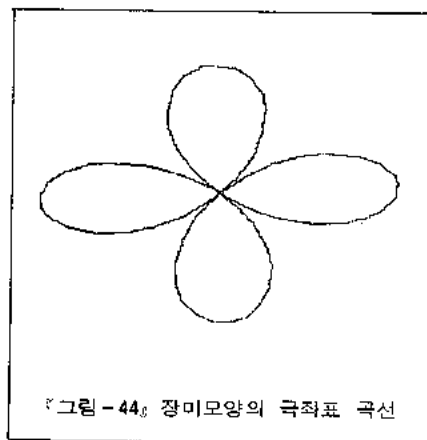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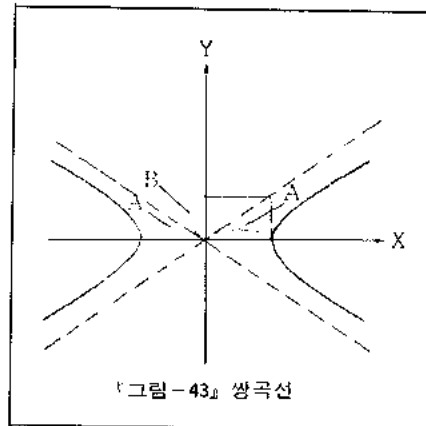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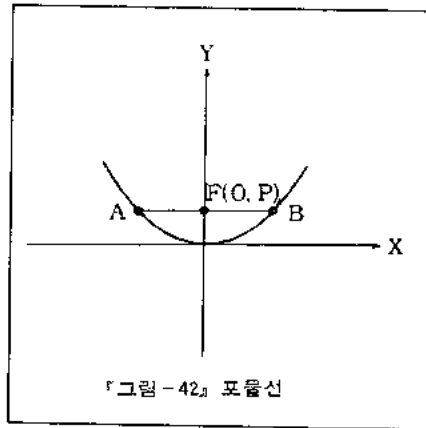
또 이들을 사용하면 색다른 곡선도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X = 50 \sin(2(T - \frac{\pi}{13}))$$

$$Y = -70 \cos(T)$$

$A=50, B=2, C=13, D=-70$ 로 두면



$$X = A \sin(B(T - \frac{\pi}{C})) \\ Y = D \cos(T)$$

15.6 포물선

포물선은 많은 면에서 실제로 응용되는 곡선이다. 예를 들어 만약 돌이나 공을 위쪽으로 던지면, 그것이 지나간 자취는 포물선이 된다. 바람이나 공기의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포물선 운동을 한다.

포물탄사경(Parabolic Reflectors)은 반사된 빛을 한 점, 즉 초점에 집중시켜 주므로 매우 유용하다. 또한 해성들은 포물선의 초점에 해당하는 태양 근처를 포물선을 그리며 지나간다.

방정식 $Y = X^2 / 4P$ 는 '그림-42'

와 같은 포물선을 나타낸다. 원점은 포물선의 꼭지점이 된다. 그리고 초점은 점 $(0, P)$ 에 있다. 포물선에서의 초점과 꼭지점을 지나는 곡선을 그 포물선의 축이라고 한다. P 값에 의해 초점과 꼭지점간의 상대적인 위치가 결정되고 포물선의 모양이 결정된다.

초점을 지나면서 포물선의 축과 수직인 선분 AB 의 길이는 $4/P$ 이다. $4/P$ 의 값에 의해 포물선의 넓이(Width)가 결정된다.

방정식 $Y = X^2 / 4P$ 에 의해 포물선이 정의되지만, 이것보다 더 유용한 표현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매개할 수가 있다.

$$X = 2PT \\ Y = PT^2$$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

15.7 쌍곡선(雙曲線, Hyperbolas)

원, 타원, 포물선 등을 원뿔의 단면 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들은 원뿔과 평면과의 교차 곡선들이기 때문이다.

쌍곡선도 원뿔의 단면 곡선들 중의 하나이다. 쌍곡선은 대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rac{X^2}{A^2} - \frac{Y^2}{B^2} = 1$$

쌍곡선의 모양은 A, B 의 값을 바꿈으로써 여러가지로 바뀐다. 쌍곡선의 매개 함수적 표현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X = A \sec(T) \\ Y = B \tan(T)$$

15.8 極座標 曲線(Polar Coordinate Curves)

반지름 R 이 50 인 원을 다음과 같이 매개함수로써 표현할 수 있다.

$$X = R \cos(T) \\ Y = R \sin(T)$$

만일 여기에서 R 의 값을 일정하게 놓지 않고 여러가지로 변할 수 있게 한다면, 즉 R 을 변수로 사용하면 재미있는 곡선들을 얻을 수 있다.

R 을 T 에 대한 함수로 정의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장미모양의 도형 등을 그릴 수 있다.

건축행정상담



□ 건축법

- **㉠** 작년에 분양받은 연립주택에 하자가 발생되어 시공 자측에 하자보수요구를 하였더니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라며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연립주택은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를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사용도중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자이유가 부실시공에서 온것인지 아니면 사용시에 생긴것인지부터 판단처리해야 합니다.
- **㉢** 도로폭 미달 대지내 기준 건축물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도로폭 미달 대지라도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 **㉤** 8세대인 연립주택인데 도로 경계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는?
㉥ 도로경계선에서의 띄어야할 거리는 일반 도로라면 사선제한 등에 적합하면 됩니다.
- **㉦** 지하층이 지표면상 노출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의 높이가 2층의 천정높이의 2/3이상인 것을 말하는바 지하층 내 반자가 설치되었을 시 천정높이는 반자 높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하층 높이 규정에서 천정높이는 반자 유무와 관계없이 스라브 밑으로 산정합니다.
- **㉨** 목조기와 지붕을 스라브로 고칠시 건축 행위인가요 대수선인가요?
㉩ 벽체가 조적조이고 기와 지붕일때 스라브로 변경은

대수선 행위이고 벽체가 목조이고 기와지붕일 때 스라브로 변경은 개축행위 입니다.

- **㉪**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지구로서 기준미달 대지일 경우 차투리 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 기준미달 대지는 차투리 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구획정리 완료 지구내 대지에 아카시아 같은 잡목이 일부 있습니다. 건축허가 가능한지요?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처분된 지역이면 건축 가능하며 지장수목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 임목벌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현재의 건물용도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총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총포 판매업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범주에 속하며 총이 격납고, 실폭격납장의 규모성격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위험물 취급소로 분류되며 사무실을 동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본인 소유가옥이 단층 스라브 지붕으로서 2층을 증축코자 하는데 진북방향이 벽체로 부터 8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증축이 가능한지요?
㉻ 귀하의 경우 1층 부분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한 일정거리를 파악야 증축 가능합니다.
- **㉼** 주거지역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건축이 가능한지요?
㉽ 지목이 임야로서 택지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우선 지형의 구배가 30%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되고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미관 등의 저해가 없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면 가능합니다.
- **㉾** 안마 시술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 안마 시술소는 건축법규에 의한 제반 규정에 적합 하다면 가능하나 서울시에서는 83. 6월 부터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침을 정비하여 주거지역에서는 12미터 이상도로에 접하고 육실바닥 면적 66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토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도 육실바닥 면적 66제곱미터 미만만 가능토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㊀** 주거 전용지역내 대지에 3층 점포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축 가능합니까?
㊁ 건축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주거 전용 지역 내의 건축물은 2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㊂** 복합용도인 건축물로서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및 숙박 시설로서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얼마인지요?
㊃ 숙박시설인 경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4미터 이상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복합 용도인 경우 숙박시설에 사용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을 때에만 동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㊄** 특정한 건축물은 일정 거리 이상을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82년도에 지은 건

축물로서 용도가 여관입니다. 4층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현재는 건축선으로 부터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숙박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4미터 이상을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경우 준공일로 부터 3년이 넘은것에 대하여는 동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귀하의 경우 준공된 지 1년 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화 기준을 적용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 ㉠ 기존 10여년간 사용하던 사도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 10여년간 통행을 하였다 하여도 지목상 대지이고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 ㉡ 높이 18미터의 건축물에 6미터 높이의 광고탑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 광고탑, 광고판의 경우 파쇄시설을 하는 경우 그 높이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 높이는 24미터 임.

● ㉢ 석축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하려 할 때 외벽을 얼마나 띄어야 하는지요? 옹벽으로 안전한 경우도 일정거리를 띄어야 하는지요?

☞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기초 이하인 경우와 옹벽 등으로 안전한 경우는 지장 없으며 석축인 경우는 1층 1.5미터, 2층 2미터, 3층 이상 3미터를 띄어야 합니다.

● ㉣ 공동주택을 판매시설과 복합으로 건축 가능한지요.
☞ 공동주택에는 관리업무 시설 편의시설로 전설부령이 정하는 시설만 가능하므로 판매시설과 복합건물은 불가능합니다.

● ㉤ 도시 계획 확인원을 보니 도시 설계 구역이란 말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 도시설계는 건축법 제8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도시설계 구역을 정하고 사전에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공고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동구역 내에서는 건축을 하려면 도시설계 수립 내용에 적합토록 건축하셔야 합니다.

● ㉥ 전폐율이 80%인 특정 건축물로 정리한 건축물입니다. 증축하여 3층을 일부 지을수 있는지요?

☞ 특정건축물로 정리된 건축물은 구제되었다 하더라도 증축 불가능합니다.

● ㉦ 인접지에는 주택으로 둘러 싸여 있는 토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 형질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한지요.
(99제곱미터와 264제곱미터 2 필지임)

☞ 330 제곱미터 이하 1 필지 1 건축만 가능합니다. 형질변경 대상이 됩니다.

● ㉧ 지하에 저장탱크를 설치 하려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높이 2미터 이상,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 ㉨ 아파트 10층을 건축하는 경우 난방시설을 가스 난

로 등으로 개별 설치 가능한지요?

☞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는 화기를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중국음식점을 하던 장소에 미용실을 하려면 용도변경 하는지요?

☞ 용도변경 허가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 ㉪ 건축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은 1층 주택을 증축하려 합니다만 현행 법규상 일조권에 맞지 않습니다. 증축이 불가능 한지요?

☞ 현행법은 기존 건축물이 대지 내의 통로나 일조권 등 현행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 행위를 제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중전법에 적합하더라도 현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능 합니다.

● ㉫ 미관지구 내에서는 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미터 뿐이 되지 않는 기존 건물의 경우에도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3미터를 확보해야 되는지요?

☞ 기존 건물 철거없이 증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폭이 15미터 미만의 전단미관 지구 안에서는 3미터 후퇴없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 ㉬ 소규모의 점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하 굴토층 암반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꼭 지하층을 파야 되는지요?

☞ 건축법에서는 지반의 장기 허용응력이 1제곱미터당 200톤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지하층을 파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황사진 및 동기준을 증명 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시면 지하실을 설치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 기존 건축물에 10제곱미터 이하를 신고를 통해 증축하였는데 10제곱미터 더 증축하려면 신고로 가능한지요?

☞ 3평(10제곱미터) 이내는 동신고로 가능하지만 동일 대지내 건축신고는 1 회에만 가능합니다.

□ 건축조례

● ㉮ 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있으나 개설은 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이 법정 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됩니다. 건축조례 제36조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 귀하의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적용가능 합니다.

● ㉯ 4 종 미관지구로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에서는 개방감확보, 통행인의 출입용이 등을 위하여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주거지역 풍치지구인 대지에 건축할 경우 조경 면적은 얼마입니까?

☞ 풍치지구에서는 관계기준에 관계없이 대지면적의 40% 이상의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제4종 미관지구로서 우체국을 지으려고 하는데 서

다음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2장의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관한 질의에 대해 체신부가 회신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회원업무에 참고바란다.

질의 1 : 고층아파트(주거용)의 경우 단위세대당 회선수 산출기준은?

가. 세대당 실소요회선 1 회선과 단말기기등의 중설을 위한 1 회선을 합한 2 회선으로 해야 하는지?

나. 세대당 실소요회선 1 회선에 0.5배를 합한 1.5 회선을 설치해야 하는지?

다. 세대당 1.5회선으로 규정에 의한 산출은 되어 있으나 층별 세대 단자함에서 세대단말기기까지 1.5회선을 설치하면 0.5회선은 실제 회선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기에 2 회선으로 하는지?

답 변 : 단위세대의 경우 1 회선 + (1 회선 × 0.5 배(예비회선)) = 1.5 회선이 산출되나 1.5 회선(3 가닥)은 실제사용이 불가능하므로 2 회선(4 가닥)으로 하여야 함.

질의 2 : 층별 중간단자함(19세대일 경우) 내의 단자의 설치수량은?

가. 세대당 2 회선으로 산출하여 여기에 0.5 배의 예비선을 확보한 (19세대 × 2 회선) + (19세대 × 1 회선 × 0.5 배) = 47.5 회선 약 50 회선으로 해야 하는지?

나. 세대 실소요회선 1 회선에 예비선 0.5 배를 합한 (19세대 × 1 회선) + (19세대 × 1 회선 × 0.5 배) = 28.5 회선 약 30 회선으로 설치하고 이때 세대당 2 회선일 경우 30 회선으로 하면 세대인출회선에 모자라는 단자는 세대인출용 예비단자를 두어 40 회선용 단자함을 사용하면 되는지?

답 변 : 19세대의 경우 층별 중간단자함의 단자수는 국선측 회선수가 19세대 + (19세대 × 0.5 회선) = 28.5 ≈ 29 회선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됨.

질의 3 : 19세대씩 3 개층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회선수는?

가. 19세대에 3 개층을 합하여 단위세대당 2 회선으로 하여 예비선 0.5 배를 합한 (19세대 × 3 개층 × 2 회선) + (19세대 × 3 개층 × 1 회선) = 171 회선을 180 회선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울시 건축조례에 2 · 4 층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2 · 4 층으로 지어야 되는지요. 다른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지요?

답 변 : 우체국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관계없이 위원회(건축)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면 층수에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축조례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도 같습니다.

● [문]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인 254제곱미터의 대지를 600제곱미터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조경 면적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요?

답 변 :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시 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풍치지구내에서는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 미관지구내 건물 옥상에 일부 증축하여 관리실 및 창고로 사용하려 합니다. 가능 한지요?

답 변 : 미관지구내 옥탑에는 기계실, 계단실, 물탱크 이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 미관지구내에 3미터 후퇴하여 건축되어야 한다면 지하부분도 후퇴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 지하굴착으로 도로의 점용 및 훼손이 없으면 후퇴하지 않아도 지장 없습니다.

● [문] 4종미관 지구에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몇층까지 가능한지요?

답 변 : 아파트 등 층수 제한을 적용하기 곤란한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는 층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 [문] 주거전용 지역 풍치지구인 254제곱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주거전용지역 풍치지구의 대지 최소면적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에 의하면 6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지주위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대지 추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 주차장법

● [문] 당초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을시 지하 1, 2층에 주차장 설치를 하였을지라도 지하 1층의 용도가 별도로 필요해서 대지전면적 다른필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하 1층의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한지요.

답 변 :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물에 설치 의무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떨어져 설치되는 될 수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문] 4대문내 간선도로변인 경우 건축률 40%라면 옥외 주차비율은?

답 변 : 25% 이상을 옥외에 설치하면 됩니다.

● [문] 기계식주차장에 있어서 전면공지는 최소한 얼마이상 띄워야 합니까?

답 변 : 8.7미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문] 기계식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 100대라면 판련제한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 변 : 기계식주차인 경우 출입구 또는 전면공지에 주차 20대당 1대분의 정류장을 설치할 여유공간이 있어야 하고 출구와 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19세대 3개층을 합하여 단위세대 1회선에 예비선 0.5배를 합한(19세대×3층×1회선) + (19세대×3층×0.5회선)=85.5회선을 90회선으로 산출하여 1동 주단자함에서 각층별 단자함까지 케이블 규격에 맞춰서 30회선을 3개층으로 배열하여 설치하면 되는지?

답 변 : 각종 19세대인 3개층을 합한 경우의 회선수는 국선측 회선이(19세대×3개층)+(19세대×3개층×0.5회선)=85.5는 86회선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됨.

질의 4 : 고층아파트 228세대일 경우 동별 주단자함의 단자설치 수량과 동별 주단자함과 관리동 단자함의 회선수 산출기준은?

가. 단위세대당 2회선에 그 산출된 소요 회선의 0.5배 이상의 예비선을 확보한(228세대×2회선)+(228세대×2회선×0.5배)=684 약 700 회선으로 해야 하는지?

나. 단위세대당 실소요회선을 1회선으로 산출하여 그 산출된 소요회선의 0.5배를 합한(228세대×1회선)+(228세대×1회선×0.5배)=342 약 350 회선을 케이블규격에 맞춰서 300회선과 50

회선으로 사용 설치하면 되는지?

답 변 : 228세대의 동별 주단자함과 관리동 주배선반의 회선수 산출은 국선측 회선이(228세대×1회선)+(228세대×0.5회선)=342회선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됨.

질의 5 : 고층아파트 384세대(1동:228세대, 2동:156세대)의 국선용 주단자함의 단자(보안기)설치 수량은?

가. 단위세대당 2회선을 확보하여 384세대×2회선=768 약800회선으로 보안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나. 단위세대당 1회선으로 하여 여기에 예비회선 0.5배 합한(384세대×1회선)+(384세대×1회선×0.5회선)=576회선 약600회선으로 보안기를 설치하면 되는지?

답 변 : 384세대의 회선을 수용하는 주배선반의 단자수는(384세대×1회선)+(384세대×0.5회선)=576회선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면 됨.

*참고 : 단위세대로부터의 회선수를 가능한한 국선 인입단자까지 연장하여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함.

(건설부령제499조(80. 11. 7)를 참조바랍니다)

●(☞) 기존 건물이 400제곱미터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1개층을 증축할 경우 주차장 확보는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요? (증축 면적 200제곱미터)

☞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에 해당되는 주차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1대이상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증축에 있어 노상 주차장 설치로 증축 가능 한지요?

☞ 주차장 부설 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주차시설 확보를 조건부로 잠정적으로 노상 주차를 인정하는 경우 증축은 불가합니다.

●(☞)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구분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 주차장 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되 10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건축행정

●(☞) 연면적390제곱미터의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시 건축사의 날인이 필요한지요.

☞ 연면적(신청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행위는 건축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원호저건물로서 건축당시 해당구청에서 건축 협의를 통해 승인 득한 후 현재는 완공단계 있습니다. 준공검사절차는 어떤지요.

☞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중간검사 등을 배제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건축법 근거에 의한 준공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

만 건물완공에 따른 공부정리등에 의한 절차만 필하면 됩니다.

●(☞) 건축허가에 따른 모든 협의절차는 허가시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건축법 이외의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로 일괄 처리할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 등에 의한 정화구역 협의 등에 대한 절차는 타법령에 관세없이 별도의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 건축허가는 각종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업무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2. 8. 국무총리 훈령제179호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규정에 타법령상의 각종 인, 허가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듯이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 국무총리훈령에 의거 건축 허가시 일괄 검토처리하여 허가업무를 일원화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하 저수탱크를 설치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 등기 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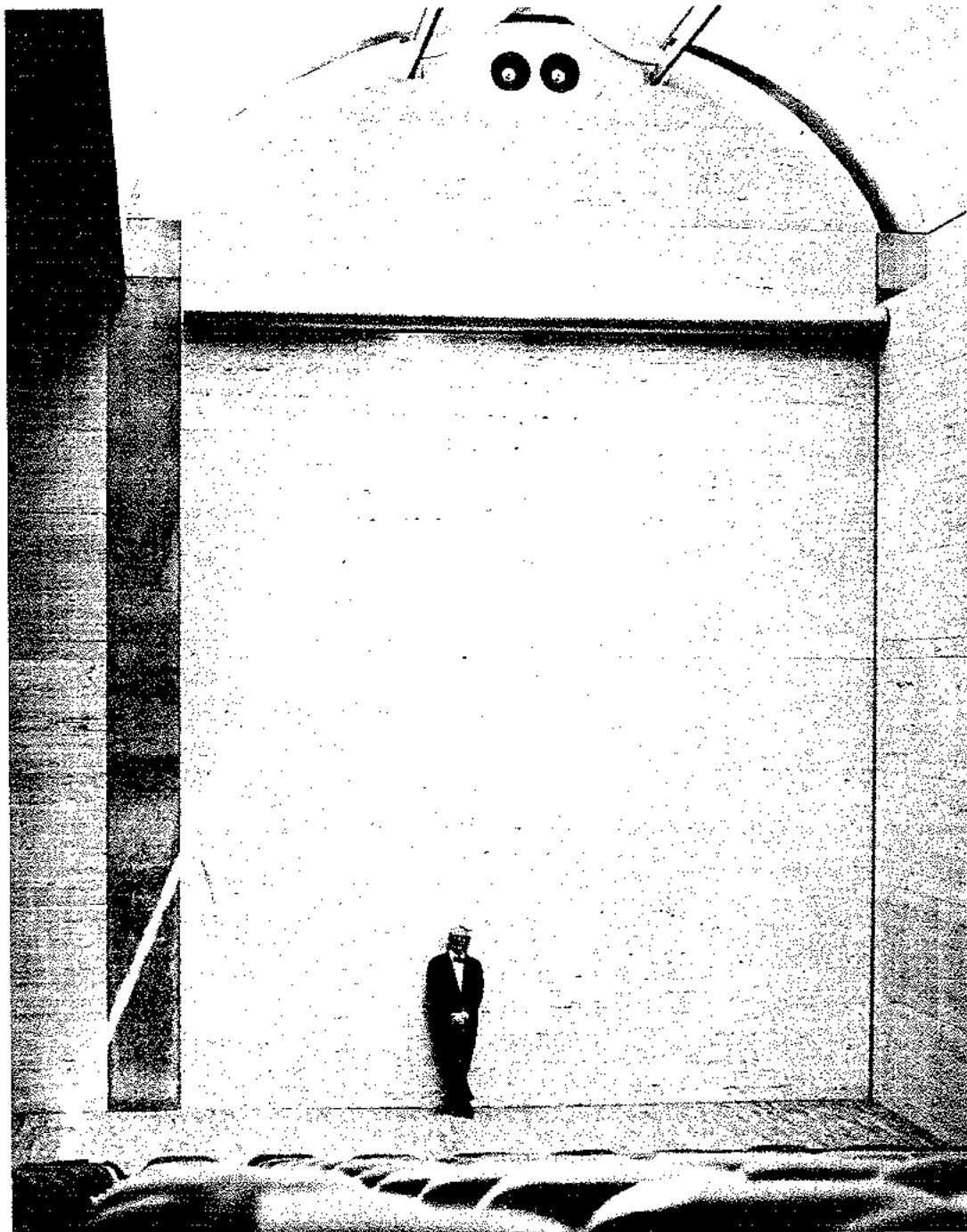
☞ 규모에 따라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설 건물도 준공후 등기 가능한지요?

☞ 가설 건축물은 준공되지 않습니다. 등기도 불가합니다.

●(☞) 소유권 이전 가등기 설정된 대지상에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가능한지요?

☞ 가등기 권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 消費된 빛 - 事物

— Louis I. Kahn —

Kahn은 말했다. “일체의 事物은 없어진 빛이다. …… 빛은 빛을 낸 끝에 物質이 된다.” 그는 이제 타버린 빛이 되어 우리 주위에서 떠나갔다. Kahn만큼 20세기 건축의 등불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추망을 받는 작가도 많지 않다.

Kahn(1901년생)은 30여명의 실적인 건축가를 모아서 조직할 정도로 어렵고 어두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1940년대 중반부터 작품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눈부신 활동과 평가를 받았다. 45년 이후부터 총 작품

빛의 匠人들(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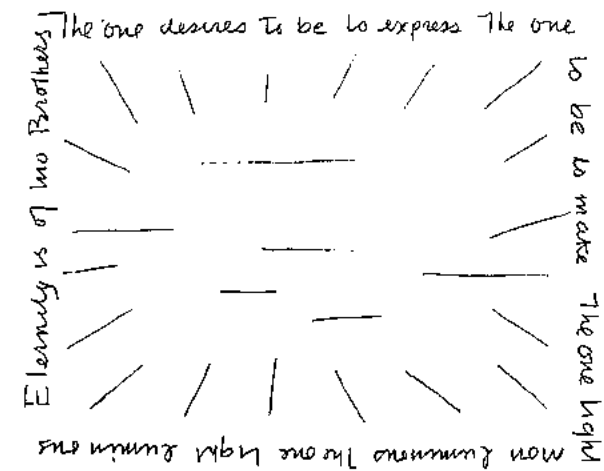
金 起 煥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연세대, 건국대, 경기대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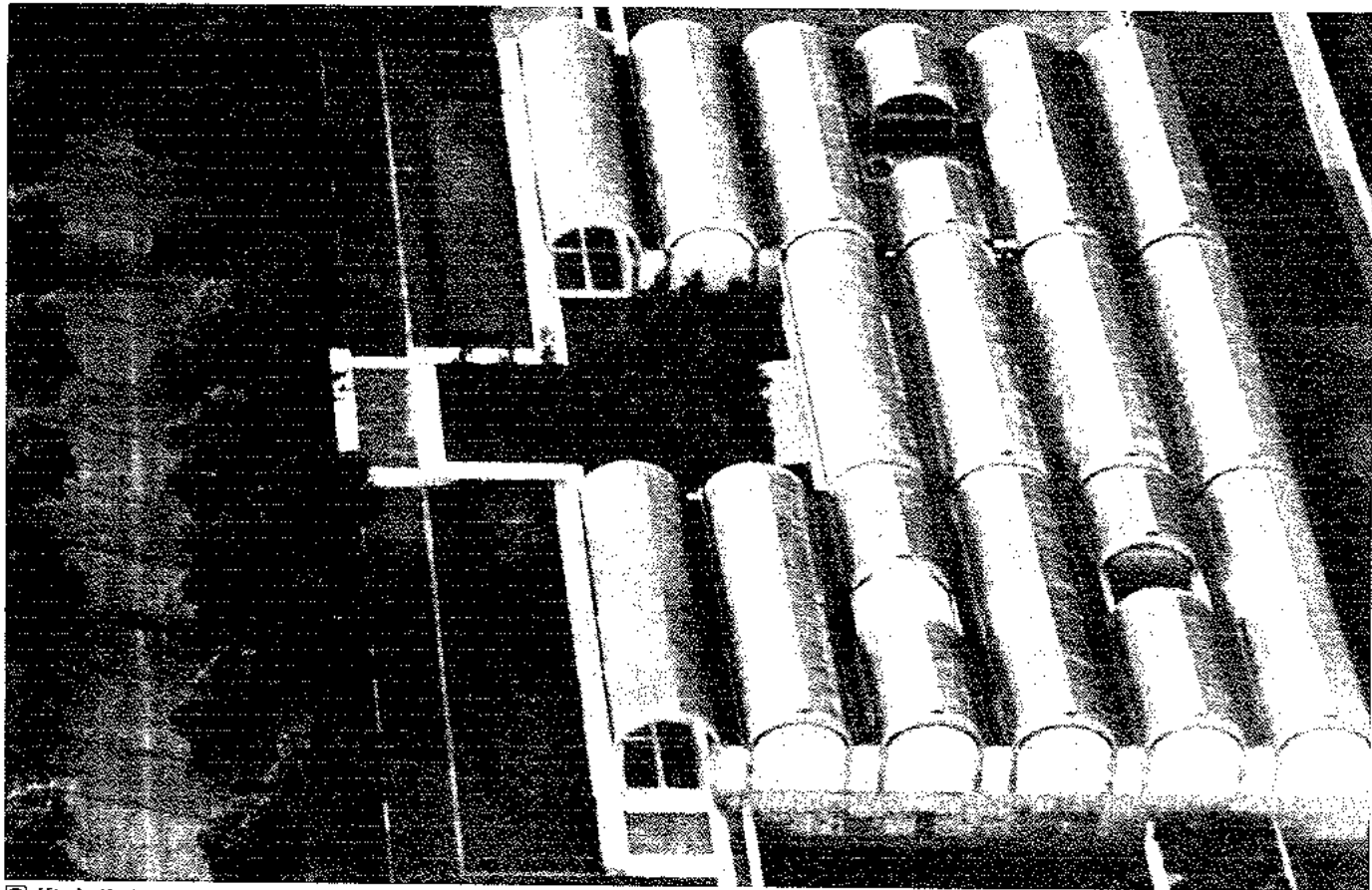
수 87개, 실시된 작품이 41점, 계획안이 36점, 도시계획안이 10점, 그외에 강의를 한 대학교가 12개교, 전람회 6회, 명예박사 학위가 무려 7개,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을 8개씩이나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며 74세의 생을 마쳤다.

중년 이후 세인을 매료시킨, 강한 정신이 그에게는 있다. 그의 강한 정신은 영원을 향한 동경이다.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건축가」라는 본연의 문제와 「보편과 영원」이라는 추구해야 할 문제에 대해, 그는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고 난 재능과 노력으로 이러한 추구를 소비된 빛으로, —— 건축으로—— 표현을 함으로 우리를 매혹시키고 있다. 그에게는 추상과 구상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Kahn의 질서(Order) 개념으로 나타



① Kahn의 빛의 이미지



② Kimbell Art Museum (1967-72)의 전경

나며, 이 질서 속에는 추상과 구상의 빛이 자리잡고 있다.

●沈黙과 빛(Silence and Light)

Kahn에 있어서, 빛은 현상세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식의 深淵 속에 있는 沈黙은 表現되고 싶어 하며, 이것은 사물과 현상에 의해 구체화가 된다. 그리고 이 현상세계에는 빛에 의해 묘사된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영원성은 두사람의 형제로부터 성립된다. 하나는 표현하려고 하며, 다른 하나는 창조하려고 한다. 하나는 번쩍이지 않는 빛이며 다른 하나는 번쩍이는 빛이다. 번쩍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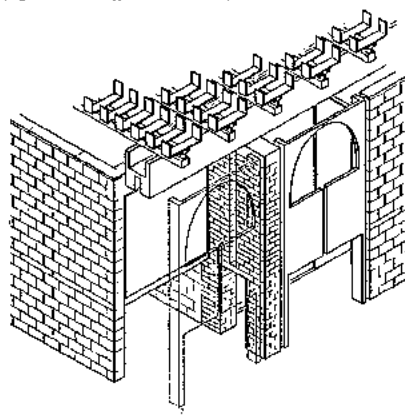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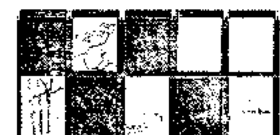
는 빛의 세력이 전체를 제압하여 솟아오르는 광휘의 춤을 초대하며, 그것이 재료의 본질을 표현시킨다. (그림 1)……표현하려는 의지와 창조하려는 의지는 당신들이 영감이라 호칭하는 문턱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다” Kahn의 이러한 개념은 「물질의 비물질화」이다. (建築士誌 83년 10월호 p. 56~63 「建築과 빛」 중 「건축에 있어서 빛의 概念」참조) 이러한 개념에 의해, 그는 건물의 벽체나 공간, 심지어 구조의 내부에도 빛을 도입시켰다.

그는 자연의 빛을 White Light라 부르고, 인공의 빛을 Black Light라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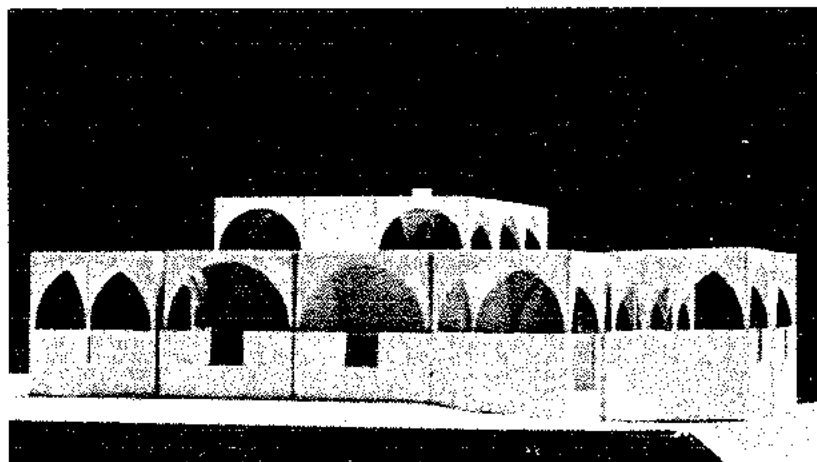
렀다. 그리고 자연의 빛이 도달치 못하는 방을 죽은 방, 생명이 없는 존재치 못하는 곳이라 불렀다. 이러한 개념에 의해, 자연광이 도달하면 그림이 파손되는 미술관 전시실(Kimbell Art Museum)에서도 천정에서 채광을 하였다. 여기서 Kahn은 두 종류의 빛을 생각하였다. 즉 Vault의 Top Light를 통해 들어온 빛이 알미늄의 장치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分光된 〈銀色빛〉과 Vault의 중간 부분에 설치된 3개의 중정의 나무를 통한 〈綠色의 빛〉이다. (그림 2) 및 建築士誌 83년 10월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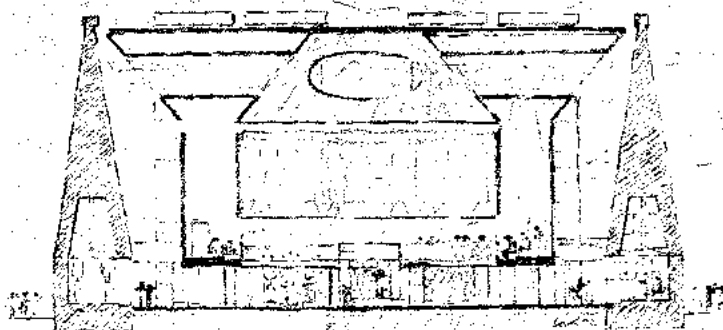
③ Weiss邸(1949)의 이동가능한 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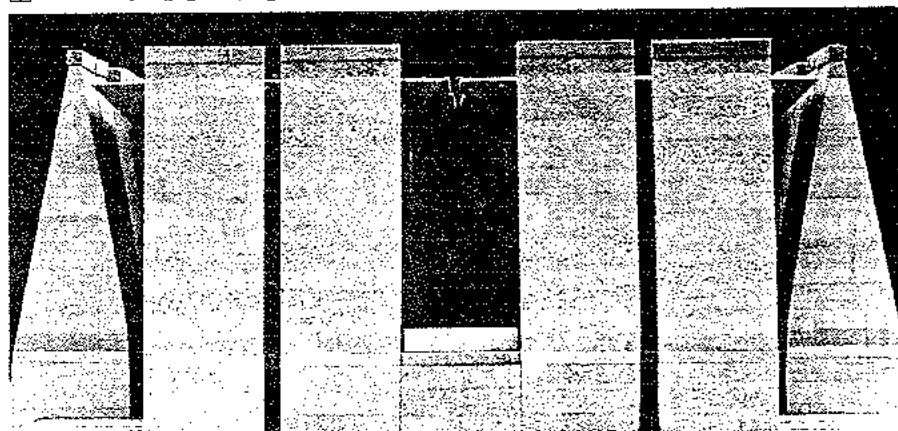
⑤ Luanda영사관(1959~61)의 전면 개구벽체



④ Fleisher邸(1959)의 개구부



⑥ Hurva Synagogue의 단면



⑦ Hurva Synagogue의 입면

● 構造의 製作者로서의 빛

Kahn의 작품에는 일관된 5개의 특질이 있다. 첫째, 구성의 감각-건물의 통일이며, 두번째가 재료에의 경외, 셋째가 평면의 진수로서 방의 감각, 네번째가 구조의 조형에 기여하는 빛, 마지막으로 연속의 건축 동 다섯가지이다. 그리고 이 다섯가지 특질은 질서(Order)로 연결되어 있다. Kahn은 구조 그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으며 그것이 네번째의 특질이다. 자연의 빛은 한개의 방을 명확히 규정한다. 평면과 단면에서 이 빛을 차단하는 것은 벽과 기둥이며, 이것은 건물의 구조가 된다. 초

기의 그의 관심은 벽면의 개구부의 원리를 파악 수립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났다. 벽에 질서정연하게 구멍을 파서 창을 설치하는 일은 Kahn은 아주 쓸데없는 일로 여겨왔다. Weiss邸에서는 벽면을 채광의 전도에 따라서 그 위치를 달리하는 수직방향의 파넬을 만들었다. (그림 3)

그후 Fleisher邸에서는 개구부의 형태 자체가 빛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림 4) 또한 Luanda의 미국영사관 건물에서는 여기에 또 다른 요소, 창면 앞에 막아서는 개구부를 설치한 벽을 덧붙여서 여기에 의해서 일사량과 현휘(Glare)가 한꺼번에 조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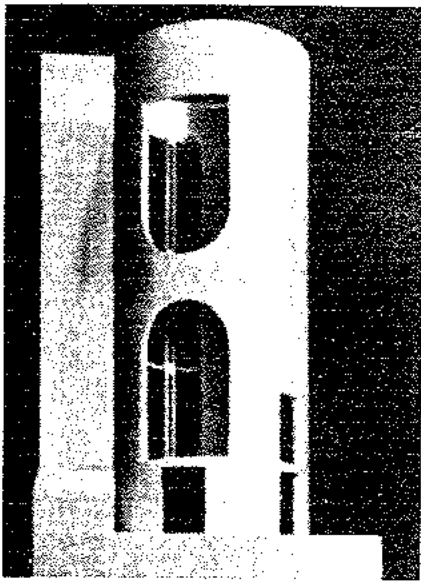
되었다. (그림 5)

1968년도 계획되었던 예루살렘의 Hurva Synagogue는 구조와 빛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그림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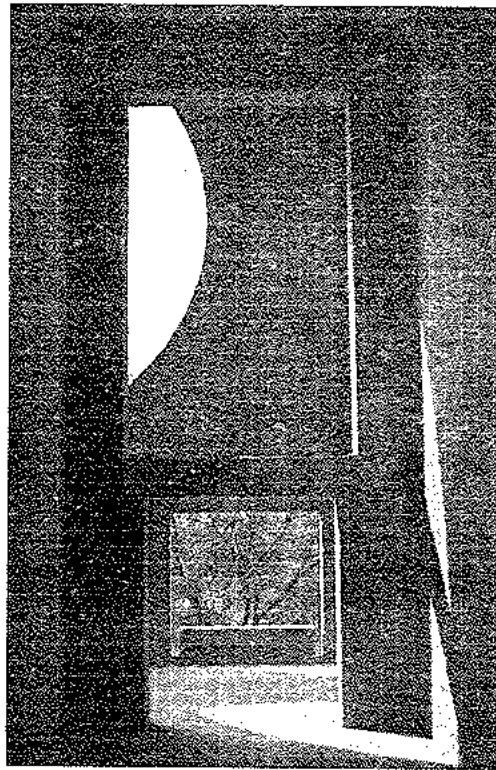
● 光道

이런 표현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필라델피아의 Mikveh Israel Synagogue에서 보이는 일련의 光線의 筒이다. (그림 8) 여기에서는 2차원적인 창에 대칭이 되는 빛에 의한 Mass를 지닌 형태가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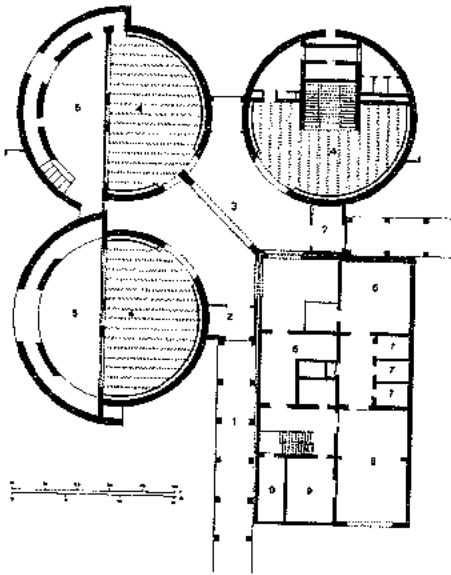
내부분의 건축가는 건축의 내부와 외부의 창, 문, 천창 등의 개구부의 방법으로 직접 연결한다. 그러나 K-



8 Mikveh Israel Synagogue (1970) 의
光線의 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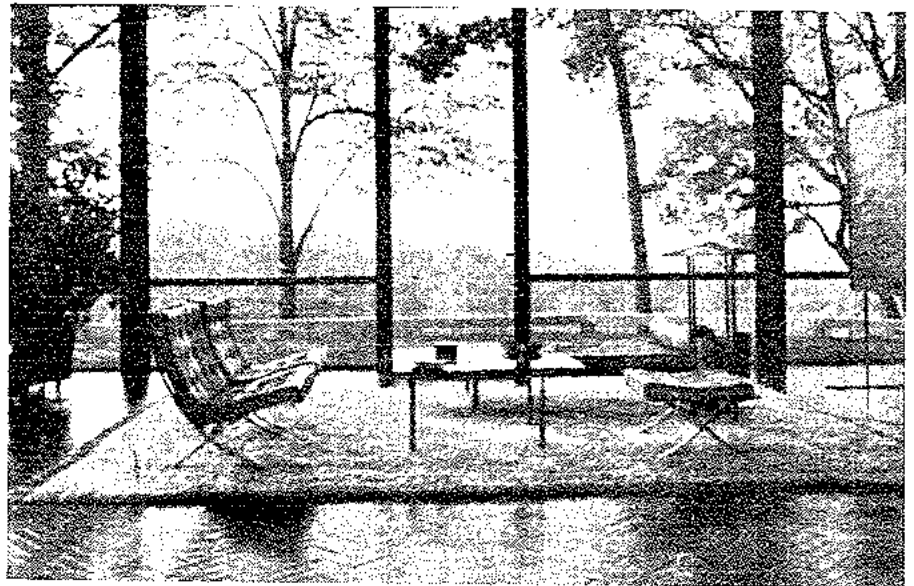
9 Indian 경영대학(1963)의 복도



10 Bangladash 의원식당의 평면

ahn은 1960대 후반을 전후하여, 내부와 외부공간 사이에 새로운 단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사이에 Mikveh Israel Synagogue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빛의 筒을 설치하여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사이에 중성적 공간을 만들고 있다. Indian 경영대학(1963)에서는 이러한 筒이 통로가 된다. (그림 9) Bangladash의 종합정부시설중 의원식당에도 이러한 성격의 복도가 중정을 둘러싸고 있다. (그림 10) 이러한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중간에 위치하는 공간은 단순한 복도가 아니라 양쪽세계의 중개자가 되는



11 Johnson의 自宅(1949)의 내부

빛의 복도-光道라고 부를 수 있다. Kahn은 빛을 구조형태를 제작하는 의미에서 한걸음 발전하여, 새로운 의미의 공간개념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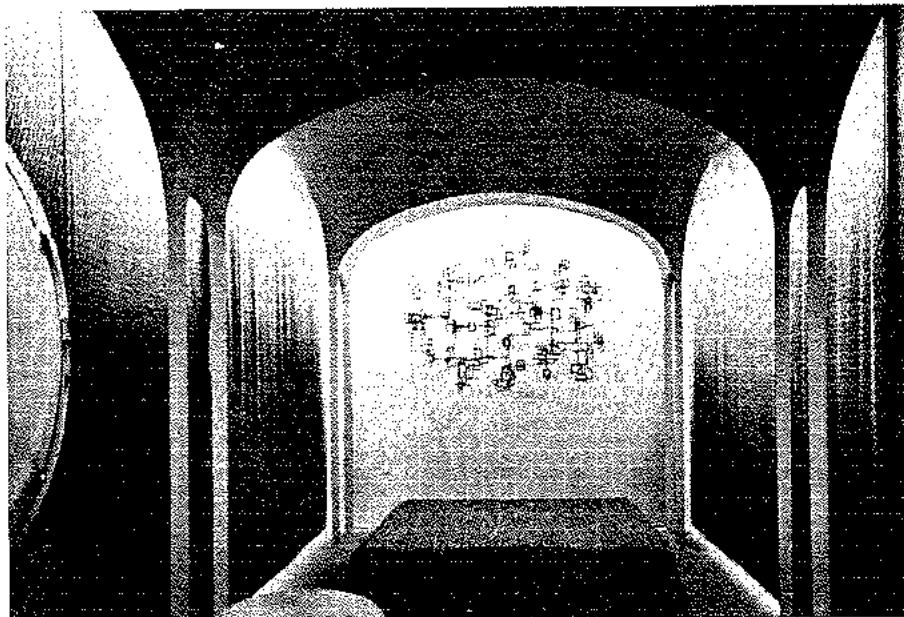
■ 핑크빛 유리의 프리즘 — Philip Johnson —

Philip Johnson은 1906년 미국동부의 상류사회(high Society)의 법률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는 철학과 미술을 전공하였으나, H. R. Hitchcock가 쓴 근대건축 운동에 대한 글을 읽고 감명을 받은 후 건축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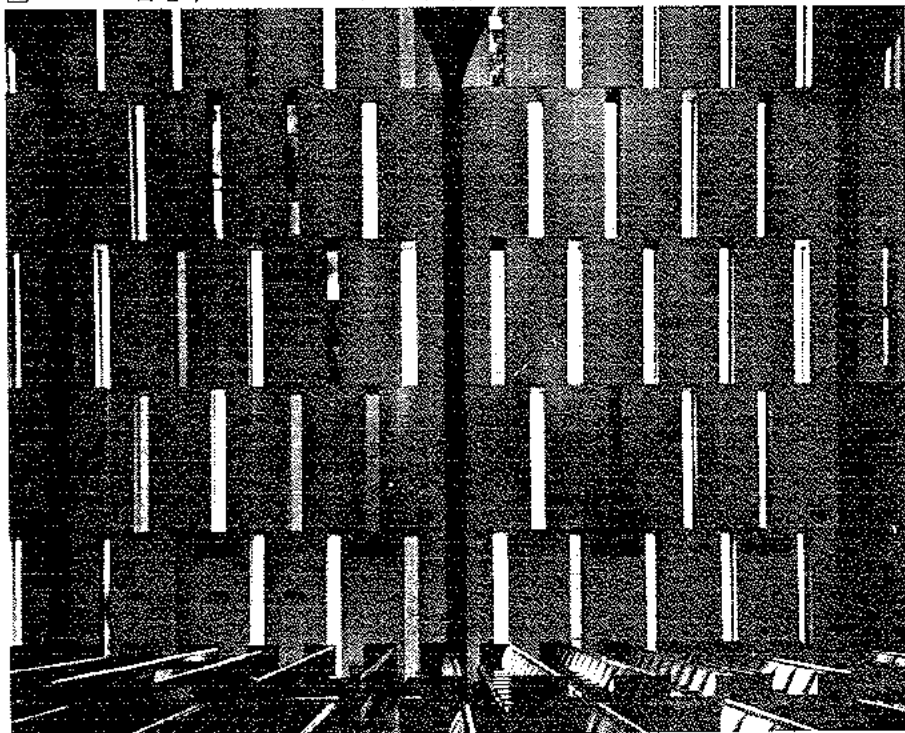
그 후 두 사람이 공저로 「1922년이

후의 국제주의 건축양식」을 간행하였다. Johnson은 37세에 Harvard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였다. 그뒤 10여년간은 주로 평론을 하다가, 47세가 되어 서야 건축디자인을 시작하였다. 그는 평론, 즉 이론에서부터 디자인을 시작하였다.

그는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 국제주의에 심취하였고, Mies를 만나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Johnson 자신의 생각이 움트며, Mies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작가들과 같이 Mies에게 결별을 고하고 Non-Miesian을 선언하였다. 그는 한때 Mies에 심취하였고 지금은 Non-Mies



12 Johnson 自宅의 Guest House(1953) 내부



13 유대인교회(1956) 내부의 Stained glass창

에 빠져있다. 이러한 두가지 성격, 또 평론과 건축 사이를 오가며 나타나는 어려움 등이 그에게 두가지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일관된 것 같으면서도 상반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Johnson은 빛을 다루는데에서도 이러한 상반되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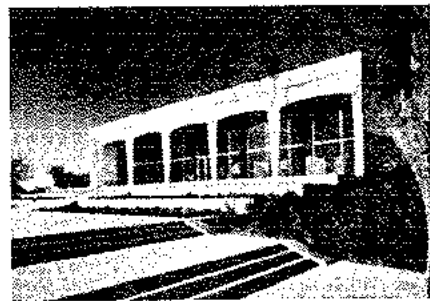
●Mies의 차가운 빛에 따듯함을

Johnson이 처음 설계한 자신의 주택인 Glass House는 자연 속에서 옷을 벗고 자연의 빛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있다.(그림 11) 이러한 경향은 Mies에 회의를 품은 후, 자신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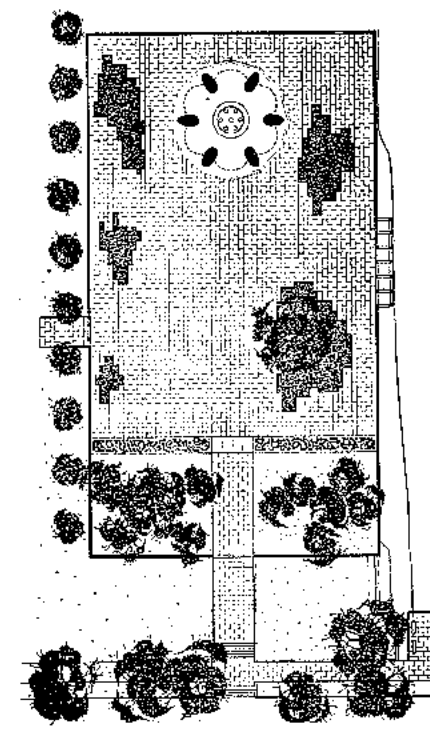
택에 증축한 손님들 위한 주거에서 깨어졌다. 너무도 성격이 다른 온화하고 우아한 빛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그림 12)

이때부터 Johnson은 그의 세련된 취미를 건축에 도입시키기 시작하였고, 건축구성 요소를 결합함에 있어서 다채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Mies의 비정감적인 전개에 Neo-Classical한 우아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56년에 준공한 유대인 교회에서는 쌓아올린 벽사이의 가름한 구멍에 Stained glass를 끼었다. 국제주의적 냉철함에 온기가 서리기 시작하였다.

Johnson의 이러한 경향은 Amon C-



14 Amon Carter미술관(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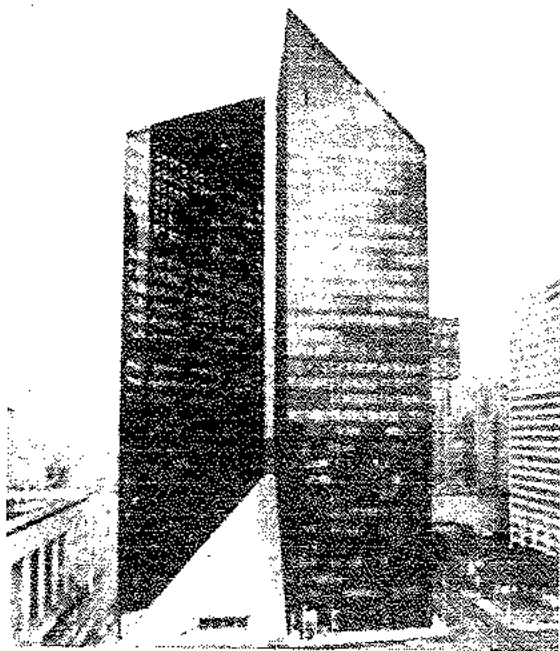
15 New Harmony의 지붕이 없는 교회평면

arter 미술관에서 현대화된 열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아름다운 주량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핑크색의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다. 이 모습은 Sheldon 미술관(1963)에서 더욱 합리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유리에 핑크색을 입히고 싶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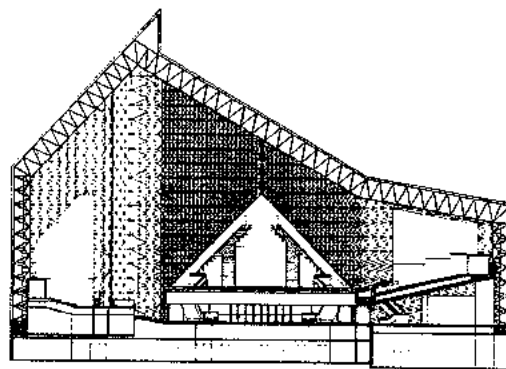
●일어버린 하늘, 넘치는 빛

Johnson은 1960년 지붕이 없는 교회를 계획하였다.(그림 15). 순수주의에 입각한 평면을 장식이 없는 기념비적 요소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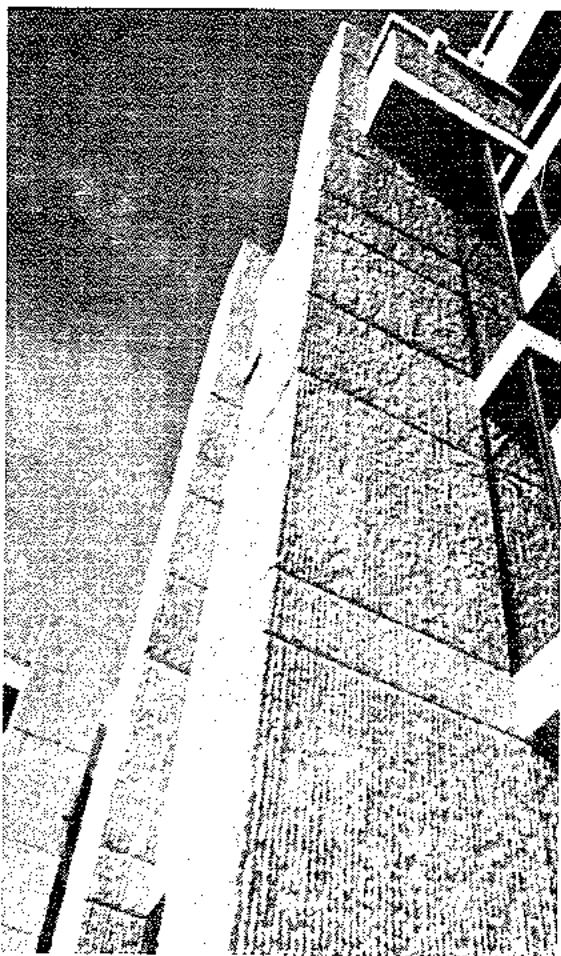
이러한 순수주의적 경향은 그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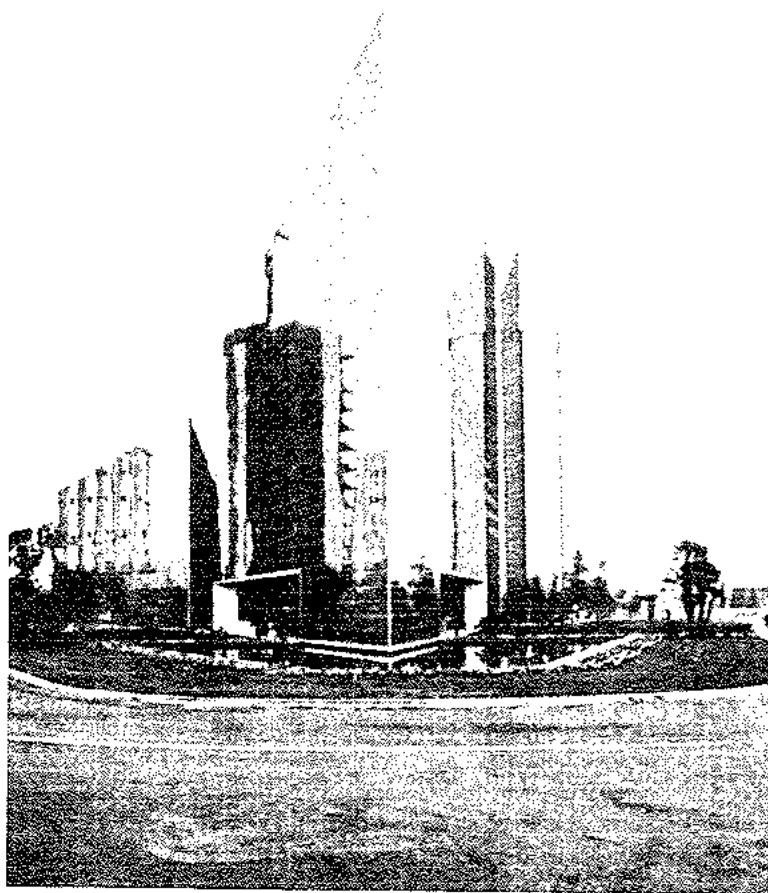
16 Pennzoil Place(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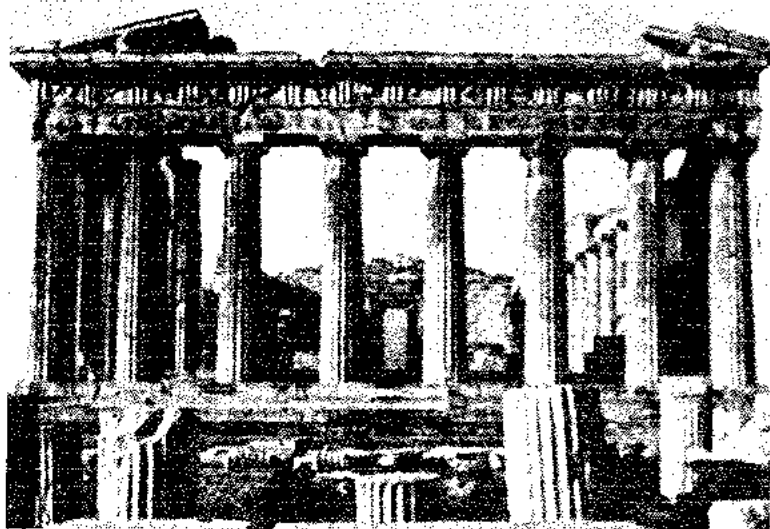
17 Crystal Church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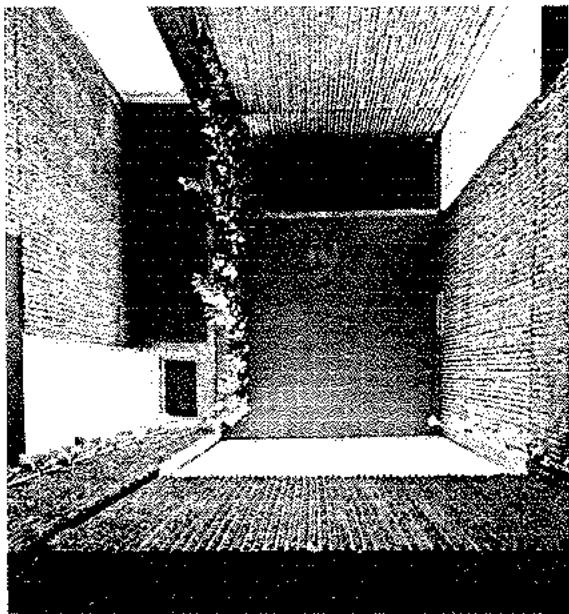
19 Yale대학건축학부(1963)의 벽면co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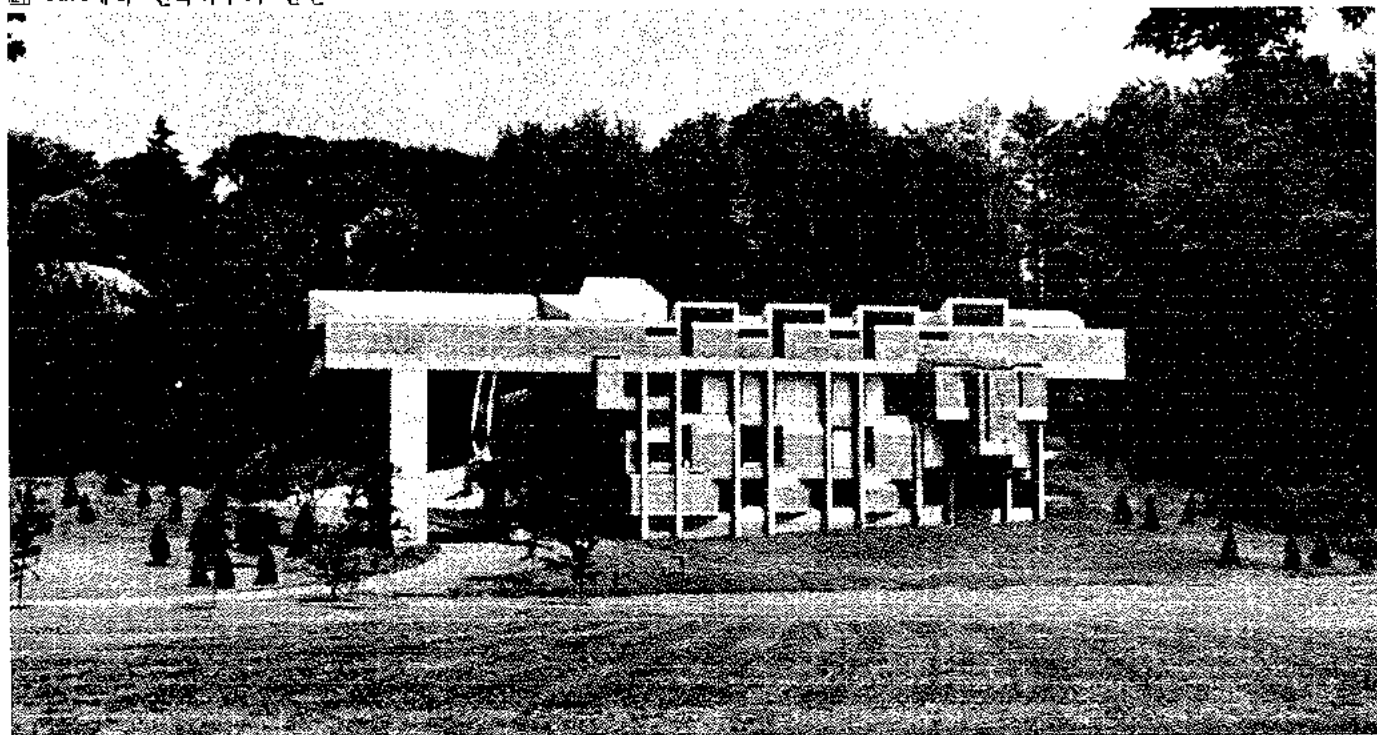
18 Crystal Church의 외관



20 Parthenon신전의 열주



21 Yale대학 건축학부의 단면



22 Col. Gate대학 미술센터(1966) 전경

기 작품에 이르러 새로운 현대적 조형으로 발전을 하였다. 특히 고층건물에서 이러한 세련된 조형이 유리에 새로운 가소성을 부여하여 현대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73년의 L. D. S. Center를 거쳐 1976년에 준공된 Houston의 Pennzoil Place에서 그 조형이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16)

Philip Johnson은 최근에 이러한 추상적 기하학적인 미를 가진 최대의 걸작을 만들었다. Los-Angeles 남쪽 주택지에 Diamond형으로 설계한 일명 Crystal Cathedral로 불리는 Garden Grove Community Church

가 완공된 것이다. 3000명 수용의 길이 125m, 폭 62m의 지붕 및 벽체 전체가 Mirror유리로 된 알미늄 Curtain wall로 덮혀 있는 거대한 건물이다. 골조는 Space-frame으로 되어있다. 주간에는 Mirror 유리를 통해 하늘과 외부경치를 빚어 실어다 주며, 야간에는 실내 전등을 켜면 내·외부에서 모두 Space-frame의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850년대에 수정궁(Crystal Palace)에서 추구한, 유리의 집이 넘치는 빛을 머금고 서 있는 것이다(그림 17, 18).

■ 고대건축의 빛과 그림자

— Paul Rudolph —

Rudolph는 1910년 미국 남부의 Kentucky에서 태어나, Alabama공대를 졸업한 후 Harvard 대학원을 나왔다. 그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정통적인 미국 건축가로, 1940대 미국 건축계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1950대 중반 이후 그의 창조성에 대해 건축사가들은 찬사를 보냈다. 그의 건축은 마치 공동된 건축적 여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디자인이 된다.

그는 형태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 그 이후 미국건축계의 지도자로서 자



23 Christian Science학생관(1967)의 전면

리를 굳히게 된다. Rudolph는 「건축 철학의 변모」(Changing Philosophy of Architecture, 1954)라는 논문에서, “현대는 도식적 건축 외에는 만들지 않는다.…… 건축은 단순한 미의 창조뿐 아니라, 인간 최고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이 인간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건축을 위해, 그는 쉬지않고 새로운 건축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창조성의 배경에는, 1948년에 Harvard 대학의 장학금으로 유럽을 여행하며 피부로 체험한 고대문화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아마 이 미국적인 건축가는, 유럽의 고

대건축에 대한 이미지가 역사의식으로 내면 깊이 자리잡은 듯 하다. 이런 연유로 그의 작품은 창조성의 바탕에 고대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Greece의 陰影

1963년의 Yale 대학건축학부를 설계하면서, 그는 특이한 질감의 Conc.의 면을 사용하였다.(그림 19) 제자리 Conc.에凹凸을 넣고,凸부분을 거칠게 마무리한 Conc.가 지닌 가능성과 돌의 감촉을 동시에 표현하는 수법이였다.岡田新一은 이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이 波形은 Gothic건축이 지니고 있는 S-

cale세분화의 수법을 본뜬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나는 오히려 Greece기 등에 조각된 Fluting의 陰影을 연상한다. 이러한 무늬는, 그 거대한 부분적 Scale을 간직하면서도 인간적인 Scale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그 효과는 훌륭했다.”

이러한 효과는 그 재료와 형태가 다를 뿐 Greece의 열주(그림 20)에서 느끼는 감정과 너무도 유사하다.

Rudolph는 이러한 효과를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도 사용하였다. 이 작품 이후의 대부분의 그의 작품은 이러한 거친 Conc.의 사용을 내·외부 모두 사용하여, 형태적인 질감을 고대 건축에서 느끼는 장중함과 친근감이 교차되는 음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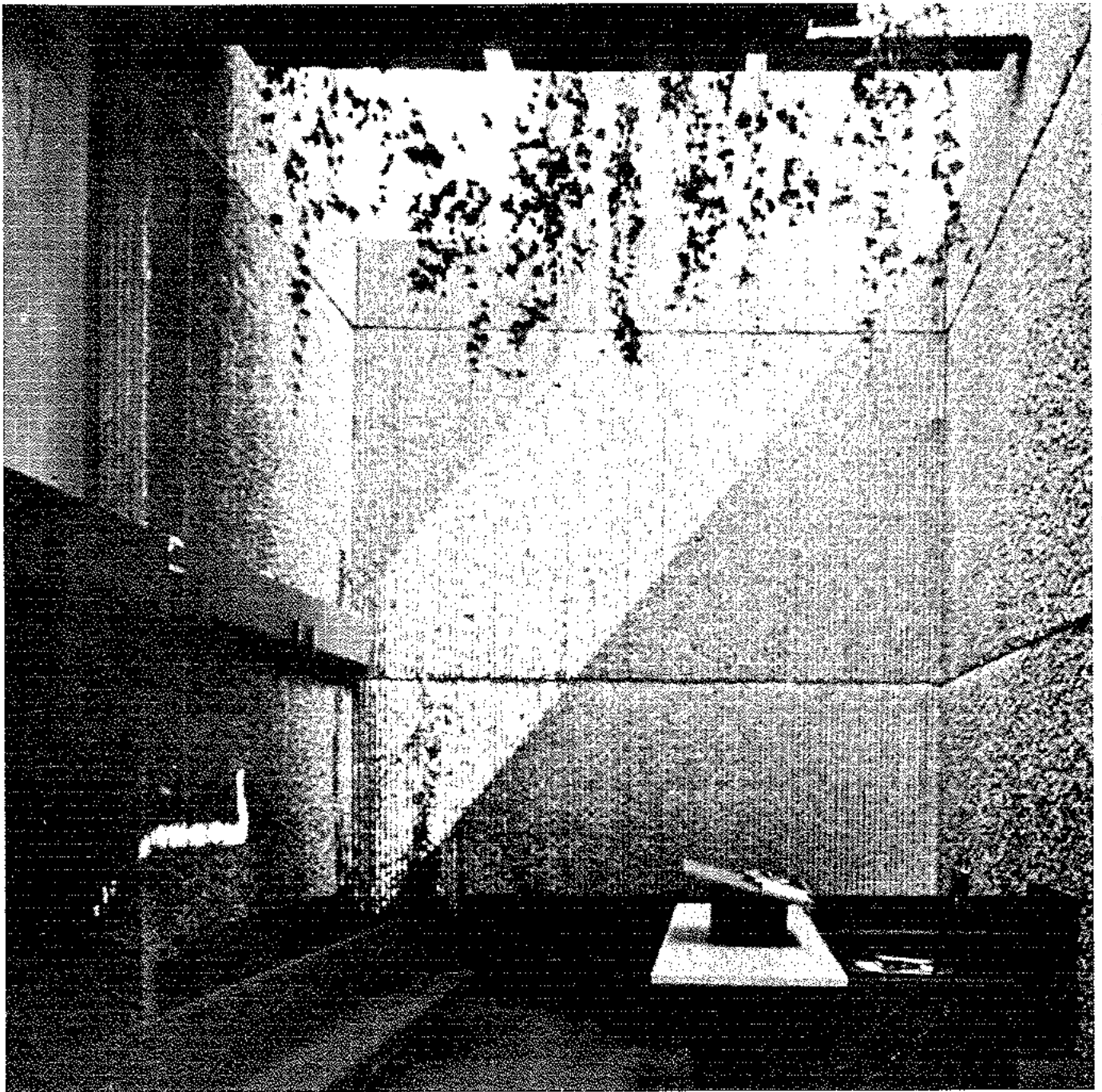
●폐쇄된 공간의 빛

Kahn은 중심적 공간을 갖는 건물은 칭찬을 받을만하다고 하였다. 그의 여러가지 건축공간기법에는 이러한 중심적 공간이 내재되어 있다. Yale 대학건축학부도 중심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그림 21) 그리고 이 중심 공간은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 이 폐쇄된 공간에 Egypt의 Clearstory에서 나타나던 내려오는 빛이 음영을 떨구고 있다. Colgate 대학의 미술센타는 흡사 산과 나무와 태양 속에 다시 선 Parthenon을 연상하게 한다.(그림 22) 이 건물의 상부에도 천창이 중심을 향해 빛을 쏟아 내리고 있다.

Christian Science 학생관에서 이러한 특징이 결정을 이루고 있다. 외부 조형을 이루고 있는 벽면의 conc. 음영과 그 상부의 천창(그림 23)이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 그 내부에는 폐쇄된 중심공간으로 고전스러운 빛이 쏟아져 내려 고대건축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Scale이 현대에 재현되고 있다.(그림 24)

참 고 문 헌

1.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Harvard Univ. Press, 1967
2. Christian Noborg Schultz,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Praeger Publisher, New York, 1975
3. 神大雄-郎編: 産業図書譯, 現代建築을 創造하는 사람들, 産業圖書, 1982
4. 鄭寅園, 近代建築編, 文運堂, 1974
5. 김균, Louis I. Kahn: Teacher and



24 Christian Science학생관의 내부 중심공간

- Architect, 대한건축학회 추계 학술발표 특별강연, 대한건축학회, 1983
6. Romaldo Giurgola and Jaimini Mehta, Louis I. Kahn, A. D. A. EDITA Tokyo Co., Tokyo, 1975
7. —, Louis I. Kahn, a+u特集, 東京, 1981
8. Nell E. Johnson, Light is the Th-

- cme, Kimbell Art Foundation, Fort worth, Texas, 1975
9. —, Phillip Johnson, a+u 1979年 6月 臨時増刊号, 東京, 1976
10. 二川幸夫・大江宏・明石乃武, P. Johnson, 美術出版社, 東京, 1968
11. 二川幸夫・槇文彦・山下司, P. Rudolph, 美術出版社, 東京, 1968

12. Grace Anderson, Rudolph's chapel forms, A·R1982년 7월호, Architectural Record, 1982
13. William Marlin, Gunnar Birkerts, A. D. A. EDITA Tokyo Co., Tokyo, 1982

〈자료〉

● 단독주택표준설계도서공고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단독주택표준설계도서공고

건설부공고제65호

건축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작성한 단독주택(도시형·농촌형)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공고한다.

관계도서는 각시·도 및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이 용자 및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관계도서 생략)

1983년 11월 9일

건설부장관

단독주택(도시형·농촌형) 표준설계도서

도 서 명	형 별 번 호	도 서 의 종 류
단독주택(도시형) 표준설계도서	83-17-다	1. 도서의목록표
	83-20-다	2. 투시도
	83-22-다	3. 평면도
	83-23-나	4. 입면도
	83-23-다	5. 단면도
	83-24-나	6. 바닥틀도

	83-24-나	7. 위생배관평면도
단독주택 (농촌	83-15-가	8. 난방배관평면도
형) 표준설계도서	83-17-가	9. 전기평면도
	83-17-나	10. 분전반결선도및부하
	83-19-가	일람표
	83-19-나	11. 실내재료마감표
	83-22-가	12. 단면상세도
	83-22-나	13. 창호도
	83-23-가	14. 부분상세도
	83-24-가	15. 철근각부배근도
	83-24-나	16. 위생기구범례표
		17. 위생기구일람표
		18. 물탱크상세도
		19. 전기설비범례및주기
		20. 조명기구모양도
		21. 특기시방서
		22. 소요자재명세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령제365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3년 12월 2일

건설부장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부대시설)”을“(기타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의 제목“(복리시설)”을“(기타복리시설)”로 하고, 동조 본문 및 각호를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조제5호에서“전설부령으로 정하는 유아교육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유치원
2. 새마을유아원

제24조의 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의 3 제1항에서“최초로 공급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 개시일을 말한다.

[별표6] 중 2. 시멘트가공제품(시멘트벽돌·시멘트블록·시멘트기와) 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란의 다. 기타 시설란중 (1)대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

(가) 시멘트벽돌 또는 시멘트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이상. 다만, 보일러실을 포함하여 99제곱미터이상의 증기양생실과 1톤이상의 보일러 1대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천980제곱미터이상, 9만매이상의 시멘트벽돌을 다층으로 양생할 수 있는 시설(눌려서 양생하는 경우에는 층간 높이 18센티미터이상, 세워서 양생하

는 경우에는 층간 높이 30센티미터이상)을 보유하거나 3만매 이상의 시멘트블록을 다층으로 양생할 수 있는 시설(층간 높이 30센티미터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천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시멘트기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1천650제곱미터이상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중 4.부대시설 설치계획의 기재상 주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상 주의사항

1. ③란에는 영 [별표 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에 따른 설치계획을 기재합니다.
2. ④란에는 세대별 용량과 적산전력계 설치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3. ⑤란에는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의 설치개소·폭·길이 등을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세대별 전화국인입선의 설치여부와 공중전화의 설치여부를 기재합니다.
5. ⑬란에는 기존시설 단지로부터의 거리, 확보된 대지의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8호의 2서식]중 5. 복리시설 설치계획의 기재상 주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란에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치

계획을 항목별로 명기합니다.

2. 시설설치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각란에 그 사유를 명기합니다.

[별지 제28호의 2 서식]중 6. 일반분양시설 설치 계획란의 하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재상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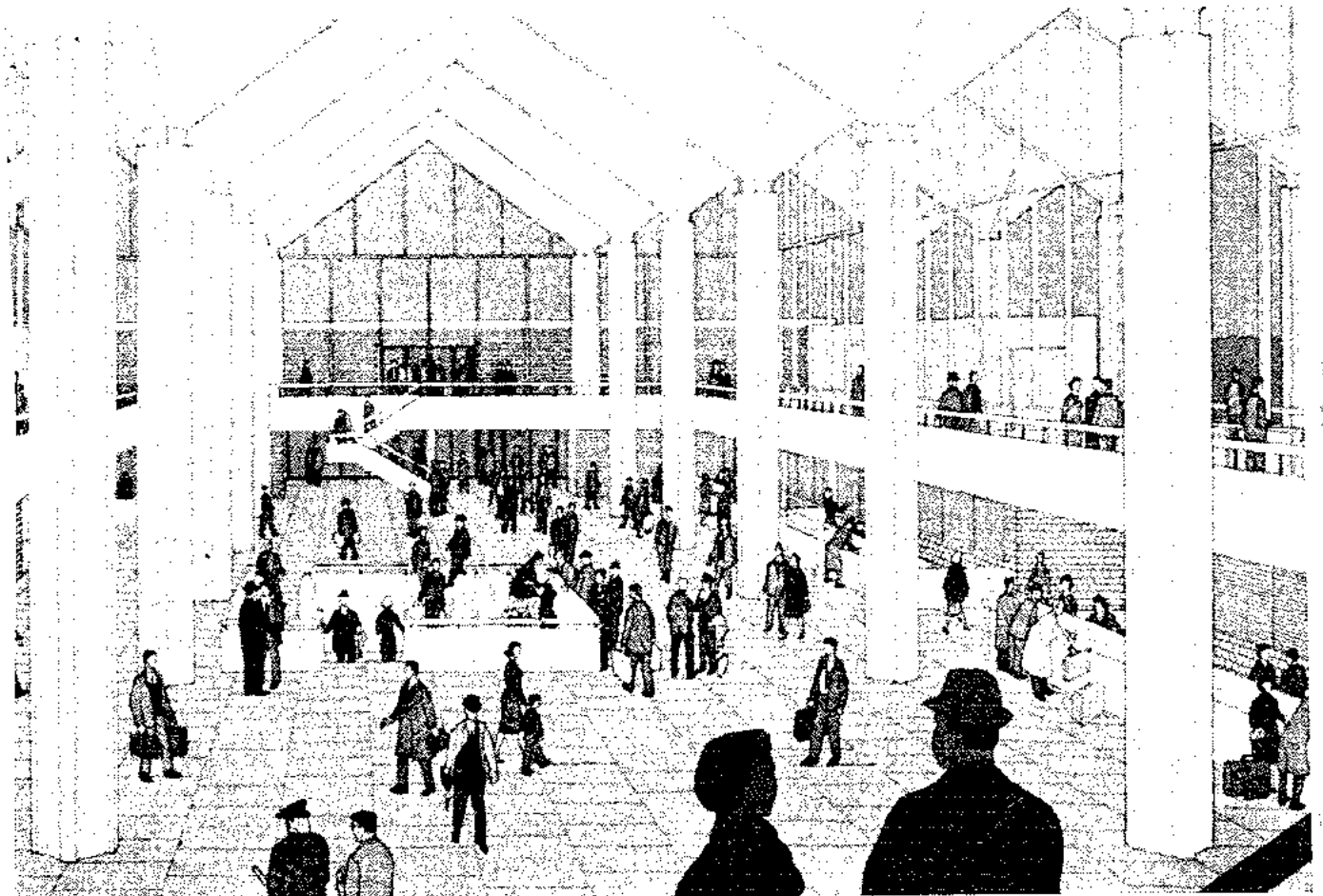
1. ①란에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치계획을 항목별로 명기합니다.
2. 시설설치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각란에 그 사유를 명기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본문중 “탁아소로부터”를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로 하고, 동규칙 제22조의 제6 “(유치원, 탁아소)”를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동조본문및 단서중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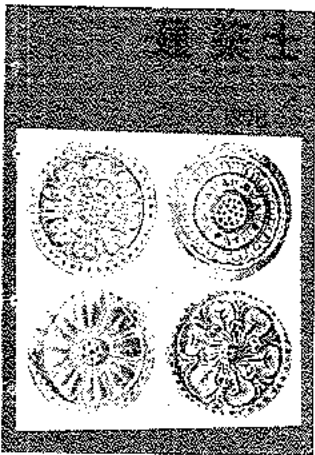
會員作品 / 金寬惠 / 韓曉洙 / 洪哲洙 / 朴商浩 / 安日成 / 朴運旭 / 李延仁
論文·기타 / HOTEL 機能의 空間分化에 대한 計劃論 / 柳榮進 / 유리섬유 보강콘크리트와그性質: 金亨杰 / 建築構造設計에關한小考(3): 鄭日榮 / 2001 年の生活과職場을위한都市空間: 金源

2

會員作品 / 金仁錫 / 朱漢烈 / 鄭祥鳳 / 李祖源 / 尹鳳源
論文·기타 / 세계 현대 건축의 경향(2): 趙英武 / 國土綜合開發計劃과經濟成長: 盧椿熙 / 주택 정책 및 도시 개발 정책의 문제점: 姜錫元 / 紀行文(中東을 다녀와서): 曹鐵鎬

3

會員作品 / 李丞雨 / 金正澈 / 金寬旭 / 柳承根
論文·기타 / 토우탈·디자인(TOTAL DESIGN) · Welton Becket 그의生涯와哲學: 金熙泰 / 國土綜合開發計劃과經濟成長(2): 盧椿熙 / 世界現代 建築의傾向들(3)-Brutalism: 趙英武 / 中東紀行(2): 曹鐵鎬



4

會員作品 / 金枝泰 / 朴南俊 / 朱寧伯 / 宋基成 / 宋長福
論文·기타 / 韓國古代伽藍 配置新考: 金正基 / 서울특별시美觀地區審議委員會議의實情: 姜明求 / 身體障礙者를 위한建築施設: 李鍾金 / 世界現代建築의傾向들(4): 趙英武 / 建築構造設計에關한小考(5): 鄭日榮 / 英國의太陽熱에너지利用에關한現在의研究와未來의展望

자료

目次索引

(1978년~1983년)

다음은 本誌에 게재된 會員作品 및 論文 등 만을 모은 목차색인이다. 특히 지난 6 년간 발간된 71권의 會誌가운데서 기록보존 자료가 될만한 부분만을 간추려 소개한다.

會員作品은 해당호 목차에 표시된 그대로 기재했으며, 그밖에 論文은 제목과 필자명을 밝혔다. 또 기타 부분은 論評, 解說, 特輯記事 등을 한데 묶어 소개했다.

5

會員作品 / 住宅영동L 씨대: 黃一仁 / 住宅: 姜純一 / 首都女子師範大學大講堂: 金忠得 / 清涼里第1安息日教會: 成河哲 / 韓國特殊工事社屋: 徐忠錫 / 韓國電氣安全公社本社庫: 金學錫 / 始興郡片序舍: 朴成圭

論文·기타 / 佛敎建築 計劃에 關한研究: 金正秀 / 第2次文藝中興5 個年計劃立案을위한公開討論會發表文中文化一般: 金琰東 / 美術: 李逸 / 都市計劃施設設置基準(3)尹定燮 / 元老建築人招請學術세미나 / 綜合藝術運動과建築: 朴學在 / 建築設計事務所論: 金東珪 / 隨想: 安仁模 / 道路交通의騒音防止: 李龍雲 / 世界現代建築의傾向들: 趙英武

6

會員作品 / 경기반공회관: 洪철수 / 리도백화점: 박길남 / 코리아스퀘어서문사: 김동숙 / 구미공업기지옥외수영장: 양영호 / 장훈대장로교회: 손중모 / 영동K 씨대: 김학신 / 서울세종문화회관: 엄·이건축연구소

論文·其他 / 建築法은 어떻게 變遷하여왔는가: 李文輔 / 주택 문제에 대한小考(아파트를 中心으로): 金眞一 / 고향은 멀리서(美國生活斷想): 安秉義 / 世界現代建築의경향들: 趙英武 / 鉛板을이용한건축구조: 李琰會 / 老人과身體障礙者를위한設計基準: 鄭宰泳 / 세종문화회관대강당건축을관한설계: 崔炳虎

7

會員作品 / 車東明 / 李康植 / 朴康平 / 朴商浩 / 金寬培 / 金大魯 / 韓曉洙 / 曹聖萬

論文·其他 / 都心の機能: 盧椿熙 / 先史時代살림집의構造에 대한研究: 金鴻植 / 生活慢筆: 尹太鉉 / 住居雜記: 李鶴榮 / 우르비노와루네상스建築: 朱南哲 / 建物の氣密性: 李聖國

8

會員作品 누하동운씨대: 金琪碩 / 건설직업훈련소: 宋基德 / 올림픽공원광유원지: 李延仁 / 부산市立博物館: 李喜泰 / 建築七의집: 張宗律 / 신대방동K 씨대: 鄭昭

論文·其他 / 精巧·精密·美麗한施工과維持管理: 張起仁 / 都心の機能(2): 盧椿熙 / 住宅·室內디자인展開: 尹道根 / 建物診斷: 吳昌熙 / 未來變化에對處하는學校建物の適應性과融通性에關한研究의분석: 劉香山 / 建築環境의保護와建築家の役割: 李在玉

9

會員作品 구미시청사: 金仁鎬 / 김씨대: 張民秀 / 식당: 金英其 / 雪鐵門: 金寬培 / 銀行: 柳承根 / 과학관: 車東明

論文·其他 / 病院建築-78: 金東珪 / 風水地理說과建築計劃: 朴時賢 / 太陽에너지이용에關한 가스발생: 尹太鉉 / 연립주택의 일반적고찰과개발방향: 許範八 / 日本의民家(東京地方 民家の平面構成): 박언곤

10

特輯 / 創立13周年紀念大賞 施賞作品및1977~1978 1年間會員作品紙上展
論文·其他 建築許可制度: 李文輔 / 建築設計審議: 金眞一 / 建築工事監理: 李明煥 / 病院建

築78. (2): 金東珪 / 學校建物の適應性과融通性研究分析(2): 劉香山 / 屋外騒音防止: 李聖國 / 構造計算을하기위한電子計算機에關하여: 鄭日榮 / 創作人과 共同体意識: 姜斗鎬

11

會員作品 / 第2 政府綜合庁舍 懸賞設計當選作

論文·其他 / 朝鮮後期서울·京畿地方上流住宅의平面構成에 대한研究: 金鴻植 / 建築構造理論의發展과課題: 李甲造 / 第1 期建築士研修教育受講記: 安箕泰 / 不條理克服을위한提議: 林潤東

12

特輯 / 韓國建築家協會78년도 建築討論會

論文·其他 / 基調論文/進化하는建築對象과建築家の職能: 李光魯 / 建築教育의目標: 李海成 / 建築創造와文化의媒介問題: 金壽根 / 우리時代의建築家-그存在形式에 關하여: 尹承重 意見論文/變化하는建築對象과建築家の職能: 趙英武 / 建築教育의目標: 金熙泰·安瑛培 / 建築創造와文化의媒介問題: 康炳基 / 우리時代의建築家-그存在形式에關하여: 尹道根·朱鍾元 / 建築體系를통해서본形態構成과表現方法: 尹道根 / 紀行文(U. I. A)를다녀와서: 崔昌奎 / 計劃住宅地의施設供給에對하여: 朴勇煥 / 風水地理說과建築計劃(下): 朴時賢

建築士

197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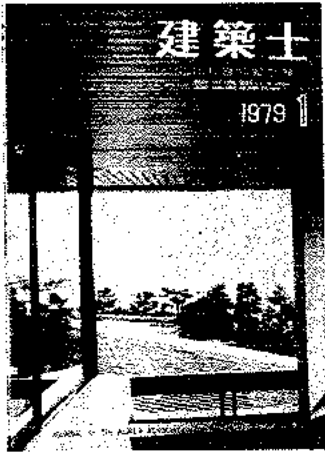


1979

1

會員作品 / 柳光弘 / 康普參 / 洪哲洙 / 朴亨三 / 車東明 / 劉圭成 / 尹鳳源 / 鄭昭 / 朴東興
論文·其他 / 都市空間計劃과

再開發：朴炳柱 / APT地區內建築의適正容積率및建築費 문제：尹定燮 / 建築體系通해서形態構成과表現方法(2)：尹道根 / 紀行文廣美크롬비아·페루編：崔昌奎 / 會員코너科學-人間：尹太鉉



2

會員作品 / 공일근 / 김정철 / 이상대 / 이영근 / 김정식 / 이회태 / 김 원 / 이강식

論文·其他 / 設計講座：金貞一 / 社會福祉施設과家族制度의變化：朴勇煥 / 아파트地區內建築의適正容積率및建築費에關한研究(2)：尹定燮 / 都心交通과再開發：金 源 / 建築工事·標準示方書改正·補完內容：李聖國 / 熱損失防止를위한建築物의構造에關한研究 / 會員코너際·陰曆歲時：安仁模 / 紀行文(3)：崔昌奎

3

會員作品 / 金仁錫 / 李起範 / 黃一仁 / 金琪碩 / 俞景哲 / 韓永深 / 金寬旭 / 許鼎鼎

論文·其他 / 都心交通과再開發(2)：金 源 / 서울의都市的要素로서의聯立住宅：呂鴻九 / 建築材料의品質基準에關한研究 / 熱損失防止를위한建築物의構造에關한연구(2) / 南美紀行(4)：崔昌奎 / 邑·이건축상건축사전전 / 安英培건축사전전

4

會員作品 洪淳寅 / 李永熙 / 車東明 / 尹汝旭 / 李文雨 / 鄭時春
論文·其他 / 임시행정수도과주택 공급문제：柳榮進 / 燃料節約을위한熱管理住宅：申鉉權 / 佛教建築計劃에關한연구：金正秀 / 막살이집의연구：金鴻植 / 建築士의建築創作風土改善策에關한연구：梁元求

5

特輯 / 建築士業務의當面問題
會員作品 이충언 / 백영기 / 이영일 / 오동석 / 김충득 / 김효일 / 김봉훈 / 김관동

論文·其他 / 건축사의당면문제：姜奉辰 / 건축작품활동과법적제약：安仁模 / 建築士報酬의虛와實：崔昌奎 / 지방회원의특수사정：閔榮基 / 지방建築士가가지는문제점과해결책：尹榮在 / 건축심사와건축사업무：尹鳳源 / 건축사무소의운영 과세제：李承文 / 건축심사와건축사업무：安煥培 / 감리업무와문제점：金正崙 / WALTER GROPIUS와국제주의건축：金熙春 / 건축사의건축창작풍토개선책(2)：梁元求 / 소도시개발을위한적정생활환경성에關하여：盧椿熙

6

會員作品 / 청주종합경기장：具旻會 / 주택：安日成 / 주택：康晉參 / 은행：韓鍾彦 / 주택：朴龜憲 / 학교：李春相

論文·其他 / 建築士報酬의虛와實：金仁錫 / 合同事務所의운영과문제점：李鍾寬 / 人力難時代의建築補助士의문제：李世勳 / 건축의새로운전기를위하여미술과박물관건축을돌아보고：安煥培 / 아파트와 단독주택주민의주거의식및행태에關한 비교：宋振福 / 건축창작활동의현실：金重業 / 설계사무소운영상의당면문제：金枝泰 / 행정측면에서기대되는建築像：金永哲 / 열손실방지를위한건축물의구조에關하여(3)

7

會員作品 / 한국증권거래소：李丞雨 / 강화도국교육원：安將元 / 한양식물주식회사여주工場：朱寧伯 / 한국종합전사관：金正崙 / 한국전자통신(주) 龜尾工場：張錫雄 / 익산군농협：尹鼎重

論文·其他 / 建築配色：姜明求 / 신축학교건물설계를위한시설실태조사：劉香山 / 아파트·단독주택주민의주거의식및行態에關한 비교：宋長福 / 建築家분야의활성화를위한설계조직과기구의문제：元正澤

8

會員作品 / 주택：崔昌奎 / 주택：嚴柱浩 / 교회：金正崙 / 주택：李榮珠 / 주택：徐忠錫 / 시장：鄭 權 / 주택：金榮珠
論文·其他 / 수도권의주택공급模型에關한연구：朱鍾元 / 소

生活圈기본계획에關한조사：盧椿熙 / 현대적공간에있어서의조경의개념과보전관리：朴商浩 / 마음의藥方文：尹太鉉 / 태양열을이용한주택설계(案)－外國例－：洪性穆 / 태양에너지의이용과전망：鄭玄采 / 태양열주택暖房시스템：이중원 / 태양주택의시공및설계의경향：이명호



會員作品 / 安箕泰 / 吳雄錫 / 林憲彦 / 洪淳寅 / 鄭 昭

論文·其他 / 태양열주택의冷暖房시스템 개요：李鍾鎬 / 사무소건축의발달과정：金炳宇 / 건축에서의인간의심리적공간：金正泰 / 小生活圈기본계획에關한 조사(2)：盧椿熙 / 태양열을이용한冷暖房給湯：淺野祐一郎

10

論文·其他 / 뜻으로본한국건축양식：朴時翼 / 日本주택공급업체와수요층의동향：金平坤 / 건축디자인의기본적성격：尹太鉉 / 건축구조물의거대화한계：金圭石 / 濟州漫想：崔昌奎 / 건축법령의개정－합리적인개선책은없는가－：李鶴榮 / 遮音및吸音에대한小考(遮音編)：建築研究所

11

會員作品 / 호텔：黃一仁 / 교회：洪淳寅 / 은행：朴吉男 / 주택：李京鎬

論文·其他 / 에너지절약을위한디자인개념：李璟會 / 태양열을이용한공동주택multi-family設計案：洪性穆 / 신축학교건물설계를위한기존학교시설실태조사：劉香山 / 화재시의철근콘크리트구성재료의高温性狀：李秀吉 / 監理団구성에대한小考：黃圭泰 / 天王峰에서(隨想)：최창영 / CC TV의건축에의활용：이경호 / 遮音및吸音에 대한小考(吸音編)：李聖國

12

會員作品 / 주택：權祥雲 / 주택：李義求 / 호텔：金正崙(주)
論文·其他 / 70年代의마지막해를보내면서：姜奉辰 / 回顧送年：安仁模 / 行政簡素化問題：金東珪 / 新築學校建物設計를위한既存學校建物實態調査：劉香山 / 建築紀行：박상호

198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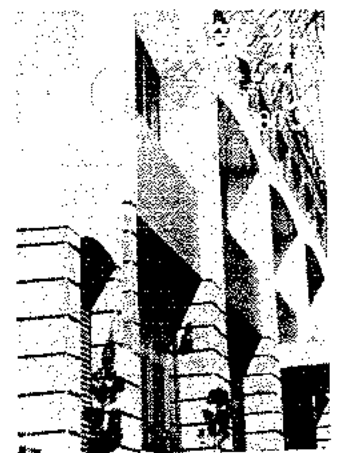
會員作品 / 金枝泰 / 金正崙 / 洪淳寅 / 俞景哲 / 朴成圭

論文·其他 / 事務所建築計劃의분석：金炯宇 / 학교놀이기구에대한어린이의의식조사：鄭大有 / 建築材料의熱伝導특성과실험：尹在振 / 벽돌및시멘트브록벽체의龜裂에關하여：吳昌熙 / 建築紀行：李榮一 / 建築紀行：李文雨

2

會員作品 / 은행연수원：安箕泰 / 주택：朴商浩 / 학교：黃一仁 / 교회：李永熙 / 사찰：洪哲沅

論文·其他 현대도시건축물의사회성：呂鴻九 / 한국민가의유형별분류：金鴻植 / 청성대에대하여：宋政求 / 재미로읽는구조：李昌男 / 속성스케치에制動을：安口成 / 총회에다녀와서：梁元求



3

會員作品 / 은행：李榮一 / 주택：李起範 / 사무소：姜純一 / 은행：李殷學 / 주택：金大魯

論文·其他 / 근대건축표현방법의새가지흐름：尹道根 / 건축에서의에너지·形態·美：金正泰 / 中原郡彌粉里石窟실측조사보고서에대하여：宋政求 / 재미로읽는구조(2)：李昌男 / 학교내

놀이 기구에 대한 어린이의 의식 조사 연구(2): 鄭大有 / 떠나는 마음: 최용현 / 隨想傲慢: 姜斗錫

4

會員作品 / 南光士建築株式會社 社屋: 金大植 / 釜山蓮庵福祉會館: 李喜泰 / 昌原市庁舎: 金正湜

論文·其他 / 오늘날 건축의 국제적 상황과 경향: 崔昌奎 / 한국 전통건축계승발전을 위한 연구기 본계획案에 대하여: 姜奉辰 / 근대건축표현방법의 세가지 흐름(完): 尹道根 / 防火재료의 성능 및 평가: 尹在辰 / 재미로 읽는 구조(3): 李昌男 / 마음의藥方文: 尹太鉉

5

會員作品 / 仁川金氏宅: 宋洙九 / 평창동金氏宅: 方圭祥 / 은행: 吳雄錫 / 안동교회: 李錫文

論文·其他 / 建築設計懸賞競技小考: 崔昌奎 / 태양열주택 건축계획: 金熙春 / 구조와 건축미의統合: 鄭宰泳 / 재미로 읽는 구조(4): 李昌男 / 건축재료의防火 성능에 관한 새로운 평가: 尹在辰

6.7

會員作品 / 주택: 李榮鉉 / 학교: 公日坤 / 병원: 金東圭 / 빌딩: 姜錫元 / 빌딩: 朴英昊

論文·其他 / 화재시 건축물 내부의有機高分子재료의高温性狀: 李秀吉 / 超高層建物の구조시스템에 관하여: 李甲造 / 中国고대사상과 수와 건축: 宋政求 / 에너지 절약주택의 설계기준과 指針(2): 日本編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 건설부 / GENES-EE GETEWAY / MAGGIE MCKNIGHT APT / HOUSING FOR THE ELDERLY / CHERRY HILL APT

8

會員作品 / 병원: 尹承重, 卞鎔 / 빌딩: 金大魯 / 주택: 崔正一 / 주택: 姜英一

論文·其他 / 창의기능과 에너지 절약: 朴胤成 / 중국의고대사상과 수와 건축: 宋政求 / 경주古都化의문제점에 대하여: 姜奉辰 / 프로젝트의最小費用의스케줄: 金鉉植 / 서울의도시정비: 呂鴻九 / 근린지구단위의구성과이론: 朴勇煥

9

會員作品 / 金宗根 / 李揆昌 / 金錫澈 / 金花子

論文·其他 / 防火構造의성능

시험에 대하여: 尹在辰 / 환상적 건축의재조명: 金正泰 / 재미로 읽는구조: 李昌男 / 한국의현대 건축과조국근대화그리고전통의 계승: 金東珪 / 제2차 "시카고 트리뷴" 국제현상이뜻하는것: 金正秀 / 현상설계심사총평: 崔昌奎

10

會員作品 / 金寬旭 / 俞天濤 / 金壽根 / 尹承重, 卞鎔 / 賓吉遠 / 崔洛典

論文·其他 / 건축과 도시계 / 尹定燮 / 자원과건축: 洪恩天 / 학생집단간강을저해하는학교 건축환경원의비교조사연구: 劉香山 / 한국목조건축기법의특징들: 趙勝元, 趙英武 / 중국고대 사상과수와건축: 宋政求 / 프리 캐브주택의구성계획: 金大魯 / 에너지절약을위한小考: 李洪烈 / 今昔之感: 金光瑞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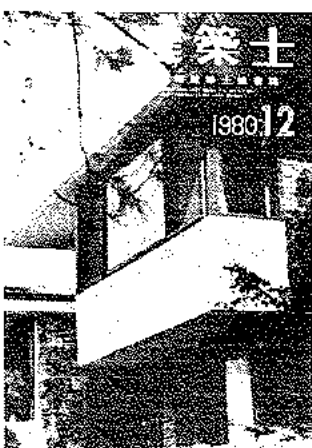
會員作品 / 학교: 韓鍾彦 / 연립주택: 金琪碩 / 예술회관: 朴武吉 / 정포주택: 尹柱憲 / 주택: 朴金永

論文·其他 / 건축과설비의공사구분: 宋煥 / 한국주택과주거생활: 張起仁 / 住宅廚房空間에 대하여: 李源丘 / 오피스랜드 스케이핑: 金炯宇 / 조경계획과 에너지절약: 張文基 / 학생집단간강을저해하는학교건축환경원의비교조사연구: 劉香山

12

會員作品 / 주택: 崔昌奎 / 호텔: 朴奎定 / 주택: 朴東熙

論文·其他 / 아파트건축의표준규격의部品化問題: 尹道根 / 韓國建築意匠에 대한고민과감동: 金興坤 / 오피스랜드스케이핑(完): 金炯宇 / 연립주택의型式과배치계획: 卞鍾煥 / 고딕건축의구조에 관하여: 金濟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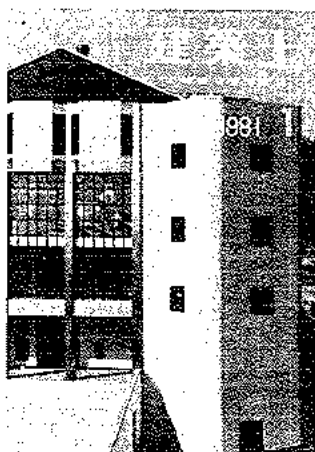


1981

1

會員作品 / 학교: 鄭祥鳳 / 터미널: 韓鍾彦 / 주택: 宋永柱 / 주택: 鄭時春 / 회관: 金琪碩

論文·其他 / 화재를입은구조물의검사, 진단및보수대책: 鄭日榮 / 인구·자원·에너지: 洪恩天 / 한국건축주택과주택생활: 張起仁 / 도시환경과옥상정원: 張文基 / 建築開口部の氣密性能평가방법: 尹在辰 / 한국고건축의외부공간구성에관한小考: 金濟東 / 構造計算規準: 李昌男 / 건축기획에대하여: 宋政求



2

會員作品 / 빌딩: 金正澈 / 회관: 姜錫元 / 교육원: 鄭銀溶 / 병원: 金一鎬 / 주택: 宋基俊

論文·其他 / 에너지節約型인 P.C콘크리트건축물: 金亨杰 / 건축설비공사標準示方書概要: 李聖國 / 도시근린생활권형성의필요성: 柳榮進 / 아이디어와구조: 李昌男 / 건축용어와관련하여일상적인것들: 玄錫洪 / 건축기획에대하여(II): 宋政求

3

會員作品 / 빌딩: 尹承重, 卞鎔 / 병원: 李喜泰 / 기념관: 鄭昭 / 주택: 表在範 / 사무실: 姜奉辰 / 주택: 慎寧東 / 병원및주택: 廷濟星

特輯 / 元老建築人懇談會 **論文·其他** / 古建築의기동배치에관한연구: 李在憲 / 防火建築技術: 李秀吉 / 고대聚落의공간구조(I): 崔鉉宗 / 한국주택의주거생활(III): 張起仁 / 防空壕의설계: 李昌男 / 건축기획에대하여(III): 宋政求

4

特輯 / 大型建築工事一括入札에대한小考 **會員作品** / 교육관: 洪淳寅 /

: 曹元植

論文·其他 / 건축가와사회적책임: 建築士의提言: 金知德 / 건축디자인은사용자편에서있는가: 趙大成 / 주택각부의표준치수와단위 평면: 尹道根 / 韓式大木作制度概說: 趙勝元, 趙英武 / 태양열주택의액티브시스템: 劉承圭 / Alvar Aalto의 作品에 대한小考: 潘好鎔

교육관: 金仁錫 / 군청사: 朴成圭 / 병원: 金鍾敏 / 백화점: 柳根洙, 鄭寅協 / 교회: 李載成 / 주택: 吳英治

論文·其他 / 龜裂發生으로인한구조물의耐力低下에관한 검토(I): 鄭日榮 / 태양열주택의조형설계: 李廷德 / 韓式木造건축 시대에사용된建築道具및器械: 趙勝元, 趙英武 / 인간화의공간: 崔宗鉉 / 농촌주택및聚落構造 개선에관한문제제정과방향: 田耕培

6

特輯 / 建築行政무엇이문제인가?

會員作品 / 동아일보여의도사육: 李喜泰 / 安城農專大合同강의동: 安將元, 崔義俊 / 鷹岩敎會: 羅永均 / 정화여중, 고체육관: 俞培根 / 대구건축사회관: 金武權 / H 씨주택: 金仙夏 / K 씨주택: 安承在 / 신교수대: 林八岩

論文·其他 / 새로운트렌드상의創造: 具琬會 / 현대건축사조의변천: 金熙春 / 법과건축: 崔昌奎 / 조선시대의丹青: 張起仁 / 수동형태양열축열벽의활용: 田燦珍 / 해외건설공사: 鄒強會

7

特輯 / 意見과對策을알아보다 - 대형공사설계엔지니어링·建築士보조원확보문제 -

會員作品 / 全州驛舍: 慎武威 / 서울국립보지현충관: 姜奉辰 / 남대문빌딩계획안: 李起範 / 부산시여성회관: 安鍾煥 / 부산국제호텔: 金伸宰 / 부산성분도차과병원및보육원: 嚴泰佑 / 창원한빛교회: 安日成 / 김씨주택

8

特輯 / 建築과人間과環境(U. I. A參席報告)

會員作品 / 동작동출이회관: 金琪碩 / 충북대학교사회과학관: 洪淳寅 / 남서울교회: 韓鍾彦 / 창원공업기지새마을회관: 金正湜 / 강릉극동호텔: 李京鎬 / 우성쇼핑센터: 尹泰雄 / 농협중앙회이천군지부: 金永興 / 조남

청부산사부소비축창고: 朴商浩
/ 상가및주차장복합건물: 慎國
範 / 김씨주택: 林八岩

論文·其他 / 배풀아는지해
: 安箕泰 / 변형구조방식: 李昌
男 / 수영장(P.OOL) 설계의 실
제: 金大魯 / 건축설계계획자료
정리에관한小考: 姜哲求 / 주택
각부의표준치수와단위평면(II)
: 尹道根 / 주택정책과도시주택
설계: 郭英薰 / 오티트류의 실내
음향성능과건축조건: 朴棟珍



9

特輯 / 対談①: 주택설계의諸
問題點 / 対談②: 共同住居環境
으로서의아파트·연립주택 / 対
談③: 住居環境으로서의단위주
택

會員作品 / 최씨주택: 劉圭成
/ 이씨주택: 權祥雲 / 건축가의
집: 金大植 / 박씨주택: 朴吉榮
/ 박씨주택: 俞鐵鉉 / S 씨주택
: 崔東奎 / N 교수택: 李永熙 /
박씨주택: 金泰勲 / H 씨주택:
黃一仁 / 김씨주택: 俞景哲 / 임
씨주택: 洪淳寅 / K 씨주택: 公
日坤 / K 씨주택: 李忠彦 / K 씨
주택: 洪哲洙 / 황씨주택: 金旭
一 / 임씨주택: 片基奉 / H 씨태
양열주택: 李康植 / 이씨주택:
鄭賢洙 / K 씨태양열주택: 金孝
一 / 유씨주택: 金永順 / 김씨주
택: 李起範 / 이씨주택: 黃在澤
: 김씨주택: 金守賢 / I 국무관
관저: 金大魯

論文·其他 / 協和音의언저리
: 金枝泰 / 오늘의건축에대한건
축사의책임: 韓奎泰 / 나는주택
설계를이렇게본다: 安瑛怡 / 주
택설계의허와실: 元正洙 / 에너
지절약을위한주택의熱의성능:
吳昌熙 / 한국주택건축의실상:
尹承重 / 주택건설과건축법규:
韓鼎燮 / 北歐紀行(II): 崔昌奎
/ 建築積算資料(시리즈I): 曹
凌鉉

10

會員作品 / 영락상업고등학교
: 金正澈 / 중앙대안성기숙사:
金浩 / 商銀속초직원합숙소:
金基弘 / 김사장택: 朴吉榮 / 전
주유아원(전북지방편): 金光煥
/ 전주시경로회관(전북지방편)
: 印柱成 / 전북체육고체육관:
金哲秀

論文·其他 / 일본의 새로운주
거 환경: 朴胤成 / 泉谷寺(址)에대
한小考: 玄錫洪 / 자연학습원시
설계획: 田燦珍 / 해의공사(II)
: 都強會 / 偏心基礎: 金澤辰 /
철근콘크리트슬래브의구조최적
화: 金成男 / 서독·애급기행:
崔昌奎 / 건축가의자질: 朴商浩
/ 建築積算資料(2): 曹凌鉉

11

特輯 / 日本의集合住宅計劃展
과今日의課題: 鈴木成文 / 수
상소감: '81형회수상자

會員作品 / 충무공기념관: 張
錫雄 / 전화국청사: 片基奉 / 춘
천성결교회: 李國男 / 현대병원
: 金白教 / 만산별서: 金石崙 /
수협제주청사: 金守賢 / 삼국부
리공원휴게소: 朴鎮厚

論文·其他 / 신도시계획이론
의발전: 朱鍾元 / 콤퓨터를이용
한건축설계: 金文鉉 / 도시연립
주택의부공간구성의문제점: 鄭
求殷 / 장애자를위한건축과도시
환경계획: 林晚澤 / 평론의기본
방향(抄錄)(I): 宋啟求 / 예술
의본질에대한미학적小考: 姜一
東 / 建築探究의자세: 李甲浩 /
元老建築家探訪: 李天承: 編輯
部



12

特輯 노인복지시설 / 양로원의
현주소: 朴勇煥

會員作品 / 삼화빌딩: 李丞雨
/ 동명여고강당: 金泰勲 / 오천
감리교회: 尹鳳源 / 군포읍청사
: 朴成圭 / 청일학원: 吳世炯 /

삼영아파트: 尹榮在

論文·其他 / “우리의 땅이세
계의광장이되게하자”: 朴商浩
/ 大丘邑城과영남제일관(南門)
重創에대한小考: 徐正男 / 건축
구조해석의유한요소법에의한응
용과전망: 權宅鎭 / 우리나라집
에관한민속(I): 金廣安 / 주택
행정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秋
永守 / 건축평론의기본방향(完)
: 宋啟求譯

1982

1

會員作品 / 삼익부산비치타운
: 金龍仁 / 중근당사옥: 姜信寬
/ 삼익주택사옥: 李維培 / L 씨
주택: 金浩 / 원주새마을협동
유아원: 朴世振

論文·其他 / “보람찬 한해를
기대하며”: 具琬會 / 신년회원
간담회개회 / 82년도본회정책목
표 / 우리나라양통집의평면에대
한연구(I): 金鴻植 / 도시설계
의기본성격: 李弼遠 / 우리나라
도시계획의현황: 崔燦煥 / 우리
나라집에관한민속(完): 金廣安
/ 주택행정실태와대책에관한연
구(完): 秋永守 / 현대건축에있
어서의五大이름: Kenneth Fr
ampton / 건축설계·전적·시공
에서의공사비인하요령: 朴商浩
/ 건축과안전 / 창호(窓戶)

2

會員作品 / 전주에수병원증축
공사: 朴商浩 / 중소기업은행마
포지점: 公日坤 / 광일빌딩: 俞
天濤 / K 씨주택: 金雄政

論文·其他 / 정화운동의전개
와그방향: 李康植 / 輕鼠콘크리
트를P.C構造物에사용하였을때
의경제성: 金亨杰 / 瞻星臺의기
능에대한考察: 姜奉辰 / 기온변
화로인한건물의龜裂防止에관한
연구: 任南幸 / 우리나라양통집
의평면에대한연구(完): 連載:
金鴻植 / 인간과자연이조화된건
축필요: 아르놀트·괴르테 / 노
약자를위한주택설계: 李在玉 /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五大이름
(完): 連載: Kenneth Frampt
on / 건축가의現在像·왜건축가
를지망하는가?: 田中清 / 건축
물의단일시공법(I): 連載: 李
鍾寬 / 한국대학건축교육의문제
점: 林忠伸 / “88을위하여”

3

特輯 / “무엇이문제인가”: 회
원設問조사결과

會員作品 / “港都부산의 예술
활동요람”(부산문화회관): 金
圭吾·林長烈 / 신화빌딩: 金錫
澈 / 한국산업은행창원지점: 金
正澈 / 한신공업사옥: 李榮一 /
청주대학교상경대학: 吳璇教 /
장외동C 세대: 金洪柱 / 서초동
김씨택: 金기홍

論文·其他 / 建築士, 오늘우
리가치한현실: 金一榮 / 82년도
건설부시책방향 / 수동형태양열
시스템의이론과실제: 鄭庭采 /
주택에있어서태양열이용에관한
연구: 趙成孝 / 건축물의단일시
공법(II): 連載: 李鍾寬 / 鋼柱
의許容壓縮応力度: 金奎石 / 건
축공사示方書의발전적체계(1):
連載: 李龍雲 / P.C構造시스템
: 馬春景 / 한국건축概說: 張起
仁 / 省에너지건축의실예 / 쿠웨
이트의JAIRA공사에대하여:
都強會 / “放心했던地震... 대책
필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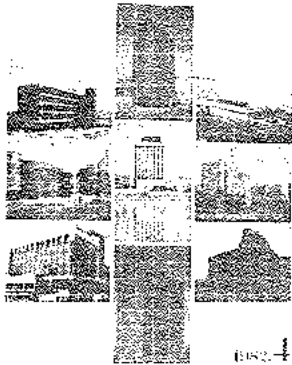
特輯 / '82新春會員作品

會員作品 / 지방행정회관: 金
壽根 / MBC 여의도스튜디오:
金正澈 / 대전투자금융(株) 사옥
: 朴弘雨 / 상명여사대인문사회
학관: 金琪順 / 만일시청사: 韓
英宰 / 오수선관광호텔: 卜 鎔
/ 보영빌딩: 趙東榮 / 신용보증
기금대구지점: 趙成龍 / 쇼핑센
터“태양의집”: 金重業

論文·其他 / “새 轉機나타워
한체제변화시금”: 具琬會 / 19
82년도제 1 회임시총회개회 / 도
시계획의새로운전개: 朴炳柱 /
서울도심부활및건축물과재개발
: 朱鍾元 / 公共“스페이스”의바
다면디자인: 李廷德 / 자연형태
양열주택의당면과제와그대책:
李明浩 / 동남아각국의건축단
물순환하고(I): 連載: 金枝泰
/ 한국건축概說(II): 連載: 張
起仁 / 한국건축의절대특수성에

관하고찰(Ⅰ) : 連載: 朴彦坤 / 건축물의단열시공법(完) : 連載: 李鍾寬 / 건축공사시공의발견적체계(完) : 連載: 李龍雲 / “이상적인建築士憲章을 기대하며” : 朴商浩

建築士



5

特輯 / 會員敎會作品

會員作品 / 마산성당: 金海根 / 압구정동성당: 李喜泰 / 소망교회: 崔東榮 / 청과감리교회: 姜泰星 / 서부제일장로교회: 李光容 / 천주교삼신교회: 朴在煥 / 삼봉감리교회: 尹鳳源 / 산성교회: 林綴周 / 서강간리교회: 鄭時春 / 의정부감리교회: 車東明

論文·其他 / 우리의사명 / 교회건축, 그형태와양식의유형: 金正秀 / 한국기독교교회건축의 규모결정에필요한연구: 李好璉 / 우리나라도시와농촌의교회분포현황: 韓圭榮 / 현대기독교건축의동향: 鄭時春 / 공동집합주택의당면과제: 安瑛培 / 동남아 각국의건축단체를순방하고(Ⅱ): 連載: 金校泰 / 아메리카20

(Ⅰ): 連載: 安瑛泰 / 한국건축의절대특수성에관한고찰(Ⅱ): 連載: 朴彦坤·金東旭 / 金海根씨AIA 명예회원애추대 / KING SAUD UNIVERSITY 新築工事: 력기개발해의기술부 / '88 서울夏올림픽有感: 崔昌奎

6

特輯 / 회원간담회 - “協會運營의오늘과來日”

會員作品 / 성균관대학교수원캠퍼스학생회관: 尹承重·卞銘 / 상명여사대도서관: 金琪碩 / 성보중고등학교: 金桓 / 숭진대학교대전캠퍼스: 金武彦·朴性圭 / 충북대학교농과대학본관: 洪淳寅

論文·其他 / “평범한 노력과 인내로생활하자” : 朴商浩 / 대

학과캠퍼스계획: 朴胤成 / 콘크리트구조물의龜裂發生원인과대책에관한연구: 吳康教 / 농촌의集村化계획에관한연구: 柳應教 / 한국건축의절대특수성에관한고찰(Ⅲ): 連載: 朴彦坤·金東旭 / 시멘트벽돌組積壁體의構造耐力: 姜一東 / 현대건축물과撥水劑의응용: 洪恩天

7

特輯 / 회원간담회 - “協會運營의오늘과來日”

會員作品 / 태능선수촌남자합숙소: 金桓一 / 수안보관광호텔: 尹承重·卞銘 / 우창회관: 尹錫鉉 / 호텔롯데: 尹田建設

論文·其他 / “보다밝은 來日을위하여” / '82회원건축설계작품전수상소감-作品·論文 / 올림피아건축사의역할: 시리즈 I / 호텔건축을기획할때: 宋政求 / 건축과繪圖: 金晴江 / 콘크리트구조물의龜裂發生원인과대책에관한연구: 吳康教 / 한국건축의절대특수성에관한고찰(Ⅳ): 連載: 朴彦坤·金東旭 / 構內通信線路설비에관한해설(Ⅰ): 連載: 金文洙 / 風荷重및積雪荷重기준의개정내용과해설: 姜一東 / 타일시공방법과脫落방지책: 李恒재 / 아메리카20(完): 安箕泰

8

會員作品 / 동원회관: 吳鳳錫·申東海 / 금성전선기숙사: 田燦珍 / 여수상공회의소: 姜英一 / 영풍빌딩: 朴春鳴 / 신원빌딩: 朴英昊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朴潤雄

論文·其他 / “책임과 능동적 자세의” : 金基哲 / 올림피아를위한환경조성: 시리즈 II / “올림픽과건축사” / 도심환경과고층사무소건축: 朴康平 / 콘크리트구조물의龜裂發生원인과대책에관한연구: 吳康教 / 한국건축의절대특수성에관한고찰(Ⅴ): 連載: 朴彦坤·金東旭 / 構內通信線路설비에관한해설(Ⅱ): 連載: 金文洙 / 風荷重및積雪荷重기준의개정내용과해설(完): 姜一東 / “디자인행위는문제의 해결과정이다” : 이필원 / “中東과韓國建設” : 柳正烈 / 感傷紀行: 金錫澈 / 在美건축가金泰修씨작품소개

9

特輯 / 會員建築設計作品 / 住宅

會員作品 / 한남동L 씨주택: 金重業 / 杏仙堂: 吳澤吉 / L 씨

대: 公日坤 / 쌍문동L 씨택: 俞景哲 / 서교동윤씨택: 金琪碩 / 서초동심씨택: 尹泰壽 / Y 씨주택: 金明善 / 이씨택: 李康植 / 방배동B 씨주택: 金武永 / 논현동C 씨택: 李鍾世 / 서교동박씨집: 金錫澈 / 신림동J 씨주택: 林東潤 / S 씨주택: 金榮洙 / 삼성동L 씨택: 鄭求殷 / 역삼동A 씨주택: 金正澈 / 홍씨주택: 黃一仁 / 구기동K 씨주택: 朴遠泰 / 동방고동H 씨택: 金浩 / 사당동서씨주택: 宋基德 / 등선동 이씨택: 劉圭成

論文·其他 / 독립기념관건립에건축사의적극적참여를: 朴商浩 / “홍콩한작품위해 汎建築人의참여바람직” : 崔昌奎 / “민족의지의결정체인건축물로세워야” : 姜哲求 / 주거환경이대로 좋은가? : 朱鍾元 / 주택설계에 있어서의합리와情緒의조화: 朴敏緒 / 아파트와맨션 - 무엇이 문제인가? : 金鍾仁 / 독립주택지역차별방어방법변할것인가: 柳榮進 / 한국건축의절대특수성에관한고찰(完): 連載: 朴彦坤·金東旭 / 건축과공기조화의계획(Ⅰ)·(Ⅱ): 孫章烈·朴容漢 / 개정소방법해설: 李承九 / 건축설계사무소의경영: : 자료: 田中清著(建築設計事務所의經營에서) / 건축분야·국가기술자격검정에관한고찰: 金聖培 / “慧眼의旗手” : 朴榮浩

10

會員作品 / 의료법인성남병원: 金英賢 / 의료법인세천중앙병원: 成河哲 / 순천향천안병원 / 李元澤 / 동래광혜병원: 金坤宰 / 가야병원: 李珍煥 /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동병원: 金希洙·李彰斗

論文·其他 / 협회발전을위한提言: 具旻會 / “우리 문화창조의지표가되도록해야” : 宋政求 / “기념관건축의미학적문제” : 金慶洙 / 병원건축의근대화와의우리들의과제: 金光文 / 병원건축에대한小考: 李特求 / 건축설계사무소의경영(Ⅱ): 連載: 建築搬送설비공사표준示方: 宋煥 / 건축물의개구부에대한氣密性能기준제정의시험분석: 丁鍾汶 / 構內通信線路설비에관한해설(完): 金文洙 / 인테리어디자인의실제(Ⅰ): 連載: 朴弘 / 환경Designer 양성의필요성: 姜健熙 / “눈길끄는 各社의 독립관들” / '82SITRA / “푸른漢江을만든다 - 한강종합개발사업을살

핀다

11

會員作品 / 부산시민도서관: 崔行雄 / 제일은행청주지점: 朴英健 / 성암야영장: 洪鍾植 / 한일은행본점: 卞銘·尹承重 /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吳雄錫 / 동광빌딩: 朴智遠·李外龍

論文·其他 / “미래지향적인건기마련필요” : 金校泰 / 독립기념관건립과건축계의역할: 金正澈 / “새로운창조적조형필요” : 安秉義 / “중국적실제에 도달하는일” : 金琪碩 / 주거환경의질을가능하는지표: 金麟 / 에너지절약적건축설계를위한고찰: 朴相東 / 서울의남대문: 申榮熙 / 건축설계사무소의경영(Ⅲ): 連載: 건설업에있어서의설계VE(Ⅰ): 連載: 인테리어 디자인의실제(Ⅱ): 連載: 朴弘 / 제1회대한민국건축대전

建築士



12

特輯 / 送年回顧 / 1982년의建築界

會員作品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金正澈 / 효성빌라: 禹南龍 / 한국청년회의소: 朱英三 / 동화면세점: 李忠彦 / 반공소년이승복기념관: 李國男 / 善竹會館: 俞元在

論文·其他 / “送旧迎新的時点에서” : 朴商浩 / “분수령으로기록해야 할 때” : 姜明求 / “内的成熟이 아쉬웠던해” : 金熙春 / “많은 일들로 정철된 한해” : 張起仁 / “다사다난했던 지난한해” : 崔昌奎 / “超克과挑戰” : 朴英昊 / “空港建築에 대한小考” : 吳壽永 / 공기조화설비의체크리스트: 孫章烈 / 順慶雙峰寺의三層殿: 申榮熙 / 건축설계사무소의경영(完): 連載: 건설업에있어서의설계VE(Ⅱ): 連載: 인테리어 디자인의실제(Ⅲ): 連載: 朴弘 / COE 연

수를 마치고: 손영진 / 제주도
· 건축기행: 朴商浩

1983

1
特輯 / 새해에저는 期待

會員作品 / 가톨릭의과대학부속성바오로병원: 李致瑞 / 순복음중앙교회오산리기도원: 曹幸佑 / 제일은행합정동지점: 李永熙 / 향도투자금융본사: 公日坤 / 太陽湯: 尹元錫 / 화정동C 씨대: 高在善 / 상명여자사범대학남관: 金琪碩

論文·其他 / “보다밝은내일을위하여...”: 金枝泰 / “自省과제전개선의해로...”: 吳雄錫 / “길이남을建築士像其現貌”: 金榮洙 / “矜持와철학지켜나가야”: 金正澈 / “현장에따라자세가다듬어야”: 韓武賊 / “새면모의건축제기대”: 尹承重 / “미래위한발판 마련할때”: 池 淳 / “권리보다의무를생각하는...”: 李國男 / “새建築人像정립기대”: 金仁鎬 / 에너지계획과건물디자인: 李環會 / 아파트먼트하우스의내부스우에대한조사연구: 朴性仁 / 鷄立嶺의彌勒大院(上): 申榮熙 / 포스트모더니즘의건축·석유시대의終焉에대한고찰 / 전설업에있어서의설계VE(III): 連載 / 인테리어디자인의실제(IV): 朴弘 / Proposeb Multi storey Shopping·Hotel & Residential Complex

2

會員作品 / 울산공대대학회관: 黃一仁 / 덕산병원: 金得洙 / 전남대학교학생회관: 林永在 / 역삼동유씨대: 金 浩 / 효자동점포및주택: 鄭求殷 / 정유꽃마을레지던스: 오태길 / 모 의과대학기본계획: 강철구

論文·其他 / 모순을바르잡기위한정(釘)을잡아야...: 尹鳳源 / 독립기념관전립에즈음하여: 崔昌奎 / 감리업무의책임과제도개선에대한小考: 吳雄錫 / 건축설계사무소有感: 徐千植 / 斷熱과結露 / 아파트먼트하우스의내부스우에대한조사연구: 朴性仁 / 鷄立嶺의彌勒大院(下): 連載: 申榮熙 / 인테리어디자인의실제(V): 連載: 朴 弘 / 전설업에있어서의설계VE(完): 連載 / 건축설계사무소의경영·경영수지의把握(完): 連載 / 조적조

비내력벽구조기준(안)및해설: 국립건설연구원

3

會員作品 / 신용보증기금부산지점: 趙成龍 / 그랜드에식당: 李應默 / 세종대왕기념관: 李應默 / 창녕남산호국공원주위정화: 孫正鎬 / 동국대학교경주대학기숙사: 金仁鎬 / 상수동K 모텔계획안: 金기석

論文·其他 / 새로운전환점이되기를기대하며... 83년도제1회임시총회전문: 金枝泰 / 초에너지절약형건물: 朴相東 / 한국목조건축의양식과구조및특징: 張慶浩 / 2층형농촌주택및새마을회관포준설계에관하여 / 작은구조: 李昌男 / 마루가있는집: 申榮熙 / 인테리어디자인의실제(VI): 連載: 朴 弘 / 포스트모더니즘의선구자들(II): 手잔스티븐스 / 조적조비내력벽구조기준(안)및해설(完): 자료: 국립건설연구원 / 선진각국의공산품규격실태및현황: 박윤수 / 건축가되지만조사의무·日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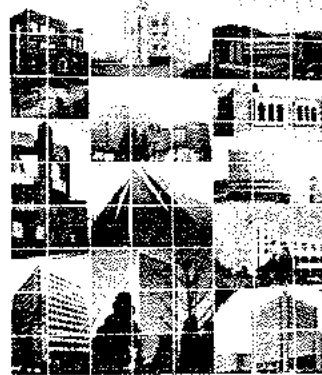
會員作品 / 서울신학은행기숙사및체육관: 公日坤 / 극동도시가스: 朴商浩 / 동수원모텔: 鄭求榮 / D 빌딩: (주)우일건축연구소 / 삼연빌딩: 鄭德熙 / 새마을교통회관: 朴遠泰 / 의로법인시흥병원: 金英熙 / 전남체육회관: (공간연구소) / 배화빌딩: 鄭時春 / 金忠顯 /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姜錫元 / 호서대학학생회관: 姜哲求 / 고려대학교정문내설: 李丞雨

論文·其他 / 담장과건축: 李康植 / 도시환경의창조를위해서: 朴炳柱 / 한국의지진위험과속도지도와耐震설계에관한小考: 李利衡 / 金昭九 / 한국의건축의례와賦役夫人의비화: 崔常壽 / / 보은의삼년산성: 申榮熙 / 인

테리어디자인의실제(VII): 連載: 朴 弘 / 포스트모더니즘의선구자들(II): 連載: 手잔스티븐스 / 건축계획과컴퓨터(I): 連載: (자료: 설계의컴퓨터수법) / 소형주택및근린생활시설의給排水위생설비: 柳東烈 / 排煙설비(Smoke Exhaust System)概論: 李承九 / 각국의신체장애자를위한건축기준

建築士

1983.4



5

會員作品 / 광주교육대학교학관: 金泰萬 / 하나로빌딩: 車東明 / 학교법인동강학원학생회관: 柳然旭 / 근로청소년회관: 金孝一 / 에바다농아원PHASE·I: 俞在元 / 에인젤호텔: 崔榮石 / 대농마을L 씨주택: 崔勝元 / 충주현대시장: 尹榮在 / 대구시유·검도장: 林門基 / 구미시청사: 李 盛

論文·其他 / “민족의장”을우리손으로...: 朴商浩 / 건축을구상하면서무엇을생각하게되는가?: 元正洙 / “건축문화일단론·序”: 朴英浩 / 석굴암의전설: 申榮熙 / 인테리어디자인의실제(VIII): 連載: 朴 弘 / 포스트모더니즘의선구자들(完): 連載: 手잔스티븐스 / 도형의수직화와수지의도형화(II): 連載: (자료: 설계의컴퓨터수법) / 소형주택및근린생활시설에대한난방및냉난방시설비연구: 李永洙 / 부대설비(전기·가계)의설계도시작성요령: 최원오 / 도시재개발사업현황 / 외국의도시재개발: 朱鍾元

6

會員作品 / 중소기업경영·기술연구원: 韓鍾彦 / 함지막: 金琪碩 / 대성산업중앙연구소: 李弦東 / 원효로의원: 金錫澈 / 서울파리스호텔: 宋基德 / 배제대학: 洪哲洙

論文·其他 / 최후에남는것...

‘건축’: 朴商浩 / 우리의주택: 金文圭 / 경사지의합리적이용과개발: 金正湜 / 범주사팔상전사리장치: 申榮熙 / 인테리어디자인의실제(IX): 連載: 朴 弘 / 모더니스트의건축은왜연목을잃었는가?: 폴골드버그 / 도형을제산한다: 連載: (자료: 설계의컴퓨터수법에서) / / 건물의부위별성능및설비기준(안) I: 한국동력자원연구소 / 오수정화시설의설계를위한해설: 劉永培 / 라틴아메리카의풍물과건축(I): 金榮洙

7

會員作品 / 本會新築會館懸賞設計入賞作紙上紹介: 송광섭 / 김기웅 / 이영희 / 김무영 · 최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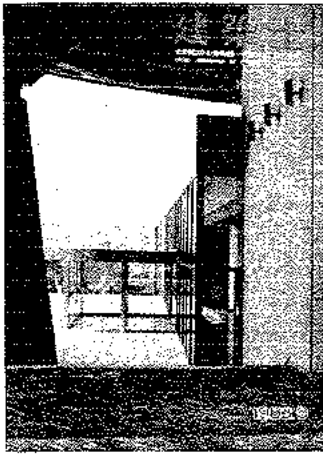
論文·其他 / 건축분야제도개선책과우리의자세: 金基勝 / 각씨바위절: 申榮熙 / 인테리어디자인의실제: 朴 弘 / 병원의공기조화설비: 孫章烈 / 소형주택및근린생활시설의난방설비: 柳東烈 / 서울의도심재개발사업: 宋英燮 / 건물의부위별성능및설비기준(안) II / 중동지역에있어서건물의지진위험: 朴允守 / 설계의컴퓨터수법: 連載 / 서울有感: 閔賢植 / 라틴아메리카의풍물과건축(II): 金榮洙 / 과거를있는가교동창회관: Hugh Newell Jacobsen

8

特輯 / '83會員建築設計作品展入賞作紙上発表

會員作品 / 육군박물관: 金重業 / 근로청소년회관: 金孝一 / 한국은행인천지점: 金正澈 / 한미수교1백주년기념탑: 姜錫元 / 경동교회: 金壽根 / 삼성동H 씨대: 宋光燮 / 동강학원: 柳然旭 / 외환은행합숙소: 李永熙 / 대화요양: 李龍欽 / 삼익유치원: 林八岩 / 구인사사천왕문: 張起仁

論文·其他 / “부조리근절없이건축문화발전안배”: 金枝泰 / 이산가족찾기와 건축물의호칭: 崔昌奎 / 史蹟이된瀾瀾園: 申榮熙 / 라틴아메리카의풍물과건축(完): 金榮洙 / 초기한국성당건축의토착화에관한연구: 金正新 / ROBERT VENTURI의건축이론과현대건축비평: 晉正 / 자연공원내에서의시설물의디자인에관한연구: 張泰賢 / 건물의부위별성능및설비기준(안) III / 설계의컴퓨터수법(完)



9

特輯 / 會員住宅設計作品

會員作品 / 3세대를위한집 : 吳澤吉 / 망원동연립주택 : 徐鎮宇 / 청담동L 씨주택 : 劉圭成 / 주말주택 : 金琪碩 / 서초동Y 씨주택 : 宋光燮 / 명륜동L 씨주택 : 李永熙 · 李錫文 / K 씨주택 : 鄭求殷 / K 씨주택 : 金仁錫 / 과천

김서주택 : 鄭時春 / J 씨주택 : 金文圭 / 이씨주택 : 俞景哲 / 신사동B 씨주택 : 林東潤 / K 씨주택 : 金漢一 / 박사장택 · 성북동 : 金壽根

論文 · 其他 / “공동주택의철저한예방점검과계획수선으로 : 朴商浩 / 돌각담 : 申榮勲 / 창덕궁嘉靖堂 : 김두현 / 한국의전통마을 - 河回 : 자료 · 박용환건축계획연구실 / 도시근린주민시설현황에대한주민의사에관한조사연구 : 姜健熙 / “건축문화일반론 · 序II : 박영호 / 도시재개발에대해 : 安秉義 / 건물의부위별성능및설비기준(안)(完) : 자료 · 에너지연구분과 / 설계의컴퓨터수법 / 국산내장재의가스有害性 : 張基昌 / 건축공사시방서작성요령 : 최원오 / 서울유감 · 2 : 閔賢植 / ‘작품’을남긴다는 ‘승고한사명감’ 필요

10

特輯 / 都市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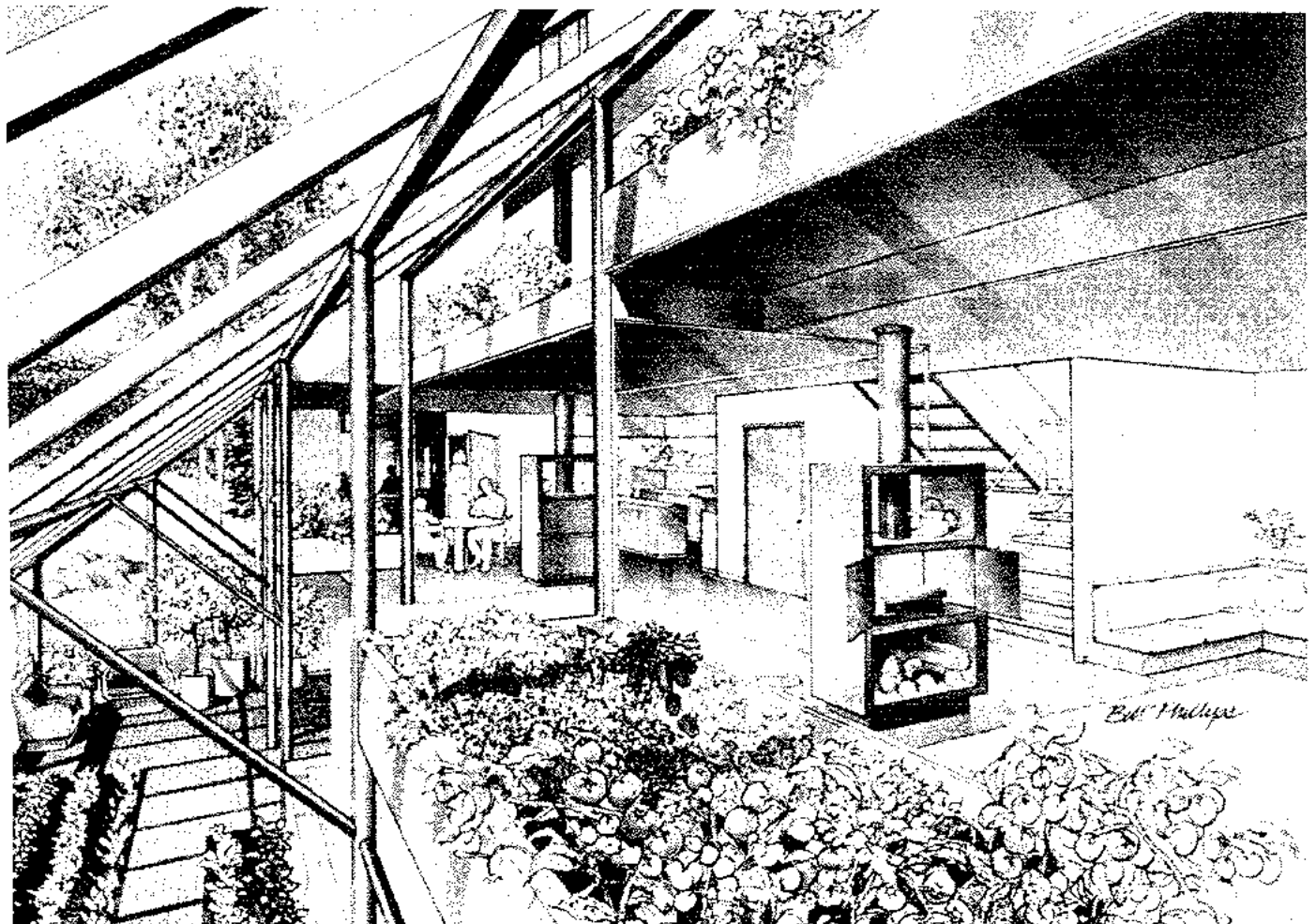
會員作品 / 삼천리산업(주) 본사사옥 : 尹承重 · 卞鎔 / 서울화랑 : 金文圭 / 잠랑감리교회 : 金忠鎭 · 姜幸錫 / 제일은행부민동지점 : 金基雄 · 朴英健 / 에너지관리공단빌딩 : 李珏杓 · 金仁植 · 鄭德薰

論文 · 其他 / “건축양식과 전통” : 崔昌奎 / 도시재개발에따른문제점과개선책 : 尹定燮 / 도시재개발사업의합리적인시행방안 : 連載I : 盧權熙 / 도시환경에서본건축과조경 : 李揆穆 / 전통건축의유산 : 金東賢 / 淸安東軒 : 朴泰壽 / 건축과빛 : 金起煥 / 건축의컴퓨터응용 : 連載I : 曹鐵鎬 / 설계조직의정보관리 / 콘크리트강도추정을위한비파괴시험법에관한小考 : 吳昌熙 · 李利衡 · 徐致煥 / 인테리어디자인의원리(상) : 連載I : 趙聖烈 / ‘자율정화에적극알장’ / 성인교육 · 건축사연수교육에부치면서 : 元正洙

11

特輯 / 獨立紀念館懸賞設計當選作紙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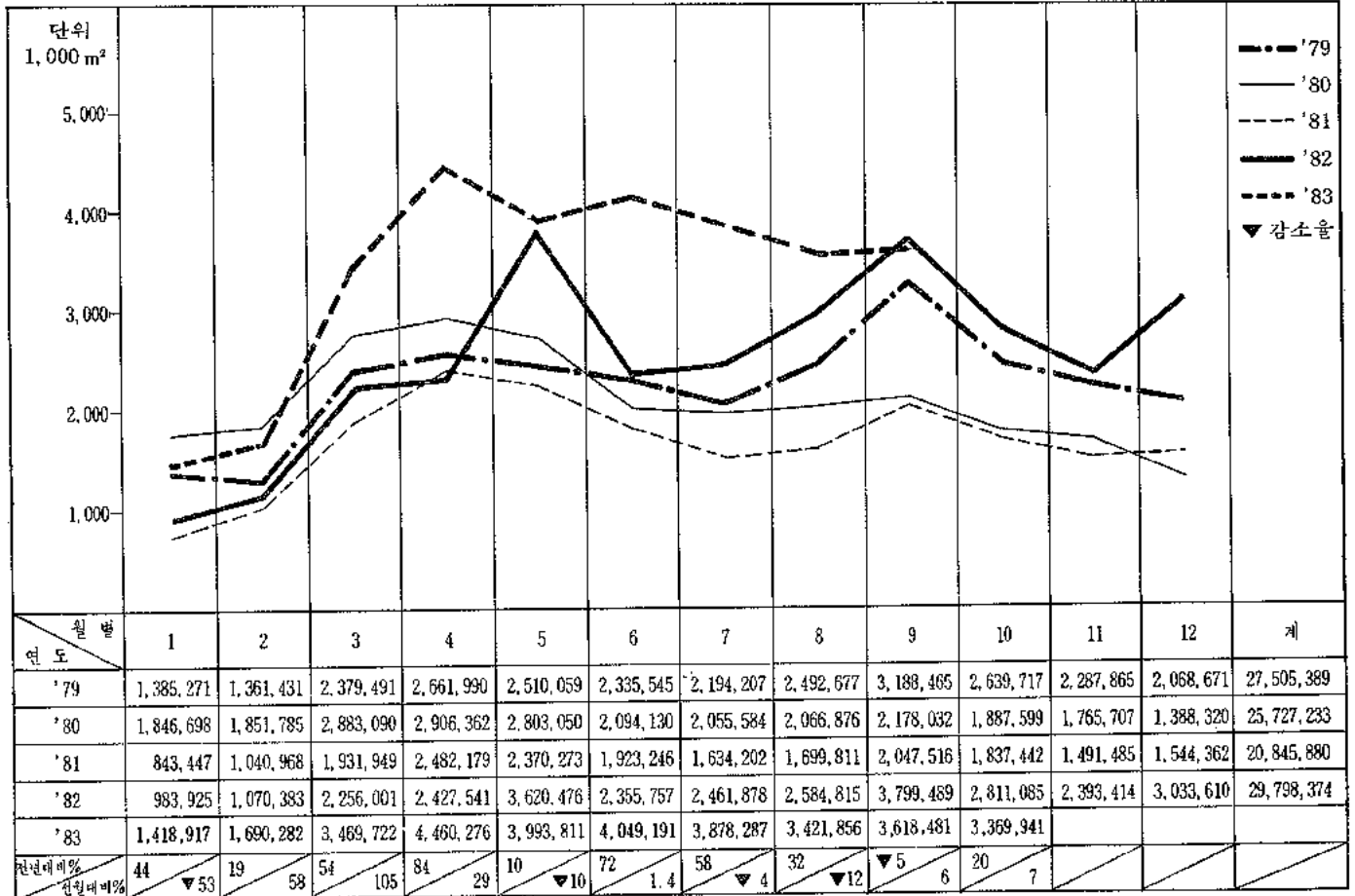
會員作品 / 한일은행동래지점 : 尹錫祐 / 김중희씨택 : 公日坤 / 이태원동L 씨주택 : 金鍾浩 / 동수원병원 : 金錫澈 / 서울대학교제2기숙사 : 趙東榮
論文 · 其他 / “사회로부터신뢰와존경의대상이되도록책임다해야...” : 金枝泰 / 도시재개발사업의합리적인시행방안 : 連載II : 盧權熙 / 서울도심부재개발 : 朱鍾元 / 한국건축의조형 : 金東賢 / 백계탑의복원 : 姜奉辰 / 빛의匠人들 : 連載I : 金起煥 / 건축의컴퓨터응용 · 컴퓨터에 의한투시도작도 : 連載II : 曹鐵鎬 / 인테리어디자인의원리(하) : 連載II : 趙聖烈 / 커다란공원의어느작은구석그런이야기 : 金琪碩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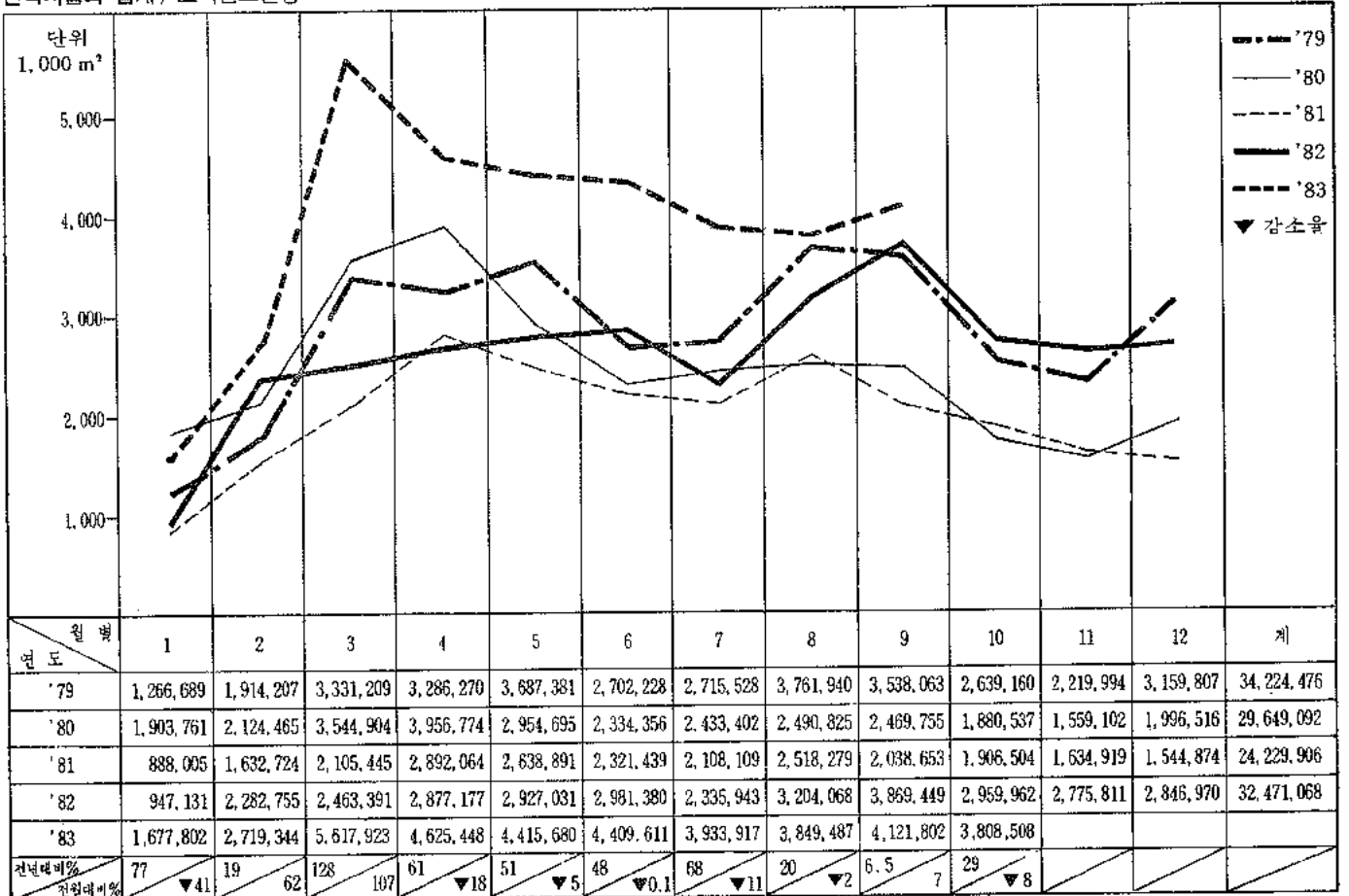
건설부 집계 / 건축허가현황

(83. 10월말 현재)



건축사협회 집계 / 도서신고현황

(83. 10월말 현재)



會員動靜

□ 서울지부=△백영기회원
/조원건축/강남구신사 528
-4/543-4439

△오백길회원/건축연구소장/중구
장충동2가 188-8/269-0164

△박수길회원/한성건축/강남구역
삼동703-2/567-0660

△원명회회원/명건축연구소/강남
구삼성동1-4/567-3456

△이조원회원/서기건축설계사무소
/중구수표동47-6/266-4267

△심용치회원/서원건축/강남구논
현동129-5/555-2469

△조민행회원/삼건축/강동구성내
동320-17/477-3155

△송광섭회원/환건축/강남구방배
동924-19/583-1941

△조중연회원/환건축/강남구방배
동924-19/583-1941

△윤석범회원/상우건축/영등포구
신길동478/833-7866

△이창섭회원/남부종합건축/강남
구삼성동8-1/557-4349

△최창영회원/고려건축/강서구화
곡동987-34/602-1581

△김영찬회원/도화건축/강동구잠
실동242-11/414-3847

△김배격회원/대림건축/성동구성
수2가299-216/462-0218

△정재원회원/라이온건축/강남구
삼성동116/567-7827

△이규창회원/주.우일건축/영등
포구여의도동24/783-4451

△주영백회원/주.우일건축/영등
포구여의도동24/783-4451

△방의재회원/주.우일건축/영등
포구여의도동24/783-4451

△이준구회원/대양종합건축/관악
구봉천동852-2/877-5731

△조승제회원/동우엔지니어링/마
포구방원동482-8/324-8497

△신명수회원/주.미광건축/중구
충무로1가24-23/776-8870

△양대원회원/고려건축엔지니어링

/도봉구수유동174-29/902-3451

△장동식회원/세방건축/강남구논
현동90-1/543-0092

△유원재회원/법건축/강남구반포
동81-1/567-5348

△이세훈회원/이세훈건축/관악구
봉천4동862-9/877-1550

△손동희회원/일우종합연구소/강
남구논현동142-1/567-2151

△신재석회원/일우종합연구소/강
남구논현동142-1/566-5310

△김중우회원/현진건축/강동구성
내동318-4/478-4659

△노병용회원/한용종합건축/중구
쌍림동146-1/269-9231

△최용덕회원/한용종합건축/중구
쌍림동146-1/261-5365

△김병일회원/서울건축/강서구신
정동1031-5/602-3086

△김규태회원/예일건축/강남구삼
성동1번지/567-8998

△오용근회원/예진건축/강남구논
현동242-30/555-6352

△유순규회원/삼미종합건축/강서
구화곡동987-7/694-5299

△김관풍회원/삼미종합건축/강서
구논현동987-7/694-5299

△박창호회원/서일건축/성동구구
의동246-3/445-3280

△한능순회원/한은건축/구로구구
로동805-2/864-7305

△노재일회원/제일종합건축/강남
구논현동242-30/567-6711

△임종열회원/태평건축/강남구담
동44-15/544-5359

△임상익회원/삼양건축환경연구소
/성동구구의동252-109/445-2151

△김점희회원/주.교우건축/영등
포구당산6가340-4/634-3961

△오수영회원/주.교우건축/영등
포구당산6가340-4/634-3961

△전태중회원/주.교우건축/영등
포구당산6가340-4/634-3961

△조남규회원/조건축/강남구삼성

동44-15/568-0079

△이종억회원/용일건축/강남구논
현동241-2/567-8343

△김종호회원/동일건축/강동구풍
납동402-4/476-2247

△김인곤회원/주.동일건축/강남
구논현동241-6/566-0737

△조정상회원/요셉건축/강남구논
현동254-4/566-1703

△김종호회원/신라건축/용산구원
효로1가53-17/712-1805

△임도생회원/구성건축/성동구구
의동246-3/447-4662

△조한용회원/태우건축/강동구성
내동318-4/478-0847

△박만수회원/삼풍동서건축/영등
포구여의도44-13/783-8348

△김용정회원/삼풍동서건축/영등
포구여의도44-13/783-8348

△임경모회원/남성건축/강남구논
현동241-2/567-0775

△김영수회원/대산건축/강남구역
삼동735-5/568-4358

△구태수회원/강남합동설계사무소
/강남구논현동242-30/562-9359

△방요효회원/강남합동설계사무소
/강남구논현동242-30/567-0995

△이강범회원/강남합동설계사무소
/강남구논현동242-30/567-7892

△장석웅회원/아도무건축/강남구
서초동767-3/583-8553

□ 경북지부=△최병창회원/신도
건축/예천군예천읍동본동512-1/
3335

△전한권회원/제철엔지니어링(주)
/포항시괴동동568/72-5651

□ 대구지부=△김재수회원/영남
건축/중구삼덕1가55-47/46-4434

△이병일회원/극동한국종합건축/
중구덕산동127-10/45-4293

△윤영도회원/극동한국종합건축/
중구덕산동127-10/45-6328

□ 부산지부= △심종세·서용운회
원 / 남도건축설계 / 동래구수안동593/
552-2079·54-3402

△윤영명회원 / 성일건축 / 동래구수
안동593 / 53-7079·552-3820

△표재찬회원 / 유일건축 / 동래구수
안동593 / 53-2832

△이한식회원 / 구도건축 / 동래구북
천동380-10 / 53-1400

△박종석회원 / 신안건축 / 동래구명
륜동172-25 / 54-2608

△심죽남회원 / 아성건축 / 북구구포
2동1186-23 / 332-4605

△정병화회원 / 내건축 / 중구중앙동
2가49 / 23-8910

△이원옥·박기조회원 / 현대백양건
축 / 동래구북천동369 / 552-1500
4524

△고형일건축 / 태양건축 / 동래구수
안동497-3 / 54-0561

△손한중회원 / 성미남원건축 / 동래
구수안동221 / 552-1988

△변규택회원 / 성미남원건축 / 동래
구수안동221 / 552-1988

△김덕부회원 / 새부산건축 / 북구구

포동1186-27 / 332-2862

△강우석회원 / 동래건축 / 북구구포
동1186-22 / 332-8581

△정승창회원 / 유림건축 / 중구중앙
동2가46 / 23-0276

△성훈섭회원 / 도성공간합동건축 /
중구동광동1가5 / 22-1213

△최행웅회원 / 도성공간합동건축 /
중구동광동1가5 / 22-9924

△조태승회원 / 천우건축 / 중구대창
동1가23-2 / 462-6243

△김중문회원 / 신생광명종합건축 /
부산진구부전동401-23 / 89-6009

△임채광회원 / 신생광명종합건축 /
부산진구부전동401-23 / 804-4600

△최경은회원 / 락희건축 / 부산진구
부전동401-30 / 88-9661

□ 경기지부=△이재덕회원
/ 영식결혼 / 가든예식장/11
26일

□ 부산지부= △권경옥회원 / 영애
결혼 / 서라벌호텔 / 11. 10

△한기종회원 / 영식결혼 / 서울반포
성당 / 11. 19일

□ 서울지부= △이해성회원 / 3녀
결혼 / 그랜드예식장 / 10. 29일

△김학호회원 / 장남결혼 / 천주교만
포성당 / 11. 18일

△이춘상회원 / 장녀결혼 / 천도교예
식장 / 11. 26일

△김원모회원 / 장녀결혼 / 한성예식
장 / 11. 27일

△이규복회원 / 차남결혼 / 영빈예식
장 / 11. 27일

□ 부산지부=△강영기회원
/ 화집연 / 자택 / 11. 20일

□ 서울지부= △정병옥회원 / 모친
수연 / 동양회관 / 11. 10일

□ 경기지부=△민병휘회원
/ 동수원병원 / 11. 3일

□ 경기지부=△권태량회원
/ 부친별세 / 자택 / 11. 16일

□ 서울지부= △한선복회원 / 부친
별세 / 자택 / 11. 9일

△김지덕회원 / 부친별세 / 자택 / 13
일



□ 한해에 열두번 밖에 못만들면서
골백번을 곱셈어야 하는 작업이 한권
책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대
단히 잘해야 약간 밀지는 일이기도하
다. 지난 열한번을 헤아려 보고 마
지막 열두번째 마무리를 위해 더욱
분주해진다. 〈用〉

□ 또 한해가 이운다. 해마다 그러
하듯이 부끄러움으로만 남은 연말정
산이기에 뻔뻔스름을 무릅쓰고 또하
나의 비약을 위해 꿈을 꾸다. 올 한
해의 건축계 회고를 특집으로 다루면
서, 원고 속의 반성·바람들이 연례
행사로서 그치고 마는 말장난이 안
되기를 빌어본다. 〈京〉

□ 아침으로 이어지는 어두움은 밤
의 끝이라기 보다는 새날의 시작으로
더욱 희망차다. 열두번째의 수선스름
으로 한해의 마지막호를 만들면서 특
집으로 꾸며보는 한해를 회고하는 감
회 또한 진보적인 새해를 맞이하려

는 마음의 준비로 더욱 소중하리라
믿는다. 송년회니 망년회니 이러한것
들은 그만두자. 오히려 신년 축하회
가 더욱 좋지 않을까!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송이 마냥 경
쾌하다. 〈基〉

□ 1983년이 저물어 간다.

그리고 삶의 한 부분도 저물어 가
고 있다.

또 한해를 보내며 문득 생각나는
귀절.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
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宙〉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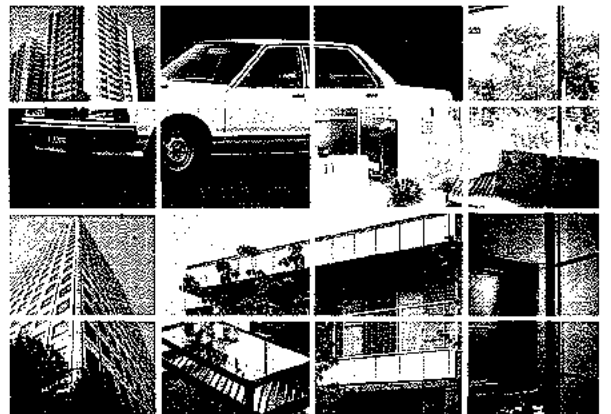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製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품특성

두께 (%)	특성					열전달률 Kcal m ² hr°C
	가시광선 (%)	투과율 (%)	반사율 (%)	흡수율 (%)	반사율 (%)	
3	90.1	8.0	2.4	84.9	2.7	5.88
5	89.1	7.9	11.5	81.1	2.4	5.78
6	88.6	7.9	13.5	79.3	2.2	5.75
8	87.6	7.8	17.2	75.8	2.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8.6	6.6	5.46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 (mm)	길이×폭 (mm)	길이×폭 (inch)
3	2438×1220	96×48
5	3048×2134	120×84
6	3048×2438	120×96
8, 10	4380×3048	330×120
12, 15, 19	4380×3048	330×120

※ 15mm이상의 유리제품은 수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783-0311·0911·3711·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색깔로 구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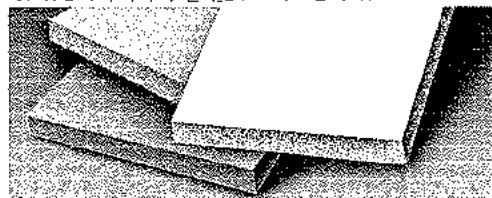
한남스치로폴의 청색·녹색은 단열재, 백색은 포장재로 사용됩니다.

스티렌계 수지를 개발해온 한남화학의 스킨로폴은 건축용 단열재와 일반포장재로 구별해서 판매됩니다. 그러므로 용도에 따라 청색·녹색은 건축용으로, 백색은 포장용으로 사용하십시오.

또한 건축용 단열재로 쓰이는 청색, 녹색의 스킨로폴에는 각각 KS 표시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보증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1. 외부와의 단열효과가 뛰어나 주택내부를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해주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2. 연료비가 대폭 절감됩니다.
3. 운반과 절단이 용이하므로 시공하기에 편리합니다.

4. 화제시 스스로 소화 되는 자기소화성입니다.
5. 습기나 물기를 흡수하지 않고 차단시킵니다.
6. 한남화학의 우수한 원료로 제조됩니다.



한남스치로폴

스티렌계 합성수지 종합메이커
한남화학주식회사
본사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6-48 TEL. 254-1171~5
분장 : 경남 울산시 남구동 45-25 TEL. 73-1141~5

● 서울영업소 ☎ 783-5000~6 ● 부산영업소 ☎ 863-3121~4 ● 대구영업소 ☎ 32-0193, 8267 ● 광주영업소 ☎ 362-6856~7 ● 대전영업소 ☎ 72-5101